

대한민국  
국가미래교육전략

## 대한민국 국가미래교육전략

1판 1쇄 인쇄 2017. 1. 4.

1판 1쇄 발행 2017. 1. 11.

지은이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발행인 김강유

편집 임지숙 | 디자인 조명이

발행처 김영사

등록 1979년 5월 17일(제406-2003-036호)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97(문발동) 우편번호 10881

전화 마케팅부 031)955-3100, 편집부 031)955-3250 | 팩스 031)955-3111

저작권자 ©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2017

이 책의 저작권은 위와 같습니다.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허락없이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ISBN 978-89-349-7689-9 03370

독자 의견 전화 031)955-3200

홈페이지 [www.gimmyoung.com](http://www.gimmyoung.com) 카페 [cafe.naver.com/gimmyoung](http://cafe.naver.com/gimmyoung)

페이스북 [facebook.com/gybooks](https://www.facebook.com/gybooks) 이메일 [bestbook@gimmyoung.com](mailto:bestbook@gimmyoung.com)

좋은 독자가 좋은 책을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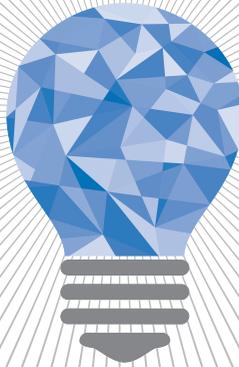
김영사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 CIP2016031901)

새 교육 패러다임 수용성 교육 중심으로

# 대한민국 국가미래교육전략

Korea National Future Education Strategy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지음

김영사

## 발간사

### 이광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을 보면 어두운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뿐이 아닐 것이다. 인공지능 사회가 밀려오는데 구시대의 암기교육이 강요되고 있으며, 많은 중고등학교 교실에 가보면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은 2014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히 교육 전략은 심층연구를 하여 별도의 책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015년 5월 강성모 총장님의 승인을 받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 ‘미래교육연구위원회’를 설치했다.

미래교육연구위원회는 거창하고 그럴듯한 교육이론이나 당위성에 입각한 이상론을 피하고자 했다. 연평도와 해남의 선생님들이 직접 와서 목소리를 높여 ‘수용성 교육’의 생생한 경험을 소개했다. 실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었다.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 감동과 희망을 담아 이 책이 만들어졌다.

헌신과 사랑으로 연구에 참여해주신 전문가들께 감사드린다. 여기 소개하는 내용이 널리 알려져,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연구를 이끌어주신 원동연 위원장님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 추천사

### 유성엽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대한민국이 지금의 국제적 위상을 갖게 된 근저에는 훌륭한 교육열이 있었다. 평등한 교육과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한 것이 국가경쟁력의 토대였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교육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기제로 변질되었고 사회적 계층 이동의 유일한 통로였던 교육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더 이상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저할 여유가 없다. 배움에 대한 갈망만으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교육의 본 모습을 되찾고,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본 연구보고서는 심도 있는 고민과 성찰을 통해 ‘수용성 교육’이라는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했다. 특히 미래인재의 핵심역량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어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수용성 교육이 실천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용성 교육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혁신 방안, 한민족교육공동체 구축 방안 등의 다양한 교육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다.

이 교육 전략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교육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의 요람이 될 것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교육이 다시금 그 중심에 서야 할 때다. 국가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대에 우리는 본 보고서를 통해 큰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세연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교육으로 일어난 나라가 이제는 교육 때문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자조가 넘쳐나는 오늘, 기존 교육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이렇게 접하게 되니 반갑고도 통쾌한 심정이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모두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열정과 집념으로 준비해주신 원동연 이사장님을 비롯한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한다.

제4차 산업혁명 등 기존의 사회와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될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해볼 때, 교육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전인격적 인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수용성을 회복하여 미래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수용성 교육을 구축하고, 오랫동안 교육 현장 적용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본 연구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곡될 대로 왜곡된 교육체제를 지금부터라도 ‘수용성 교육’ 방법론에 기초하여 혁신해낸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모두가 행복한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 문용린

前 교육부 장관

이 책은 두 가지 의미에서 반갑다. 첫째는 과학 만능주의에 취해 있을 법한 KAIST 연구진들이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의 일반교육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고, 국가미래 원동력의 큰 축의 단서를 거기서 찾고 있다는 반가움이고, 둘째는 KAIST 주변의 전문가 중심의 교육 전략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기대 이상으로 넓고, 다양한 전문가들 간의 협업체제를 구축해 미래교육 전략을 구성하고자 노력했다는 반가움이다.

버나드 베일린(Bernard Bailyn) 교수와 오천석 박사는 그들이 집필한 책을 통해 현재의 국가나 사회의 모습은 과거 교육의 결과물이며, 장차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의 국가나 사회 모습도 결국 현재 교육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미래교육전략》은 현재의 한국을 조성해낸 교육의 역할을 회고적으로 전망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고수할 것은 고수하되, 전혀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데도 두려움을 갖지 말고 과감하게, 혁신적인 미래교육 전략을 세우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책에 실린 아이디어나 정책 그리고 철학에 대한 논의가 독자 체현 사이에 심도 있게 오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성공 여부를 가리는 지표일 것이다.

##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

우리는 문명사적 대전환기 앞에 서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예고하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미래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와 있으며 그 미래가 가져올 변화의 폭은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할 것이다. 다음 세대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산업구조의 재편을 유발하며, 그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노동 형태의 변화는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그 세대와 함께 살아갈 지금의 기성세대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의 핵심주제인 ‘수용성 교육’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모순을 해결하고 미래사회를 헤쳐나갈 수 있는 처방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수용성 회복은 무너진 공교육 현장을 복원하는 첫걸음이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들이 주체성을 갖고 교육에 임하며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할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다양한 실무 사례와 실천 방안을 통해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체화해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가정교육, 시니어교육, 통일교육 등,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회의 커다란 화두로 등장할 주제들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준비 사항도 정확하게 짚고 있다. 이 안에 담긴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각급 교육 현장에 적용돼 더 나은 미래를 움트게 하는 밑알이 되기를 바란다.

## 장순홍

한동대학교 총장

《대한민국 국가미래교육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교육 발전과 다음 세대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자들의 열정과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 아울러 문제발견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앞으로 도래하는 시대에는, 이미 해결된 문제에 대한 방법을 암기만 하는 교육으로는 참된 창조적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우리 주변의 문제, 지역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 창조력 있는 인재의 역량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이런 인재 양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원동연 박사가 다섯 가지 영역으로 정리한 수용성 교육은 한동대학교의 모토인 “Why Not Change the World?”와 일맥상통한다. 공부해서 입신양명하는 데에만 전력하기보다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따뜻한 인재, 글로벌 마인드와 세계시민 의식이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이런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본 연구보고서가 큰 기여를 하리라 기대한다.

### 연구보고서 참여자

고문	김경동(서울대 명예교수), 문용린(前 교육부 장관, 서울대 명예교수)
위원장	원동연(국제교육문화교류기구 이사장)
편집위원	이광형(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박남기(前 광주교대 총장, 교수), 박세정(HQ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이호원(DGA 교장), 원동진(IECCO 실장), 오윤경(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채덕자(백령도 북포초 교감)
위원	윤덕민(국립외교원 원장), 함진호(ETRI 연구위원), 이상오(연세대 교수), 송재신(前 전북교육청 초등교육국장), 이규연(JTBC 국장), 이해동(제리테크 대표이사), 이본수(前 인하대 총장), 소강춘(전주대 대학원장), 정금자(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제형(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승률(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 임만성(KAIST 교수), 이대우(C&L홀딩스 대표), 노영상(호남신학대 총장), 박성주(KAIST 경영공학부 교수), 천주욱(前 CJ주식회사 대표), 권경현(前 교보생명 대표), 김재호(부산대 전자공학과 교수), 주병대(前 SBS PD), 이강년(대전대신고 이사장), 박기련(한남대 교수), 박관민(한국드론협회 회장), 강형석(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이원철(前 한남대 총장)
실행위원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윤덕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만성(한국문화영상고 교감), 임경호(자유시민대학 학장), 이용식(서울시교육청 장학관), 안정현(前 부산대 교수), 송태신(前 칠보초 교장), 신대정(해남서초 교장), 김병문(연평고 교장), 이선필(칠성중 교장), 서상완(노일중 교장), 권오문(몽골국제대 총장), 김완호(원광보건대 교수), 고창용(영도중 교장), 장병용(유락중 교사), 이경렬(성지고 교사), 이옥련(거학초 수석교사), 박신애(경희유치원 원장), 이연숙(벤티엘유치원 원장),

김동만(중국연변과학기술대 교수), 이창기(탄자니아연합대 부총장), 김길현(캄보디아왕립대 교수), 황희영(영산대 교수), 김의원(前 총신대 총장), 윤완철(KAIST 교수), 김영권(건양대 학장), 유신일(고신대 교수), 이옥주(공주여고 교장), 정연희(국민대 교수), 이한진(한동대 교수), 김기태(IECCO 이사), 유동준(IECCO 위원), 이일주(삼성전자), 박창신(AFDE 연구위원), 정상훈(목원대 교수), 민성아(한동대 교수), 정종진(한남대 교수), 이명희(삼봉초 교사), 정순임(안양벌말초 교사), 서재덕(모락중 교사), 조성표(경북대 교수), 김승욱(중앙대 교수), 제양규(한동대 교수), 이동엽(참포도나무병원 병원장), 이종숙(중앙초 교장), 이명분(경인교대부설초 교장), 이인희(前 대구교육연수원 원장), 김진선(연서중 교장), 박영주(샘물학교 교장), 신은주(군산간호대 교수), 김병채(前 광주제일고 교장), 노이경(청강문화산업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홍정근(장신대 겸임교수), 이성현(알마티 DGA 교장), 강수욱(5차원전면교육협회 교원연수원장), 백남렬(前 신평초 교장), 조재현(벨국제학교 교감), 신형수(세인고 교장)

실무위원  
 임소영(동두천중 교사), 이민휘(DGA 교사), 박상희(상대원초 교사), 백예지(DGA 교사), 박은희(북평여중 교사), 한연숙(한국문화영상고 교사), 이지연(서울사대부초 교사), 김효정(밀양교육청 교사), 원유정(동두천중 교사), 이진영(굴포초 교사), 김하운(수유중 교사), 김광수(AFDE 실장), 한성규(AFDE 연구위원), 김난희(AFDE 연구위원), 허영주(IECCO 연구원), 김윤경(동두천여중 교사), 김완희(대천초 수석교사), 이효숙(동원초 수석교사), 광지순(소양초 교사), 이영인(굴현초 교사), 정인숙(부원초 교사), 황보희(부곡초 교사), 이미애(평문고 교사), 노승규(삼목초 교사), 윤혜숙(산곡남초 교사), 신흥엽(경인교대부초 강사), 정은경(진산초 교사), 정희순(AFDE 연구위원)

## 책을 내면서

2014년 1월 정문술 전 KAIST 이사장은 215억 원의 사재를 KAIST 문술 미래전략대학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면서 국가의 미래 전략 연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그해 4월부터 약 100여 명의 연구자와 초안 집필자, 검토자들이 참여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보고서의 중심 비전은 '아시아 평화 중심 창조국가'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국가 미래 전략의 시간적 개념을 30년으로 설정했으며, 매년 30년 후를 대비하는 이 보고서를 수정 보완해서 발간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세 권의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2015, 2016, 2017)이 발간되었다.

하지만 정치, 경제, 외교 등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미래 전략을 세웠다고 해도, 그 전략이 모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어떤 사람이 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 전략을 성공시킬 능력을 가진 인력을 양성할 고도의 교육 전략이 세워

져야만 한다. 모든 전략이 다 중요하지만, 교육 전략은 다른 전략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기반 요인이 된다.

따라서 KAIST는 ‘미래교육연구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 미래 전략을 성공시킬 고도의 인적자원을 길러낼 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국가미래교육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2015년 5월 창립 후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29명의 위원, 그리고 교육 현장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50여 명의 실행위원들이 영입되었다. 이후 5회의 통합위원회, 8회의 국가전략보고회, 1회의 광복70주년기념 국가미래전략종합학술대회에서의 발표회, 그리고 각 분야별 소위원회가 수시로 개최되어, 2년에 가까운 기간의 노력 끝에 이번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연구보고서는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5》에서 제안한 ‘교육력’과 ‘미래인재상’,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6》에 제안된 ‘수용성 교육’을 기반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또한 KAIST가 제안한 사회, 기술, 환경, 정치, 경제, 인구, 자원의 7대 변수를 근간으로 미래사회를 예측해보고 이를 근거로 교육 전략을 수립했다.

미래교육 전략은 한 시대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회성의 교육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속적이고 본질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실제 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을 길러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수용성 교육 25 커리큘럼’을 제시했으며, 본 수용성 교육은 ‘전인격적 인성교육’에 기반을 두고 실시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인성교육의 기준으로 본질성, 유기체성, 변화성, 탁월성, 극복성을 제시하여 향후 인성교육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므로 미래세대의 행복교육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수용성 교육이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력 교육교과, 심력 교육교과, 체력 교육교과, 자기관리 능력 교육교과, 그리고 인간관계 능력 교육교과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창조적 지성, 바른 세계관, 전면적 인성, 융합적 의식, 그리고 글로벌 의식을 가진 미래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미래의 새로운 변혁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통전적 능력을 갖춘 사람을 양성해야 한다. 그래서 수용성 교육을 통해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전 생애에 사용될 수 있는 통전적 능력을 기르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교육과 공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의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한국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거쳐야만 하는 군대교육을 통해 국민교육으로서의 수용성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년 계층의 교육을 통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저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개개인에 따라 가정교육이나 공교육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도, 평생교육의 틀 안에서 전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은 수용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시 교육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미래세대에 직면하게 될 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내부 상황을 해결해나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대와 같은 글로벌 시대에서는 전 세계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고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이 필요하므로, 이를 길러줄 수 있는 세계시민 교육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750만이 넘는 재외동포들을 교육으로 묶는 한민족교육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교육공동체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 사회는 미래의 통일 시대를 대비할 통일교육체계를 갖추어야만 한다. 남북의 문제에는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벽을 넘어서야만 해결될 수 있는 요소가 잠재해 있다. 그러므로 이런 요소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통일교육 전략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언급한 통전적 평생교육, 세계시민 교육, 통일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들이 있다.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국가 전반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지난 60여 년의 교육 역사로 볼 때 매우 힘든 일이다. 지금까지 교육을 바꾸어보려는 많은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왔지만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교육의 각 주체들이 나름대로의 신념과 이론을 갖고 있는데, 자신과 다른 교육적 생각을 가진 그룹들이 생겨났을 때 이를 인정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던 점이 그 이유 중의 하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보고서에는 앞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온 다양한 전문가들의 고뇌와 열정을 기반으로 제시된 전략들이 수록되었다. 특별히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이광형 원장의 헌신적 수고가 이 연구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다. 본서의 전략들이 미래의 사회를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KAIST 미래교육연구위원회 위원장  
원동연



발간사...4  
추천사...5  
연구보고서 참여자...10  
책을 내면서...12

제1부

개요

1장 미래사회 연구검토...21  
2장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적자원의 속성...26  
1. 창조적 지성...27 2. 바른 세계관...29 3. 전면적  
인성...30 4. 융합적 의식...31 5. 글로벌 의식...32

제2부

해결  
과제

3장 수용성 교육...37  
1.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수용성 교육...37  
2. 수용성 교육의 근거...40  
4장 수용성 회복을 위한 전인격적 인성교육...43  
1. 수용성 회복을 위한 전인격적 인성교육체계...43  
2. 인성교육의 기준...46 3. 전인지수 측정도구...50  
5장 수용성 회복을 위한 교육교과...58  
1. 지력...59 2. 심력...66 3. 체력...70 4. 자기관  
리 능력...75 5. 인간관계 능력...79

제3부

미래  
교육의  
내용

- 6장 미래세대와 행복교육…85  
1. 미래세대의 행복…85 2. 행복교육의 핵심 과제…86
- 7장 미래교육의 핵심역량…90  
1. 창조적 지성을 위한 학문의 9단계…90 2. 바른 세계관 정립을 위한 독서치료…98 3. 전면적 인성을 위한 5차원 인성…102 4. 융합적 의식을 위한 융합수리…107 5. 글로벌 의식을 위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117

제4부

미래교육  
전략

- 8장 통전적 평생교육 전략…127  
1. 공교육…129 2. 가정교육…149 3. 군교육을 통한 국민교육…154 4. 사회교육…159 5. 시니어교육…165
- 9장 세계시민 교육 전략…171  
1. 세계시민 교육…171 2. 글로벌교육공동체…174
- 10장 통일교육 전략…180  
1. 통일교육…181 2. 남북교육교류기구…187  
3. 다문화가정 교육…197

부록: 국내외 수용성 교육 적용 결과…198

책을 마치며…220

참고문헌…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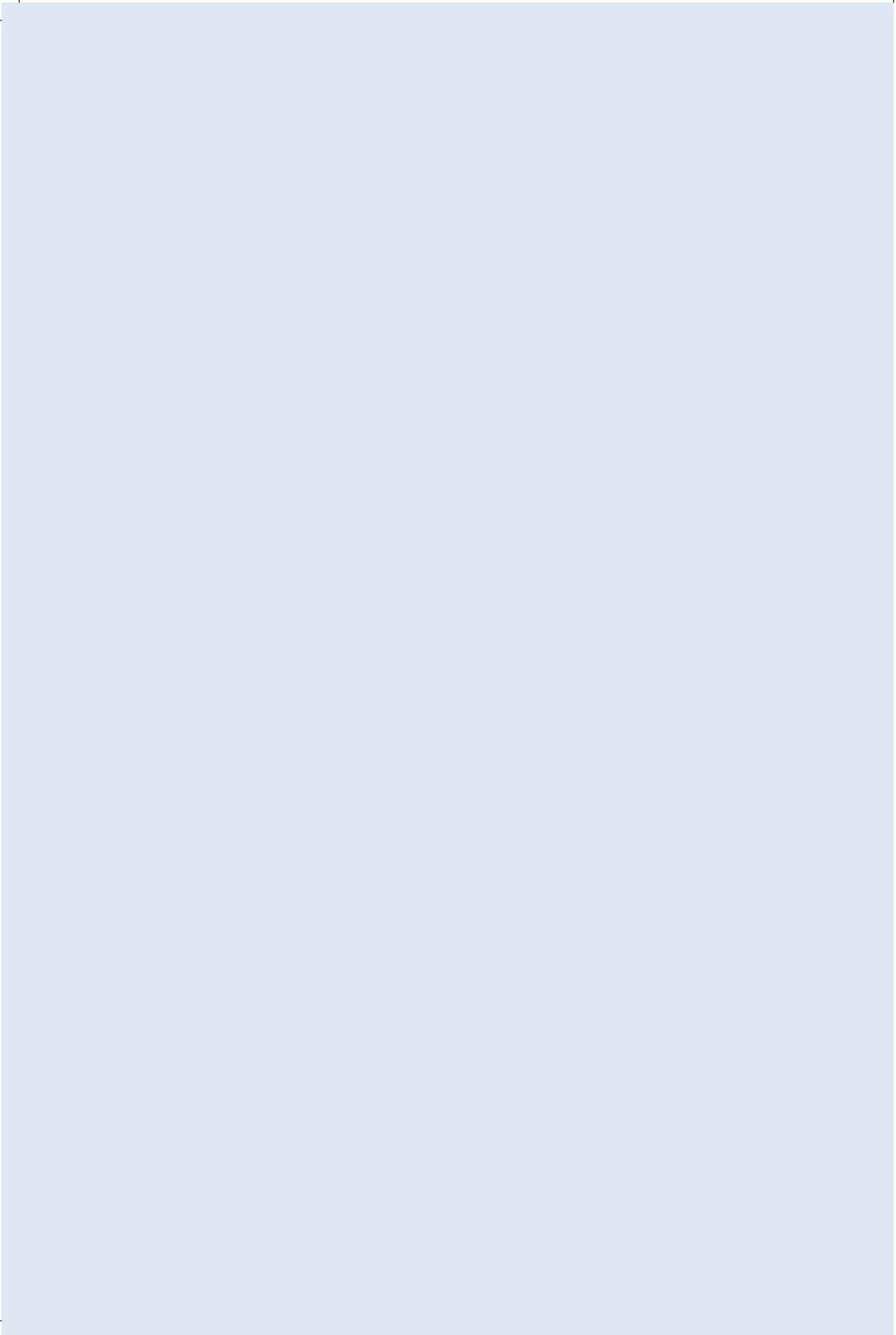
수용성 교육 관련 참고자료…226

국가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최고의 전략을 세웠다고 해도, 이 전략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어떤 사람이 이 전략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전략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 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력을 양성할 고도의 교육 전략이 우선적으로 세워져야 한다.



제1부

개요



## 미래사회 연구검토

미래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가를 분석했다. 이 분석을 통해 교육 문제의 근간이 되는 인적자원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살폈다. 그리고 이 같은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정립하고, 이 시스템이 미래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만드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사회를 결정할 요소로 KAIST에서 제안한 사회, 기술, 환경, 정치, 경제, 인구, 자원의 7대 변수를 근간으로 미래사회를 예측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전략을 수립했다(임춘택, 2014).

먼저 사회 인구 분야를 살펴보면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두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에 따른 학교의 감소, 노동 인력구조의 변화, 노동생산성의 저하 등에 대처해야 한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2001년 한국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의 필요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더구나 노동생산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인간의 지혜, 영성, 융합, 소통, 정의, 공헌 같은 덕목을 갖추도록 교육해야만 한다. 미래탐험연구소 이준정 박사는 미래교육은 맞춤형 교육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원하는 것을 선별해서 배울 수 있으며, 나이 제한 없이 평생교육이 가능해진다. 특히 스마트교육을 통해 전 세계가 같은 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리고 로봇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영역에서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창의적인 영역에서 인간이 할 일이 오히려 늘어나게 될 것이다. KAIST 정재승 교수는 미래의 시대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직관적·예술적이고, 자기감정을 제어하며, 상상력과 공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뇌의 역할이 중요하고, 좌뇌와 우뇌를 고루 잘 사용하는 전뇌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리더로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온다고 지적한다.

경제 분야를 살펴보면 한국미래전략연구소 유민기 상임이사의 지적대로, 현대는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불리는 저성장이 세계경제의 정상상태가 된다는 주장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중국의 국제사회 등장과 함께 인도 등으로부터 20억 명에 가까운 저임금 노동력이 세계 노동시장에 공급됨으로써, 세계경제는 고도성장을 누려왔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투자할 자본과 기회가 있던 사람은 더 부자가 되었지만, 임금노동자들은 더 가난해졌다. 이후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0년 IT 거품의 붕괴,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소비침체가 가속화되었다. 그런데 이런 소비침체는 인구구조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듯 만일 인구구조가 경제 문제의 핵심요인 중 하나라면, 앞으로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인구 추계만큼 명확한 것이다.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일본이

한때 세계 3위 경제대국의 지위를 누리왔으나,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와 더불어 국민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후퇴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본다. 경제발전의 한계성에 어려움을 겪은 일본은 'Innovation 25'라는 기치를 앞세워 사회의 기술융합, 사회선도, 세계기여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다시금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위치를 넘보며 세계권력의 축을 이동시키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경제가 2050년 세계 1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런 중국의 발전은 거대한 국가 규모, 장구한 역사와 문화, 우수한 인력, 교육열 등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의 미래에도 긍정적 요소가 많다. 우리나라는 역동성이 강하며, 안 되던 방법을 바꾸는 것에 주저함이 없다. 물론 이것은 장점이면서 단점이기도 하다. KAIST 정윤 교수는 이런 중국의 발전과 일본의 새로운 노력, 그리고 한국의 역할 등으로 인해 2025년에는 아시아가 R&D 투자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전 세계 1조 2000억 달러의 R&D 투자액 중 미국이 4000억 달러, 아시아 4200억 달러, 그리고 유럽이 2700억 달러를 점유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런데 이런 발전의 이유가 남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수용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기술 분야를 살펴보면 메타기술, 개방혁신, 개방플랫폼의 등장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창조성 중심의 경제를 이루어가야만 한다고 한국콘텐츠진흥원 홍상표 원장은 지적한다. 앞으로는 융합 능력이 기술력을 좌우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오늘날도 창조적인 콘텐츠, 고도의 기술력,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온라인 유통망 등이 융합됨으로써 창조성과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를 새롭게 창출해가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금 한류문화가 세계인들의 호응을 받음으로써 한국 국민에게 자긍심을 주고 있다. 케이팝 분야의 시장 규모는 4조 2000억 원이고 연간

성장률은 13.2%로 고성장을 하고 있다. 모바일 기술발전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더구나 모든 사람들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의 등장으로 새로운 형태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달은 무인 자동차, 무인 드론 등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진보의 이면에 존재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감시, 통제라는 문제점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인류는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질병, 물 부족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막화가 심화되면서 25년 이내에 인구 1인당 담수 공급량의 1/3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학 기술자들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심리학자, 윤리학자, 사회학자 등과 융합적 협력체계가 필요한데, 이런 융합을 위해서는 인간의 인성, 지혜, 창의성, 과학자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글로벌 의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정치·외교적 분야를 살펴보면, 국립외교원은 <글로벌 리더 통일한국: 2040 통일한국 비전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의 통일은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이며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국립외교원, 2014). 즉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남북경제공동체 수립에 따른 경제통일 과정을 거친 후, 2040~2050년경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을 조망했다. 통일을 통한 국방비의 감축, 북한 지역 사회간접자본 확대, 북한의 젊은 인력의 유입 등으로 인구 8000만 세계 7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함으로써,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 선도 국가로서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이 통합되더라도 오랜 분단으로 인하여 고착된 문화 언어적 이질성, 이를 극복하는 과

정에서 나올 수 있는 감정적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 문화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은 자칫 남북 간 새로운 지역 갈등을 만들고, 앞에서 언급한 예상들을 빗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다. 더구나 이런 예상을 크게 넘어서는 급격한 남북 통합의 상태가 도래하게 된다면, 이런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이를 대비한 통일교육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한국에서 개최된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는, 교육은 특권이 아니라 천부인권이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통한 미래사회의 혁신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인류 모두를 위한 양질의 포용적·포괄적 교육의 중요성과 아울러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가진 세계시민을 필히 길러내야 함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경쟁보다는 협력을 추구함과 동시에 다양성, 인성, 창의성을 가진 미래형 인재로 교육해야 한다. 또한 양질의 기초교육을 제공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문해 수리력을 달성함으로써,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창의 융합적 인재로 양성하는 일에 인류 전체의 힘을 모을 것을 제안했다.

##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적자원의 속성

앞 장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의 속성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남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수용적 인간, 창조적 인간, 융합적 인간, 개방과 혁신적 인간, 통합적 인간, 문화적 인간, 건강한 인간 등으로 인식된다. 아울러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직관적·예술적이고, 자기감정을 제어하고, 상상력과 공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뇌의 역할을 강화한 전뇌적 인간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그들의 덕목으로서는 열정, 도전정신, 지혜, 영성, 소통, 정의, 공헌 등이 언급된다. 또한 융합적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지혜, 창의성, 글로벌 의식, 과학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지적한다. 더구나 글로벌 정보공유 시대에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감시, 통제라는 문제점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인성의 확보가 절실하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속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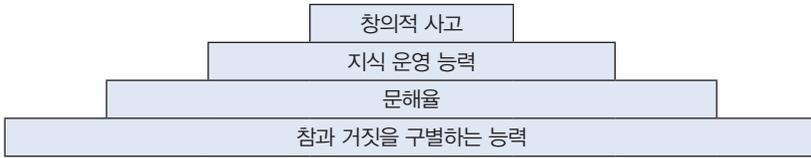
첫째, 창조적 지성이 필요하다.  
둘째, 바른 세계관이 필요하다.  
셋째, 전면적 인성이 필요하다.  
넷째, 융합적 의식이 필요하다.  
다섯째, 글로벌 의식이 필요하다.

즉, 미래인재의 특성을 보면 인간의 전인격적 인성과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 창조적 지성

창조적 지성이란,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적 틀을 말한다. 인간은 이런 참과 거짓의 구별 능력을 바탕으로 바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더구나 현대는 지식 운영 능력을 기반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하며 새롭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이런 지적 능력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하면 OECD가 개발한 문서해독 능력 측정도구를 2001년 우리 국민에게 적용한 결과, 의약품 복용량 설명서 같은 생활정보가 담긴 각종 문서해독에 매우 취약한 사람의 비율이 전체의 38%로 OECD 회원국 평균(22%)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일상적인 문서 정도는 겨우 해석할 수 있지만, 새로운 직업이나 기술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힘든 사람이 37.8%나 됐다고 보고했다.

〈표 1〉 창조적 지성의 계통도



〈2004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에 따르면, 선진사회의 복잡한 일상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문서해독 수준 이상을 갖춘 사람은 21.9%, 전문적인 정보기술<sup>IT</sup> 등 첨단 정보와 새로운 기술, 직업에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는 고도의 문서해독 능력을 지닌 사람은 2.4%에 불과했다. 고도의 문서해독 능력을 가진 인재의 비율은 노르웨이(29.4%), 덴마크(25.4%), 핀란드, 캐나다(약 25.1%), 미국(1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들의 문서해독 능력을 비교하는 OECD의 국제성인문해조사 점수 역시 258.9점으로, 조사 대상인 22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 교육이 실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기보다 입시 위주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개발원 관계자는 “특히 대학 졸업자의 점수까지도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2015년 교육부의 발표를 보면, 국민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읽고 쓰는 능력이 없는 비문해자가 약 62만 명, 단어는 읽을 수 있으나 문장이해 능력이 거의 없는 반문해자가 198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또한 초등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의 국민이 전체 인구의 5.2%(약 192만 명), 중학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국민이 10.5%(약 385만 명)라고 발표했다.

이런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문서해독 능력(문해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며, 창의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창조적 지성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

하도록 그 방안을 찾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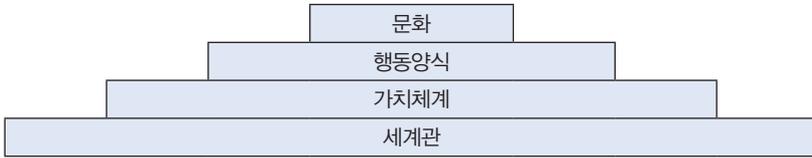
## 2. 바른 세계관

인간의 행동양식은 문화를 이룬다. 그런데 그 행동양식이 다르면 서로 거부감을 느끼고 심지어 상대방을 악하게까지 느끼게 된다. 같은 문화 안에서도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충돌이 있다. 이럴 때 서로 상대방의 행동양식을 바꾸려 한다. 강제로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이거나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행동양식의 기저에는 가치체계가 있는데, 이것이 다르면 서로 다른 행동양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체계가 바뀌지 않은 채 행동양식만 바뀌는 것은 일시적·피상적 수준만큼의 변화에 불과하다.

그러한 가치체계의 밑바탕에는 세계관이 있다. 이 세계관은 비체계적·비학문적·비객관적·경험적 성격을 띤다. 인간 삶의 저변에 깔려 있어 드러나지 않으면서 가치체계와 행동패턴을 형성하게 된다. 결국 인간이 제대로 된 행동양식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변 세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와 관점인 세계관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오관을 통해 경험하는데, 오관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보를 왜곡하여 입수한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만큼만 보고, 듣고, 느낀다. 이렇게 불완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세계관 또한 그러하며, 거기에서 나온 가치체계와 행동양식까지 불완전하게 된다. 한 번 형성된 세계관은 쉽게 바뀌지 않아 이것이 각 사람의 폐쇄성으로 나타난다. 즉 서로가 상반된 의견으로 충돌할 때, 양보하거나 절충하기보다 자기 의견을 고

〈표 2〉 세계관의 계통도



수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세계관은 경험을 통해 체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과 논리로 쉽게 설득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직되고 고집스럽고 완고해진다(워런 웨이거 Warren Wagar,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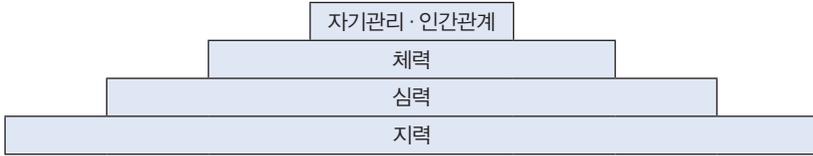
그러므로 세계관을 바르게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방성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롭고 획기적인 교육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체계를 통해, 다양한 문화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른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문화 충격과 충돌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 3. 전면적 인성

인간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을 단순히 인간관계에 관한 단기적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인간관계의 훼손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의 유기체적 결합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몸에 고통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지력이 약해 남의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깨져서 무슨 말이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인간관계의 훼손이 일어난다. 이렇듯 여러 인성적 요소가 다면적이고 유기체적으로 작용하여 관계를 깨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인성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다면적·전면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표 3〉 전면적 인성의 계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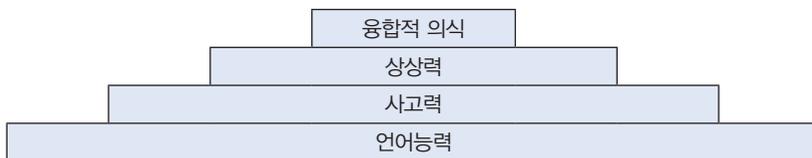


특히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글로벌 시대에, 건전한 세계시민으로서 예측 가능한 갈등 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인간관계 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을 함양하고 담보할 수 있는 전면적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인지적 지능에 얽매인 사람들을 정서지능 등 전면적 인성을 개발하여 상호 소통의 능력을 길러야 한다.

#### 4. 융합적 의식

‘융합’이란 개념은 1990년대부터 여러 전공 분야들이 특정 과제의 해결을 위해 협업하는 학제 간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단일 학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제에 대해 통합적인 연구를 활발하게 시도했다. 2010년대 들어서 융합연구는 보다 강한 연결 방식으로 여러 전공들이 삼투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학문으로 수렴되었다. 즉,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의 연쇄적인 그물망 속에서 도출되는 사회 현상들을 해결하거나, 또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인간 욕망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다른 분야와의 교류를 통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융합이란 개념이 탄생했다. 초기에

〈표 4〉 융합적 의식의 계통도



는 융합을 주로 기술, 산업, 시장, 그리고 제도의 측면에서 이해했는데, 최근에는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 문화적 측면과 이용자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신동희, 2014).

현재 융합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널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융합적 인재를 어떻게 교육하고 길러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융합적 능력은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 구현되어왔다. 생각하는 두뇌 능력이 상상력을 키우고 융합적 능력을 가지게 만든다. 우리의 언어사용 능력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언어사용 능력의 훈련은 융합적 의식을 위한 기본 훈련이다. 또한 교육의 현장에서 서로 다른 교과 간에 관련된 요소를 새로운 교과로 조직하고 융합시킨 교육과정과, 이를 통해 융합적 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 통합적인 교육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융합적 의식을 바탕으로 도전 과제의 해결 능력,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의 연구 능력, 네트워크 능력 등을 길러줄 수 있다.

## 5. 글로벌 의식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세대는 인류 보편

〈표 5〉 글로벌 의식의 계통도



적 가치를 추구하며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가진 세계시민으로 길러져야 한다. 그리고 국제 감각과 국제적 시야, 국제 의사소통 능력, 외국인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글로벌 의식의 확보도 필수적이다.

글로벌 의식을 가지면 글로벌 환경에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일하고, 같이 속해 있는 조직이나 팀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헌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의식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글로벌 의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사회에 공헌하며, 남들과 협업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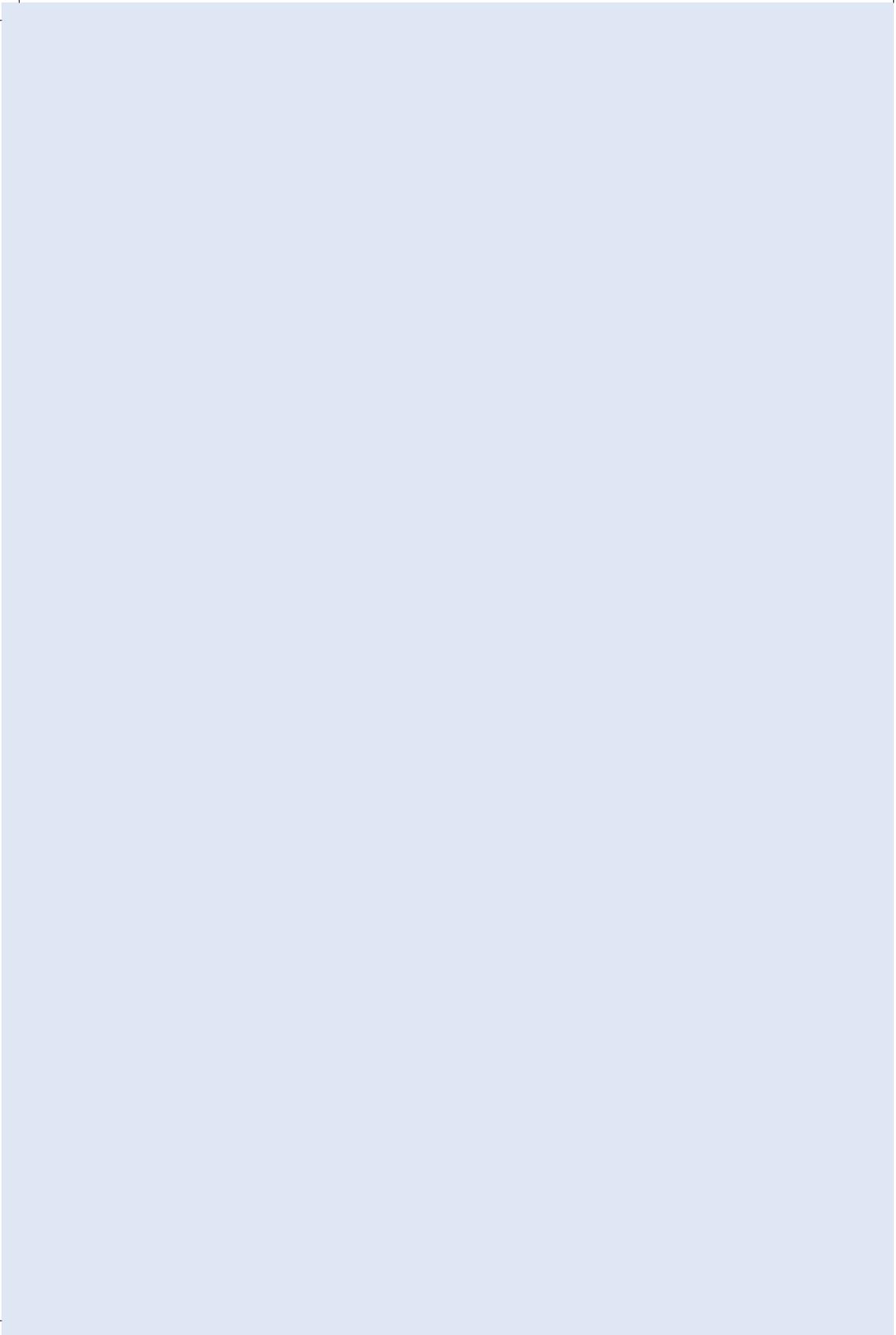
21세기 세계시민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융합적 사고와 협업이 필수적이다. 문제 자체가 융합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개인의 탁월한 지식적 역량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매일 직면한다. 문제해결은 열린 사고로 함께 풀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포용력’이다. 오늘날 세계시민 교육에서 인성교육이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정한 세계시민은 탁월한 지식으로 자기 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력으로 상생과 협업의 저변을 확대해가야 한다.

미래교육 전략은 한 시대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사회를 관통하여 사용될 수 있는 연속적이고 본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본서에서는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간상을 길러낼 본질적 교육의 현실적 방안으로 ‘수용성 교육’을 제시했다.



제2부

# 해결 과제



## 1.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수용성 교육

사전에 의하면 ‘수용<sub>受容</sub>’은 ‘어떠한 것을 받아들임’이라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수용성’은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는 성질’이라 정의할 수 있다. 교육의 성과는 이러한 수용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게 된다. 모든 교육의 시작은 학생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그래서 교육의 시작은 수용성을 높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는 우선, 학생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놓고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을 ‘수용성 교육’이라 부르기로 한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높은 사람에게서만 기대하는 교육의 결과가 나온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째서 사람마다 수용성에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원동연, 2000).

첫째, 지성의 틀 때문이다. 인간은 각자가 가진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전달되는 지식이 제약을 받는다. 아들이 군대에 가면 길에 다니는 군인이 그렇게 많아 보이다가, 그 아이가 제대를 하고 나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던 군인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게 된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어떤 학생은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것이 귀에 들리는데, 어떤 학생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나 선생님이 농담한 것만 들린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각자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따라 왜곡되어 있는 지성의 틀을 회복 시키지 않는 한, 인간은 전달되는 지식을 바르게 수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창조적 지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도 없다.

둘째,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마음의 틀 때문이다.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미리 마음으로 포기하고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것을 바르게 직면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미 마음으로 포기한 학생은 공부를 잘하기 어렵다. 학교에서 공부 시간에 잠을 자는 많은 학생들을 잘 살펴보면, 꼭 몸이 피곤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렇게 졸던 학생들 대부분이 쉬는 시간 종이 올리면 눈을 번쩍 뜨고 잘 놀다가, 10분이 지나 수업이 시작되면 다시 즐기 시작한다. 이미 마음으로 포기하고 있으면 몸도 함께 손상을 입은 상태가 되어 수용성이 더 무디어지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지식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내면화시킬 능력이 없어서, 그것이 바른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구축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셋째, 몸의 틀 때문이다.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바른 자세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런 사람들을 두 개의 저울에 한 발씩 올려놓게 하여 몸무게를 측정하면, 좌우 몸무게가 다르게 나온다. 그런데 이들의 뇌파를 검사해보면 좌뇌와 우뇌의 뇌파 균형이 깨져 있다. 결국 뒤틀린 몸

이 뇌파에 영향을 미치고, 지적 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이호원, 2016).

넷째, 자기관리 능력의 틀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한다고 해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현실성 없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내가 가진 시간, 물질, 적성 등의 에너지를 바르게 분포시킬 수 있는 자기통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통제력의 결여는 결국 수용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다섯째, 인간관계의 틀도 수용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인간은 좀 부족한 견해라 할지라도 자기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충고는 받아들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미워하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해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 불신, 그리고 미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한 사람의 수용성을 좌우한다. 그러므로 건강한 수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나를 넘어서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인간관계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다섯 가지는 인성의 전면적 요소들을 나타낸다. 즉, 인간의 수용성은 인간의 전인격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인격성의 회복은 수용성을 증대시켜 결국 인간의 내적 탁월성을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그렇기에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관관계 능력’의 다섯 가지 인성, 즉 ‘전인격성’의 회복은 곧 인간의 수용성을 회복시킴으로써 탁월성을 자라게 한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전인격적 인성의 회복을 통해 인간의 수용성을 회복시켜주는 교육’을 ‘수용성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 2. 수용성 교육의 근거

박남기 교수는 이런 수용성 교육체계를 아들러Alfred Adler의 삶의 틀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2015년 우리나라 심리학계에 아들러 바람이 불었다. 아들러의 심리학이 가르침에 주는 시사점을 찾다 보니, 20여 년의 세월 동안 ‘수용성 교육’으로 정착해온 전인격적 인성교육인 ‘5차원 전면 교육’과 유사한 점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둘의 교육론을 바탕으로 가르침의 본질을 헤아려보고자 한다.”(박남기, 2015)

아들러는 ‘삶의 틀life style’을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한다. 첫째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의미 부여를 하는 자기개념, 둘째는 세상이 나에게 어떤 곳인지 의미 부여를 하는 세계상, 셋째는 내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어떤 모습인 자기 이상이 그것이다. 아들러는 삶의 틀이 어려서 결정된다고 한다. 하지만 어린 시기가 중요하다는 의미일 뿐, 청소년기에는 그 틀을 전혀 바꿀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삶의 틀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 교육과 관련해서도 좋은 교육 내용을 선택하고 다양한 교수법을 동원해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해도 삶의 틀이 깨져 있는 학생들은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김세영, 2015).

‘5차원 전면교육’은 아들러의 심리학과 맥을 같이한다. 아들러가 삶의 틀을 강조하는 것처럼, 본 교육은 다섯 가지 수용성 요소(틀)를 강조한다. 인간의 능력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수용성 요소는 지력, 심력, 체력, 자기 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이다.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의 본질적 요소들을 골고루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수용성 틀’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KAIST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6). 그리고 유스투스 리비히Justus von Liebig의 ‘최소량의 법칙Law

〈그림 1〉 수용성의 다섯 가지 틀과 학습 성과 간의 관계



of Minimum'에 근거하여 다섯 가지 수용성 요소 중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학생의 학습 성과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각각의 요소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성의 틀이 왜곡되어 있으면 전달되는 지식에 바르게 반응할 수 없으며 창조적 지성을 발휘할 수도 없다. 둘째, 심적 틀(심력)이란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이에 대응하는 마음의 힘이다. 교사가 해야 할 역할은 긍정적인 심근을 갖도록 유도하고 이를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아이가 야망을 품도록 훈련시키는 것보다는 용기를 갖고, 인내심을 발휘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또 아이가 실패 앞에서 낙담하지 않고 실패를 하나의 새로운 문제로 여기며 해결해나가기도록 자극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아들러의 주장은 심력의 틀과 상통한다. 셋째, 몸의 틀(체력)이란 자신의 몸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몸이 뒤틀리면 뇌파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지적 능력에도 악영향을 준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 체력이 부족한 사람은 교육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넷째,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해도 자기관리 능력이 결여되면 교육 수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에 없다. 다섯째, 인간관계 회복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불안정한 청소년기에 제대로 교육받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인간관계 능력’은 아들러의 ‘사회적 감정(공동체적 감정)’과 맥을 같이한다. 사회적 감정은 정상적인 성격 발달에 중요한 요소다. 개인 심리학은 이 사회적 감정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술을 개발해왔다. 본 교육이 주창하고 있는 수용성 교육은 단순한 교수법이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용성 틀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아들러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학급담임(지도교수)이건 교과목만을 가르치는 교사(교수)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르침의 과정에서 교과 내용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섯 가지 수용성의 틀도 함께 갖추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교수법을 택해 수업하든 그 교수법과 이 글에서 소개한 삶의 틀과 수용성의 틀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음도 기억해야 한다(박남기, 2016).

삶의 틀이 깨진 학생들의 경우에는 누가 애착을 가지고 바로잡아주기 전에는 교육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기노시타 하루히로는 “냉철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멋진 ‘방식’을 실시해도 결국 그 ‘방식’은 멋지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냉철한 상태’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삶의 틀에 대해서, 그리고 학생의 성장과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과목만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면 된다는 생각을 의미한다. 이렇게 할 때에는 어떤 교수법을 동원하더라도 별로 효과를 낼 수 없다. 가르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업 중에 혹시 문제가 있는 학생은 없는지를 살피고, 그 학생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틀을 바로잡아 주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단순한 교수법의 변화만으로는 그러한 학생을 배움의 길로 이끌 수 없다.

## 수용성 회복을 위한 전인격적 인성교육

수용성은 전인격적 인성의 회복을 통해 높아진다. 그러므로 인성의 다섯 가지 요소인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지력, 지식을 내면화할 수 있게 해주는 심력, 진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력,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바르게 분포할 수 있게 해주는 자기관리 능력,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남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관계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미래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 1. 수용성 회복을 위한 전인격적 인성교육체계

현재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육목표는 벤저민 블룸(Benjamin S. Bloom) 등이 분류한 인지적(Cognitive) 영역, 정의(정서)적(affective) 영역, 운동 기능적(psycho-motor) 영역 등 세 가지로 대변된다. 하지만 교육, 문화 등이 발전하

〈표 6〉 전인격적 인성교육을 위한 25가지 커리큘럼

지력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힘	심력 지식을 내면화할 수 있는 힘	체력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힘	자기관리력 에너지를 바르게 분포할 수 있는 능력	인간관계력 에너지를 남과 공유할 수 있는 능력
지식 운영 능력	삶의 목표의식 확립	5차원 건강관리법	자유에너지 확장	인간 특질 발견
다중 언어능력	반응력 기르기	최대 출력법	시간관리	나와 가족
자연세계의 이해	풍부한 정서력 기르기	노동과 쉼	재정관리	나와 동료
역사 이해 능력	긍정적 사고방식	직업관	언어 및 태도관리	나와 사회
창조적 지성	바른 세계관의 확립	전면적 인성의 확립	융합적 능력	글로벌 인간상

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현대 교육의 목표인 인지적·정의적·운동 기능적 영역의 교육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영역에 자기관리 영역과 인간관계 영역을 더하여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력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요소를 향상시킬 수 있는 25가지 커리큘럼을 설계했다.

25가지 커리큘럼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몽골, 미국, 중앙아시아의 10여 개국에서 지금까지 20여 년간 계속해서 실시되어왔다. 1996년 중국 연길시 2중의 10개 반 중하위권에 있었던 학급에 이 교육이 적용된 후, 학생들이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학급 성적도 1등으로 향상되었다. 1997년 몽골에 있는 ‘밝은미래종합학교’에서 길거리 아이들에게 수용성 교육을 도입하여 실시한 후, 학생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다른 학교에 비해 학력이 월등히 향상되었다. 이를 계기로 2001년 11월에는 몽골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수용성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몽골국제대

학교MIU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라오스국립대학교에서 수용성 교육을 도입하여 학생들을 교육했으며, 2012년에는 탄자니아에도 수용성 교육을 실시하는 탄자니아연합대학교UAUT가 설립되었다.

한국에서는 세인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수용성 교육이 공교육기관에 접목된 바 있다. 중학교 시절에 최하위권의 성적을 받았던 학생들을 모집하여 인성교육을 최대한 강화하면서도, 3년 만에 90%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도 했다. 그 성과가 계기가 되어 이후 ‘수용성 교육’이 교원 직무연수 교과목으로 개설되었는데, 지금까지 약 14,000명의 교사가 이 훈련을 받았으며 동두천중고등학교, 벨국제학교, 디아글로벌학교DGA 등에 적용되어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노영상 총장은 윤리학자로서 교육의 목적이 직업을 얻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간을 사랑하며 일할 때 우리의 직업적 일들도 잘 수행될 것이다. 그런데 사랑이란 우리의 통전적이며 전인적인 기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전인격적 인성 요소들이 동원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교육은 너무 지적인 능력을 함양하는 것에만 기울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런 교육의 편향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지적인 능력과 함께 의지력, 정서적 능력, 실천과 행동의 능력을 고르게 기르는 전인적 인성교육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인성교육에서 윤리의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다. 윤리의 요소는 ‘선’과 ‘덕’과 ‘법’의 문제로 구별된다. 선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며, 덕의 문제는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준비를 다루고 있고, 법의 문제는 윤리적 행동을 위한 규범에 대해 언급한다. 우리는 윤리 문제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통해 인성교육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노영상, 1994).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5차원적 요소를 매일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실행함으로써 본질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이아몬드칼라 Diamond collar’라고 부른다. 과거 산업혁명 이후에는 노동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노동자, 농민들이 사회 주도 세력이었고 그들을 ‘블루칼라 Blue collar’라고 불렀다. 20세기 초반 이후에는, 지적인 힘을 가지고 경영과 학문으로 사회를 리드하는 ‘화이트칼라 White collar’라는 세력이 등장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나타났다. 소위 감성형 인간이 성공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마음의 힘이 강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앞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리더는 지능지수가 높은 화이트칼라가 아닌, 감성지수가 높은 ‘골드칼라 Gold collar’라고 말한다.

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주도할 리더들은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을 조화롭게 전면적으로 갖춘 사람이 될 것이며, 이들을 다이아몬드칼라로 부르고자 한다. 다이아몬드칼라의 인간은, 지혜를 가지고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창조적 지성, 세계를 바른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관, 지력과 심력과 체력이 조화롭게 발달한 전면적 인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들은 융합적 의식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봉사하며 글로벌 의식을 가지고 인류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 2. 인성교육의 기준

2014년 12월, 국회는 인성교육진흥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이 법이

시행되는 2015년 7월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부여된다. 입법 목적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가진 시민을 육성하는 것으로, 향후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인성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학교에서 일반과목을 가르칠 때 존중·정직·배려·정의·규칙 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모범을 통한 예절·질서·청결·준법·절약·절제 등의 교육을 잘 실천하도록 지도하고, 기본 생활습관을 잘 습득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 인성교육을 잘해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지금까지 인성교육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향후 인성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왜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성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인성을 잘 길러내지 못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종류의 인성교육을 실시해왔다. 학교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윤리, 도덕 등 인성에 연관된 교육을 많이 실시해왔다. 가정에서도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태권도 학원 등에 자녀를 보내면서 나름대로의 인성교육을 해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인성이 제대로 길러지지 않았다고 불평한다.

인성교육이라 생각하고 그 교육을 실시했는데, 왜 자녀들의 인성을 바르게 함양되지 못하는 것일까? 거기에는 다섯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 **본질성**

첫 번째 이유는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결과만을 훈련하는 인성교육 때문이다. 사람이 성숙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성숙해지도록 하는 본질을 훈련

하지 않고 성숙의 결과, 즉 열매를 훈련하기 때문이다. 온유하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온유함을 훈련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훈련하면, 그런 모양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얻으려고 할 때, 열매 자체를 연구해서 그 열매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좋은 열매는 나무가 심겨진 땅을 개간하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행동을 통해 얻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열매만을 연구하고 훈련하다 보니, 모양만 있지 본질은 바뀌지 않는 인성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열매만을 훈련하는 인성교육은 인성교육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바른 인성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

### **유기체성**

둘째로는 유기체적인 인성교육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인성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 요소들이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 등의 전인격적 인성이 부분적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유기체적으로 훈련될 때 진정한 인성이 길러질 수 있다. 비록 바른 인성교육의 내용을 품고 있더라도 이 요소들이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바른 인성을 길러낼 수 없으므로 바른 인성교육이라 할 수 없다.

### **변화성**

바른 인성교육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세 번째 요소는 이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가르치는 내용대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교사가 학생들을 열심히 교육시켰지만 실패했다고 하자. 그 이유는 가르치려는 교육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신이 변화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

이다. 인간은 프로그램만을 적용했다고 해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다.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그 경험의 에너지를 통해 남을 가르칠 때 변화가 일어난다. 실행을 해본 사람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그들만이 진정한 실력자인 것이다. 결국 인간은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남만을 바꾸려 하기 때문에, 원하는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 이 시대 교육의 비극은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이야기대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행한 자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실행자의 원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전인교육을 하더라도 자신에게 그 내용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 극복성

네 번째 요소는 그 교육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어려움의 연속이다.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은 좋은 것을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나에게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열정과 인내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며, 내재되어 있는 목표에 따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신감과 평안함을 갖는 자세를 취한다.

바른 인성교육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준다. 인성교육을 통해 인간이 더욱 성숙해가면,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되며, 결국 이내로써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바른 인성교육이라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하며, 이 힘을 길러줄 수 없는 교육은 바른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 탁월성

전인격적 인성교육의 다섯 번째 특징은 인성교육을 통해 인간성만 향상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능력을 포함하는 다방면에서 탁월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대니얼 코일(Daniel Coyle)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실수와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교정을 반복할 때 신경체계 내에 미엘린(myelin)이라는 절연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지적 능력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간은 불리함을 극복함으로써 매우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대니얼 코일, 2009).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탁월성이란, 남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느냐는 협의적 의미를 말하지 않는다. 또한 다방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아니다. 비록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남보다 부족할지라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크기만큼을 최대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스티븐 호킹처럼 비록 많은 약점을 가졌지만, 자기의 약점을 포기하지 않고 이를 최대화한 사람은 누구나 진정한 실력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인성교육이 시행된 결과로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탁월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바른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앞으로 인성교육법의 제정에 따라 수많은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들이 만들어질 때, 위의 다섯 가지 요소들을 잘 고려하여 그것들이 과연 바른 인성교육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 3. 전인지수 측정도구

본서에서는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관관계 능력의 다섯 가지

인성, 즉 전인격적 인성의 회복을 통해 인간의 수용성을 회복시켜주는 교육'을 '수용성 교육'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이 교육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서 인성의 요소인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들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만들었다. 그동안 IQ 테스트가 공인된 지력 측정도구로 이용되었고, 최근에는 지력으로 측정할 수 없는 요소들을 EQ를 이용·검사하는 시도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적인 측정도구들을 넘어서 전인격적 인성 요소를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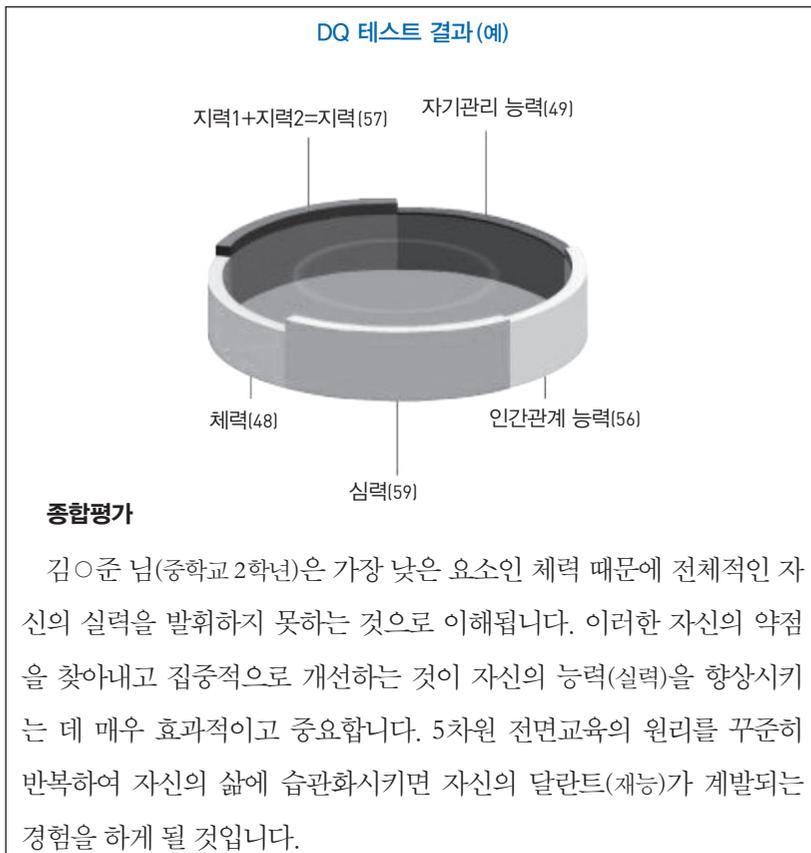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전인지수 검사표 DQ: Diamond-collar Quotient가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심력, 체력, 지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의 상태를 측정하도록 했다. 이 검사는 사전검사, 중간검사, 사후검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사전검사는 한 개인이 수용성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이전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다. 중간검사는 이 교육을 받고 있는 도중, 얼마나 자신의 전면적 인성의 역량이 증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사후검사는 일정 시간의 수용성 교육 훈련을 통해 다이아몬드칼라의 전면적 인간으로 회복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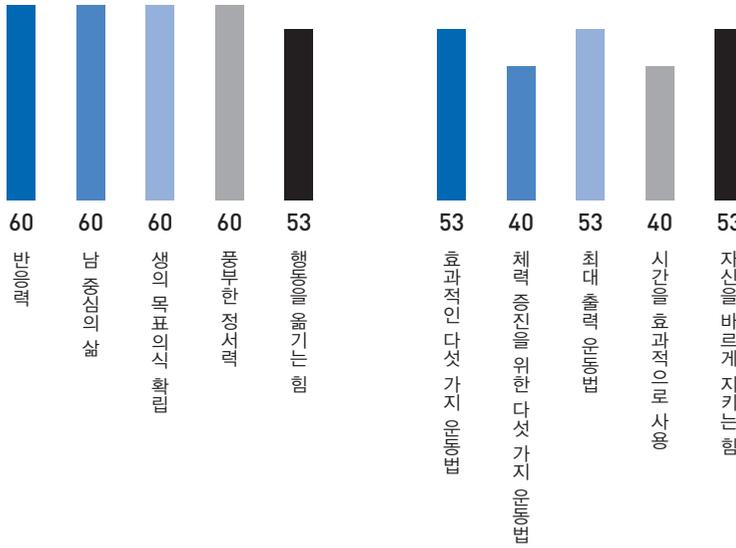
본 검사지는 DEQ(심력 지수), DPQ(체력 지수), DWQ(지력 지수), DSQ(자기관리 지수), DRQ(인간관계 지수)의 다섯 가지 주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의 문항은 네 가지 형태로 답변할 수 있도록 했다(3점: 나는 항상 그렇다, 2점: 종종 그렇다, 1점: 가끔 그렇다, 0점: 거의 그렇지 않다).

이 검사지에 있는 질문들은 현재 자신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남과의 비교 분석을 위한 자료가 아니다. 그러므로 위에 제시한 점수들 역시 자신 스스로 측정해보는 점수이므로 총점이 높은 것이 결코 다른 사람과의 비교우위에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가장 솔직하게

현재의 자기 상태를 나타내야만 이 검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고 과장된 답을 했을 경우 답변의 신뢰도를 분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1995년에 전인지수 측정도구가 개발된 이후 3차의 수정 과정을 걸쳐 현재까지 20년에 걸쳐 3만 명 이상을 측정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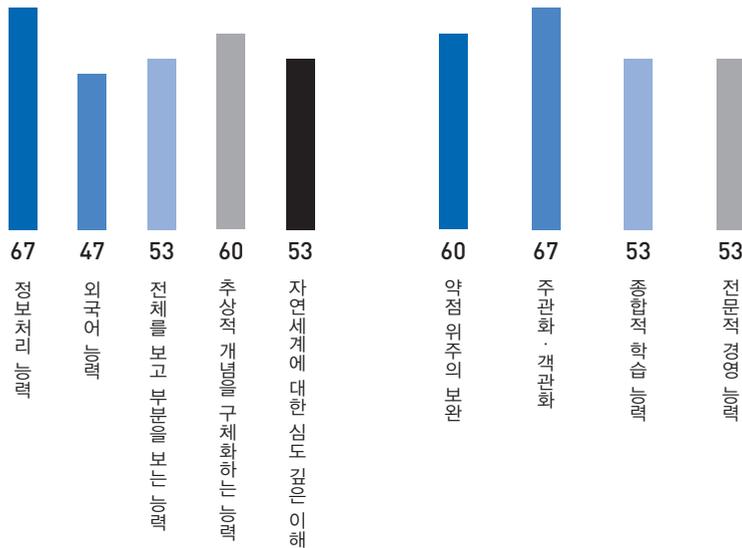


### (1) 심력

- **반응력:** 당신은 책임감이 있으며 외부 상황에 반응을 보이는 편입니다. 구체적인 훈련으로 책임감과 반응력을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 **남 중심의 삶:** 남을 배려하고 수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수용하는 훈련이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 **생의 목표의식 확립:** 자신의 삶과 목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 **풍부한 정서력:** 당신은 풍부한 정서를 갖기 위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 **행동을 옮기는 힘:** 생각한 것을 계획해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 (2) 체력

- **체력 증진을 위한 다섯 가지 운동법:** 체력을 기르기 위한 운동을 일부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는 체력을 유지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으므로, 훈련이 더 필요합니다.
- **최대 출력 운동법:** 가끔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최대 출력을 충분히 발휘하리라 기대합니다.
-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 시간관리를 하고 있으나 불규칙하게 운동을 하여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자신을 바르게 지키는 힘:**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 (3-1) 지력 1

- **정보처리 능력:** 정보처리 능력이 좋은 편입니다. 더욱 노력바랍니다.
- **외국어 능력:** 외국어(영어)에 대해 보편적인 이해와 실력을 갖추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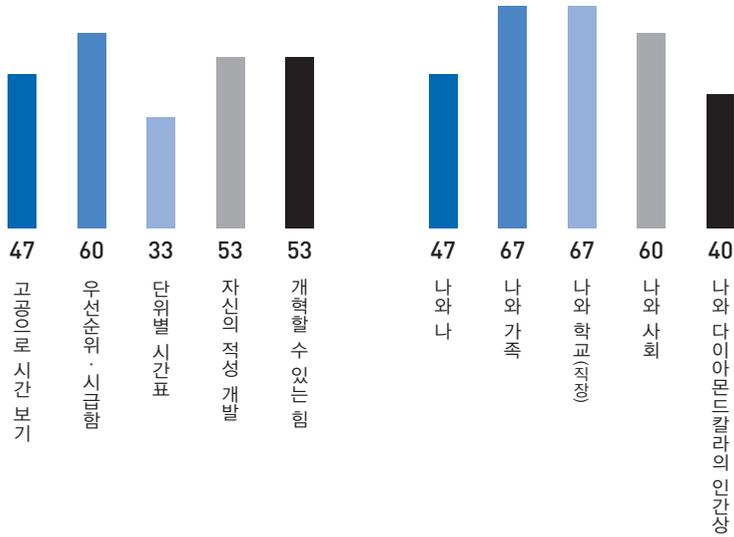
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 꾸준히 계획적으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는 능력:** 전체를 먼저 보고 그 구조나 내용을 이해한 후 부분을 볼 수 있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는 능력:** 추상적인 개념을 계획, 행동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실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더 많은 노력과 훈련 바랍니다.
- **자연세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자연세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지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연세계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 바랍니다.

### (3-2) 지력 2

- **약점 위주의 보완:** 자신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정확한 파악이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훈련하십시오.
- **주관화·객관화:** 자신에게 주어지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학문하는 힘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보완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 **종합적 학습 능력:** 모든 학문은 유기체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을 실력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자질이 보입니다. 조금 더 훈련하면 곧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전문적 경영 능력:** 21세기 정보화사회에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국제적 안목과 컴퓨터, 인터넷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의 국제적 안목을 높이고, 언어능력과 컴퓨터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더 많은 훈련과 노력을 바랍니다.



#### (4) 자기관리 능력

- **고공으로 시간 보기:** 자신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계획을 세우고 훈련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우선순위·시급함:** 어떤 일이든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별하고 실천하는 훈련을 강화하면 더욱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 **단위별 시간표:** 자신에게 필요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시간을 단위별(일, 주간, 월간, 연간, 일생고공 표)로 계획하는 훈련을 시작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자신의 적성 개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실행에 옮기는 힘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계속 힘쓰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개혁할 수 있는 힘:** 개방성이 있다는 것은 겸손함이 있다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은 개혁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을 조금 더 겸비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성품이 더 겸손할 수 있도록 자신을 관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 (5) 인간관계 능력

- **나와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좀 더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삶의 소중함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 **나와 가족:** 가족과의 관계가 좋은 편입니다. 사랑과 신뢰를 더욱 다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 **나와 학교(직장):** 이웃이나 동료들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나와 사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윤리적·도덕적 가치관은 올바르게 지니고 있으나 실천하는 힘은 약한 편입니다. 지식이나 생각이 아닌 실제행동(실천)을 통해서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나와 다이아몬드칼라의 인간상:** 자신의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이 있습니다. 전인적인 능력을 갖춘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바랍니다.

## 수용성 회복을 위한 교육교과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고 현실적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교육교과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20여 년간 한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 여러 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용성 교육교과를 구축했다.

수용성 교육의 지력 교육교과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 바른 인식의 틀을 가지도록 하며, 심력 교육교과는 반응력을 회복함으로써 지식을 내면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체력 교육교과를 통해 게으름과 탐심을 극복하고 진리를 실행시킬 힘을 가지도록 설계했다. 자기관리 교육교과는 시간, 물질관리 등을 통해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바른 곳에 분포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인간관계 교육교과는 남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전면적 인성 교육교과는 인성의 다면성과 유기체성을 고려해 설계되었다.

## 1. 지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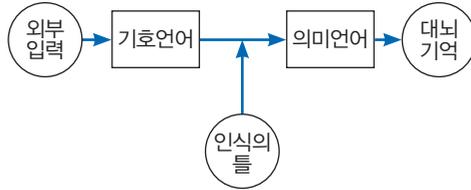
지력교육의 목표는 지력교육 교과과정을 통해 바른 인식의 틀을 길러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인간의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의 지력교육의 바른 방법을 알고, 이를 익히고 훈련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진 지적 능력을 극대치까지 향상할 수 있다. 지력교육의 각 영역별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지식 운영 능력**: 지력 기본 학습모형과 5차원 독서법(문해 독서법)을 알고 익혀, 정보처리 능력을 기른다.
- **다중 언어능력**: 외국어의 사고 및 발성구조의 변환법을 알고 익혀, 외국어를 바르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역사 이해 능력**: 고공 학습법과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알고 익혀, 역사의 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자연세계의 이해**: 수학의 언어적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자연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알고 익히도록 한다.
- **창조적 지성**: 인식의 틀 교정을 통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인식의 틀

일반적으로 학습이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해 자신의 지식체에 연결하여 기억하는 것이다. 이때 외부입력으로 들어오는 정보란 일반적으로 언어의 형태로 되어 있다. 기호로 되어 있는 언어(Syntactic language)를 외부에서 받아들이면, 학습자는 이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한다. 재

〈그림 2〉 외부입력과 인식의 틀에 의한 재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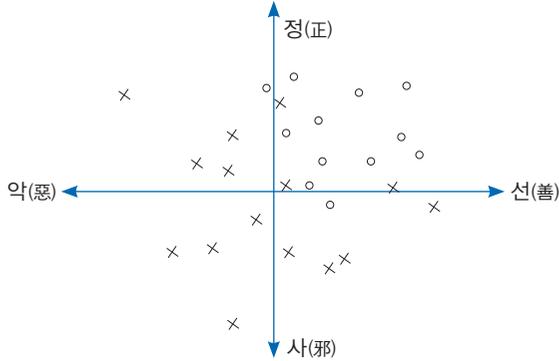
해석한 내용은 의미언어 *Semantic language*로 재구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신의 방식으로 재구성된 의미언어는 비로소 대뇌에 기억되는 것이다.

학습자가 외부에서 들어온 기호언어를 재해석하는 과정은 자신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인식의 틀’이라 말할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을 받아들여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각자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이 다르기 때문이다(이광형, 2015).

#### 가치좌표와 인성교육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수용성의 회복은 인성의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인성교육이란 각 개인의 마음속에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기준을 세워주는 과정이다. 우리의 도덕체계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선 *善, Good*과 악 *惡, Bad*을 구분하는 자연법적인 가치관이다. 도둑질과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가치관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공통적인 가치관이다. 또 하나는 정 *正, Right*과 사 *邪, Wrong*를 구분하는 가치관이다. 정과 사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규범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배운다. 이것은 자연적인 가치관이라 하기 어렵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만 공유되는 가치관이다.

〈그림 3〉 가치좌표



인성교육은 〈그림 3〉에서 보듯이 2차원 평면 위에 ‘선·악’과 ‘정·사’의 두 개의 ‘가치좌표’를 위치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꺼번에 좌표가 잘 그려지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례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이 경우에는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릇되었다”라고 가치관을 배운다. 이 가치관을 익히는 과정이 바로 마음속에 좌표를 그려 넣는 과정이다. 〈그림 3〉은 ○와 ×의 사례를 보면서 두 개 축의 위치를 확정짓는 것이다. ○는 좌표의 1상한(선·정)에 위치하고, ×는 그 외의 위치에 오게 조정한다. 인성교육이 제대로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기준과 동일한 경우다. 인성교육이 잘못된 경우는 좌표가 ○, × 사례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림 3〉은 약간 어긋난 경우를 보여준다.

### 인식의 틀 시각화

앞에서 인성교육이란 마음속에 가치좌표를 올바르게 위치시키는 일이라 했다. 그래서 새로운 사례가 나타나면, 그것의 옳고 그름을 가치좌표에

비추어 판단해낸다. 이때 가치좌표를 위치시키는 일은 많은 사례를 보면서 그에 맞게 조정한다.

인성교육 과정에도 기호언어로 들어온 외부입력을 재해석하고, 재해석된 의미정보를 기억한다. 여기에서도 물론 개인의 ‘인식의 틀’ 차이에 의해서 약간씩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즉, 동일한 인성교육을 받았어도 다른 가치좌표를 설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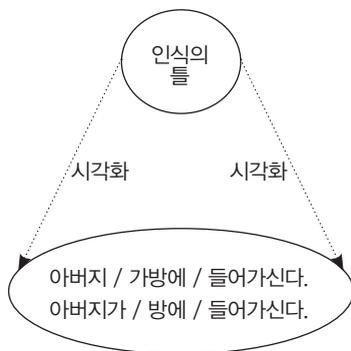
그래서 바른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인성교육을 먼저 시키기 전에 인식의 틀을 바꿔주는 일을 해야 한다. 인식의 틀이 정상화되면 부모나 선생님의 말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여 가치좌표를 조정하는 일이 가능하다.

인식의 틀은 개인에 따라서 각자 다른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그 특성과 차이점이 얼마나 다른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학습자의 두뇌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작용이기 때문이다. 다만 차이를 알게 되는 경우는 동일한 외부입력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 때, 비로소 인식의 틀이 달라서 그랬다고 생각하게 된다.

개인의 두뇌 속에 입력된 지식을 각자 인식의 틀을 통해서 재해석하는 과정을 엿보는 방법으로 ‘사선’을 치며 문장을 읽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문장을 읽을 때, 긴 문장을 통째로 받아들이지 않고, 몇 개의 단어씩 모여서 구문별로 나누어 받아들인다. 이 과정이 인식의 틀이 작용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사선을 치며 읽게 하면 인식의 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일부를 볼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인식의 틀을 시각화하는 ‘사선 읽기’다(원동연, 2000).

〈그림 4〉에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는 문장이 있다. 이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그림 4〉 인식의 틀 시각화



[1안]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2안]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두 가지 재해석의 예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간단한 인위적인 사례일지 몰라도,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예다. 그런데 학습자가 1안과 2안 중에서 어느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인식을 했는지 알기 어렵다. 그런데 사선 읽기를 시켜보면, 그 차이가 드러난다.

[1안] 아버지 / 가방에 / 들어가신다.

[2안] 아버지가 / 방에 / 들어가신다.

이것이 바로 인식의 틀을 시각화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각 개인의 인식의 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학습자가 제대로 외부입력을 받아들여 바른 가치좌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사선 읽기’를 하면 내면에 있는 인식의 틀을 엿볼 수 있다. 인성교육 과

정에서도 사선 읽기 등의 시각화 과정을 통해 분석해보면, 인식의 틀이 외부입력을 제대로 재해석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교정이 필요하다면 교정이 가능하게 된다.

실제로 현장 실험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부모와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부모나 선생님을 싫어하는 학생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다. 이러한 학생들을 압박하여 가르치려 하면 더욱 어긋나고 악화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이전에, 인식의 틀을 바로 잡아주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사선 읽기를 하게 하여 인식의 틀에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로잡아준다. 한두 번으로는 교정이 안 되지만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변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식의 틀을 정상적으로 교정해주는 과정이다. 이와 같이 인식의 틀이 제자리를 잡으면, 그다음에는 가치좌표를 설정하는 일은 쉽게 되고, 따라서 바른 인성교육이 가능해진다. 즉, 한 인간의 인식의 틀 회복을 통한 지력의 향상이 전인격적 인성교육을 통한 수용성 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지력교육 학습모형**

인식의 틀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지적인 틀을 회복해야 한다. 지적인 틀이 왜곡되면 입수되는 정보에 왜곡이 발생하며, 그 결과 표출되는 정보에도 오류가 생긴다. 인간의 지적활동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정보의 흐름은 크게 세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외부에 있는 정보를 개인이 인식하고 입수하는 과정이다. 이 경우에 정보는 입수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하나는 눈을 통해 글로 전달되는 형태이

며, 다른 하나는 귀로 들리는 말 형태의 정보가 있다. 두 번째는 입수한 정보를 인간의 뇌 속에서 사고활동을 거쳐 고도화하는 과정이다. 인간의 뇌는 고도로 발달된 사유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들어온 각종 정보를 상호 연관에 따라 분류하고 조합해 저장한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입수했다고 해도, 이 고도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할 경우 그 정보는 크게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세 번째 과정은 입수하고 심화한 정보를 말이나 글이라는 형태로 다시 외부로 표출하는 과정이다. 정보의 표출이란 정보를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과정을 통해 정보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재생산한다.

그러므로 지적인 틀의 회복을 위해서는 정보의 입수, 고도화, 표출 과정을 왜곡시키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를 교정할 수 있는 교육교과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 교육은 “인간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라고 규정하며, “학교라 할지라도 교육계획이 없다면 교육은 없다”라고 전제(정범모, 2000)할 정도로 교육에서 교육계획은 중요하다. 아울러 교수·학습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브루스 조이스 Bruce Joyce와 마샤 웨일 Marsha Weil은 능력 있는 교사는 누구나 8~10개의 교수·학습모형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 정도는 복잡한 교수·학습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소한도로 필요하다고 한다(브루스 조이스, 1992). 이는 교과마다 교과와 교재의 특징에 알맞은 교수·학습모형이 있어야 교수·학습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교수·학습모형이 교수·학습의 역할에 중요하고 필요한 것처럼, 지력교육을 하는 데도 일정한 교수·학습모형이나 룰 rule이 있으면 지력교육과 학습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본 지력교과의 학습모형은 3과정과 9단계로 구성했다(송재신, 2001).

3과정은 ‘정보처리 3과정’이라 한다. 정보처리 3과정은 ‘정보 입수 → 정보 고도화 → 정보 표출’로 되어 있다. 9단계는 ‘정보처리 9단계’라고 한다. 이 정보처리 9단계 중 우선, 정보 입수 과정의 3단계는, 1단계 정보의 양 늘리기, 2단계 정보의 질 높이기, 3단계 사실과 감정 구분하기다. 둘째, 정보 고도화 과정의 3단계는 4단계 정보 조직화하기, 5단계 정보 의식화하기, 6단계 정보 내면화하기다. 셋째, 정보 표출 과정의 3단계는 7단계 텍스트 표출, 8단계 그래픽 표출, 9단계 함수 표출이다. 이 정보처리 9단계를 ‘지력교육 학습모형의 9단계’라고 한다.

## 2. 심력

심력교육의 목적은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목표는 ‘지식을 내면화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바른 세계관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력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심력을 계획적으로 기르고, 이차적으로 다른 기본 요소와 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시너지 효과가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수용성 교육이 전반적으로 상승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심력교육의 구체적인 요소로는 삶의 목표 확립하기, 사회를 호흡하는 반응력 기르기, 풍부한 정서력 기르기, 긍정적인 사고, 바른 세계관의 확립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심력교육의 구체적인 요소는 필요에 따라서 더 늘려갈 수도 있다.

최근 인간의 감성이나 사고, 판단력 등은 감성적 두뇌와 이성적 두뇌의 협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지능에 관한 오늘날의 연구는 지능과 감성이라는 진부한 이분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 자신과 우

리의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합리적으로 계획하는 이성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감성의 세계다. 이성과 감정, 느낌과 생각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에야 비로소 사람은 인간 고유의 행동양식으로서의 다양한 표현 수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정상적인 조건'일 때 뇌의 감성적 영역과 이성적 영역은 서로 조화로운 짝을 이루며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의 감성은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성 또한 무언가를 느끼는 데 큰 영향을 준다(도리스 마틴Doris Martin, 1997).

### 심력의 교육 내용

심력이란 알고 있는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마음의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심력 훈련을 통해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극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이를 통해 책임감을 갖도록 해준다. 또한 예술활동 등으로 풍부한 정서력을 함양시켜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내면화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심력교육의 첫 번째는 생애 목표를 확립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목표가 확실하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에 부딪쳐도 주저앉지 않고 극복할 힘을 갖게 된다. 삶의 목표를 확립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실제 주변의 모델을 보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삶의 목표를 확립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들려주고 반응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일생고공표 작성훈련을 통해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 평소엔 안 보이던 것을 새롭게 보는 힘을 주고,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둘째로 반응력을 회복하는 묵상훈련을 한다. 요즘 사람들은 현대 문화의 매우 자극적이고 비인간적인 면모 때문에 어지간한 자극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반응하지 않는다. 실제로 반응력이 없는 사람은 책임감도 느끼기 어렵다. 우리는 가족에 대해, 이웃에 대해, 국가에 대해 민감한 반응력을 갖고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로 교육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3분 묵상 프로그램을 통해 ‘감동이 있는 짧은 글’을 읽으면서 반응력을 회복시키도록 한다.

셋째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극대화하는 정서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천재들은 오른쪽 뇌가 평범한 사람들보다 크게 발달해 있으며, 우뇌의 활성화가 창의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풍부한 정서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하루 15분 정도씩 우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넷째, 긍정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사고의 종류에는 긍정적 사고, 부정적 사고, 무반응 사고 등이 있다. 긍정적 사고를 하면 체내에서 마음이 긍정적 발상을 하게 되어 의식이 용기, 자긍심, 중용, 포용, 겸손함, 믿음, 사랑, 평화, 기쁨, 깨달음 등으로 나타나 성공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섯째, 지식을 내면화하여 바른 세계관을 구축하게 한다. 지식을 내면화하여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심력의 최종 목표다. 결국 앞의 네 가지 원리를 이해하고 훈련이 되면 궁극적으로 심력을 통해 바른 세계관을 갖게 된다.

심력교육에 적용할 삶의 목표 확립하기, 사회를 호흡하는 반응력 기르기, 풍부한 정서력 기르기, 남 중심의 삶 살기, 바른 세계관의 확립 등을 위해 심력교육 모형을 다음의 표와 같이 문제이해, 계획수립, 실행·실천, 평가·반성 등의 4단계로 정립했다.

〈표 7〉 심력교육 모형

단계(과정)	분절	활동 내용 설명
제1단계 문제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알기</li> <li>- 목표알기</li> <li>- 목상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력교육과 학습할 문제를 정확히 안다.</li> <li>-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여 심력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바르게 안다.</li> <li>- 심력 문제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목상(3분)을 한다.</li> </ul>
제2단계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모으기</li> <li>- 기준 정하기</li> <li>- 체계화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모아 정리한다.</li> <li>- 자신의 실태를 바탕으로 기준과 목표치를 정한다.</li> <li>- 목표를 향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한다.</li> </ul>
제3단계 실행·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행하기</li> <li>- 목표관리</li> <li>- 목표성취(이루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된 기준에 의해 적극적으로 실천한다.</li> <li>- 자기가 세운 목표치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한다.</li> <li>- 자기가 세운 목표를 달성 및 성취한다.</li> </ul>
제4단계 평가·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 평가하기</li> <li>- 반성하기</li> <li>- 결과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력교육의 목표치 성취를 어느 정도 했는지 평가한다.</li> <li>-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실현 결과를 반성한다.</li> <li>- 반성 결과에 따른 수정계획을 세워 지속적인 실천을 생활화한다.</li> </ul>

제1단계 문제이해에서는 자신의 심력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문제를 분석하여 심력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바르게 알고, 자신의 심력 문제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목상(3분)을 한다. 제2단계의 계획수립 과정에서는 자신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모아 정리하고, 자신의 실태를 바탕으로 기준과 목표치를 정하여, 목표를 향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한다. 제3단계의 실행·실천은 계획된 기준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실천하며, 자기가 세운 목표치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하여 목표치를 달성·성취하는 것이다. 제4단계 평가·반성에서는 심력교육계획

의 목표치 성취를 어느 정도 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실천 결과를 반성하여, 반성 결과에 따른 수정계획을 세워 지속적인 실천을 생활화한다.

### 3. 체력

수용성 교육의 체력교육에서는 각 사람마다 ‘바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몸의 힘’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5대 기본 요소인 5차원 건강 관리하기, 체력 최대 출력하기, 노동과 쉬 하기, 직업 관리하기, 평생 사회봉사 등에 대해 각 요소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교육과 지도·관리를 통하여 실천·실행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습관화·생활화하는 데 있다.

수용성 교육의 기본 요소로서 건강한 체력은 아주 중요하다. 실제로 사람이 병에 걸려 병석에 누우면 인간활동은 누운 만큼의 수준에 머무르고 만다.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싫어지고 귀찮고 비관적이지만, 반대로 건강에 자신이 생기면 먼저 혈색이 좋아지고, 생기가 돌며, 의욕이 생겨나 같은 일을 하는데도 즐겁고 긍정적인 발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체력 자체가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어, 다른 기본 요소인 심력과 지력에 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 건강관리

보통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건강하지 않은 경우 그 원인을

과약하는 것이다. 특히 원래 몸이 약한 사람은 운동을 무리해서 열심히 하면 몸을 더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 무조건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왜 몸이 약해지고 건강하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대안으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 몸이 원래의 건강을 잃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신체의 구조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며, 둘째 몸의 세포에 독소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의 건강을 최대로 증진시킬 수 있다. 다음 제시된 다섯 가지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원리들이다.

#### 신체 구조 교정

첫째,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몸은 평소의 좋지 않은 자세로 인해 알게 모르게 척추가 굽는다. 굽은 척추는 신경계를 병들게 하고 내장을 압박한다.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척추를 찍어보면 굽어진 척추가 우리 내장과 신경계를 얼마나 압박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자세가 바르지 않던 사람이 자세를 바르게 하기 시작하면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이 되는 것이다.

둘째, 부드러운 관절이 필요하다. 신체를 유지해주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뼈와 뼈 사이의 관절이다. 우리 몸은 관절을 통해 모든 순환기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몸 구석구석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아 굳어진 관절들이 많다. 굳어진 관절들을 운동을 통해 부드럽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부드러운 몸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셋째, 오관(눈·코·귀·입·목)을 튼튼히 해야 한다. 오관은 우리 신체가 피부의 보호를 별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바깥 공기와 직접 접촉하는 기관

들이다. 따라서 잘못 관리했을 때 탈이 나기 쉽고, 온갖 질병들이 오관을 통해 몸에 침투하게 된다. 오관이 건강하면 축농증, 편도선, 목감기, 비염 등에서 해방되고 상쾌한 생활을 할 수 있다.

### **몸의 독소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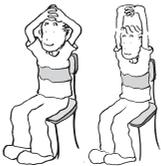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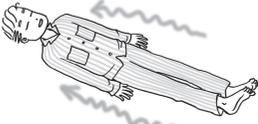
첫째, 잘 배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보통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잘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배설하는 것이다. 내장 운동을 통해 내장을 강화하고 부드럽게 해줌으로써 잘 배설하는 것이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 배설이 잘 안 돼서 변비가 생기면 몸에 독소가 남아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

둘째, 깊은 잠을 자야 한다. 잠을 깊이 잘 수 있는 사람은 하루 동안의 활동을 통해 우리 체내에 축적된 피로물질과 독소들을 깨끗이 순화시켜, 다음 날의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깊이 잠들어서 짧은 시간 동안 피로를 풀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림 5>는 건강관리를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 체계화된 몸 관리법이다.

### **노동과 쉬 하기**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또한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하고, 직장 과 일터에서 근로를 해야 한다. 그런데 학교와 직장에서 하는 학업이나 근로는 경쟁적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민 모두가 학교와 직장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심신도 지치고 피로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교육과 근로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림 5〉 몸의 독소를 제거해주는 운동법

	1	2	3	4	5
바른 자세 갖기 운동	허리 곧게 펴기 	허리 뒤로 젖히기 	허리 숙여 뺨기 	몸통 돌리기 	모든 동작은 7회 반복하는 것이 좋다.
관절 운동	발목으로 마(馬) 자 쓰기 	무릎 돌리기 	허리 돌리기 	손목 X 자 비틀기 	목으로 봉(鳳) 자 쓰기 
내장 운동	배 주무르기 	허리 주무르기 	손가락 주무르기 	발 주무르기 	아침에 일어나기 
오관 운동	눈 운동 	코 운동 	귀 운동 	치아 운동 	혀와 편도 운동 
수면 법	잠을 깊이자는 방법 			잠이 안 올 때 	
	몸 힘 빼기			잡생각하지 않기	
	발바닥 Y 자 30번 두드리기				

그래서 수용성 교육의 체력교육에서는 ‘노동과 쉬 하기’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첫 번째로, 노동을 주기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건강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는 쉬 하기를 주기적으로 하여 쌓인 스트레스와 지치고 피로한 심신을 충분히 회복시키고 체력을 재충전하여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다.

### **노동 실천하기**

노동 실천하기 교육의 목적과 목표는 주기적으로 노동을 실천하여, 체력 활동을 강화시켜 건강을 유지 및 관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 의도적으로 실천해야만 효과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와 직장과 일터의 실정과 형편으로는 주중에 날을 잡아 노동을 실천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어 현재는 매주 토요일은 쉬는 날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매주 토요일을 주1회 노동 실천일로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노동을 실천하는 구성원의 형편과 요구에 따라서는 특정일이나 주중 일과 후에 일정한 시간을 마련하여 노동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각종 농사일(주말농장 등), 화단 가꾸기(가정, 마을), 대청소(가정, 마을), 각종 노력 봉사 등이 있다. 만약 적당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구성원끼리 땀 흘려 즐길 수 있는 체력 단련을 할 수도 있다. 노동의 선정 기준은, 하나는 육체적인 노동으로 땀을 흘릴 수 있어야 하며, 다른 하나는 노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 노동 실천계획은 먼저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세우고, 다음으로는 계획에 의해 잘 운영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와 반성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 쉽 실천하기

쉽을 실천하기 위해서 휴식(쉽)의 날을 정해 운영한다. 휴식의 날 교육 프로그램은 첫 번째는 계획적으로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는 계획적으로 취미활동을 즐기며 쉰다. 세 번째는 계획적으로 각종 감상과 산책 등을 즐기며 쉰다. 쉰다고 해서, 무료하게 시간만 보내거나 잠만 자는 게 아니다. 쉬는 것도 계획적으로 쉬어야 생활리듬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계획이라고 해서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구끼리 즐기기, 가족과 즐기며 식사하기, 목욕하기, 어른 찾아보기, 종교의식 참여하기 등이 있다.

계획적으로 인생을 취미활동으로 즐기면서 살면, 정말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예를 들면 꽃 가꾸기, 각종 악기 연주하기, 미술활동하기, 채집과 수집하기, 책 읽기 등이 있다. 각종 감상(영화, 음악, 미술, 박물관, 유적지 찾아보기 등)과 산책도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각종 감상활동도 할 수 있다. 각종 감상과 산책활동에 대한 결과도 기록해서 반성과 평가를 하도록 한다.

## 4. 자기관리 능력

수용성 교육에 있어서 자기관리 능력 교육의 목적은 ‘자신의 에너지를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자신의 능력을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힘을 길러야 한다. 자기관리 능력이란 원하는 목표를 향해 자신을 통제하여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고 개인이 가진 시간, 물질, 적성 등의 에너지를 융합해서 바르게 분포시킬 수

있는 융합적 역량을 의미한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해도 자기관리 능력이 결여되면 교육 수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니얼 윌링햄(Daniel Willingham, 2009)은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우리의 행동(사고)을 의식하지는 못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제어하는 정신작용을 ‘적응무의식’이라고 부른다. 걷기, 말하기, 운전하기, 운동하기, 자전거 타기, 가수의 노래 부르기 등등 연습을 통해 습득(혹은 타고난)하여 우리의 일부가 된 모든 행동(사고)은 적응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적응무의식적 행동은 우리 인간이 ‘자기자극감수(proprioception)’라 불리는 ‘여섯 번째 감각’을 갖고 있어서 가능하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근육과 피부 등 지각기관으로부터 끊임없이 받는 피드백이다. 지각기관이 몸과 팔다리의 위치에 대하여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다. 이 피드백이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한 채 우리는 끊임없이 이 피드백을 체크하며 우리 몸의 위치를 조정한다(티모시 윌슨 Timothy Wilson, 2004). 신경손상으로 적응무의식적 메커니즘을 잃은 환자의 경우에는 팔다리를 자동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을 잃은 탓에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따지고 계산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통제하는 법을 익히고 움직일 때마다 의식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 환자의 경우는 걷기 위해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부터 의식적으로 따지고 계산하면서 해야 한다. 윌링햄에 따르면 “목표를 위해 의식적으로 행동할 때 쓰이는 신경 회로는 습관의 결과로 자동적인 행동을 할 때 쓰이는 신경 회로와 다르다. 습관적인 행동은 뇌 안쪽에 있는 기저핵에서 담당한다. 어떤 종류의 지식이나 기술, 특히 운동 기술이나 연속적인 과제를 오랫동안 훈련하고 반복하면 그것이 이 안쪽 영역에 기록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곳은 안구 운동과 같은 무의식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영역이다.” 즉, 유전적으로 타고났거나 훈련을 통해 습득하여 습관이 되면 무의식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영역에서

이를 담당하는 적응무의식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자기관리 능력이란, 원하는 목표를 향해 자신을 통제하여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 적응무의식 상태에까지 도달할 때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자기성장과 학습을 가능케 하려면 바람직한 습관을 포함한 자기관리 능력이 이 수준에 이르도록 학생을 이끌어야 한다. 이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기관리 능력의 기본 요소인 시간·재정·언어·태도·적성 등의 관리에 대한 각 요소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교육과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실천·실행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 자유에너지 확장

물리적 속성 중에 '자유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A라는 사람이 매달 300만 원을 번다고 하고, B는 500만 원을 번다고 하자. 그런데 A가 자신을 유지하는 데 소모하는 에너지가 모두 200만 원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에너지는 100만 원이다. B는 자신의 큰 몸집을 유지하느라고 비교적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여 모두 450만 원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하면, B의 자유에너지는 50만 원이 된다. 그렇다면 자연계에서 A와 B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에너지를 가졌을까? 외형은 비록 A가 작지만 자유에너지가 100으로 B의 자유에너지 50보다 더 크기 때문에, 결국 A가 B보다 더 큰일을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에게도 응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리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24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들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시간의 자유에너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가진다. 자신의 자유에너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 훨씬 더 여유 있게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

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관리 능력 교육에서는 자유에너지를 확장하는 원리를 배우고, 그 에너지를 바르게 분포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지지만 모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관리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장하여, 이 시간을 가치 있는 일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자유에너지 확장을 위한 시간관리 방식 중에 하나는, 아무 생각 없이 흘러버리는 조각 시간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여러 임상적인 통계에 의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하루 18~22시간 정도를 실제적인 활동에 투입하며 살아간다. 즉, 아무리 바쁜 사람들도 하루에 적게는 2시간, 많게는 6시간 정도를 무의미하게 흘러버리면서 산다. 그러므로 이 조각 시간들을 활용하여 자유에너지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원리로 재정관리도 해야 하며, 아울러 자신이 가진 에너지인 언어, 태도, 적성 등에 대한 관리 능력도 다음과 같이 훈련되어야 한다.

- 시간관리: 시간의 자유에너지를 확장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 재정관리: 재정의 자유에너지를 확장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 언어관리: 언어를 사용하는 기능을 익혀 일상생활화한다.
- 태도관리: 겸손함과 개방성으로 개혁하는 힘을 기른다.
- 적성관리: 자신의 적성을 정확하게 찾아 최대한으로 기른다.

이와 같은 기본 요소들의 능력을 하나로 뭉쳐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여 자아실현의 뜻을 이룰 수 있다.

## 5. 인간관계 능력

인간관계 능력 교육의 목적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남을 섬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있다. 그리고 인간관계 능력의 기본 요소인 나와 나, 나와 가족, 나와 동료, 나와 사회, 다이아몬드칼라의 인간상 등에 대한 각 요소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교육과 지도·훈련을 철저히 하고, 실천·실행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습관화와 생활화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인간이 자기가 생활하는 조직과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의 목표 달성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한다.

### 인간의 특질 이해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상처 때문에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울러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서이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상처는 열등감과 우월감에서 나오며, 이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 열등감은 자신에게 많은 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월감은 자신에게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단점이나 장점이란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 열등감이나 우월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간은 어떤 때는 장점처럼 나타나고 어떤 때는 단점처럼 나타나는, 자신을 특징짓는 특질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인식하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열등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데는 익숙해져 있지만, 자신의 소중한 점은 잘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표현하고 변환하는 장단점 변환법을 통해 자신의 특질을 찾아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약점을 뒤집어보면 굉장

한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우리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사로잡혀 있어 그것을 약점으로만 보게 된다. “나는 매우 우유부단하다”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보면 자신의 단점이 되겠지만, 뒤집어서 보면 “나는 어떤 일이든 신중하게 생각한다”라는 장점도 상통한다. 장점도 반대로 단점이 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장점으로 “나는 매우 결단력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우월감을 가질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나는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만 행동한다”라는 말과도 상통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특질을 이해하는 훈련을 통해 인간관계를 회복해나갈 힘을 기를 수 있다.

인간관계 능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인간을 인간으로 보기’다. 인간을 인간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현재 나에게 보이는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가지의 다면적인 인성 요소를 근거로 하여 총체적으로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가족, 동료, 사회, 인류를 바라봐야 한다.

- 나와 나: 자신의 특질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살려나가도록 한다.
- 나와 가족: 가족의 특질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살려나가도록 한다.
- 나와 동료: 동료의 특질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살려나가도록 한다.
- 나와 사회: 사회의 특질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살려나가도록 한다.
- 다이아몬드칼라 인간상: 다이아몬드칼라의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 **남 중심의 삶**

우리는 남을 위해 사는 삶의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교육해야 한다.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은 가치 있는 일에 헌

신하는 것이다. 진정한 가치는 남을 위한 삶의 태도에서 나온다. 공부하는 이유, 일하는 이유는 자신을 포함한 가정과 사회와 민족, 조금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의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뇌 안에는 모르핀보다 5배나 강한 ‘뇌 내 모르핀’을 생산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뇌 내 모르핀’은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던질 때 분비된다는 것이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 헌신했을 때 분비되는 이 호르몬은 그 즐거움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우리를 고양시킨다. ‘남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러한 진정한 기쁨을 알고, 삶의 효율을 이는 사람이다(하루아마 시게오,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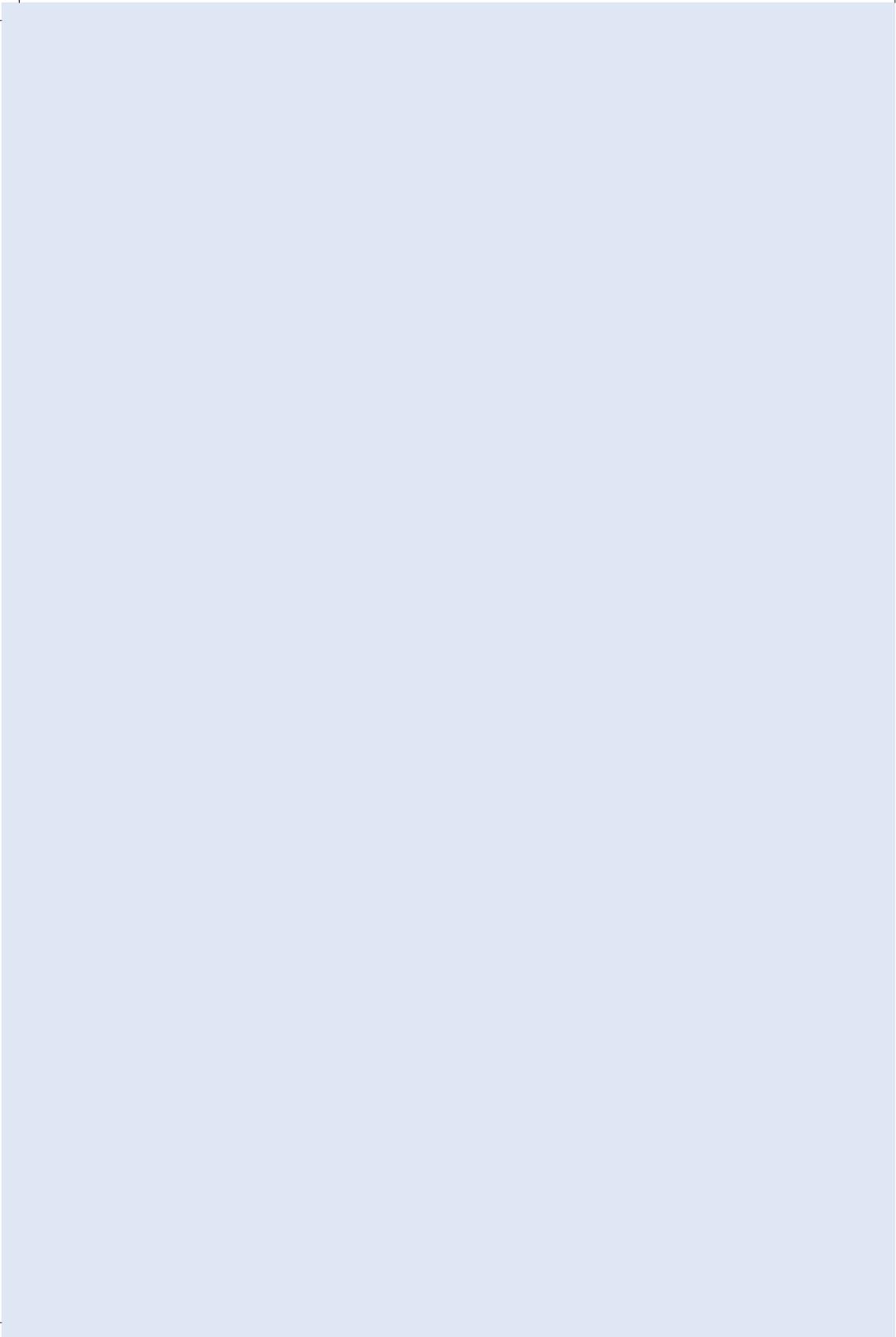
남 중심의 생각을 하면 자신의 삶에 강한 책임감과 의지를 갖게 된다. 우리는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를 이끌 아이들에게 남 중심의 삶을 일깨움으로써 이웃과 사회, 국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심어주고 현재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런데 한국인 중에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람들도 많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가와 사회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구성원들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질적·정신적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미래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제3부

# 미래교육의 내용



미래세대와  
행복교육

## 1. 미래세대의 행복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후속세대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품위 있고 긍정적인 세상을 만들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자연 생태계 훼손과 환경오염, 유한한 자원의 과다 사용, 고령화와 저출산에 의한 복지수요 증가 및 재정악화 등을 둘러싸고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어차피 교육은 미래를 겨냥한 사회적 활동이며, 미래교육 전략은 이런 미래세대의 행복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김경동, 2015).

좋은 교육이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도 중요하다. 그 끝은 인간의 행복에 있어야 한다. 행복의 정의를 바르게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지만, 교육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해방 이후 지난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는 ‘중단 없는 경제발전’이었다. 미래세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한

다. 그렇다고 발전과 성장을 그만두고, 분배만 공평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 발전하고 성장했다고 꼭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졌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물질적 조건은 행복감의 최소한의 필수조건일 뿐, 주된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행복은 물질적 조건의 향상 또는 공평한 분배로 달성되는 그런 좁은 개념이 아니다. 미국의 긍정 심리학계를 대표하는 에드 디너<sup>Ed Diener</sup>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즐거움을 자주 경험하며 슬픔이나 분노 같은 불쾌한 감정을 많이 겪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행복수준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반대로 기쁨이나 애정을 거의 느끼지 못하면서 사는 게 불만족스럽고 불쾌한 감정을 자주 느낀다면, 그 사람의 행복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 정의에서 보듯이, 디너는 행복을 외적조건이 아니라 주관적 느낌, 즉 ‘주관적 안녕감 *wellbeing*’으로 규정한다. 부자인지 가난한지, 이혼했는지 아닌지, 건강한지 아픈지, 또는 외모가 좋은지 아닌지 하는 조건 그 자체가 행복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느끼는가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가난해도 이혼을 했어도 행복할 수 있고, 외모가 안 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반면에 부자도, 건강해도, 외모가 출중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많다. 따라서 경제성장, 복지제도 확충, 분배의 공평화 등의 제도적 조건이 행복의 충분조건이라는 관습적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 2. 행복교육의 핵심 과제

“한국은 지나치게 물질 중심적이고, 이는 한국의 낮은 행복도로 나타난

다”는 에드 디너(2010) 교수의 지적대로, 한국 사람들의 행복도가 낮은 이유는 지나치게 물질에 치중하여 사회적 관계나 개인의 심리적 안정 등 다른 가치를 희생시키기 때문이다. 성공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개인의 취미 등과 같은 것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등한시한다는 것이다.

그는 행복에 대한 연구를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그치지 않고, ‘행복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로 질문 형식 자체를 바꾼 인물이다. 즉 ‘행복해지는 방법’이 아닌 ‘행복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하면서 ‘행복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그는 17세에 행복도가 높은 아이일수록 40세에 훨씬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 이유를 연구하니 행복감은 성취욕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행복감이 높을수록 성취감도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행복한 사람이 건강이나 성공, 인간적 만족도 등에서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 함께하는 심리학자인 소냐 류보머스키 [Sonja Lyubomirsky](#)는 행복과 성공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결혼생활이나 우정, 수입,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류보머스키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삶을 살아간다고 자신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사람은 즐거움을 느끼고 어려움도 견디게 된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일일수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자신의 일을 즐기며,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에게 성공이 가까운 것은 당연하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성공 후에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을 하기 때문이다. 미래세대에게 성공한 삶을 선물하

기 위해서는 성공의 제1법칙인 행복을 먼저 선물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문용린, 2015).

최근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라는 사실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이유는, 부모로부터 성취 지향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이렇게 성취 지향적인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행복보다 돈' 또는 '행복보다 성공'이라는 가치관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성공 후 행복'이라는 등식은 아이들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어른들, 특히 부모가 심어준 악영향 중 하나다.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점부터 부모들은 성적을 잘 받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며, 성공한 사람만이 행복하다는 '행복'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

영국은 1950년대에 비해 오늘날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1957년 '매우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이 52%였던 것에 비해 2005년에는 36%에 불과했다. 또한 현재 세계경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비해 우울증이 10배 증가했으며, 우울증이 발병하는 나이 또한 1960년대 29.5세에서 오늘날 14.5세로 낮아졌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경제력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돈이 많을수록 행복할 거리는 커다란 착각에 빠져 아이들에게 잘못된 '행복'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는 행복이 목표가 아닌 '돈'을 목표로 살아가게 된다. 아이에게 돈이 곧 행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물하고 싶다면 '돈'이 아닌 '행복'이 인생의 목표가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경제력은 작은 수단에 불과하다. 월급을 높이거나, 돈을 벌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 인간관계나 가족관계 등에 투자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깨닫는 교육이 필요하다.

### **행복역량을 키우는 교육**

다음 세대의 행복을 위해서는 두 가지 상이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첫째는 경제적·복지적 조건의 향상을 위한 행복제도(지속적 성장, 공평한 기회와 분배, 보험과 복지시설 확충 등)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며, 둘째는 이와 더불어, 국민들 하나하나가 현실적으로 처한 주어진 조건 속에서 각자의 행복감을 능동적으로 높이고 지속시켜나갈 수 있는 행복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이다. 행복제도와 행복역량은 국민행복시대의 필수적인 정책적 파트너다.

행복역량이란 불행한 처지를 극복하는 심리적 능력이라 볼 수 있다. 개인의 행복역량의 차이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태도와 희망과 절망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긍정적 요소는 매우 많다. 건강, 돈, 가정, 성취, 목표, 배려 등등.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사람의 관점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긍정적 요소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긍정적 마인드가 필요한데, 이를 행복역량이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 국민의 행복역량을 키우는 일이 중요한데, 특히 유·초·중·고·대학의 긴 교육과정을 통해서 행복 능력을 키우는 일을 우리 교육은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의 행복을 위한 미래교육의 핵심 과제다.

## 미래교육의 핵심역량

미래인재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적 지성이 필요하다. 둘째, 바른 세계관이 필요하다. 셋째, 전면적 인성이 필요하다. 넷째, 융합적 의식이 필요하다. 다섯째, 글로벌 의식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이런 미래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현실적 교육 방안을 <표 8>에서 제시했다.

### 1. 창조적 지성을 위한 학문의 9단계

한국과 같이 전 국민적인 교육열이 드높고, 국가나 가정에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입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학교에서의 공부 시간도 많고, 그 외에도 사교육 등으로 학생들은 엄청난 학습량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도 정말 이상한 것은 학문 분야에서 노벨상을 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투입한 에너지에 비해서 그 결과는

〈표 8〉 미래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 방안

기본 교육	미래 인간상	교육 프로그램과 원리	
미래인재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5차원 수용성 교육	창조적 지성	학문의 9단계	정보의 입수, 고도화, 표출
	바른 세계관	독서치료	독서, 동일시, 클라이맥스, 카타르시스, 통찰
	전면적 인성	5차원 인성	지력, 심력, 체력, 자관, 인관(희망, 신뢰, 사랑, 감 사, 나눔)
	융합적 의식	융합수리	함축, 변형, 구체화, 패턴화, 기타
	글로벌 의식	언어 수용성	사고구조 및 발성구조 변환

너무 작아 보인다. 이렇게 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배운 지식을 고도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적 운영 능력이 부족하여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아서다.

이상오 교수는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첫째, 창의성 교육은 특별한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원형(본질)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창의적이다. 즉, 창의성은 인간의 본성이다. 따라서 창의성 교육은 오늘날에 요청되는 특정한 교육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이다. 창의적으로 태어나는 인간, 즉 잠재적 창의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교육은 극히 당연하다. 다시 말하면, 교육은 원래 창의적 인간을 만드는 일이다. 고대인들은 돌맹이를 가지고 돌창, 돌도끼, 돌칼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 동물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공격함으로써 살아남기 위함이었다.

이때부터 인간은 창의력으로 살아남았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처음부터 본능으로 창의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교육은 인간의 잠재 능력(창의력)을 끄집어내는 일부터 시작한다. 창의적 교육을 위한 두 번째 인식의 변화로는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은 한 몸이라는 것이다 (이상오, 2016).

동서양을 막론하고 반성과 성찰은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교육의 과정이다. 더불어 인성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다듬어진다. 그래서 고전 읽기는 창의성 교육을 위한 중요한 답이다. 후마니타스(humanitas)는 고전으로 돌아가라는 르네상스 시대의 구호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 역사상 최고의 상상력과 창의력의 대명사인 이들이 고전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은, 고전 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성 회복을 위함이었다. 고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반성과 성찰을 한다. 우리가 지금 인문학의 중요성을 외치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성과 성찰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인문학, 고전 읽기는 수많은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인성이 다듬어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또한 반성과 성찰을 하면서 이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아이디어가 풍부해지는 순간이다. 고전은 기준(disipline)이다.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은 반성과 성찰의 대상이다. 물론 기준도 틀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읽으면서 많이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인성계발과 창의적 아이디어 산출에 확실한 도움을 준다.

창의성과 인성은 함께 자란다. 그래서 수용성 교육에서는 인성교육에 근거한 창의적인 학습과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여건을 조성해준다. 첫째, 현재의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융합·운영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창의적인 학습과 교육활동의 분위기를 조성해준다. 셋째, 학습과

교육활동을 창의적으로 한다. 창의적인 학습과 교육활동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일방적인 교사 중심의 암기 위주 입시 교육이 문제가 된다. 이로 인해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의적인 학습과 교육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 교사 중심의 암기식 교육에서,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창의적 학습과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즉,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토의·토론·발표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학생들의 활동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 정보의 고도화 능력을 주는 학문의 9단계

창조적 지성을 얻기 위해서는 정보를 고도화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보 재구성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정보를 분류·분석·종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표 9>에서 정리한 학문의 9단계를 통해 정보의 입수, 고도화, 표출 과정을 훈련함으로써 정보의 고도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입수한 정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를 질서화해야 한다. 정보를 질서화한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된 정보를 분류하고 분석해 활용하기 쉽게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똑같이 좋은 물건이 있는 가게라 해도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곳과 종류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곳은 분명히 그 가치가 다르다. 물건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가게보다는 품목별로 정리된 가게에서 물건을 찾기 쉬운 것과 마찬가지다.

정보를 질서화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본 후 부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퍼즐의 전체 그림을 본 사람만이 낱알의 조각을 맞출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지식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지식의 조각들을 활용할 수 있다. 전체를 보는 방법은 지식을 고공에서 내려다보는 고공 학습법을 사

〈표 9〉 창조적 지성을 위한 학문의 9단계

과정	단계	학습법	학습 목표	
정보 입수	1단계: 정보의 양 늘리기 (개인별 정보의 양 늘리기)	문해(속해) 독서법 (사선치기)	정보의 양 늘리기	
	2단계: 정보의 질 높이기 (평면적 정보의 질 높이기)	글 분석법 (밑줄치기)	정보의 질 높이기	사실적 글
	3단계: 사실과 감정 구분하기 (입체적 정보의 질 높이기)	글 감상법 (네모치기)		함축적 글
정보 고도화	4단계: 정보 조직화하기	고공 학습법· 상관관계 학습법	질서화하기	
	5단계: 정보 의식화하기	개념심화 학습법	구체화하기	
	6단계: 정보 내면화하기	질문 학습법	의식화하기	
정보 표출	7단계: 텍스트 표출	텍스트 글쓰기법	글로 표현하기	
	8단계: 그래픽 표출	그림 표출법	그림, 표로 표현하기	
	9단계: 함수 표출	함수화법	함수로 나타내기	

용하여 고공표를 만듦으로써 가능하다. 고공표는 책 한 권을 종이 한 장에 나타내는 것으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부분을 보는 것은 상관관계 학습법을 통해 가능하다. 상관관계 학습법은 고공표에서 나온 각각의 부분들이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아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다. 고공 학습법과 상관관계 학습법을 이용해 정보를 질서화함으로써 못 보는 것을 보게 해주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해준다.

정보의 질서화에 이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질서화한 정보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정보는 대개 추상적이며, 나와는 거리 있는 먼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내 생각과 느낌을

정리한다. 결국 정보에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내용을 선별하여 내 생각과 느낌에 관련을 맺는 작업이다.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개념심화 학습법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개념과 사전적인 개념을 비교 묵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입수된 정보를 고도화함으로써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입수하고 심화한 정보를 상황과 목적에 맞게 표출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표현법을 훈련해야만 한다. 정보의 표출에는 먼저 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으며,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겉으로 드러내어 표현하는 평면적 글쓰기와 주제를 내면화해서 숨긴 입체적 글쓰기, 이것들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종합 응용 글쓰기 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 평면적 글쓰기는 설명문이나 논설문과 같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논리적인 주장을 하는 글쓰기를 말한다. 평면적 글쓰기는 중심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므로, 중심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난 글을 분석할 때의 글 분석법을 역순으로 실행하면 된다. 입체적 글쓰기란 시나 소설 등의 문학작품들처럼 주제가 함축적·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글쓰기를 말한다. 종합 응용 글쓰기란 우리가 실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논술이나 보고서나 편지, 일기 쓰기를 말한다. 자신과의 의사소통의 매개가 되는 일기, 남과 하는 의사소통의 방법인 편지, 그리고 일에서 필요한 보고서, 문제 상황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논술 등이다.

의사전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유용한 방법 중의 한 가지로 우리의 두뇌 구조에 맞는 표현 방식이 있다. 글을 넘어서 사건의 내용을 그림, 도표, 선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공 학습의 원리, 상관관계의 원리, 개념심화의 원리, 함축의 원리, 분류의 원리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기호와 숫자로 구성된 함수를 사용하여 가장 함축적으로 세상의 사건

들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 함수화 표현법은 사건 내용의 깊은 핵심을 파악하고 심화했을 때만 가능하며 지식 표출의 고등 언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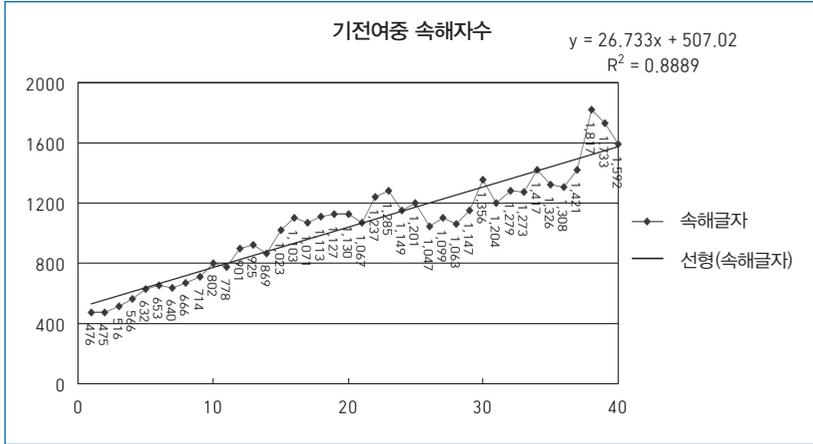
### 지력교육을 위한 학문의 9단계 적용연구

소강준(2005) 교수는 학문의 9단계 중 속해(문해) 능력의 신장을 통해 정보를 고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안구 운동, 의미 단위로 사전을 치면서 책 읽기, 내용 요약, 그리고 문제풀이(내용 이해와 관련된 문제풀이로 속해 자료에 대한 내용 이해도를 측정)를 진행하여 결과를 측정했다. 1차 대상 학교는 중학교 2개교와 고등학교 2개교이며, 2차는 J중학교 1학년 2개 반으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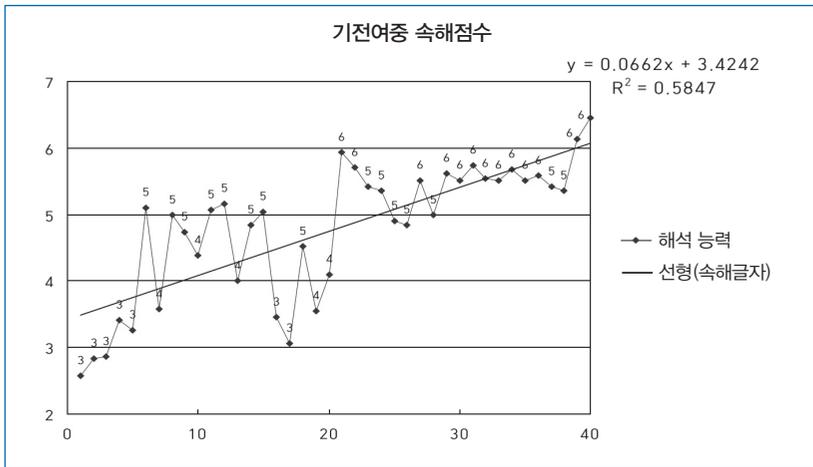
40회에 걸쳐 실시한 훈련 결과, 속해지수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476자에서 1,592자로 매일 26.7자 정도가 향상됐다( $y = 26.733x + 507.02$ ). 속해점수는 <표 11> 내용처럼 하루에 0.06씩 향상하여 완만한 증가를 보였다( $y = 0.0662x + 3.4242$ ).

결과를 통해 언어사용 능력을 다루는 국어와 영어 과목은 빨리 읽는 능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고, 속해력은 모든 교과목에 필수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언어능력이 모든 교과목을 학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임을 보여준다. 특히 이 결과가 대부분 주관식 문제에서 분명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은, 단순형 사고 과정보다는 복합적·종합적 사고 과정에서 언어사용 능력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 빨리 읽기 훈련만으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는 없고, 속해(문해)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정보의 고도화를 통해 창조적 지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균형 있게 발달시킬 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의 고도화 능력은 창조적 지성을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표 10〉 속해자수



〈표 11〉 속해점수



## 2. 바른 세계관 정립을 위한 독서치료

우리가 바른 세계관을 가지면 일관되고 통일된 삶을 살 수 있다. 인생의 목적은 세계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즉, 자족하며 살아가기에 생동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문화 충격과 충동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행동양식과 가치체계가 지속적으로 부딪치는데, 그때 세계관은 어떤 것을 취하고 버릴지 분별할 수 있는 체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세계관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관이란 인간 삶의 저변에 깔려 있으면서 가치체계와 행동패턴을 형성하는 개념이다. 행동양식과 가치체계를 바꾸기 위해 지식체계와 논리를 이용하지만, 세계관의 변화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이러한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전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체험이 필요하다. 세계관이 구성되는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성 + 체험 → 세계관

즉, 이성과 체험을 통해 세계관이 형성되므로, 세계관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성과 체험의 두 가지 모두의 변화가 필요하다.

### 세계관의 보정

입수한 정보가 머릿속에 확실하게 인식되어 의식화되면, 세계관에 영향을 준다. 정보를 의식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는 책이나 강의 등이 제시하고 있는 객관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사실을 사실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학문하는 힘이 된다. 그런데 이런 힘이 약한 사람에게 독후감을 쓰라고 하면 객관화를 잘하지 못해 자기 생각과 글쓴이의 생각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객관화만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으로 예측되기 쉽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주관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의식화의 두 번째 과정이다. 주관화는 객관화를 통해 찾아낸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밝히고 비판을 하는 것이다. 그래야 지식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정보를 객관화 및 주관화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 의식 있는 사회, 즉 객관적인 상식이 통하고 그 상식을 각자의 삶에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세 번째는 객관화하고 주관화한 정보로부터 스스로 체험하는 과정이다. 정보를 상상을 통해 간접경험할 수 있다. 이 단계를 위해 그 정보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는 질문 학습법을 활용한다. 이것은 정보를 내 세계관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내 생각을 깨우는 과정이다. 이런 질문을 통해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왜곡되어 있는 것에 자극을 주어,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세계관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어 왜곡된 내 세계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때 내가 삶에서 적용될 수 있는, 즉 간접경험이 가능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느낌은 완벽할 수 없다. 그 글을 쓴 사람의 객관화와 주관화가 완벽할 수 없으며, 그 글을 읽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오려면 거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는 좀 멀리 있는 자료에 불과하다. 그 지

식을 내 삶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삶에 어떤 것을 줄 수 있을지 예견해야 한다. 그리고 예견한 문제들로 우리 삶에 진지하게 질문해야 한다. 그 글의 내용과 느낌이나 생각이 우리 안에 바르게 내재하도록 돕는 장치인 셈이다. KAIST 강성모 총장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창조하는 인간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질문하는 인간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삶의 본질을 다루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는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 독서치료

세계관을 다루면서, 과거의 잘못된 지식과 경험으로 만들어진 부정적 사고의 치유가 매우 절실함을 알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사고의 기본 원인을 치료하여 긍정적 사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부정적 사고를 치유하는 내용과 방법이 일정하지 않다. 마치 모든 사람이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여기에 더하여 각 사람마다 사고하는 내용과 방법도 다르고, 사고하는 능력과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사고의 기본 바탕이 되는 교육 내용과 능력과 수준에 알맞은 치료법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치료 방안으로 수용성 교육에서는 독서치료를 적용한다(유혜숙, 2005). 독자는 책을 읽으면서 작중의 인물과 자신과의 동일한 상황이나 사고, 감정, 의식들을 찾아내게 되며, 그로 인해 작중의 인물과 동일한 감정과 의식을 내면에서 증대시킴으로써 작품에 몰입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과 사고의 이입은 작품의 클라이맥스에 이를 때까지 깊이 증대됨으로써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과 상황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 대신 표출되거나 분노가 폭발하기도 하며, 대리 만족을 통해 카타르시

스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카타르시스는 감정적 통찰력을 유발하는 과정인데, 통찰이란 독자가 작품을 읽음으로써 자신이나 자기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객관적 인식을 체득하는 것이다. 통찰은, 독서치료를 계속하는 과정을 통해 등장인물의 행동을 스스로 깨닫게 함으로써 자신의 동기조성이나 욕구를 달성할 수 있는 카타르시스를 동반한 감정적 통찰력을 갖게 하여 자신의 문제해결에 이르게 하는 독서치료의 원리인 것이다.

그 방법은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 스토리에 생긴 문제들과 당면한 역할들을 염두에 두고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허구의 스토리를 읽어가는 것이다. 그 허구의 스토리와 자신의 인생 스토리가 만나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독서치료의 시작이다. 문제는 자신의 인생 스토리가 결코 단면적이지 않고 전면적이라는 점이다. 즉, 자신의 인생 스토리는 어느 한 단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가지 영역, 즉 심력, 지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에 관계되어 유기적으로 상응하며 전면적으로 일어난다. 다시 말해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재정 문제를 다룬 책을 읽도록 할 수는 없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에게 건강관리에 관한 책을 읽어보라고 권할 수는 없으며, 극도로 과민한 자의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민족의 문제를 다룬 책을 읽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삶의 목표 문제로 방황하는 사람에게 학습 능력을 강화하는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는 것 등은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독서치료가 가지는 '상응성의 원리'다. 좋은 독서치료의 효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스토리가 상응하는 책을 읽어야 한다.

독서치료의 영역은 우리 인생 스토리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영역과 상응하는 심력, 지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들 다섯 가지 영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영역이 서로 상호관계

를 맺고 있으면서도, 내면적 영역(심력, 지력, 체력)과 외연적 영역(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으로 층위가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세 가지 영역(심력, 지력, 체력)은 전적으로 우리 인생 스토리 중에서도 내면적인 범위에 속한다. 즉, 나와 나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야기인 것이다. 반면에 뒤의 두 가지 영역(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은 자신의 인생 스토리에서 외연적인 영역을 말한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해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그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왜 우리의 독서 풍토가 심미적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에만 머무르고 사람을 치유하는 독서치료에는 진입하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다. 즉, 우리의 인생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가지 영역에 각각 적용되는 전면적인 책 읽기를 소홀히 한 채, 지식과 정보의 습득을 위해서 혹은 지식 배양의 도구나 지극히 단면적 접근만을 위한 도구로 인식해왔기 때문이다.

독서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필연적 과정이 있으며, 그 과정에는 우리의 감정과 사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원리들이 존재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바른 세계관의 구축에 도움을 주게 된다.

### 3. 전면적 인성을 위한 5차원 인성

5차원 인성이란 인성의 다면적 특성과 유기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언급된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인성교육들이 시행되었으나 어려움과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그 이유는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 등의 다섯 가지 인간 인성의 요소들이 부분적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유기체적으로 작용한다는 특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인성 요소들을 전면적이고 유기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전인격적 인성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실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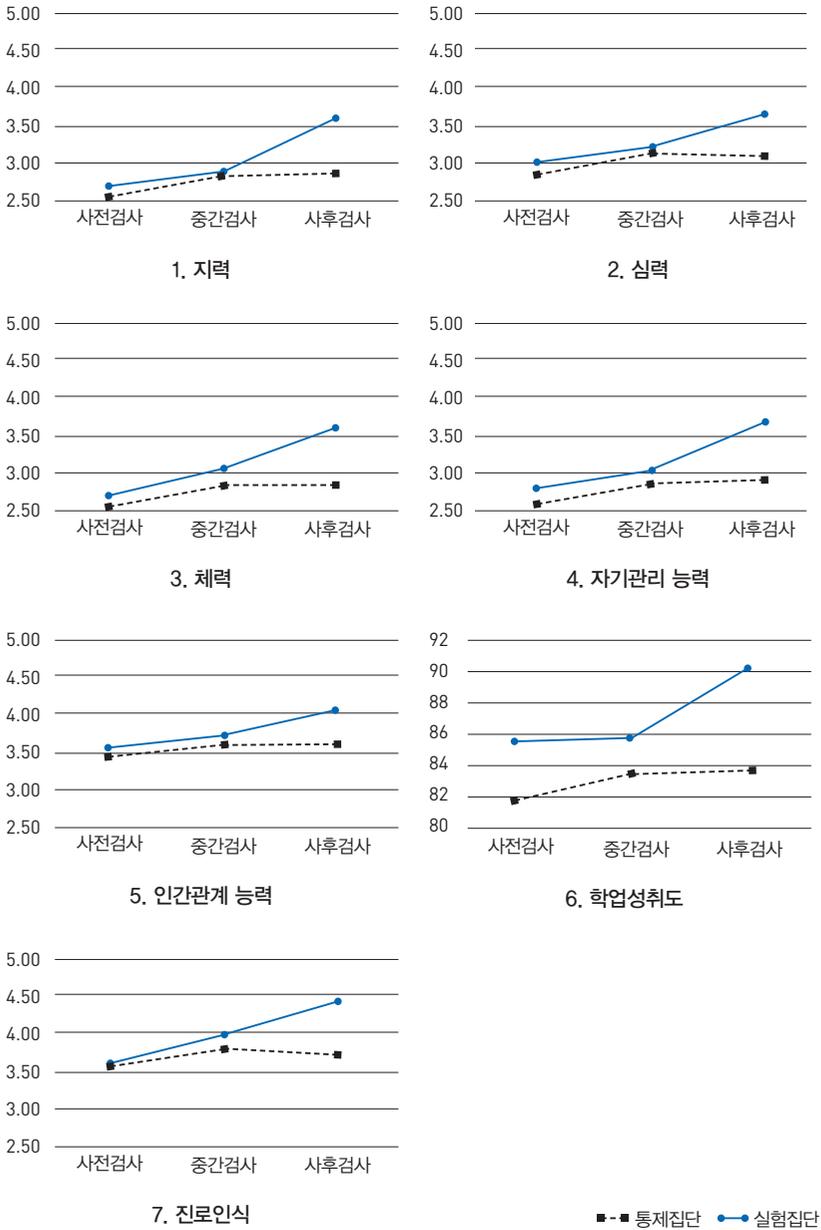
5차원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1단계로 교육 전 먼저 전인지수DQ를 측정하여 초기 상태를 설정하고, 2단계로 앞 장에서 언급한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의 훈련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실시하고, 마지막 단계로 전인지수를 다시 측정하여 변화를 관찰한다. 그리고 이 변화에 따른 교육효과를 확인한다. 이런 방식으로 5차원 인성교육을 실시한 예를 통해서 전면적 인성교육의 효율성을 확인했다.

#### 5차원 인성교육 적용연구

해남서초 신대정 교장은 5차원 인성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J학교 3~5학년 6학년 136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66명), 통제집단(70명)을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10개월(2013.3.1~2013.12.31)에 걸쳐 적용되었으며 결과는 <그림 6>과 같다(신대정, 2015).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학습의 9단계 유형에 따라 교과 학습법을 재구성했으며, 글 관련 3분 묵상 자료 45개와 동영상 자료 15개 등을 60회기로 개발하여 사용했다. 전인지수와 이에 따른 학업성취도와 진로인식은 사전검사, 중간검사,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확인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통제집단은 지력, 심력, 체력 모두 사전검사를 기준으로 사후검사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으나, 실험집단은 사후검사에서 점수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의 경우도 통제집단은 중간검사와 사후검사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실험집단은 사후검사에 점수가 상당히 높아졌다.

〈그림 6〉 통제집단과 측정 시기 간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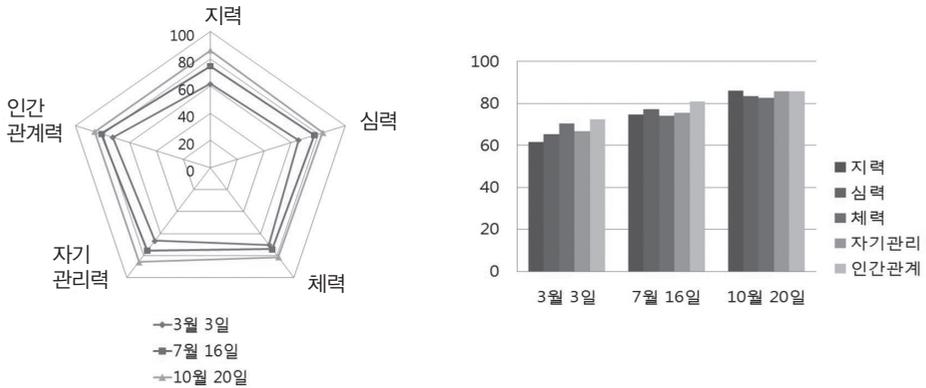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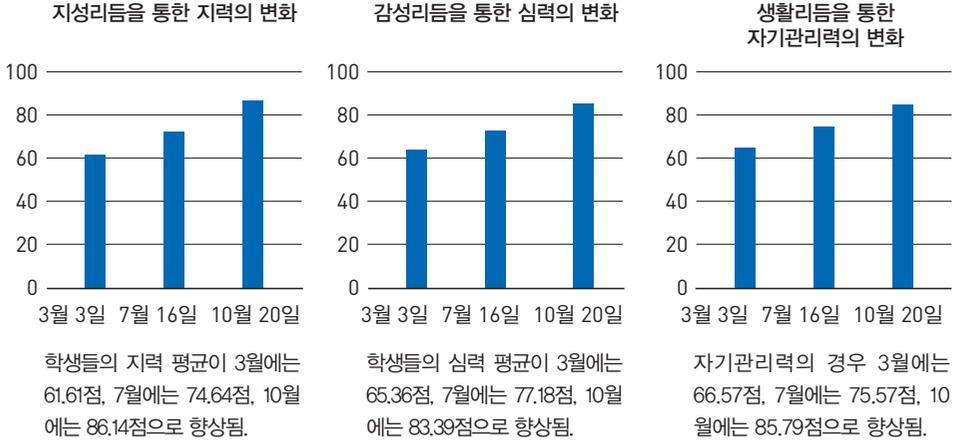


본 연구를 통해 다음의 결론에 도달했다. 지금까지 많은 공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공부를 더 많이 열심히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학생들의 전면적 인성을 회복하고 이에 따라 진로인식을 높여주는 것이, 그들이 공부를 더 잘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공교육에 전인격적 인성의 요소들을 전면적이고 유기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수용성 교육의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소양초등학교 광지순 교사는 2011년도 본인이 맡았던 학급이 진단평가 결과 12등 중 10등이었는데, 전면적 인성교육을 실시한 결과 1학기, 2학기 말 평가에서 1등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평균 24점 정도 받는 부진 학생이 71점으로 상승하는 기적도 이루었다(인천시 교실수업개선 연구대회 1등급 보고서, 2011).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초에 DQ 검사를 실시한 후, 학급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던 지력(지성리듬 프로그램), 심력(감성리듬 프로그램), 자기관리력(생활리듬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체적인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결과는 <그림 7>과 같이 부족한 영역을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지도하면 해당 영역이 상승함으로써 거의 비슷한 물통의 모습, 정오각형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학생들이 전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전면적 인성의 변화를 통해 학습 능력도 신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지력, 심력, 자기관리력 지도 후의 변화



3월 3일에 실시한 1차 평가에서는 다섯 가지 영역이 60~70점 정도 수준에서 지력, 심력, 자기관리력이 다른 영역보다 10점 이상 낮은 발달 불균형을 보였으나, 프로그램을 꾸준히 지도한 결과 10월 20일에 실시한 3차 평가에서는 모든 영역이 80점 이상의 결과를 보였으며 다섯 영역의 점수 차이도 5점 정도에 불과했다.

## 4. 융합적 의식을 위한 융합수리

### 융합교육의 목표

융합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는 분과과학<sup>discipline</sup>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새로운 그 무엇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학문적 한계에 대한 자성으로 시작되었다. 앞으로는 전공과 전공, 학문과 학문 간의 융합으로부터 시작해 제품과 제품 간의 융합에서 제3의 새로움이 창조된다. 특히 오늘날은 테크놀로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고, 기술혁신의 전제조건이 융합이 되었다(김용근, 2012).

그런데 융합<sup>convergence</sup>이 정말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체<sup>divergence</sup>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융합은 이것저것 붙여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 물리적 융합으로는 모자이크밖에 안 된다(박이문, 2012). 화학적 융합이 필요하다. 이는 우선 해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구상할 때 모든 것을 먼저 해체했다. 전화기의 송수신기를 해체했으며, 컴퓨터로부터 키보드와 마우스를 해체했다. 창조적 해체<sup>de-construction</sup>의 교육이 필요하다.

### 미래사회를 향한 융합교육

세상은 빠르게 융합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은 여전히 칸막이 문화에 빠져 있다. 물론 우리 교육기관이 변화를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충분하고 적절하게 융합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와 산업은 융합적 사고와 융합적 인간형을 요구하는데 우리의 교육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안들을 내놓고 있다. 초중등 과정에서 문과학생도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

고 이과학생도 인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른바 ‘융합인재교육 STEAM’을 천명한 것이다. 지능지수를 뛰어넘어 융합 지수CQ를 높이는 교육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려도 적지 않다. 다양한 견해를 인정하지 않은 채, 과목 수만 늘려 학생과 교사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금의 방식대로라면 융합교육 1등급, 2등급, 3등급식의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 얇고 넓은 지식이 주입식으로 가면 융합인재교육은 실패하고 만다.

한국의 융합교육의 여건을 두고도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우선 낙관론이다. 우리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즉, 융합이 가능한 공간적 접근성이 우수하다. 한국인의 성향은 역동적이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두려움을 적게 느끼는 성향을 갖고 있다. 또 일제와 개발독재를 거치면서 알아지기는 했지만, 두레나 향교 같은 독특한 공동체 문화유산을 갖고 있다. 융합의 최적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인 것이다. 하지만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자신의 분야만 중시하는 ‘청맹과니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통은 융합의 첫걸음이다. 조직 간의 벽, 전공 분야 간의 벽, 이런 것을 깨는 게 매우 중요하다(김경만, 2000). 남의 것을 좇는 연구를 할 때는 내 분야만 하면 되지만 새로운 연구를 하려면 영역을 넘나들며 소통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와 한국인에는 분야 간 소통을 이끌어갈 만큼 시민 의식과 인성이 충분히 축적돼 있지 않다. 거기에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의 교육은 다양성을 극대화하고 창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앞으로 학생들은 세계로 나아가서 수업을 받고 대학 간의 벽도 사라질 것이다. 한국은 교육제도를 개선해 학생들이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미래전략은 ‘담대한 상상’에서 출발할 때가 적지 않다. 그런 면에서 학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학문융합’ 환경에서 미래의 융합교육을 위해 대담한 화두를 던져본다(이규연, 2015). 앞으로 15년 내에 ‘대·융합대학’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가장 큰 과학기술교육기관인 KAIST, 역시 국내 최대 문화예술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을 하나로 묶어 세계 최고, 최대의 융합대학을 만드는 전략이다. 대표적인 과학 지식과 문화예술 집단이 힘을 합쳐 가칭 ‘한국과학예술융합학교’가 탄생한다면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의 융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40여 년 전 카네기기술대와 카네기예술대, 멜론연구소가 합쳐져 지금의 카네기멜론대학이라는 창의집단이 만들어진 것처럼 말이다.

융합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융합 그 자체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성숙한 인재를 만드는 것이다. 융합교육 과정이 창의와 성숙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개악이 된다. 따라서 문과와 이과를 어우르는 과목의 도입과 함께,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글과 말로 표현하면서도 사회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할 줄 아는 ‘창의적 세계시민’을 융합교육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 **융합적 의식을 위한 융합수리교육**

융합적 능력은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 구현되어왔다. 단일한 지식이 인간의 이성적 작품이라면, 오늘날 테크놀로지를 가능하게 해준 융합지식은 상상력의 산물이다. 물론 상상력이 모두 창의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상력 없는 창의성은 불가능하다. 상상력은 사유의 원천이자 본질이다. 이는 이성과 감성보다도 앞서서 ‘생각’ 그 자체와 함께 출발하기 때문이다. 즉, 인간에게 모든 생각은 상상에서 시작된다. 테크놀로지 역시

이성과 감정 이전에 ‘생각’과 함께 출발했다. 생각하는 두뇌 능력이 상상력을 키우고 융합적 능력을 갖게 만든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융합적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두뇌로 바르게 생각하는 사고훈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인간은 사고를 바탕으로 언어를 창조하고, 사고의 결과인 언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한다. 언어와 사고는 정확하게 일대일로 맞아 떨어지는 관계는 아니지만 양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따라서 우리의 언어사용 능력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사고 능력을 향상시켜 융합적 의식을 길러주기 위해 매우 유익한 방법 중 하나는 수학의 활용이다(이한진, 2016). 수학은 인간이 만든 가장 고도의 언어이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사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의 형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서술적 언어, 그림도표의 언어, 수학적 언어가 그것이다. 원을 세 가지 언어로 표현해보자. 원을 서술적 언어로 표현하면, 한 점에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을 그림도표의 언어로 표현하면 동그란 원을 그리면 된다. 또한 원을 수학적 언어로  $x^2+y^2=r^2$ 과 같이 표현한다. 자연 현상이나 사회현상이라는 정보를 표현할 때도 수학적 언어로 활용하면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어떤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가 있다. 수학적 언어는 복잡한 현상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매우 추상적이고 함축적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진다.

이와 같이 고도의 언어를 통한 사고훈련을 함으로써 사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상상력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융합적 의식을 기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저 수학문제를 많이 풀어서 수학을 잘하게 하는 것

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사고 유형은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임소영, 2005). 즉, 함축화, 변형화, 구체화, 패턴화, 그리고 기타이다. 함축화란 서술적 언어를 수학적 언어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 변형화는 수학적 언어를 다른 수학적 언어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 구체화는 수학적 언어를 서술적 언어 혹은 그림도표의 언어로 바꾸는 능력, 패턴화는 주어진 상황에 감추어진 패턴을 찾아서 수학적 언어로 바꾸는 능력이다. 그리고 기타로는 서술적 언어와 그림도표 언어 간의 교환 능력이 있다.

수학은 언어이고 수학에서 하는 사고 과정이 결국 위와 같이 어떤 언어를 다른 종류의 언어로 바꾸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융합적 수리 사고훈련을 통해 언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상상력을 길러주고 이를 통한 융합적 의식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한다.

#### 융합적 의식을 길러줄 수 있는 수학교육의 중요성

수학교육이 인재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서구의 역사에서 상당히 오래되었다. 고대 이집트와 바빌론은 농업 국가였다. 국가의 세금은 농업 생산물에서 나왔다. 세금을 거두는 역할을 했던 서기관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학교육을 받았다. 농업을 위해서 수로를 만들고 창고를 만들어야 했다. 이에 필요한 기하학도 그들의 중요한 교육 내용이었다. 수학교육이 깊이를 더하게 된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였다. 천 년간 서구의 수학교육을 담당해온 유클리드의 《기하학원론》은 태생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본 가정에서 출발하여 학생들에게 기하학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목적이다. 학생들은 논리적·독립적·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고대 그리스에서 수학은 수

학으로 그치지 않았다. 철학이 발전했고 미술과 건축, 디자인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들만의 미학관을 형성했다. 이 미학관은 근대까지 서구의 미학을 지배했다.

오늘날 우리에게 수학은 여전히 중요하며, 인재교육에 없어서는 안 될 주제다. 수학의 특성을 살펴보면 수학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이한진, 2016). 수학의 첫 번째 중요성은 사고력이다. 수학적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수학은 관념 속에 존재하는 대상을 다룬다. 따라서 수학은 공부하면 추상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 현상을 일반화시켜 사고할 수 있게 되고 근원적 사고를 하게 된다. 이런 속성 때문에 수학은 모든 학문의 근본이라고도 말한다.

두 번째 중요성은 소통 능력이다. 역시 수학의 특성과 연관이 있다. 수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룬다. 수학적 대상은 물리적 대상이 아니고 관념적 대상이다. 사실 이 점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수학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수학이 갖는 힘이다. 추상적인 대상을 다루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통해 소통 능력이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세 번째 중요성은 응용 능력이다. 수학은 놀랍도록 다양한 현상들을 잘 설명한다. 수학적 능력은 현상을 보고 그 현상에서 질서를 발견하여 그 질서를 수학적 개념과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다. 수학의 이러한 능력 때문에 많은 학문이 수학을 도구로 사용한다. 대학에서 많은 전공 학문들이 학생들에게 수학을 배우게 하는 이유다.

네 번째로 수학은 융합적 능력을 길러준다. 새로운 도전과 과제들은 융합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며 수학은 이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고

본다. 융합적 능력은 상상력을 통해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각 대상의 현상 뒤에 있는 본질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유사성과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수학이라는 거대한 세계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수학자들은 끊임없이 어떤 구조가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 서로 다른 수학적 구조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질문을 계속한다. 데카르트는 좌표계를 도입함으로써 기하학의 문제를 대수학의 문제로 전환할 수 있었다. 연속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이산적 구조를 가진 대상 속에서도 일어난다. 이론물리학의 끈이론이 기하학 연구에 영감을 주기도 한다. 수학은 궁극적으로 다양한 세계를 거시적으로 보도록 요구하며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질문한다. 따라서 융합적 능력은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로 수학은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아름다움은 수학에서 아주 중요한 관심사다. 아름다움은 질서에 대한 감각이다. 자연의 질서를 발견하는 도구가 수학이다. 수학은 질서가 있는 패턴과 구조를 이해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미래에 필요한 것은 수학에 있어 기능적인 것보다 수학교육을 통해 생기는 감수성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수학교육은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학생들이 정말 수학을 즐기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할 수 없다면 수학적 감수성을 배양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 **융합적 의식을 길러줄 수 있는 수학교육의 어려움**

한국 수학교육의 어려움을 대표하는 단어는 아마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자'일 것이다. 2015년 7월 박홍근 의원은 전국 초중고 9,022명을 대상으로 수학교육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학을 포기한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교 6학년 36.5%, 중학교 3학년 46.2%, 고등학교 3학년 59.7%였다. 한편 아주대학교 고희경 교수가 2015년 11월 대한수학회 주최 수학교육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는 조금 차이가 있다. 초중고 2만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수포자의 비율이 초등학교 8.3%, 중학교 15%, 고등학교가 20.3%였다. 2015년 3월에 발표한 정부의 '제2차 수학교육종합계획'의 주된 관심도 어떻게 하면 수포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였다. 박홍근 의원의 통계나 고희경 교수의 통계 결과에 차이가 있으나 공통점은 수포자의 비율이 급증하는 때가 중학교 시기라는 점이다.

수학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 흥미를 잃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수학교육은 과거에 비해 학생들에게 큰 좌절을 주는 요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중학교에 가면 수학의 성격이나 교육 방법이 갑자기 변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지 못한 학생들의 흥미가 크게 떨어진다.

둘째, 자율적인 학습 능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중학교로 올라가기 직전에 많은 부모들이 학생들에게 선행학습을 시킨다. 선행학습이 학생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 등의 사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 습관도 저해된다.

셋째, 수학을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교육은 수능시험을 초점으로 하여 진행된다. 수능시험은 상당 부분 변별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문제보다 인위적인 문제가 많다. 인위적인 문제에 길들여지면 위험한 점이 많다. 수학공부에 대한 목적 의식을 잃어버리며 수학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심어준다.

넷째, 수학공부를 할수록 지치기 때문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발생

하는 문제점은 많은 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정부에서 수포자를 줄이고자 교과 내용이나 교육 방법을 아무리 바꾼다고 해도 수학이 대학입학의 당락을 결정한다면 수학교육은 시험을 잘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로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수학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비단 수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학 신입생들에게 최근 재미있게 읽은 소설이 있냐고 묻자 소설을 더 이상 읽지 않는다고 한다. 쉬고 싶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문학이 시험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음악이 있는 것처럼 좋아하는 작가가 있고, 그 작가의 작품을 찾아 읽는 것이 그들에게는 상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아마 음악이 능형시험 과목이 된다면 음악 산업이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

#### **해결 방안**

이와 같은 네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첫째, 흥미를 주어야 한다. 수학은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학생이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된다면 반은 성공한 것이다. 수학은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 내부에 추진력이 있도록 키워주어야 한다. 동기부여가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수업 내용이 실생활과 괴리가 있기에 흥미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연결된 문제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수학은 좋은 문제와의 만남이 필수적이며 이 문제를 음미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가 학생에게 흥미로워야 하고 학생은 그 답에 대해 궁금해해야 한다. 문제가 어떤 수학적 원리나 개념 또는 이론으로 인도한다면 좋은 문제다. 유명한 ‘코니히스베르크의 다리’ 문제는 그래프이론과 더 나아가 위상수학으로 연결된다.

둘째,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수포자의 원인을 보면 수학을 못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지력이 약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수학 이전에 정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수학은 수학이라는 학문 하나만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 읽고 쓰기를 잘 못하는 학생은 수학도 잘하지 못하고, 읽고 쓰기를 잘하는 학생은 동기 부여를 잘해주면 수학을 즐기면서 배울 수 있다.

셋째, 수학학습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수학이라는 주제는 고립된 것이 아니다. 수학의 발달은 과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대의 수학도 천문학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견인 역할을 했다. 철학과 수학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학교 교육에도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비추어볼 때 이것은 아직도 유효하다.

넷째, 수학학습을 통해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수학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교사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학을 가르치는 방식을 바꾸어야만 한다. 1) 원리는 알지 못하고 계산만 하는 요령을 익혔기 때문이고, 잠시 성적을 올릴 수 있지만 수학적 능력이 향상되지 않아 결국 지쳐버린다. 이런 상태가 중고등학교로 가면서 수학을 포기하는 이유가 된다. 그러므로 원리의 이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교과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2) 어려운 수학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수리적 사고를 위해서는 함축, 변형, 구체화, 패턴화 등의 능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297+74=\square$ 라는 문제를 계산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변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297+74=300+71=\square$ 라는 문제로 변형시켜 371이라는 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계산력도 중요하지만 변형 능력은 더 고도화된 수학적 사고력이

다. 따라서 서술적 언어를 수학적 언어로, 수학적 언어를 다른 수학적 언어로, 수학적 언어를 서술적 언어 혹은 그림도표의 언어로, 주어진 상황에 숨겨져 있는 패턴을 찾아서 수학적 언어로 바꾸는 능력들을 훈련해야 한다.

3) 수학은 저학년 때 배운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 다음 단계에 재진입을 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다. 그러므로 이전의 약점을 찾아서 먼저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초등 수학에서 학생들이 쉽게 포기하는 분수의 나눗셈 익히기, 이에 따른 비례식, 백분율 문제, 농도, 속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중등학생들은 미지수( $x$ )와 무리수의 개념, 그리고 방정식과 함수의 개념을 인식할 수 있는 훈련을 강화시켜 포기했던 수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5. 글로벌 의식을 위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 세계가 단일 사회체제로 변모하는 글로벌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의 브라이언 뉴베리 [Brian Newberry](#) 교수는 글로벌 인재의 조건으로, 첫째 자기성찰 지수가 높아야 하며, 둘째 높은 직업윤리 의식을 가져야 하고, 셋째 소통과 협력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외국어 습득 능력을 길러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고와 행동영역을 크게 넓힐 수 있어야 한다. 즉,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다중 언어능력이 필수다.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외국인과 말이나 글을 통해 의사소통

을 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모국어로는 얻을 수 없는 해외 문화와 정보를 얻는 수단을 갖게 된다. 모국어만 알다가 외국어를 알게 되면 지식의 폭이 넓어진다. 외국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더 많은 지식에 접근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근본적인 실력의 차이가 나게 된다. 더구나 외국어는 자기가 모르는 분야를 개척하는 효과적인 도구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범위를 크게 넓힐 수 있다. 다중 언어능력은 모국어로는 극복할 수 없는 타 문화의 벽을 넘어서 인류가 공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의식을 갖추는 데 필수적인 외국어를 배우려는 노력을 많이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소수의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국인들 중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들도 영어를 잘하며, 심지어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는 문맹자들도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란 특별한 언어감각이나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언어습득 과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언어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약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이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의 특성과 구조를 이해하고 그것을 익힐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배운다면, 어느 누구라도 어떤 언어가 되던 그 장벽을 넘어 언어를 익힐 수 있다.

세계의 다양한 언어를 살펴보면 서로 차이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말의 순서를 바꿔놓은 것일 뿐이다. 한국 사람은 '나는 / 밥을 / 먹는다'라고 말하지만, 영미권 사람은 '나는 / 먹는다 / 밥을'이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 사람은 '먹는다 / 나는 / 밥을'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같은 내용이라

도 서로 순서를 바꾸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언어 사이의 순서를 잘 익히고 그 순서들이 갖는 법칙, 즉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구조를 이해한다면 어떤 언어라도 쉽게 익힐 수 있다(원동연, 2000).

언어는 글뿐만 아니라 소리를 내서도 표현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내는 소리를 바르게 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삐꾸기는 삐꾸 하고 운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삐꾸기는 삐꾸 하고 소리 내며 울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삐꾸기와 발성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삐꾸기 소리를 있는 그대로 낼 수가 없어 의성어로 삐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렇게 결정하고 삐꾸기 소리를 들으면 삐꾸이라고 들린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며, 우리가 삐꾸기의 발음을 있는 그대로 내지 못하면 삐꾸기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다.

각 외국어 사이에도 서로 다른 발음들이 존재하는데 각 언어들의 발성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발음을 정확하게 내지 못한다. 발음을 정확하게 내지 못하면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발성구조를 익혀 동일한 소리를 낼 수 있다면 언어능력을 급격히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사고구조를 변환할 수 있는 사고구조변환 학습법, 그리고 외국인과 동일한 발음을 낼 수 있는 발성구조변환 학습법을 익히는 것이 외국어를 배우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사고구조와 발성구조의 변환 훈련을 통해 언어 수용성과 외국어 학습 능력을 획기적으로 기를 수 있다(박상희, 2016).

한국인은 '나는<sub>S</sub> / 버스를 타고<sub>how</sub> / 음식을 사러<sub>why</sub> / 가게에<sub>where</sub> / 갔다<sub>v</sub>'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영미권 사람들은 '나는<sub>S</sub> / 갔다<sub>v</sub> / 가게에<sub>where</sub> / 음식을 사러<sub>why</sub> / 버스를 타고<sub>how</sub>'라고 말한다. 한국인은 주어를 먼저 이야기 한 후, 미국인이 가장 뒤에 이야기하는 when, how, why, where 등의

부사어를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whom과 what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주어 다음으로 사용하는 동사를 말한다. 이와 같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서로 거꾸로 생각하는 사고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인의 사고구조 또한 다르다. 중국인은 주어를 이야기한 후에 한국인처럼 when, where, why, how 등의 부사어를 이야기한다. 다음은 영어처럼 동사를 먼저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whom과 what을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어는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중간적인 사고를 가진 것이다(민성아, 2002).

일반적으로 각 언어를 살펴보면 다양하고 복잡한 언어구조를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언어는 소위 1대원리라 불리는 한 가지 형태pattern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한 가지 형태를 완전히 이해하고 익히면 그 언어의 사고구조를 익힐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언어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언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그 외국어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각 언어가 가지고 있는 구조의 형태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언어의 사고구조 형태를 먼저 체득하고 언어를 배우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다. 이런 원리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정연희, 2006).

부산대학교 영문학과 안정현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기존의 영문법을 바탕으로 배운 영어는 학생들에게 영어학습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며, 근본적으로 영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교육이라고 한다. IQ가 70 이상만 되면 모든 미국의 어린이들이 영어를 다 잘 말하는 걸 보면 우리가 배우는 영어교육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영어를 마스터하기 위한 바른 방법은 1대원리 5소원칙에 근거해서 사고구조를 변화

할 수 있는 ‘Sense Group Grammar’를 익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완호 교수는 영어와 한국어 사이의 어순의 차이를 대조 분석함으로써 사고구조변환법 지도가 학습자들의 영어 쓰기 능력 향상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다.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지적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훌륭한 도구를 익히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도구를 활용하여 문화의 벽을 넘어 글로벌한 사회에서 인류가 함께 공존할 길을 모색할 수 있다.

### 사고구조변환 연구 결과

김완호(2011)는 월터스(Walters)의 단계적 접근 방식이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의 우리나라 영어 쓰기 지도에서는 매우 필요한 접근 방식이라 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출발점을 원동연(2000)이 제시한 어순을 중심으로 한 사고구조변환법에서 찾았다. 월터스(1983)는 효과적인 영어 쓰기 지도를 위해서는, 먼저 기본 문장패턴을 배우는 단계, 둘째 이 기본 문장패턴을 확장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여러 단락으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개발하는 단계와 같은 단계적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사고구조변환법의 핵심은 SOV식 사고구조를 하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을 SVO식의 영어식으로 사고구조를 유연하게 변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영어식 어순체계, 또는 사고체계에 익숙해져 영어에서 한국어, 또는 한국어에서 영어로 사고체계를 유연하게 전환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SVO식의 영어는 SOV식의 한국어와 상당 부분에서 대칭적 구조를 보인다. 그 주요한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에서는 서술어가 반드시 문장의 제일 뒤에 와야 하며, 수

식어는 피수식어의 앞에 위치한다는 몇 가지 제약을 제외하고는 구성 성분들의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운 자유어순에 속한다. 이에 반해 영어는 단어 순서 위주의 위치 중심어가 되어 구성 성분의 밀착도가 강한 고정어순의 체계를 이룬다. 둘째, 목적어 간의 어순에서 한국어는 위치 변화가 자유로우나 영어는 제약이 따른다는 차이가 있다. 셋째, 한국어는 개별적인 문장 및 담화 상황에서 주어 생략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영어에서는 주어들을 거의 모든 경우에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넷째, 한국어는 수식어가 아무리 길어도 ‘수식어+피수식어’ 관계가 철저하게 지켜지지만, 영어는 적어도 표면구조에 있어서는 수식어구가 중심어의 앞뒤에 모두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섯째, 부사어의 위치에서 한국어는 부사어가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올 수 있지만, 영어는 동사와 목적어 사이의 결합 강도가 강하여 기본적으로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부사어가 올 수 없다. 여섯째, 전치사와 후치사(조사)의 사용에 있어서도 양국어는 상호 대칭성을 보인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양국어의 차이를 인식하고 지도를 함에 있어, 사고구조변환법을 통한 어순중심 쓰기 지도가 학습자들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그 효과를 검증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영어 정규 수업 현장에서 영어 쓰기 교육이 상당히 간과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TOEFL, TOEIC, TEPS 등 거의 모든 영어 학력 평가에서 쓰기 능력 평가가 강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 차이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쓰기 능력 성취도가 향상되었다. 이는 그동안 대조분석 가설의 부분적인 단점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어순 지도 등 대조분석에 기반을 둔

교수학습 방법들이 지나치게 간과되고 있는 점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 사고체계, 논리 전개 방법 등이 대단히 규칙적으로 대칭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은 영어교육의 효율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EFL 상황의 우리나라 학습자들은 사전·사후 쓰기 능력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보상 전략, 인지 전략을 유의한 수준에서 활발히 사용하고 있었다. 넷째, 이는 영어와 한국어 사이의 어순 차이를 대조분석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사고구조변환법, 즉 어순중심 쓰기 지도는 학습자들의 영어 쓰기 능력 향상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고구조변환법을 사용한 어순중심 쓰기 지도는 일정 기간 특정한 언어의 사고체계에 고착화되어 있던 인간의 언어회로에 새로운 사고체계, 즉 어순을 접목시키는 복잡한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짧은 기간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단문의 생성 능력에는 신속한 변화가 일어난다. 사고구조변환법을 통해 영어 쓰기에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우리나라 학습자들이 어순 차이에 대한 규칙 인지의 수준을 넘어 '규칙에 따른 습관을 형성'하여 모국어의 간접 현상을 극복하고 문자를 통한 보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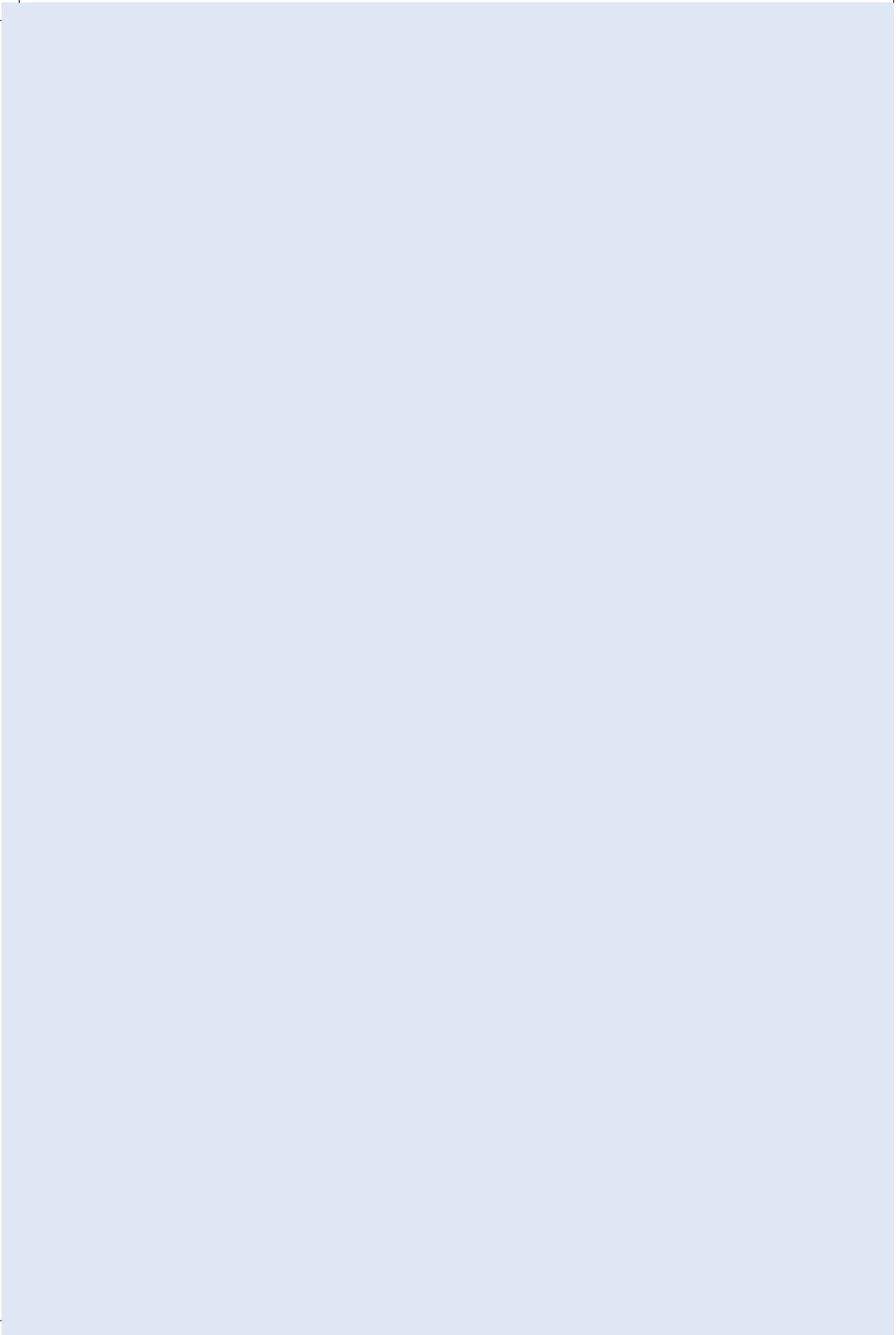
미래사회는 인터넷에 의한 초연결 사회, 이에 따른 새로운 산업혁명 등으로 인류는 그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에서 살 것이다.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고령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통전적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 수용성 교육을 통해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을 지나 노인 시기까지를 관통하여, 전 생애를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통전적 평생교육 전략을 논의한다. 아울러 현재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교육과 공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의 개선 방안도 함께 설명한다. 특히 한국의 청년들이 거쳐야만 하는 군대 교육을 통해 국민교육으로서 수용성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노년 계층의 교육을 강화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저하의 문제점을 극복할 방안도 이야기한다.

현대와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전 세계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고 통합·분석할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이 필요하므로, 이를 길러낼 세계시민 교육 전략을 밝힌다. 특히 700만이 넘는 해외 동포들을 교육으로 하나로 묶어 미래에 대비할, 한민족교육공동체를 통한 글로벌교육공동체의 구축 방안도 포함했다. 또한 한국의 미래에 가장 큰 변수가 될 통일을 대비할 통일교육 전략, 아울러 통일교육 문제와 같은 선상에 있는 다문화가정 교육에 대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제4부

# 미래교육 전략



## 통전적 평생교육 전략

인간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00세까지 생존하는 시대에 살게 되었다. 이런 시대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패턴의 삶을 살게 된다. 70세 인생에서는 30년 정도 교육을 받고, 30년을 일하고, 나머지 10여 년을 마무리하면서 살면 된다. 하지만 100세 인생에서는 30년 정도 교육을 받고, 30년을 일하고, 나머지 40여 년의 삶을 유지할 대비를 해야 한다. 즉, 지금까지의 교육 체계로는 100세 인생을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육은 평생을 관통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통전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 통전적이란, 우리의 교육이 대학입시나 학교 교육의 평가에 필요한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며 학교, 가정, 직장, 사회생활, 노후생활 등 인생 전체 삶의 영역들과 연결되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이 통전적이 되지 못한 이유는 교육에 대한 국민적 의식의 왜곡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부모 세대와 청년층이 교육을 출세의 수단으로만 간주하며, 기업인들도 교육을 수단적 가치에

치중하여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이란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그 자체가 귀중한 것으로 인정하는 목적 가치도 중요하다. 사람이 사람다운 특이성은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고 전승함에 있다. 그러므로 교육은 항상 수단적 가치와 목적적 가치의 양면적 가치를 동시에 이루어가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 교육은 어차피 인간교육이며 사람이 사람다움을 갖추기 위한 창의력과 가치판단 능력을 신장시키는 학습 과정이 곧 교육이다. 그러므로 통전적 교육은 인간을 전인격적 인성을 바탕으로 교육시켜 평생을 통해 필요한 창조적 지성, 바른 세계관, 전면적 인성, 융합적 의식, 글로벌 의식을 길러줄 수용성 교육이 기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속히 현재의 공교육 커리큘럼을 통전적인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 수용성 교육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받은 고도의 인적자원을 통해 우리의 직장이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 받고 경제발전이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통전적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교육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런 커리큘럼을 운용할 수 있는 교사, 부모, 직장인, 그리고 은퇴자나 노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이 병행되어 모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 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이진영, 2016).

현대적 의미의 평생교육론을 최초로 주장한 폴 랑그랑 Paul Lengrand은 평생교육을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하여 각 개인이 가진 다방면에 걸친 소질을 지속적으로 계발하고, 사회의 발전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했다. 즉, 평생교육은 개인 삶의 질과 집단의 기술적 향상을 위하여 전 생애에 걸쳐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제공하려는 교육체계 및 정책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허은주, 2011). 평생 학습은 인적·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

나라 국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전략이다. 많은 연구에서 평생학습 참여율은 사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주며, 특히 평생학습 사회로의 발전은 국가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노희숙, 2013). 따라서 가정교육이나 공교육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도 통전적 평생교육의 틀 안에서 전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은 수용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시 교육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본 글에서는 학년 전 과정, 초등 교육과정, 중등 교육과정, 대학 교육과정에서 수용성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교육에서 현실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전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아울러 가정, 군대 시기, 직장인으로서의 사회생활 시기, 은퇴 후 혹은 노년기 전반에 사용할 수 있는 통전적 프로그램도 함께 제시했다.

## 1. 공교육

### 통전적 교육의 실시

현재 우리 교육의 약점 중 하나는 학교에서의 성적이 직장, 가정, 그리고 현실적 사회생활에서의 실력과 깊이 연관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영어 성적은 높는데 사회생활에서는 영어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윤리·도덕 성적은 높는데 남을 속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도 있고, 역사 성적은 높는데 역사의식이 없으며, 수학·과학 성적은 높는데 비논리적인 사람이 길러지기도 한다. 이는 학교의 교육이 가정, 직장에서까지 적용될 수 있는 통전적 교육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전적 교육의 입장에서 볼 때 국어공부란 정보를 입수, 고도화, 표출할 문서해독 능력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의 국어교육은 오직 문제풀이를 위한 주입식 암기 중심이다 보니, 창조적 지성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 역사도 지식이 내면화되는 과정을 통해 역사의식을 갖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지적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윤리·도덕도 진리를 인식하는 데까지 가질 못하고, 그저 문자적인 해석만 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 영어도 그저 생활영어는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의 정서나 사상성을 표현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길러주지 못한다. 수학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체계를 길러줄 수 있는 본질적 교육이 아니라, 문제를 외워서 푸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현재 우리의 공교육은 통전적 교육을 충분하게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기존 교육의 장점 유지 및 보완책**

교육의 정상화를 논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공교육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을 발전시킨 장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장점들로는 우수한 교원,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불평등,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인 부모의 교육열과 학생들의 학습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적 강점으로 인해 우리 교육은 소득 계층 간 성적 차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따라서 기존 틀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교육혁신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 내용의 본질을 충실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수용성 교육을 기반으로 한 통전적 교육은 현재 공교육의 대체적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공교육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수용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공교육을 실시했

을 때 40~50%가 효과적이었다고 하자. 그런데 만일 수용성 교육을 통해 70~80%의 학생들이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공교육의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수용성 교육의 경험을 통해 이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수용성 교육의 공교육 적용은 매우 시급하고 필수적 사항이라고 사료된다.

그래서 이후의 논의에서는 현재 우리 교육의 기존 틀 안에서 수용성 교육을 적용함으로써 인간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전략을 제시했다.

## **평가기준 및 교원교육의 개선**

### **평가기준**

학교에서 평가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핀란드는 학생의 평가를 시험 성적으로 하지 않는다. 평소 학생들의 생활태도, 대인관계, 학습 능력을 통해 평가한다. 즉, 시험보다는 기본적인 생활태도를 중요시하는 전인교육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성적이 중요 평가기준이 아니므로 열등감을 찾을 수 없다. 물론 핀란드도 우리나라와 같이 시험이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시험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 시험이 학생들의 우열을 가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남들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을 찾아서 집중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모르는 아이가 알게끔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평가의 기준이 핀란드와 한국의 교육 사이에 큰 차이점을 만들어 내는데, 그것은 공부를 대하는 학생들의 자세다. 핀란드 학생들은 공부를 즐기면서 한다. 이를테면 아이가 어떠한 것을 모른다 치자.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끊임없이 가르치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식이 많

아지고 점점 발전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공부가 즐거워진다. 그러므로 그들의 공부는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공부란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하는 것,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것,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부가 재미없고 수동적이 된다. 학습 흥미도 조사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70% 이상이 ‘공부가 지겹다’라고 답했다. 반면 핀란드 학생들의 70% 이상이 ‘공부가 재미있다’라고 답했다. 최근 핀란드 교육 관계자에게 기자들이 ‘한국과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은 부러운 나라는 아니다. 과도한 경쟁 시스템 때문에 학업성적은 우수하지만 아이들이 행복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시스템에 관심이 없다.” 이제 우리는 공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교육체제로 바꾸려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

### **교사교육의 변화**

학생들에게 미래인재로서의 특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수용성 교육과 미래인재교육에 대한 체계적 교원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려는 교육에 대한 결과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교육의 현장에 접목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된 교원연수 기본 교육 프로그램을 <표 12>에 나타냈다. 지난 15년간 교원 직무연수를 통해 14,000여 명의 교사들에게 연수가 시행되었다. 지역별로 서울시연구회, 인천시연구회, 경기연구회, 강원연구회, 충남대전연구회, 전북연구회, 대구시연구회, 경남연구회, 부산연구회가 결성되어서 교육 현장에서 많은 연구가 시행되었다. 특별히 정금자(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제형(신안교

〈표 12〉 수용성 교육을 위한 교원연수 기본 교육 프로그램

차시	제목	세부 사항
1	원론 1	전체적인 내용 파악 및 궁극적인 목표 선포
2	원론 2	5요소의 개념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성
3	DQ(전인지수)	전면적 요소의 발휘 정도와 독서력 현 상태 점검
4	지력 원론 · 5차원 독서법	정보처리 과정인 학문의 9단계 원리와 올바른 독서법
5	속해(문해) 독서법 1	정보의 양을 늘릴 수 있는 속해독서 학습법 실습
6	속해(문해) 독서법 2	속해 독서법과 학습방법의 전환
7	언어 학습법	1대원리 5소원칙을 적용한 영어활용 방법론
8	심력 원론	입수된 참된 지식을 내면화할 수 있는 심력의 원리
9	반응력과 3분 묵상	생각하는 힘과 책임감을 키우는 3분 묵상법과 실습
10	정서력과 예술활동	정서력과 창의력을 극대화할 예술활동과 실습
11	체력 원론	자신의 몸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원리
12	운동법 실습	체력관리를 위한 현재의 몸 상태 점검 및 실습
13	자기관리력 원론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원리
14	시간관리법	조각시간 찾기, 우선순위 결정과 고공 바라보기 실습
15	균형적 에너지 분포 능력	재물, 시간, 언어, 정보 등을 가치 있게 분포하는 원리
16	인간관계 원론	인간을 다면적으로 보는 방법과 남 중심의 삶 원리
17	장단점 변환법	가족 구성원의 장단점 변환 실습과 소중함 체험
18	자아 특질 찾기	우월감과 열등감 극복을 위한 자아 특질 찾기 실습
19	사명선언서	자신의 특질에 맞는 사명의식 및 선언문 작성 실습

20	DQ와 5요소 개발법	DQ 결과와 개별적으로 바라본 자신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5요소의 개발을 위한 실습
21	일생고공도	일생고공 목표 성취의 원리와 실습
22	통합 수업모형	5요소가 전면적으로 통합된 수업모형과 실력 향상법
23	자기주도적 학습모형	지식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학습모형 실습
24	콘텐츠 활용교수	검증된 자료와 결과들을 체계화한 콘텐츠 구조 해설
25	분임토의 및 발표	학습계획 분임토의 및 변화 사례 발표

육지원청 교육장),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식(서울시교육청 장학관), 이인희(前 대구교육연수원 원장), 강순옥(전북5차원연수원 원장), 송태신(칠보초 교장), 이옥주(공주여고 교장), 이선필(칠성중 교장), 고창용(영도중 교장), 서상완(노일중 교장) 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연구회가 활성화되었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교육 연속성을 바탕으로, 대전대신고등학교(이사장 이강년), 동두천중고등학교(이사장 이혜순), 칠성중학교(이사장 윤정숙) 등에서 교과과정 전반에 수용성 교육이 실시되었다. 또한 연구학교를 통한 연구보고서, 석사 박사학위 논문이 나오고, 이런 교육의 성과들이 교사들 간에 공유가 이루어짐으로써 공교육에서 수용성 교육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 미래 지향적 교육 실시

###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 혁신

우리나라는 60년대, 어려운 시대를 단결된 힘으로 남이 먼저 간 길을 힘

차게 달려온 fast follower로의 전략을 가지고 왔다. 하지만 ‘이미 남이 한 것을 잘 익혀서 우리의 것으로 하고 이를 반복하는 전략’은 21세기에 들어와 위기를 맞는다. 우리에게는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를 추구하고, 주어진 일을 잘하는 인간보다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개성 있는 국민이 필요하다.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발전은 비약적이다. 특히 딥러닝 방식이 적용된 이후 그 발전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게 되었다. 현 단계 인공지능은 숫자와 언어를 논리적으로 다루는 능력에서는 인간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정재승 교수는 “아직도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게 하면 우리말과 영어, 중국어를 조금이라도 일찍 집어넣을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있다. 수학학습도 어떻게 수학적 감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을까에만 집중한다. 공교육에서는 이 영역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운다. 그런데 이 능력이야 말로 인공지능이 우리를 압도하는 있는 영역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도태되기 쉬운 사람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오면서 초연결 사회의 도래, 또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로봇과 인공지능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교육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동해야 한다. 우리도 이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교육을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도구를 바꾸지 않고 노력만으로 현실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불의 발명으로 추위를 물리치고 힘센 야생동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었다. 또한 농업의 도입으로 배고픔의 불안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고,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미래교육의 방향성은 인공지능과 차별되는 인간 고유의 본성을 키우는 것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감성, 다중 언어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리더십, 창의력, 상상력, 변화에 대처하는 지혜, 긍정적 사고 등을 키

우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강성모 총장의 “인공지능 시대에는 창조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즉, 인공지능을 넘어설 수 있는 창의적 인간교육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인격적 인성교육을 통해 수용성을 높여 인간의 탁월성을 키워갈 수용성 교육의 공교육 적용은 필수적이다.

전자통신연구원 함진호 박사는 “이제는 우리가 100년 전에는 마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ICT 기술을 기반으로 교육혁명을 달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이미 ICT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놓은 많은 교육 성과들을 분석하고 더 나은 교육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무크(MOOC: Massive Online Open Courseware)라는 새로운 교육은 MIT와 하버드에서는 EdX, 스탠퍼드에서는 Coursera, 산업계에서는 Udacity라는 온라인대학을 설립하여 양질의 대학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면 시험도 보고 캡스톤 과정의 실습도 하고 나노학위라는 졸업장도 발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누구에게나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칸아카데미의 온라인을 통한 일대일 맞춤형 교육도 주목할 만하다. 모든 교육과정을 컴퓨터와의 학습을 통해서 진행하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어떠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수업을 진행한다. 더 나아가 학교에서는 잘하는 아이와 미진한 학생을 짝을 지워줘 학생끼리 교육을 주고받게 한다. ePortfolio도 현대 교육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과거에는 학생이 어떠한 학습 과정을 거쳤는지 소상히 기록하는 것이 어려웠다. 기록한 것이 맞는지 사후에 확인하는 작업 또한 어려웠다. 선생님이 기록을 담당할 수밖에 없고 기록을 함축적으로밖에 할 수 없어서, 이러한 작업이 모두 교사의 작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기록을 잘 남겨놓았다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

지만 ICT 기술을 활용하면 학생의 교육 진행과정(어떤 문제를 어떤 접근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해결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고 어떤 효과를 거두었다는 등)을 분석하여 학생의 학습 능력, 창의성, 성취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ePortfolio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도 할 수 있다. 서로 협력하여 어떠한 목표를 달성한 일을 가감 없이 보여줄 수도 있다. 또한 ePortfolio는 단지 평가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평가에 대한 기록을 통해 평생 학습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현실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메이커 교육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게 될 학생들의 교육에 빠져서는 안 될 두 가지 영역이 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의 기반이 될 소프트웨어 언어교육 coding education 이고, 또 하나는 메이커 교육이다. 창조하는 인간, 즉 호모 크레아투스(homo creatus)를 위한 교육은 ‘만들기(창조 작업)’로 시작된다.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체험하면서 자기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체험학습은 본질에 가장 충실한 교육이다. 학생들은 체험학습을 하는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한다. 그 과정에서 반성과 성찰도 뒤따른다.

과거에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능력이 대세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디바이스라든지, 앱이 원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른바 컴퓨터적인 사고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받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단순히 이들 장치의 소비자로서 다른 사람이 만든 기능을 사용하는 입장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어 쓰거나 만든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프로슈머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소프트웨어 언어교육은 독해력, 산수와 같이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기술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출발한다. 비록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해서 판매할 생각이 없더라도 알고리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고 앞으로 많이 등장하게 될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어떠한 메커니즘에 따라 동작하는지 이해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적절히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지식이 필요하다. 메이커 교육은 미국 최대 IT 출판사 오렐리Orcilly가 200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메이커 축제를 개최하면서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 행사를 통해 만드는 것에 취미가 있던 사람, 발명가, 기술자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것을 갖고 나와 서로에게 보여주며 의견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오픈 소스 활동으로 서로가 만든 소프트웨어나 개발품들을 아무런 대가없이 나누는 철학에 기인했다. 또 때마침 등장한 3D 프린터와 아두이노Arduino라는 오픈 하드웨어, 저가의 레이저커터, CNC 머신에 힘입어 폭발적인 확대가 일어나게 되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A Nation of Makers’라고 정의하고 학교 및 기업, 정부기관에 메이커 운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정부가 메이커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중국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빼앗아갔지만 이제는 로봇을 통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반면, 매력 있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어필할 제품을 디자인할 수 있는 작업 영역에서의 경쟁력이 보다 중요해졌다. 어렸을 때 자동차건 비행기건 집이건 로봇이건 무엇인가를 스스로 만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나이가 든 후에 연구자나 개발자가 되어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다. 창조란 창의적인 생각에, 이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make’라는 행위가 추가된

것이다. 생각에만 머물러서는 의미가 없다. 실제로 만들어야 경제활동을 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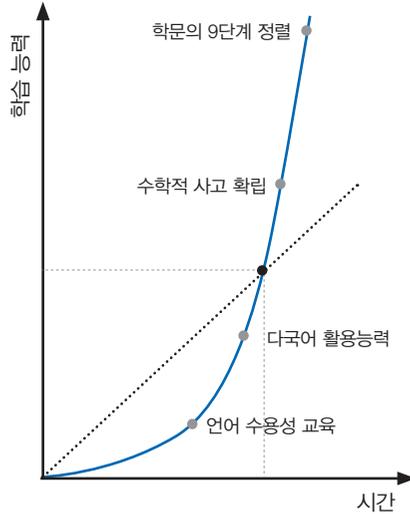
## 미래학교의 모델

### 가속화 학습

디아글로벌학교의 이호원 교장은 수용성 교육을 통해 가속화 학습이 이루어짐을 확인했다. 학교에서 25가지 수용성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전인격적 인성을 만들어주도록 5 Life를 매일 실천하여 습관화가 이루어지게 했다. 가속화 학습을 위해 안구 훈련, 3분 묵상, 악기 연주, 주간 계획표 및 일일 계획표 작성, 일기와 감사일기 쓰기를 매일 조금씩 천천히 실시하여 뇌의 편도체가 인식할 때까지 훈련을 하여 가속화 학습의 기반을 완성했다(이호원, 2016).

실행 방법은 수용성 교육의 내용을 100/10 학습(100개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서로 상관관계가 많은 것 10개를 우선 학습하는 방법) 원리를 통해 중요한 것만을 설명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학생들 스스로 학습하고 조별로 토론하여 발표하는 방식을 취했다. 아울러 학문의 9단계 방식을 통해 정보의 입수 고도화 표출의 능력이 향상되도록 했다. 이렇게 가속화 학습을 체득한 학생들에게 사회, 역사, 과학 교과목을 접목시킨 결과, 1년 동안 수업을 해야 할 내용을 3개월에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결국 가속화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행학습이 아니라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즉 진리를 마음속에 뿌리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고, 자신의 중요성과 남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람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그림 8〉 가속화 학습



가속화 교육을 시행하는 데 있어 필히 일어나는 현상 하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속화 학습이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까지는 투입된 에너지에 비해서 매우 적은 교육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속화 교육을 포기하거나 실시하지 못한다.

가속의 물리적 법칙은  $y=x^2$ 이라는 이차방정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정한 수 1에 이르기까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 0.1을 넣으면  $0.1^2=0.01$ 이 된다. 투입한 에너지의 10%에 불과하다. 0.5를 넣으면  $0.5^2=0.25$ , 즉 50%가 된다. 하지만 1을 지나서 2를 넣으면  $2^2=4$ , 3을 넣으면  $3^2=9$ 로 엄청난 가속이 붙는다. 인간의 전인격적 인성의 변화에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기간이 필요하며, 이 시간을 바르게 넘겼을 때 기적처럼 가속화가 일어난다. 수용성 교육을 통한 가속화 학습 교육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이 매일의 삶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표 13〉 가속화 학습 교육 프로그램

미래 인재상	교재	효과
창조적 지성	학문의 9단계	국어 가속화 학습 능력 확보
바른 세계관	독서치료	사회·과학 가속화 학습 능력 확보
전면적 인성	5차원 인성	수용성 회복 및 역량 극대화
융합적 의식	융합수리	수학 가속화 학습 능력 확보
글로벌 의식	언어 수용성	영어·중국어 가속화 학습 능력 확보

이 같은 가속화 학습을 바탕으로 중학교 1차년도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창조적 지성을 위한 학문의 9단계, 바른 세계관을 위한 독서치료, 전면적 인성을 위한 5차원 인성교육, 융합적 의식을 위한 융합수리, 그리고 글로벌 의식을 위한 언어 수용성 교육을 통해 〈표 13〉과 같이 가속화 학습(알파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 공교육과 동일한 교육 환경 내에서 〈표 14〉와 같은 가속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했다.

자유학기제를 마친 후 1차년도 2학기에 중학교 1학년 과정 전체를 마칠 수 있었고, 중학교 2차년도 두 학기 동안에 중학교 2, 3학년 전 과정을 학생들이 자기주도(베타과정)로 마쳤다. 중학교 3차년도에는 학생들이 선행 학습 없이 자기 스스로 고등학교 과정을 학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3차년도는 중학 과정에서 배운 학습 내용을 기반으로 한 심화교육과 프로젝트 교육(감마과정)을 실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심화교육은 고전, 미래사회에 필요한 이슈를 다룬 저서,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전문지식을 다룬 책들을 읽고 토론하며 보고서로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했다.

〈표 14〉 교육과정

중 1차년도		중 2차년도		중 3차년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자유학기 알파과정	1학년 베타과정	2학년 베타과정	3학년 베타과정	심화 감마과정	프로젝트 감마과정
	알파과정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한 하이브리드 교육**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한민족과 다른 국가와의 교육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교육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는 전통교실의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적용함으로써 각각의 방식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상쇄하고 장점을 살리려는 교육 시스템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정규학교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온라인 정규학교는 홈스쿨링과 통신학교를 결합하고 온라인 교사의 기능을 강화한 모델로서, 가상의 공간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모든 학사 과정이 운영 관리되는 학교다. 또한 공식 교육 인증 기관들로부터 인증을 받음으로써 전통학교들과 동등하게 학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는 학교 간의 전학 시에나 대학진학 과정에서 이수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의 발급을 의미한다. 전 세계 200여 개국에 퍼져 있는 한민족들을 교육 공동체로 묶어 정체성을 확보해야 할 차세대 교육의 필요를 고려하면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진다.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농어촌과 도서 지역의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차질 없이 제공해야 할 필요를 고려해도 그렇다. 또한 한류의 확산과 맥을 같이하여, 한국의 교육 콘텐츠를 해외에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온라인 정규학교의 도입은 매우 중요한 문화교류 및 확산의 도구가 된다. 한국 교육의 미래를 대비하는 가운데,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함으로써 가상 공간을 통해 일어날 다양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잘 예측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초중등 과정까지 온라인 정규학교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물론 학생들의 학습 수용성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학습 방식은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고려하고, 한국적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법들을 선택 적용하여 몇 가지의 모델학교를 속히 개발해야 한다.

김기태 박사는 성공적인 모델학교들의 수평적 확산을 효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해 적절한 학교 인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인증 시스템은 학교에 대한 규제 성격이 아니라,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내용을 안내하는 성격이 되어야 한다. 이것들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백년지계가 될 것이다. 교육기관 인증제도의 목적은 교육기관이 보편적으로 수용할 만한 질적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기관 인증제도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연방 교육부가 없다. 중앙 집권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단일의 통제기관도 없다. 비록 국가가 교육에 대하여 다양한 통제를 행사하고는 있지만, 교육기관들은 보편적으로 상당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국의 교육기관들은 프로그램의 성격과 질적 수준에 있어 매우 폭넓은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

세계는 빠른 속도로 다원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교육적 욕구와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교육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관의 설립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정규 온라인 학교 또는 홈스쿨링도 문호를 열어주어야 한다. 예체능 분야별 또는 종교별 특성화 학교 등, 교육 내용에 있어서의 다양성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인가 학교들이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제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한 양성화가 절실한 상태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 집중적인 계획과 관료적 규제를 통해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 민간의 교육기관 설립자들에게 대폭적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야 한다. 다만 각 교육기관들이 표방하는 설립 이념과 독창적인 교육 방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지에 대한 육성적인 인증제도가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교육협회들이 활발하게 세워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자체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민간 주도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교육 당국은 이 경쟁체제가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하면 될 것이다.

## **자유학기제 및 미래인재교실 전략**

### **자유학기제**

교육부는 2013년 4월 자유학기제를 도입 시행할 전국 42개 연구학교를 발표, 9월부터 시범시행에 이어, 2014~2015년 말까지는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고 2016년에는 중학교 전체에 전면 도입한다는 내용의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학생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지필시험을 치르지 않고, 고교입시에도 자유학기의 성적은 반영되지 않는다. 자율과정은 진로탐색, 동아리, 예술·체육, 선택 프로그램 활동 등으로 채워진다. 또한 한 학기에 두 차례 이상 종일 체

협활동을 실시하고 학생이 스스로 진로체험 계획을 세우면 학교가 출석으로 인정하는 자기주도 진로체험도 시행된다. 이 같은 학생들의 진로탐색 활동 내용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점수 대신 서술형으로 기재된다.

오전에는 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기술·가정, 체육, 도덕 등 교과수업이 이루어진다. 수업은 토론, 실험·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 전 과정에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실제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 평가는 지속적인 관찰 평가, 형성 평가, 자기성찰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꼭 배워야 하는 내용을 반드시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오후에는 예·체, 진로직업탐색, 동아리 활동, 문화체험, 글쓰기, 체험학습 등 자유학기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좋은 취지로 시행된 자유학기제라도 그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프로그램들도 많다. 자유학기 활동이 학원에서 교과수업으로 대체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심지어 '학원학기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교사들이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담아 별도로 교재를 만들어 활용하려 했을 때, 부모들은 불안해하며 불만에 찬 항의를 하기도 한다. 취지는 좋지만 다른 내용들에 빠져 교과서를 등한시하게 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유학기제를 통해 그들의 꿈과 끼가 길러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잘못되어 자녀들의 공부 습관이 흐트러질 것을 우려한다. 지금과 같이 고교입시와 대학입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학습의 공백을 만들어 결국 학생들이 손해를 볼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지적이며 이런 우려에 대한 답을 만들어야 하다. 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수행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우려도 표한다. 수행평가라도 기준이 확실하지 못할 경우 나중에 자기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평가제도도 수행평가의 객관성을 인정해줄 수 있는 평가 방

식의 혁신을 통해 신뢰를 얻어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학기제의 일부 시간을 활용하여 수용성을 키울 전인격적 인성교육인 ‘수용성 교육’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성적이나 진도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들에게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을 키워줄 매우 유용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인간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길러줄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창조적 지성, 바른 세계관, 전면적 인성, 융합적 의식, 글로벌 의식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미래인재교실**

자유학기제를 통해 수용성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방안으로는 방과 후 수업을 활용하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는 토요일을 활용해 미래인재교실을 개설하여 2년 기간으로 <표 15>와 같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수용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토요일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하이브리드 교육을 활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융합·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 **고등교육 전략**

초중등 교육 못지않게 고등교육의 혁신은 미래 한국 사회를 위해 필수적이다. 현재 대학교육을 괴롭혀온 쟁점은 이상과 기능 사이의 긴장이라 할 수 있다. 고전적인 대학의 이상은 자유교양 교육에 의한 인간 수련에 두었다. 고등교육이란 학문의 자유로운 탐구를 통하여 진리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초연한 지적 훈련을 권장해왔으며, 아울러 엘리트층으로서 사회

〈표 15〉 미래인재교실 프로그램

3·4학년				5·6학년				7·8학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창조적 지성	언어 수용성	융합 수리	5차원 인성	창조적 지성	언어 수용성	융합 수리	5차원 인성	창조적 지성	언어 수용성	융합 수리	5차원 인성

가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대학의 이상과 충돌할 것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산업혁명을 거쳐 현대의 고도 과학기술 사회를 맞이하면서 대학에 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압력이 증대했다. 따라서 대학의 목표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대학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도 대학이 국가 사회에서 쓸모 있는 인재양성과 훌륭한 인격함양이 필요하다고는 말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서는 출세나 입신양명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대학은 어디까지나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데 근본적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이를 통해 마땅한 직업을 선택하는 데도 필요성을 가진다는 조화로운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교육에서도 전인격적 인성을 바탕으로 한 수용성 교육이 필요하다.

한동대학교 장순홍 총장은 끊임없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생존하고 이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평생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과 도전정신을 갖춰야 하며, 대학교육의 핵심은 창조성 및 인성교육임을 지적한다. 창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탁월한 인성이다.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아이디어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남을 도와주려 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때 탄생한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학문의 탁월성과 전문성 교육의 중심에 바른 인성과 참된 가

치를 함양할 수 있는 세계관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인성과 지성이 연동되어 실제 자신이 속한 사회와 삶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 대학교육의 궁극적 방향이자 목적이다.

문제란 항상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작은 것에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항상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 즉 지역사회에 존재한다. 따라서 현장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문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다 얻은 결과가 연구가 되고, 혹은 비즈니스적으로 풀어가다 창업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문제는 대부분 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기보다는 여러 분야에 걸쳐 융합되어 있다. 종합하면 문제발견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현실 및 현장과 연결된 교육, 융합교육, 프로젝트형 교육이 필요하다. 한동대학교에서는 전공지식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현장 문제해결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4학년 중심의 현장참여 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있다. 창조성 교육의 중요성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이 재학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정해 수업을 받는 대신 기업, 기관, 해외대학 등에서 자기주도적 활동을 수행하면 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자유학기제를 2016년부터 전면 도입했다.

최근 공유경제를 다루는 모든 기사에 ‘협업’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우리는 함께하는 방법을 추구하고 배우지 않으면 관계와 상호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협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가 되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12년 글로벌 교육협력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국경을 넘는 생각과 아이디어의 공유를 통해 세계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며, 교육이 변화를 일으키고 희망을 주는 힘”이라고 언급하며 전 세계 고등교육기관을 이어주는 국

제기구인 유엔 아카데미인팩트UN Academic Impact, UNAI 사업을 시작했다.

21세기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바는 좋은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과 훌륭한 인성을 바탕으로 한 인재가 자신의 잠재력과 창조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창조성 교육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커리큘럼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두 개의 교육이 선순환 구조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정책과 의식의 개선도 필요하다.

## 2. 가정교육

교육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고도의 사회의식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교육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 공동생활을 누려야 하는 인간에게 사회성 자체를 가장 먼저 습득하는 곳이 가정이다. 사실 학교 교육은 가정교육을 보완하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현재는 가정교육이 마치 학교 교육의 예비단계인 양 착각한 부모들이 지식 위주의 사회화에 열중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사회성 함양이 소홀해지고 극도의 자기중심적 성향을 조장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제부터는 가정의 사회화 기능을 정상화해가면서, 학교 교육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가정교육의 정상화의 중심에는 부모가 있다. 부모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들이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부모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많은 부모들이 공부야 성공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성공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여긴다. 자녀에게 공

부를 잘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가장 큰 의무라 생각하고 교육에 몰입하다 보니, 학습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모든 기준이 되어버렸다.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학습의 기대치를 정하고 자녀가 무조건 따라주기를 바라지만, 둘의 박자가 맞지 않을 때가 많다. 사람은 자신이 정한 목표에 도달했을 때 성취감을 맛본다. 하지만 자신이 아닌 남이 정해놓은 목표치는 열심히 노력해서 달성했다 하더라도 성취감을 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정해놓은 목표치를 위해 자녀가 노력하기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성취감을 맛본다는 것도 참으로 어렵다.

자녀의 공부를 위한 뒷바라지가 곧 사랑의 표현이 되어버린 지금, 부모의 뜻에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 아이는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존재로 전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사랑은 포기할 수 없기에 잔소리와 화로 표출되곤 한다. 그래서 사랑하는데 화를 내고 사랑받는데 미워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물론 부모가 보여준 사랑이 자신의 열망에 충실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악의가 있지는 않다. 결과적으로는 자녀에게 고통을 주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자녀를 보다 훌륭하게 교육하고자 하는 부모의 가치관과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부모의 생각이 본질적이지 않다는 것에 있다. 부모 자신에게는 마땅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주고 싶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자녀에게 그릇된 결과를 가져다준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사랑은 나의 생각에서 옳은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기준에서 올바른 것이어야만 한다(존 드레셔 John M. Drescher, 1990).

진정으로 자녀의 변화를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겸손해야 한다. 자녀의 변화를 기대한다면 아이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대체로 부모의 기준은 있으나 자녀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녀의 상

태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알고도 하지 않는다. 부모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 때문에 바른 것을 행한다는 자부심이 크다. 그것이 자녀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을 모른다.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남을 섬기는 마음이 겸손이다.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는 믿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까지나 자녀를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미안해서라도 언젠가는 믿음에 보답하려 노력한다. 그렇게 스스로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만이 진정한 선택이자 변화다. 부모로서 인내하는 일은 물론 어렵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주는 부모가 될 수 있으며, 자신을 믿어주는 그 진정성만큼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원동연, 2015).

#### **부모를 위한 수용성 교육**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을 잘 교육하기 전에 먼저 부모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녀들에게 남을 이겨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자녀를 잡아먹는 물질주의, 탐욕적 이기주의, 허구적 성공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을 차근차근 강화시키고, 자녀들의 달란트가 극대화되도록 도와야 한다(유동준, 2015). <표 16>은 지난 15년간 부모교육 연수를 통해 5,000여 명에게 행해졌던 기본 수용성 교육 프로그램이다.

#### **홈스쿨 교육**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서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가운데

〈표 16〉 학부모 수용성 기본 교육 프로그램

영역	주제	연수 내용
1차	수용성 교육 원론 · 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번뿐인 인생을 승리하려면</li> <li>- 올바른 학습 시스템</li> <li>- 재능의 극대화 3원리</li> <li>-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목상법</li> </ul>
2차	체력 · 지력 (속해독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의 두 가지 핵심 원리</li> <li>- 신체 구조 교정법</li> <li>- 나의 정보처리 능력 알아보기</li> <li>- 정보의 양 늘리기: 속해독서법</li> </ul>
3차	인간관계력 (장단점 변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관계의 기본 개념</li> <li>-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li> <li>- 인간을 다면적으로 바라보기</li> <li>- 인간의 단점을 장점으로 변환하기</li> </ul>
4차	자기관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시간관리 능력 알아보기</li> <li>- 시간의 양 늘리기</li> <li>- 시간의 질 높이기</li> </ul>

하나는 ‘학교 밖 아이들’의 증가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여러 유형의 대안교육기관을 찾거나, 학부모 또는 위탁교사의 지도하에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 앞으로 홈스쿨링을 통해 자녀교육을 하려는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미국에서 홈스쿨링 역사 속에서 홈스쿨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그 현상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1960년대 중반부터 홈스쿨 운동이 활발하게 시작된 이래, 1993년에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홈스쿨링이 합법적인 교육으로 인정되었다. 해마다 평균 7%씩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0년에 이르러서는 학령기 학생들의 2.5%에 해당하는 150만 명이상이 홈스쿨링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대학들은 홈스쿨러를 검정고시 합격생 수준의 학업 능력을 가진 학생들로 예상하여, 상위권 대학에서는 잘 받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는 상위권 대학 거의 대부분이 홈스쿨러들을 적극적으로 입학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에서 홈스쿨링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바뀌도록 만든 계기는, 홈스쿨링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공교육 시스템 속에서 공부한 학생들보다 다음과 같은 성과를 보여준 것과 관련이 있다. ACT 시험에서 과목별로 평균 30~38% 더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 대학 입학 후 취득한 평점이 9% 가까이 더 높았고, 그 결과 대학 졸업률이 9% 정도 더 높았다. 인성 및 사회성 또한 더 좋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이 처한 환경(부모의 연수입 또는 학력)과 상관이 없었다.

미국의 학부모들이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자녀들에게 더 나은 학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홈스쿨링은 자녀들의 흥미와 관심과 특기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 또한 자녀를 위한 최선의 시간 활용이 가능하며, 학업 능력에 따라 적합한 학업 진행 속도를 정할 수 있다. 외적인 성취보다는 진정한 내적 만족을 목표로 공부할 수 있고, 기존의 학교체계에서는 배울 수 없는 특수한 과목들의 공부도 가능하다. 오늘날 전통학교는 캠퍼스 마약, 총기 사용 등의 문제로부터 학생들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는 환경이다.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의 문제도 점점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수업을 포기해버리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학교에서는 좋은 학업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를 갖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가족 간의 관계 개선에 더 유익하다는 생각도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이유다.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훨씬 더 확

보할 수 있다. 이로써 가족 간의 유대 및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함양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환경도 미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가 심화되는 추세다. 반면에 개인에 특화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와 그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전통학교의 틀에서는 이들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 그래서 사교육 시장이 이상하게 비대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학교 교육의 왜곡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제는 개인에 특화된 교육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홈스쿨링을 건강하게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고려할 때다. 홈스쿨링을 초·중·등 과정의 의무교육 틀 속에서 인정해야 한다. 그에 따라서 교육 비용 지원과 함께, 각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물적 자원 지원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홈스쿨링 프로그램의 인증제도도 세워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채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3. 군(軍)교육을 통한 국민교육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군대에 간다. 국민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20여 개월간의 군복무 기간은 전적으로 국가에서 한 시민을 통제하여 군인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단절의 기간이다. 가족과 단절되고, 학업과 단절되며, 직장도 단절된다. 낭비하는 시간이 된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이 기간은 국가가 국민을 교육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왜냐하면 모든 젊은이는 이 기간을

필히 거쳐야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복무를 군인으로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기간이 된다면, 군복무는 국민교육의 기간이 되고 군대는 국민교육의 도장<sup>道場</sup>이 될 수 있다. 군대의 교육은 먼저 군인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차 민주시민으로서 국민의 도리를 다하고 가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세계인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사람으로 키워져야 한다(박기련, 2016).

### 현대 군인에게 요구되는 덕목

현대의 군인은 군인이면서 시민이고, 세계인이어야 한다. 비정규전이 정규전에 준하는 전쟁 양상이 되면서 농업 시대와 산업화 시대의 1, 2세대 전쟁을 관통하던 ‘전통적인 클라우제비츠안’ 무덕<sup>military virtue</sup>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정규전 중심의 전쟁 양상을 대처하는 군인들의 무덕, 또는 정신의 변화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9·11 이후 전쟁의 양상이 변화되었다. 합법적인 정부에 극단적인 이념의 창시자들이 적대 상대로 등장했다. 기술 확산, 세계화 추세 등으로 전쟁 또한 세계화되었다. 전쟁은 이제 전통적인 모델의 전쟁에 추가하여 비전통적인 요소들이 가미된 하이브리드전이 되었다. 그러면 이런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에게는 기존의 ‘용기, 복종심, 인내심, 명예심, 단체정신’에 더해 ‘협조성, 수평성, 윤리성, 전문성(다재다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여기에 ‘체력’도 포함되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제외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맞추어서 군대교육의 수용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능동적이며, 국제화 시대에 범세계적인 의식을 가진 인간으로 교육해야 한다.

## 교육의 방향성

지금까지도 군대는 국민교육의 도장이라는 책임감으로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점제를 운용하기도 했다. 문제는 노력한 만큼 성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학습자의 태도에 있었다. 수동적이며 동기가 빈약했다. 교육을 수용할 마음밭이 황폐화되어 있던 것이다. 따라서 군교육 효율성 향상의 방향은 무엇을 더 열심히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육을 받을 병사들의 수용성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집중되어야 한다.

수용성 교육을 위해서는 첫째, 마음의 힘을 키워야 한다. 마음의 힘이 강한 자는 긍정적·적극적 사고를 가지며, 임무수행에 담대한 행동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의 사기 저하를 막고 공포심과 좌절감에서 벗어나게 한다. 에르빈 롬멜(Erwin Rommel)은 마음에 품은 착상은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마음의 힘은 곧 행동하는 군인, 행동하는 시민을 만든다. 전통적인 군인의 덕목인 '용기, 복종심, 인내심, 명예심, 단체정신'의 함양은 심력의 향상으로부터 시작된다.

둘째, 정보기술 시대에 부합되게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현대전은 손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해야 한다. 현대전에서는 골리앗형이 아니라 다윗형 인간, ET형 인간이 요구된다. 또한 시민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력이 있어야 한다. 100세 인생 시대에는 끝없이 공부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현재 우리 군 병사들의 학력은 평균적으로 볼 때 대학교 1학년 수준의 학력을 갖고 있다. 군 생활로 학업이 단절되는 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군복무 기간을 지력 향상에 투자해야 한다. 이것은 단절을 극복하는 길이며 국부를 생산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력 향상을 위해서는 그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독서 능

력과 영어사용 능력이다. 군복무라는 국가통제 기간에 이런 수단을 확보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부가 증가된다. 현대적인 군인의 덕목인 ‘전문성(다재다능)’은 지력 향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셋째, 모든 것을 갖추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다. 사람은 몸이라는 숙명적인 도구에 간혀 있다. 무엇보다도 몸의 힘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 마음의 힘도 몸이 건강해야 나온다. 지력도 체력이 바탕이다. 군인에게 체력은 곧 전투력이다. 체력은 심력의 그릇이고 지력 습득의 에너지다. 군 생활을 통해 강하고, 건강한 몸을 만든다면 이 또한 국부를 창출하는 것이다.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체력 단련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또한 강한 체력은 단순히 건강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을 유지함으로써 도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해야 한다. ‘체력’ 향상은 군인에게는 전투력 그 자체이며 시민교육 측면에서는 국부를 창출하는 것이다.

넷째, 인간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인생은 인간관계의 연속이다. 더군다나 현대는 공감·접속·지구공동체의 시대다. 현대 군대조직은 협동, 합동, 연합을 본질로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나만 잘해서 되는 군대가 아니다. 나만 잘살아서 되는 세상이 아니다. 인간애를 가지고 남을 자신과 동등한 인간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타적인 인격을 가져야 한다. 남의 처지에서 생각함으로써 동질성을 갖게 되고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된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연합이 생명이 되는 현대적 군활동의 핵심덕목이다. 이것은 힘을 재창출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지도력을 통해 한 조직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인간관계 증진으로 ‘협조성, 수평성, 윤리성’을 해결할 수 있다.

다섯째, 비전을 갖고 살아야 한다. 군 생활이 꿈을 단절시키는 기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썩혀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꿈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기간이 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자기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일이 놓였을 때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행동할 수 있게 하며 결정적인 시기와 장소, 사람을 파악할 힘을 준다. 인생의 비전을 가지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겸손한 마음이 유지된다. 아울러 남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성을 지니게 한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변화에 적응력을 높여주며 바른 대응책을 얻게 해준다. 아울러 융통성을 가지고 주어진 문제에 창조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군 생활 동안 인생의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은 군 생활을 살리는 길이고 민주시민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 **수용성 향상을 위한 교육 개선 전략**

현대적 군인과 민주시민으로 성장해야 할 병사들이 능동적인 인격과 실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수용성 교육을 한다. 이를 위하여 심력, 지력, 체력, 인간관계력, 자기관리력, 다섯 가지 요소를 골고루 갖춘 군인이자 민주시민으로 교육시킨다. 다섯 가지 요소는 전인적인 인간 성장의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균형을 이루게 한다. 이를 통하여 첫째, 심력 향상을 통해 군인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애국심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사회에 복귀해서는 사회에 보탬이 되는 생활인이 되게 한다. 둘째, 지력 향상을 통해 정보기술전에 대비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사회 복귀 후에는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체력 연마로 강인함을 함양하고 건전한 시민이 되게 한다. 넷째, 인간관계 증진을 통해 현대전의 본질인 협조성, 수평성, 윤리성을 함양한다. 다섯째,

자기관리를 통해 군대 복무와 민주시민으로 성공하도록 한다.

#### 커리큘럼

수용성 향상을 위해 <표 17>의 교육 커리큘럼을 준용한다. 이 커리큘럼은 10여 년간 연구되고, 국내외 각급 학교에서 적용되어온 것이다. 이것을 군대의 실정에 맞게 교육기관과 야전의 실정에 맞추어 적용한다.

####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수용성 향상이라는 원칙에 중점을 두고 교과과정을 개설한다. 5차원적 수용성 교육을 별도의 교과과정으로 편성하고, 동시에 전 교육 훈련에 수용성 교육의 원칙을 준용한다. 이를 위해 교관교육을 선행한다.

#### 교육기관

야전부대에서는 정신교육 시간, 점호 시간 등을 활용하여 수시 정기적인 교육을 한다. 간부교육을 선행하고, 지휘관이 솔선수범한다. 각급 부대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4. 사회교육

사회교육이란 가정과 학교 고유의 교육 기능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범주에 넣을 수 있다. 현대사회의 기능 분화가 복잡해지면서 교육 훈련의 기능이 학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실력주의 사회가 구현되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대입경쟁도 완화되며, 우리가 꿈꾸는 보다 정의롭고

〈표 17〉 군 수용성 교육 커리큘럼

	주제	목표	연수 내용
1차	심력	전통적 군인의 용기, 복종심, 인내심, 명예심, 단체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묵상법</li> <li>- 창의적 묵상법</li> <li>- 묵상의 고도화 과정</li> <li>- 풍부한 정서력의 표출</li> </ul>
2차	지력	현대적 전투에 요구되는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바른 학습 시스템</li> <li>- 나의 정보처리 능력 늘리기</li> <li>- 문해 독서법</li> <li>- 외국어 학습법</li> </ul>
3차	체력	군인 및 시민으로서 체력과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의 두 가지 핵심 원리</li> <li>- 신체 구조 교정법</li> <li>- 건강을 위한 몸의 독소 제거법</li> <li>- 최대출력 확장법</li> </ul>
4차	인간관계력	현대적 군인과 시민에 요구되는 협조성, 수평성, 윤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관계의 기본 개념과 원리</li> <li>- 인간을 다면적으로 바라보기</li> <li>- 인간의 단점을 장점으로 변환하기</li> <li>- 인간의 특질 찾기</li> </ul>
5차	자기관리력	민주시민으로의 성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꿈을 이루기 위한 조건</li> <li>- 꿈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li> <li>- 일생고공표</li> <li>- 나의 시간관리 능력 알아보기</li> <li>- 시간의 양과 질 늘리기</li> </ul>

바람직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958년 《실력주의사회 도래》라는 책을 썼던 마이클 영 Michael Young은,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경쟁, 교육전쟁, 학벌, 사회 양극화 등은 실력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역으로 과도한 실력주의가 가져온 폐해로 지적한다. 학벌이라는 것도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특정한 대학과 학과로 몰리게 된 결과 그들이 세력을 형성하여 만들어졌다. 학벌을 타파

하면 실력주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실력주의 사회가 타파되어야 학벌이 타파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신실력 사회를 구축하는 것인데, 실력에 따른 대학입학 및 직업 배분 사이의 연결고리는 유지하되, 직업과 보상 사이의 연결고리는 줄이는 것이다. 즉, 직업 간 사회적 재화 분배 차이를 줄이는 제도적·사회문화적 보완장치가 마련된 사회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어느 정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된다면 부모들은 자녀를 무작정 입시경쟁에 몰아넣지 않을 것이고, 학생들도 지금보다는 자유롭게 자신의 적성을 찾아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주위 친구들을 시기하거나 경쟁 상대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력을 통해 더 많은 사회적 재화를 창출하도록 장려할 것이다(박남기, 2016).

이런 사회를 구축하는 데 큰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은 실력을 갖춘 개인들이 자신이 실력으로 얻는 재화를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들이 이 같은 사회 구축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앞장서도록 유도하며, 유치원에서부터 모든 학생들의 마음에 상생의 씨를 뿌리며, 희생과 봉사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가진 사회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인간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인간교육이 바로 서면 국가경쟁력의 제고는 저절로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국가경쟁력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미래에 선진문화 사회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발판으로써 중요하다.

권경현 대표는 사회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시기는 생애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막중한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할 때인데, 안타깝게도 이전의 학교 교육이 이 시기를 잘 감당하도록 교육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 시기에 사회교육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으로서 크게 세 가지의 역량을 요구한다. 첫째는 발달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의사결정의 준거를 갖는 것이다. 이는 좁

계는 가치관, 넓게는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인간관계에 필요한 성품적인 것이고, 셋째는 생산성을 올리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의 기능적인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역량이 제대로 갖춰질 때 사람들은 이 시기에 발달과업을 잘 완수하고 성공적인 노년기로 넘어갈 수 있다. 즉, 행복한 삶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교육이 바르게 일어나지 못하면 성인 발달과업의 실패로 우리 사회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된다. 가정해체, 공유가치의 부재, 집단 간의 갈등, 정서 붕괴, 도덕적 병리현상 등이 심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며, 이런 대안은 단순히 사회교육 기간뿐 아니라 공교육, 가정교육을 포함한 통전적 평생교육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천주옥 대표는 사회교육의 핵심으로 상상력을 강조한다. 특별히 한국 사회의 미래를 바라볼 때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필수적이다(천주옥, 2015). 박세정 대표는 글로벌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문화소비자로서 타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용인식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함을 지적한다(박세정, 2015). 결국 사회교육의 핵심은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 타인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느냐에 집중된다.

### **함께 사는 삶 배우기**

사람들이 일을 수행하는 데에는 혼자서 이루어야 할 일들도 있지만, 현대사회의 특성상 거의 모든 일이 남과 함께 이루어진다. 더구나 현대와 같은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다양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 공동적 작업을 통해 일이 수행되므로 이를 위한 대안이 필수적이다. 즉,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사회 속에서 조직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며,

나만의 세계를 넘어서 공동체 혹은 조직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먼저 조직의 사명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함께 사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피터 드러커 Peter Drucker, 2002).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고 큰 힘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힘들이 합해지고 서로 상승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조직은 조직 내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 그들의 능력들이 하나로 묶이지 못하며 최악의 경우 조직을 만든 것 때문에 더 큰 손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며 이런 힘을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인간 능력의 향상

인간의 조직을 다룬 일반적인 경영학 책을 보면 'P(생산성)=a(능력)×M(동기)'라고 설명한다. 즉, 조직이 큰 생산성을 가지려면 개인의 역량이 높아야 하며, 아울러 동기부여가 될 때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의 역량을 일반적으로 상수(a)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역량은 변화되지 않으니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세우거나 또는 사람을 바꾸거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역량은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교육을 통해 바꿀 수 있다. 인간의 전인격성 회복을 통해 수용성을 향상시켜 인간의 역량을 키우고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목표에 집중하기

자연계에는 자성체와 비자성체 물질이 있다. 그중 자성체는 N극과 S극의 물질로 나뉘어 있다. 그런데 서로 상이한 두 물질이 모두 동일한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자성을 띤 기본 단위가 모두 북쪽으로 배열되면 N극이라고 부르고, 모두 남쪽으로 배열되면 S극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것들이 동서남북으로 서로 흩어져버리면 서로의 힘이 상쇄되어 비자성체가 된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바른 방향으로 배열되면 큰일을 할 수 있지만, 잘못된 방향을 잡으면 모두가 멸망할 수도 있고, 서로 흩어지면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조직의 구성원들은 조직의 바른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그것이 바른 방향이라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같은 방향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함께 살아가는 다섯 가지 원칙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힘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 조직이 공통된 목표를 세워 방향성을 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둘째, 목표에 가장 적합하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셋째, 조직원들이 자신이 가진 지식을 열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넷째, 변화에 대처하여 지속적인 개혁을 만들어내야 한다. 다섯째,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능력을 가져야 한다. 첫째,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력이 있어야만 바른 공통된 목표를 세울 수 있다. 둘째, 지식을 내면화할 수 있는 심력이 있어야 목표에 가장 적합한 조직을 만들고 바르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셋째,

주어진 일을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실행력, 즉 체력이 있어야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에 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 넷째,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바르게 분포할 수 있는 자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다섯째, 공동체적 관계를 이해하고 남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관계 능력을 가진 자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할 수 있다(원동진·이일주, 2016).

어떤 사람이든 혼자가 아닌 남과 공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회인은 나만의 세계를 넘어 공동체 혹은 조직에서 유익을 끼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 5. 시니어교육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가 우리의 삶의 결과를 결정짓게 된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 처음에 누가 먼저 출발했는지 혹은 늦게 출발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마지막에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를 기억할 뿐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젊어서의 삶이 활기차고 생산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젊어서 아무리 많은 결과를 냈더라도 생의 후반전에 가서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된다. 그러나 과거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인생을 잘 마무리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 어느 누구도 노년층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생의 후반전인 이 시기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살아가야만 한다. 결국 이 시기를 잘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노년층에 이미 진입한 사람들에게

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노년이 될 모든 사람들이 미리 알아야 할 내용이다. 미리 대비하는 사람만이 노년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노년의 문제가 지금에 와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이슈로 확대된다는 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가경쟁력 분야에 관련된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을 보면, 앞으로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각 나라가 당면한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냐에 달려 있다고 예견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경제 보고서들도, 앞으로는 노년의 비밀을 이해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노인은 지혜의 보고이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자원일 수 있다.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는 반갑고 좋은 일이다. 하지만 지금 같은 추세라면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2026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동력과 잠재성장률은 크게 훼손되고 2040년 이후는 경제성장률이 0.74%에 그치게 되며, 2050년에는 노인 3명에 어린이 1명의 완전한 노인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노인층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의 증가, 국가재정의 악화, 도시의 공동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 더구나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요인의 하나는 저출산율이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15~49세의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숫자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1980년대에는 약 2.1명이더니, 최근에는 약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만큼 출산율도 증가해야만 건강한 인구분포가 형성될 수 있는데, 지금의 고령화가 저출산율에 맞물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당국에서도 이런 심각한 문제의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출산율을 높이려는 인위적인 촉진책은 별로 효과가 없다. 근본적인 대안은 노인들을 포함한 전 국민의 교육 수준을 파격적으로 높여 인적자원의 질을 고도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의 문제를 단순히 노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존 문제로 바라보면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의 유지를 위해 출산율 하락방지책,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생산성 제고 등의 정책적 노력, 아울러 노인 자원의 양적·질적 고도화를 위한 교육과 연구가 필수적이다. 결국 노년층들의 바른 교육을 통해 인적자원의 고도화가 일어날 때 우리 민족은 다시 비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노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때 부딪치는 가장 큰 문제는 노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이다. 즉, 노인들은 모든 기능들이 저하되어 사회에 별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시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대부분은 실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나선 학자들로는 해리건 [M.P. Harrigan](#), 파머 [R.L. Farmer](#)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학자들을 통해 노인에 대한 편견 대부분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노인이라도 그 가치를 알고 적당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그동안 편견으로 묻혔던 노인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노인의 능력 개발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며 머지않아 곧 노년층으로 편입될 예비 노인들, 그리고 노년으로 접어들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한정적 문제

노년에 들어서면서 당면하는 문제를 단순화해서 정리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면하게 되는 한정적 문제와, 둘째 꼭 노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포함한 인생의 모든 시대에 당면할 수 있는 비한정적 문제다.

먼저 한정적 문제는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정년이나 은퇴 또는 노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동안 해왔던 일에서 배제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다. 일에서부터 타의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은 노년층에게 매우 큰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충격을 준다. 일이 박탈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심각한 것은, 자신의 존재가치 자체를 부인하는 역기능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노년에게 다시 일을 마련해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 일했던 분야에서 일을 다시 찾는 방안(유급의 노동)과 노년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노인복지제도가 비교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미국은 65세 이상 전체 노년 중 약 87% 이상이 유급의 노동이나 무급의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젊은 시절 못지않은 행복과 성취감을 느낀다고 한다.

문제는 유급의 노동이든 무급의 봉사활동이든 일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복지라는 전체적인 수준으로 보아서 우리 사회의 노인복지는 아직은 우선순위에 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년이 된 사람에게 새삼스럽게 유급의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갖는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 대안이 있다. 바로 일의 생산성을 높이는 절묘한 배합이다. 이런 면에서 최근 적지 않은 제조 회사들이 65세를 넘어선 근로자와 젊은 근로자를 한 조에 편성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시사점을 준다. ‘배

스트 믹스'라고도 불리는 이 절묘한 배합은 풍부하고도 노련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고령 근로자와 패기 있는 젊은 신참 근로자를 한 팀으로 편성해 함께 일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고도의 기술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부분은 고령 근로자가, 패기와 실험정신과 체력과 민첩성을 요구하는 부분은 젊은 근로자가 맡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일찍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서구사회가 살아남은 비결에는 경험 많은 고령자와 패기 있는 젊은이들의 절묘한 배합이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노년에게 다시 일을 마련해주는 두 번째 방안은 무급의 봉사활동인데,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나이 다 들어서 무슨 자발적 자원봉사고 사회적 활동이냐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남은 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비한정적 문제**

노년기에 들면서 당면하게 되는 두 번째 문제, 즉 꼭 노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포함한 인생의 모든 시대에 당면할 수 있는 비한정적인 문제가 있다. 앞에서 미리 언급한 한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 국가나 사회, 가족 등에 의한 타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정책상 노인복지문제가 중요해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모두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결국 노년층 문제의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가적 대책, 즉 개인 차원의 비한정적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시간을 갖고 한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노년층에 접어들면서 삶을 구성하는 심력, 체력, 지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 등 5요소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 다섯

가지 요소는 모든 인간의 삶을 구성하고, 아울러 노년의 삶을 구성하는 것들이다. 문제는 노년이 되면서 이들 다섯 가지 구성 요소들이 약화되거나 또는 이들 사이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물론 다섯 가지 구성 요소가 65세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10대의 활기찬 나이라도 심력과 체력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30대 청춘의 나이에도 자기관리력과 인간관리력에 장애를 겪으면서 실의와 좌절감과 의욕상실 등을 겪을 수 있다. 문제는 노년의 경우 그동안 삶을 지탱해왔던 다섯 가지 구성 요소의 기능에 여러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비한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국가 간의 경쟁력은 고령화 문제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극복했느냐에 따라 다시 그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수용성 교육에 근거하여 노인들의 자가적 준비를 위한 교육이 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 세계시민 교육 전략

### 1. 세계시민 교육

미래에는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의 증대 및 글로벌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 같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세대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가진 세계시민으로 길러져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의 현장에서 경쟁보다는 협력을 추구하고 다양성, 인성, 창의성을 가진 미래형 인재로 교육해야만 한다. 아울러 국제적 감각과 시야, 국제 의사소통 능력, 외국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글로벌 의식의 확보는 필수다. 한국에서 개최된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는 향후 15년간 세계를 이끌어갈 좌표로 '세계시민 교육'을 주창하여 채택되었다.

우리에게도 홍익인간 이념의 재해석과 적용을 통해 세계시민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임무가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은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지금과 같은 발전을 이루는 데 여러 나라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한 도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한국은 선봉에 서서 교육을 통해 얻은 많은 지혜들을 세계사회에 돌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높은 자기 성찰 지수, 소통과 협업의 능력, 그리고 높은 직업윤리 의식을 가진 인재들을 기르는 교육을 해야 한다. 세계시민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융합적 사고와 협업이 필수다. 문제 자체가 융합적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탁월한 지식적 역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매일 직면하게 된다. 문제해결은 열린 사고로 함께 풀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포용력'이다. 오늘날 세계시민 교육에서 인성교육이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정한 세계시민은 탁월한 지식으로 자기 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력으로 상생과 협업의 저변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특히 사고와 행동영역을 크게 넓힐 수 있는 외국어 습득 능력을 길러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글로벌 의식을 가지면 글로벌 환경에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일하고, 같이 속해 있는 조직이나 팀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의식을 기를 수 있는 교육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세계시민으로서 각기 다른 세계 문화의 특징뿐만 아니라, 상호 연관된 체계로서의 세계 또한 이해해야 한다. 또한 다양성 속에서 보편성을 함의해갈 수 있어야 한다(노찬욱, 2004).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지구적 관점으로 합리적 판단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타인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세와 능력,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배려와 정의감은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 인종, 종교 등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허영식, 2003). 이상을 정리해보면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은 다음과 같다.

〈표 18〉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수용성 교육 커리큘럼

	목표	연수 내용
지력	- 다중 언어능력 - 창의성 - 국제 의사소통 능력	- 문해 독서법 - 창의성을 위한 수리사고법 - 외국어 학습법
심력	- 세계관의 이해 - 공감 반응력 - 배려	- 반응력을 길러주는 묵상법 - 공감을 위한 정서력 훈련법 - 세계관 정립을 위한 질문 학습법
체력	- 탐욕과 게으름의 절제 - 직업윤리 의식 - 정의감	- 신체 구조 교정법 - 건강을 위한 몸의 독소 제거법 - 최대 출력 확장법
자기관리력	- 자기 성찰 - 관용적 태도 - 합일 능력	- 자유에너지 확장법 - 시간·재정관리 - 언어 및 태도관리
인간관계력	- 공동체 의식 - 소통과 협력 - 국제적 감각과 시야	- 인간의 특질 찾기 - 세계시민의 이해 - 공동체의 소속감 이해

- **지력 분야:** 다중 언어능력, 국제 의사소통 능력, 창의성, 융합력
- **심력 분야:** 세계관의 이해, 공감 반응력, 배려
- **체력 분야:** 탐욕과 게으름의 절제, 정의감
- **자기관리 분야:** 자기 성찰, 직업윤리 의식, 관용적 태도
- **인간관계 분야:** 공동체 의식, 소통과 협력, 국제적 감각과 시야

이와 같은 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만들어 지고 운용되어야 한다.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의 회복을 통한 수용성 교육이 앞에서 언급된 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표 18〉과 같이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이 설계되었다. 이때 세계시민 교육을 다루면서 국가라는 개념보

다 개인의 자유 개념이 더 강조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기존 사회에 대한 소속감의 약화를 고려하여 공동체의 소속감 이해에 대한 항목을 추가했다.

## 2. 글로벌교육공동체

21세기는 지구촌 인류사회에 있어서 한민족 역할의 중요성이 크게 기대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얼마 전만 해도 전 세계에 가장 넓게 펼쳐져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21세기를 맞이한 지금은 한민족이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다. 현재 세계 역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한인들이 그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많이 살고 있다. 얼마 전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 220만, 미국에 200만, 일본에 70만, 러시아에 50만 명 이상의 해외 동포들이 살고 있다. 만일 우리 한민족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한민족이 서로 연결되어 힘을 합쳐 자신들뿐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할 수 있다면, 분명 21세기는 한민족이 세계 역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주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근대 한민족사는 안타깝게도 상당히 비극적으로 흘러왔다. 20세기 초부터 36년간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 주권을 잃었고, 겨우 국권을 되찾자마자 더 큰 비극으로 6·25전쟁이 이어졌다. 이것은 한 가족, 한 민족을 둘로 나누는 처절한 비극의 시작으로 현재의 남북한 구도를 이루게 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으로 점철된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 우리 한민족은 흩어지기 시작했다.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 일부 사람들이 중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조선족이라 불리는 중국 동포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강

제 이주되어 더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사할린, 혹은 중앙아시아에 거하는 고려인이 된 것이다. 당시에는 재일교포들도 양산되었다. 또한 한국 전쟁 이후 이민으로 시작된 재미교포들도 급격히 늘어났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집단이 있다. 바로 해외 입양아들이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고아에서 시작된 해외 입양이 이후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기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 통계를 보면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 등을 포함한 15개국에 14만 명이 넘는 입양아가 살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서서히 흩어져 살게 되었다면, 한민족은 100여 년 정도의 단시간에 흩어지는 바람에, 실제 역사의 현장에 있던 당사자들은 훨씬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맛보아야 했다. 이런 한민족의 고통을 넘어서 우리 민족이 이 시대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 방법은 교육이란 끈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엮어 가는 것이다. 교육은 그 본질상 이념이나 사상, 국경의 장벽을 넘어서서 전 인류가 동일하게 풀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그 어느 분야보다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쉽게 공유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에 의한 ‘한민족교육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어떤 공동체를 만들 때, 이를 통해 이기적인 힘을 갖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특별한 선민 의식이나 다른 민족을 배척하고 경계심을 갖는다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한민족교육공동체의 목표는 설령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 어떤 힘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목표가 자체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통해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살고 있는 그

사회와 타민족을 섬기고 봉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방안은 인간의 달란트를 최대화시켜 이를 남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수용성 교육을 통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엮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타민족과 힘을 공유하고 보편적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글로벌교육공동체(Global Education Community)'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수용성 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세계를 품은 다이아몬드칼라의 전면적인 인간'을 양성함으로써 이들을 통해 황폐화되고 무너진 교육을 재건하고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여, 모든 인류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지난 20여 년간 '수용성 교육'을 통해 글로벌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행되어 좋은 성과를 얻어왔다(부록 참조).

#### **한국을 넘어 제3세계로(이창기 2015)**

현재의 제3세계는 대체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또는 1960년대를 기점으로 네덜란드,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했다. 그중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1960대에 집중적으로 독립했다. 한국도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으나 1950년대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2016년 현재 전 세계 무역량 세계 7위라는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이제 우리는 세계시민으로서 동일한 조건의 식민지였던 대한민국이 어떤 면에서 제3세계와의 차별적 발전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이유를 찾아 함께 나누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은 196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 등에서 천문학적인

대의 원조금을 받아왔으며, 지금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원조금에 의존하지만 여전히 독립 당시의 열악한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높은 성장률이라는 긍정적인 지표들을 보이고 있지만 진정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중진국으로 도약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산재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공통적인 요인들을 찾아 제거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경제발전을 이뤄야 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환경, 문화, 정신, 교육 등 다면적 분석을 통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54개 국가 중 동부지역에 위치한 탄자니아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탄자니아는 한국과 유사한 정치와 환경적 요인을 가졌지만 196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별다른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현재 인구도 한국과 비슷한 5000만 정도이며 교육에 대한 열정도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과 인근 국가인 소말리아, 케냐, 부룬디 등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자금 유입, 남아프리카의 흑백갈등으로 인한 자금이동 등으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져 2011년부터 2015년에는 평균 7.2%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향후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들이 세계경제의 성장모델을 견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률에 비하여 내부적인 지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보여준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향후 일정 수준에서 머물거나 후퇴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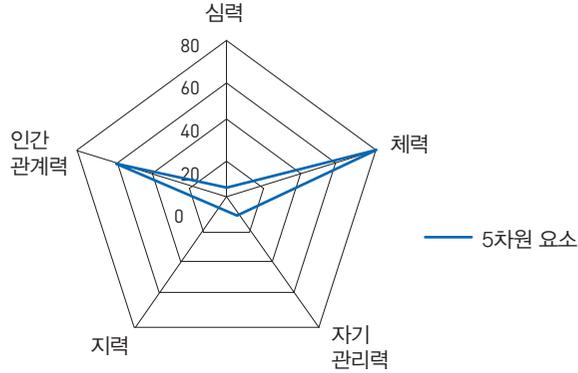
탄자니아의 문제를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탄자니아 2025 국가비전 *The 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25*'에서 볼 수 있는데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1) 의존주의 및 패배주의 증후군 *a donor dependency*

syndrome and defeatist developmental mindset, 2) 약하고 낮은 경제 관리 능력 a weak and low capacity for economic management, 3) 생산 조직들을 관리하는 정부 조직의 실패 failures in good governance and in the organization of production, 4) 정책에 대한 비효과성 증후군 ineffective implementation syndrome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탄자니아 정부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정책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증후군들이 존재했는데 예를 들면, 1970년대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엽전들이 그렇지 뭐”라는 자조적인 말들을 하곤 했다. 이는 일제 강점기에 한국을 비하하는 언어인 ‘엽전’이라는 비속어에, 이런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겠냐는 의도인 무의식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었던 것으로 많은 이들의 동의를 받아가며 풍미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없어졌다. 한국은 수천 년의 창의적 역사관을 지니고 있었으나 일본의 식민지 정신말살정책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철저한 자기 비하와 사대주의를 추구하게 함으로써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못나고 저급한 국민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한국인은 이러한 부정적인 정신문화를 긍정적인 태도와 열정으로 개혁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 “하면 된다”라는 정신문화와 현실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탄자니아 국민의 정신문화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다는 신념’과 그에 따른 ‘자신감에 기초한 동기부여’ 그리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지력, 심력, 자기관리력과 마지막으로 올바른 세계관으로 정신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 앞서 언급한 4개의 저해요인을 기초로 탄자니아 국민의 발전·저해요인을 5차원 요소로 표현하면 <그림 9>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교육과(심력) 피상적이 아닌 구체적이

〈그림 9〉 5차원 요소로 분석한 탄자니아 발전 저해요인



고 실질적인 교육(지력),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자기관리 능력, 마지막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른 세계관을 보완해준다면, 탄자니아는 풍부한 자원(석유, 천연가스를 포함한 40여 개의 광대한 광물자원)과 넓은 대지(남한의 10배), 살아 있는 자연환경(세계적인 국립공원 10개), 적절한 인구분포(전 국민의 50%가 17세 미만) 등을 바탕으로 세계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또한 탄자니아는 국부인 초대 줄리어스 니에레레 [Julius Nyerere](#) 대통령의 강한 애국심과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유사한 우자마 운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면에서도 명실공히 동부 아프리카의 리더 국가로서 향후 아프리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다섯 가지 요인의 통합적 진행과 제2의 우자마 운동, 그리고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체계적으로 전달한다면 탄자니아가 아프리카의 경제성장 모델 국가로 진입하는 데 손색이 없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문제는 단순히 탄자니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3세계 국가의 보편적인 문제이고, 5차원 수용성 교육을 통한 글로벌교육공동체의 구축은 제3세계 국가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통일교육 전략

분단 한국은 한반도라는 같은 장소에서 한 민족이 둘로 나뉘어 인류사적 최대의 고통을 경험했다. 최빈국과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 간 빈부 격차에 따른 갈등,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 투쟁, 아울러 유신론과 무신론의 극단적 대립 등으로 말이다. 극도의 빈곤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한국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안정된 통일국가로 안착할 수 있다면, 국제사회에서 동일한 고통을 겪는 국가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공해줄 수 있다. 분단 한국의 문제해결 능력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추구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역량을 모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지혜를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통일 과정은 우리의 기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남북 양쪽이 모두 합의하고 수긍하지 않으면 또 다른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것이다. 통일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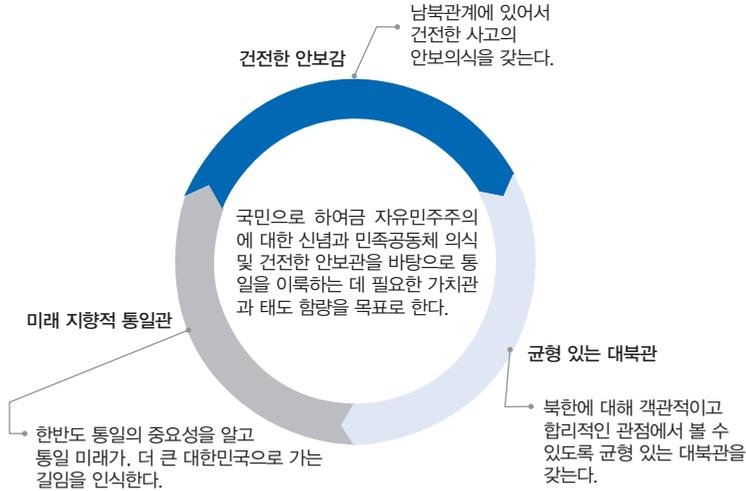
분명한 것은 분단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가 점차 줄어들어 따라 남북 간의 이질감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세대가 통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통일교육 전략은 미래교육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 1. 통일교육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은 1999년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제2조)”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 평화적 통일 지향,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금지 등의 통일교육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제3조). 현재 시행 중인 통일교육의 목표는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대북관’, ‘미래 지향적 통일관’으로, 교육을 통해 북한 및 남북관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통일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여 통일을 이끌어가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일교육은 국제정치 및 대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주요 목표가 변해왔다. 냉전 시대였던 분단 직후부터 1980년대 이전까지는 ‘멸공’, ‘반공’ 등을 주제로 반공교육이 주를 이루었다면, 냉전체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대에는 ‘교류’와 ‘안보’, 구소련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진 1990년대에는 ‘평화’와 ‘협력’ 등이 통일교육의 주요 주제였다.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던 2000년 이후의 통일교육은 본격적으로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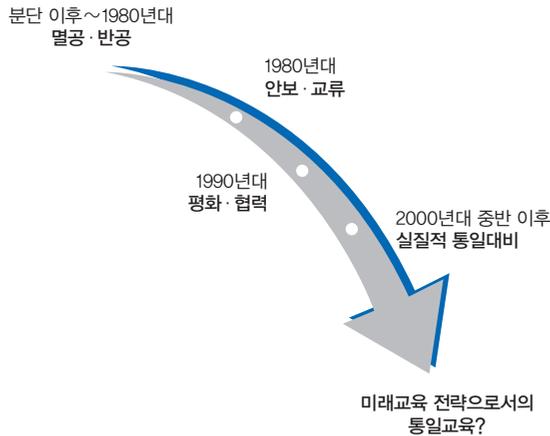
〈그림 10〉 통일교육의 목표(출처: 통일교육원)



질적인 통일 대비'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은 분단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으나 내용적·방법론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먼저, 내용적 측면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적 한계가 존재한다. 분단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현재의 청장년층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실태에 대한 교육은 북한에 대한 이질감과 배타적 이미지를 강조하여 오히려 통일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 시각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오기성, 2012·정경환, 2014). 또한 북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한 혼란이 존재하며, 이는 통일교육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반공'을 내세우던 시기의 통일교육은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여 적대적 이미지를 강조했던 반면, '평화'와 '협력'을 기조로 하는 통일교육에서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림 11〉 통일교육의 흐름



대북관이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논의가 심화되면서 남남갈등이 발생했고,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보다는 정치적 갈등상황으로 인식되어 오히려 대중의 무관심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박광득, 201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통일교육은 특히 형식적인 교육에 머물고 있어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인다. 오기성은 학교 통일교육은 방향 및 내용에 있어 공감대 확보, 질적 내실화 및 현실 적합성 강화, 통일의식에 기여도 제고 및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지향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따라 통일교육 방향 및 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통일교육은 실질적인 통일 의식 제고가 이루어지도록 실시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해보면, 현재의 통일교육은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하는 지식정보 전달 방식의 통일교육 효과성에 대한 반성에 더해, 국가 미래교육 전략으로서 통일교육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통일 준비’의 관점에서 대북, 안보, 통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쌓는 것이 현재 통일교육의 방향이라면, 국가 미래교육 전략으로서 통일교육은 ‘통일 이후’ 대한민국을 살아갈 미래세대가 통일 이후 어떠한 환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어떠한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다 포괄적인 범주에서 통일을 대비하고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통일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 전략이 강조된다(윤덕민, 2015).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승률 이사장에 의하면, 한국이 실현해야 할 통일정책의 핵심 정신적 가치는 ‘갈등을 통합하는 리더십 *syncretics leadership*’ 이어야 한다. 통일한국이 동북아공동체 사회의 초석이 되고 통로가 되는 대승적 포용과 융화정신의 결정체로 거듭나야 한다. 더불어 상상력, 긍정의 힘, 오픈 이노베이션 *open innovation* 을 기재 *機材* 로 삼는 창조적 신념을 가지고 미래 창조에 대한 확신에 찬 위대한 결단과 행동을 해야 할 때다. 이를 통해 우리 통일한국은 이 시대의 새로운 국가정신을 실현하는 신아시아 시대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재외동포(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인격적으로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간에 연결과 상처를 치유하며 차이점을 좁혀갈 때 통일의 새길이 열릴 것이다. 민족의 공존과 화해의 정신을 일깨우는 ‘사람의 통일’을 한반도 미래사회의 궁극적 이상으로 삼고 그 선행조건으로 핵 동결 및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한 교류협력(경제지원 및 인프라 개

발 등), 나아가 미래 지향적 정치공동체의 수립으로 방향을 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국가 중심과 민족 중심의 대립 틀을 벗어나 양자가 공존할 수 있는 합목적적 통일국가관을 세울 수 있다.

### 통일사회 시민역량과 통일교육

통일사회에서 미래세대가 당면할 다양한 이슈들 중, 가장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사회통합 문제다. 통일 Unification은 정치적·제도적 전환을 의미하는 체제통합의 개념이라면, 통합 Integration은 가치 체계를 공유하는 ‘내적 통일’을 의미한다. 즉, ‘통일’에 비해 ‘통합’은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카세 Kasse (1993)는 역사, 문화, 언어적 공통점은 통합의 중요 조건이기는 하지만 내적 통합을 보장하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님을 강조한 바 있다. 남북은 한민족으로서 역사, 문화, 언어적 공통점을 공유하고는 있으나, 분단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인식적 차원에서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무려 40배에 달한다고 알려진 남북 간 경제적 격차는 물리적인 차이보다도 경제적 활동에 대한 인식, 노동의 가치 등 인식적 차이로 인해 더욱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은 40여 년간의 분단 기간 후 통일을 이루었으나, 25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내적 통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분단 기간이 70년을 넘어서며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며, 통일교육은 이와 같은 포괄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통일, 안보 등에 대한 지식·정보 차원의 교육을 실시하기보다는 시민역량을 배양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가치와 지향점은 통일 이후 학교 교육에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통일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다. 최근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들 역시 이러한 통일사회의 시민역량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조정아(2014)의 연구에서도 ‘차이의 수용’, ‘공존과 상생에 대한 이해’, ‘민주적 의사소통’, ‘공감 및 성찰’, ‘갈등 해결 능력’ 등과 같은 역량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수용성 교육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현재의 통일교육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나, 실제 미래 통일사회에서 내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올바르게 담아내고 행동할 수 있는 시민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적절히 소통하여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역량을 키울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내적 통합이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교육 전략에 포함하여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방향과 전략은 ‘수용성 교육’이 추구하는 바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수용성 교육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내외적 역량의 5대 요소(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로 구분하고 이들의 왜곡으로 인해 학습 능력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수용성 교육’이 제시하는 바는 사회구성주의 [social constructivism](#)의 기본 전제와 마찬가지로, 사회화 과정에서 각 개인의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며, 교육 효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내외적 역량의 균형과 발달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남북한의 분단 상황과 같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socially constructed](#)’ 역량의

차이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수용성 교육’의 원칙에서 강조하는 본질적 학습역량의 회복과 발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역량은 흔히 인간관계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수용성 교육’에서는 외적역량과 내적역량의 균형을 강조함으로써, 개개인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역량이 뒷받침될 때 사회적으로 조화로운 인간관계가 발현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통일과 북한에 대한 지식 역시 건설적으로 받아들여 내재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것 역시 개인의 내적역량이 뒷받침될 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통일교육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남북한 간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중요한 미래교육 전략 중 하나다. 분단 70년이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통일교육에 대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시민역량 *civic capacity* 강화를 위해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오윤경, 2015).

## 2. 남북교육교류기구

미래사회의 실질적 구성원이 될 남한 청소년들에 대한 통일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실상은 남한 주민과 남한에 이미 정착한 북한 주민 간의 벽이 매우 높게 존재하는데도, 이를 극복할 실질적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 정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통일 후 남북한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민족 동일성 회복을 위해 폐쇄적인 민족 정서를 극복하고

열린 사회로 발전해가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통일교육을 담당할 ‘남북교육교류기구’를 설립하고,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하여 새터민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과의 통합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통일 이후 실시될 교육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연에 알고 해결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남북의 이질적인 사회에서 살아온 청소년들이 문화의 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남북이 미래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 **통합교육의 필요성**

남한과 북한은 1945년 분단 이후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군사적으로 대치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체제와 제도 그리고 가치관과 생활방식에 있어서 전혀 상반된 길을 걸어왔다. 따라서 통일은 정치 제도적 통일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사람을 통합시켜야 하는 과제를 포함한다. 그리고 ‘사람의 통일’은 오랫동안 불균등하게 발전된 이질적 두 체제의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길고도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통일연구원, 2004). 정치적 통일이 어느 한순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의 통일’은 남북한의 주민들이 서로를 알아가며 하나가 되어가는 배움과 노력의 여정을 필요로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통일 이후 통합교육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남북한 이질성 극복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차이와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한만길, 2012). 이때 남북한 국민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문화 충격과 부적응, 그리고 다양한 이념적·지역적·계층적 갈등을 완충할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새로운 통일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해주는 통합교육일 것이다(이은숙, 2009).

### 북한 교육의 특성 이해

이질화된 두 국민을 하나로 이어줄 통합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남한을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에서는 모든 교육이 정치적 사상교육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사람들을 공산주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갖게 한다. 북한 교육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집단교육의 원칙이다. 북한은 ‘어린이보양교육법’에 명시된 대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을 교육의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는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는 다른 그들만의 특성을 가진다. 1848년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에서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조국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마르크스의 이념에 충실하려면 사상교육에 민족이라는 개념은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민족에 대한 중요성이나 충효사상과 같은 유교적 전통에 입각한 가치를 사회주의 이념에 결합하여 주민들의 충성을 강화하는 그들만의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을 택하고 있다. 지도자를 ‘아버지 수령’이라 부르고, 지배 정당은 ‘어머니 당’으로 표현하여 수령과 일반 주민들의 관계를 단순히 지도자와 국민의 관계가 아닌 부모와 자식 같은 가족관계로 만드는 것이다(이온주, 2009).

### 북한인 이중성의 이해

북한은 교육을 통하여 고상한 사회주의적 이상을 추구하면서 국가와 수령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 그리고 당과 집단에 대한 동지애와 희생정신 등을 요구한다. 문제는 그러한 도덕교육이 식량난으로 야기된 북한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은폐시키고, 국가와 지도자에 대해 맹목적으로 충성하도록 악용되었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불만을 드러내서 표현할 수 없

는 억압적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부정적 감정을 숨기고 권력이 요구하는 허위감정을 표현하는 이중성을 갖게 되었다.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반복해서 교육을 받으며 전 생애를 집단에 소속되어 살아야 했던 북한 주민들은, 공동체 의식과 반이기주의적이고 반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여전히 품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연구에서 그들이 남한 사람들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순수함이나, 이웃과 사회를 위한 희생정신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민성길, 2009). 그러나 식량난으로 생존이 위협받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자신이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본능이 강화되었고, 이는 집단이나 이웃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개인주의를 사회적으로 용인하게 만들었다(배대원, 2002). 나아가 집단주의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오직 자기 자신과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 성향이 강화되었다. 북한 주민의 마음속에 내재된 공동체적 희생정신과 과도하게 강화되고 있는 개인주의적 이기심은 북한 주민들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이중적 특성이 되었다. 식량난으로 발생한 북한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장마당(농민시장)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자본주의적 현상이다. 체제가 야기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이념적 도덕을 외면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당연시하는 ‘도덕적 이중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 **통합교육에 있어서 수용성 교육 채택의 당위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교육을 통해서 북한 학생들을 이끌어야 할 과제들은 단순히 학습적인 것만이 아니라 경직된 사고방식과, 부정적이고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불신과 분노 등의 정서적 문제와, 무기력하고 무절제한 생활습관 등 다양한 학습 외적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남한에

서의 학습모델 중에서 남한의 교육적 한계뿐 아니라 북한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할 대안체계를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 교육체계의 한계를 극복해온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학습 외적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유기적이며 다면적인 학습체계를 가지고 있는 전인격적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한 '수용성 교육'은 민족의 역사적 과제를 풀어낼 제3의 대안으로서 준비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임경호, 2016).

### **북한 학생에 대한 수용성 교육의 적합성**

모든 사회는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도 다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수용성 교육'은 이에 대응하며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으로 교육의 분야를 구분하고 다면적으로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체계다. 특히 본 교육은 이론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만이 아니고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효과적인 실천 방안들을 가르쳐준다. 여기에서는 북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수용성 교육'의 적합성을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력학습의 적합성을 살펴보자. 북한 학생들은 폐쇄적인 통제사회 속에서 제한된 정보만을 습득했기 때문에 남한의 학생들과 커다란 학습적 격차를 갖게 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식량난으로 비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되었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의 학습 공백까지 발생하게 된 상황이다(조요셉, 2014). 따라서 통합교육은 북한 학생들의 학습적 공백을 채워가는 동시에 남한 학생들과의 학습 격차까지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수용성 교육에서 제시

한 ‘상관관계 학습법’, ‘속해독서법’, ‘고공 학습법’, ‘사고구조변환 학습법’ 등의 실천 방안들은 매우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 지력학습 방안들을 통해 지식습득을 잘해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주면서, 습득 지식을 상호 유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이끌어주어 지식에 대한 수용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 방안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교육 열의나 배우고자 하는 북한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곧바로 성과로 이어지는 확실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력 향상 방안에 포함된 독서치료법은 현재 탈북 청소년들의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된 유용한 교육법이라 할 수 있다.

수용성 교육은 마음의 힘을 키우는 심력개발을 학습의 중요한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심력학습의 목적은 학생들이 시련에 직면하더라도 거시적 통찰력을 가지고 인내하며, 환경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하면서, 자신 안에서의 변화를 통해 환경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러한 심력학습은 식량난으로 인한 ‘고난의 행군’ 속에서 목표를 상실하고 피해의식과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는 북한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미래 지향적인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이끄는 교육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심력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3분 묵상법’은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실천적 교육 방안이다. 또한 심력교육에서는 이타적 삶의 가치에 대해 강조하는데, 이러한 이타적 가치 교육은 북한 학생들이 북한에서 배웠던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재정립하게 하여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더 나아가 통일 이후의 민족공동체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줄 것이다.

수용성 교육은 체력 훈련을 교육의 5대 요소 중 하나로 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북한 학생들은 대부분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태어나 굶기

를 밥 먹듯 하던 세대다. 태어날 때부터 영양이 부족했고 성장기에도 지속적으로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의 허약한 건강 상태는 정상적 교육을 수행하는 데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이다(민성길, 2004). 수용성 교육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체력개발 방안들은 전반적으로 건강의 균형을 잃어버린 북한 학생들의 건강을 회복하기에 적절하다.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신체 구조의 왜곡이나 배변과 수면 등 생활습관을 잡아주어 몸에 든 독소를 제거하여 영양의 부족뿐 아니라 불안, 긴장, 분노 등으로 악화된 북한 학생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함께 회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수용성 교육은 자기관리 능력의 개발을 또 하나의 학습 영역으로 설정하고, 학습을 위한 시간관리뿐 아니라 학습 외적 영역의 재정관리 등 개인의 다양한 영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억압적 환경에서 무기력한 태도를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규율을 벗어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생존 문제를 해결해온 북한 학생들은 학습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규율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자기관리 능력의 개발훈련은 끝까지 학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학교생활 적응훈련이 될 것이다. 더욱이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극복하게 할 뿐 아니라 세운 목표를 이루도록 하는 훈련체계이기 때문에, 북한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나아가 이후에 무엇이든지 잘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더라도, 태도까지 올바르게 잡아주는 훈련을 함께 제공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북한 학생들이 조절 능력을 훈련함으로써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인재로까지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준다.

수용성 교육은 인간관계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다섯 번째 학습 영역으로 삼는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공동체 의식을 갖고 남을 섬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훈련이다. 경직된 흑백논리, 상호 비방과 불신을 요구받아온 북한 학생들은(조요셉, 2014) 정상적인 인간관계 원리를 배울 기회가 없이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그들은 통일 이후의 문화충격 속에서 정체성 갈등과 그에 따른 다양한 관계적 위기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수용성 교육은 이러한 관계적 위협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말을 바르게 듣는 훈련과 남을 격려해주는 말을 하는 훈련 등을 제공한다. 그리고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내적 기초를 다지도록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다루는 교육도 병행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문화를 형성하게 하여 피그말리온 현상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시도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안들은 관계 갈등이 학습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막아주는 동시에, 북한 학생들이 극복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관계 문제들을, 자신을 더욱 깊이 성찰하고 타인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계기로 만들어준다. 나아가 그들이 이러한 훈련을 통해 개발하게 될, 관계 갈등을 자신의 내적 성숙의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은 통일사회가 직면하게 될 다양한 지역적·계층적 갈등을 완충해주는 자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용성 교육은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을 개발하는 체계적 방안들을 통해 북한 학생들이 가진 문제들을 정규 교육 시스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역량들을 개발해주는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다면적 학습 구조는 북한 학생들을

지덕체 智德體를 겸비한 전인적 인재가 되도록 이끄는 추진력이 된다. 다시 말해 수용성 교육은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구현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점은 통합교육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극복하게 해줄 대안으로서 수용성 교육이 적합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 통일을 맞이하기 위한 실천 방안

통일은 다가오는 미래의 현실이다.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면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당하는 사건’이 된다. 통일 이후 통합 교육을 위해 제3의 대안으로 수용성 교육 시스템을 선택하고,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노력은 통일을 맞이하게 하는 지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통일교육 담당 조직이 세워져야 하고, 그 조직이 수용성 교육을 ‘통일교육을 위한 통합교육’의 차원으로 재구성하여 교육 현장에 적용하면서 통합교육 모델을 완성시켜야 할 것이다. 먼저 정부 관계자와 ‘수용성 교육’ 시스템으로 교육 성과를 거둔 경험 있는 교육자들, 북한 이탈 주민들을 교육하여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낸 교육자들, 남한 사회에서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교육자들을 포함하는 ‘수용성 통합교육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 위원회를 통해 위원들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성공적인 교육 경험을 공유하면서 ‘수용성 통합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 계획안과 실무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위원회를 통하여 운영·교육되는 탈북 아동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수용성 통합교육학교’들이 설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 기관들을 통해 탈북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매뉴얼을 다듬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교육기관과 교육 경험을 통해 남북한 학생들을 균형 있게 포함하는 제3의 교육기관인 ‘남북교육교류기구’를 만들어 남북한의 학생들을 함께 교육하면서 ‘수용성 통합교육’ 시스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매뉴얼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탈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과 남북한 학생들을 균형 있게 포함하는 교육기관을 동시에 설립하여 각각의 경험을 규합하면서 ‘수용성 통합교육’ 시스템의 실행 계획과 매뉴얼을 완성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교육기관을 통해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할 것은 통합교육을 가능하게 할 교사들을 발굴하여 양성하는 것이다. 동시에 위원회와 이들 교사들을 통해 남한의 교사들을 교육하는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이다. 또한 ‘수용성 통합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학생들 중에서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여 그들을 향후 ‘수용성 통합교육’의 지도자들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나아가 ‘수용성 통합교육’의 성공 사례를 통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희망을 환기시키고 ‘수용성 통합교육’ 경험과 매뉴얼을 활용하여 일선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일교육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를 통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통일을 준비하는 인사관리체계를 개발하도록 유도하면서, 범국가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그 교육 경험과 노하우들이 공유되게 하여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의 통일’을 이루어낼 준비된 통합 전문가들이 양성될 수 있게 하고 중국에는 국민 전체가 통합을 위한 준비된 자세로 통일을 맞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다문화가정 교육

통일교육의 핵심은, 한반도 내의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통합이란 민족을 넘어 세계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통합을 민족주의로만 보면 다문화가정은 배제될 수 있어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다. 통일교육은 동일성이나 당위성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성의 포용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인구구조는 매우 심각한 상태다. 2015년 72억 명의 세계인구가 2050년이 되면 100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나라 중 하나다. 더구나 15~64세의 생산 가능 인구를 보면 2016년에 최고치가 되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반대로 고령화 인구는 급격히 증가한다. 지금 중학교와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이들이 자라면서 고등학교 사교육 시장, 대학교, 취업 시장에 순서대로 충격을 줄 것이다.

이러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이제 그들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201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157만 명이고, 거기에 불법이나 임시체류 중인 외국인을 합치면 거의 200만 명에 달한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또한 지금 결혼하는 사람 중에 외국인과 결혼하는 다문화 결혼이 전체 결혼의 10%이고, 태어나는 아기의 4%가 다문화가정의 자녀다. 이런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시대를 수용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교육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

## 부록

# 국내외 수용성 교육 적용 결과

## 1. 국외에서의 교육 결과

### **몽골에서의 수용성 교육의 결과**

몽골은 1990년도부터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급변한 나라 중의 하나다. 따라서 전 국민이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체제에 대하여 생소할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면에서 수용성 교육인 5차원 전면교육이 1998년에 몽골에 소개된 이후 몽골의 교육청과 교사들에게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후 《5차원 전면교육 학습법》 책이 번역 출판되고 몽골의 장학사들과 교사들이 훈련을 받게 되었으며, 동시에 학교 현장에 적용하게 되었다(권오문, 2000).

〈표 19〉 몽골 교사들의 DQ 결과 평균값(2000년 4월)

	심력	체력	지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력
1~5년	73.3	42.6	60	69.3	73.3
6~10년	76	56	56	62.6	74.6
11~15년	76.1	57.6	43.8	69.2	68.5
16~20년	74.6	48	49.3	70.6	82.6
21~25년	77.7	45.8	59.3	76.5	77.6
26~30년	77.3	46.6	41.3	64	70.6
평균	75.83	49.43	51.62	68.7	74.53

\* 위의 자료는 몽골교육청 장학사 첸○○으로부터 제공받음.

#### 교육 전 몽골 교사의 상황

수도 울란바토르의 교사들 250명에게 DQ 검사를 실시했다. 교사들 경력은 1년부터 30년까지로 5년별로 구분했다. 〈표 19〉에서 볼 수 있듯이 몽골 교사들의 순위는 심력(75.83), 인간관계력(74.53), 자기관리력(68.7), 지력(51.62), 체력(49.43)으로 나타났다.

몽골 교사들은 심력과 인간관계력이 높고 지력과 체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몽골은 250만의 적은 인구로 서로가 다 알고 지내기에, 인간관계가 깨지고는 그 사회 속에서 고립되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며 인간관계를 잘해야만 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간에 살아온 사회주의는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많이 강조했기에 보수적인 교육기관에서는 아직도 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력이 낮은 이유는 우선 심각한 교재의 부족 문제에 있다. 몽골에서는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아이들을 위한 교재가 거의 출판되지 못한다. 또한 교사들은 자신의 지력을 개발하기 위한 참고도서, 연장교육, 재정, 시간의 제약 속에 있기에 지력이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교사들이 열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한 가지라도 더 배우기 위하여 자신의 재정으로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를 교실에 적용하기에 열심이다. 체력 저하의 원인은 몽골 기후의 영향이 가장 크다. 몽골의 겨울은 영하 30도 정도이고, 기간은 10월부터 4월까지나 된다. 이 기간에는 외부에서 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내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5차원 건강법은 몽골에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주리라 본다. 또한 식생활도 문제다. 몽골은 거의 고기류를 먹고, 채소류는 먹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지력과 체력의 향상이다. 또한 교사들의 경력에 따른 분류에서 뚜렷한 차이점은 지력 부분인데, 경력이 더해질수록 지력이 떨어졌다. 다시 말하면 교사들의 지력을 위한 환경이나 개발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 수용성 교육의 적용 결과

3년 가까이 몽골교육청과 국제교육문화교류기구는 수용성 교육연수를 계속해왔다. 심력을 위해 3분 묵상 훈련을, 지력을 위해 속해(문해)독서법과 고공 학습법을, 자기관리를 위해 시간관리를, 그리고 인간관계를 위해 나와 나, 나와 가족에 대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했다.

3년 동안 교사들의 훈련으로 <표 20>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교사 스스로가 실행자가 되어 현장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몽골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많은 책들이 발간되었고, 교사들이 자기 반에서 학생들에게 훈련을 시켰다. 지난 2003년 12월에는 몽골교육청과 교육부가 주관

〈표 20〉 수용성 교육 후의 몽골 교사들의 DQ 평균값(2003년 4월)

경력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심력	87	80	80	87	87
체력	60	47	53	67	60
지력	73	73	80	53	60
자기관리력	80	86	67	80	80
인간관계력	73	87	73	73	67
경력별 평균	75	75	71	72	71

\* 26~30년 경력자들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함.

〈표 21〉 비교 분석

	심력	체력	지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력
훈련 전	76	49	52	69	75
훈련 후	84	57	68	79	75

\* 소수점에서 반올림함.

하여 울란바토르의 교감들을 초청해 수용성 교육의 사례들을 발제하는 시간을 가졌고, 교육청장은 울란바토르의 모든 초중고 학교에서 수용성 교육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표 21〉을 보면 인간관계력에는 변화가 없었고 나머지 전 분야, 즉 심력, 체력, 지력과 자기관리력에 대해서는 현격한 향상이 있었다. 특히 두드러진 현상은 지력이다. 지력은 다른 분야보다 2배 가까운 향상을 보여준다.

〈표 22〉 관찰 학생 수

반 연도	8B, 10C반	동아리	6E, 7E반	7C, 8C반	9D, 10D반	9A	9B	총계
2001	43	12						55
2002	40	12	46	43	42			183
2003	36	12	44	43	43	42	41	261

\* 위의 자료는 몽골 제1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고, 덴○마 교사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음.

〈표 23〉 학생, 학부모의 반응 정도

연도		2001		2002		2003	
학년		8B		9C		10C	
학기		1	2	1	2	1	2
총 학생 수		43	43	40	40	36	36
반응	무척 좋다	10	10	15	16	32	26
	의심스럽다	22	23	19	20	6	8
	잘 모르겠다	11	10	6	4	2	2
학부모		35	34	36	35	39	37
반응	무척 좋다	11	11	14	15	20	19
	의심스럽다	18	13	15	15	12	13
	잘 모르겠다	6	10	7	5	7	5

이러한 점들이 몽골교육청에서 더욱 수용성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도 하다.

학생들의 반응 정도는 ‘무척 좋다’라는 평가가 2001년 23%, 2002년 40%, 2003년에는 72%로 증가했다. 학부모의 반응 정도도 ‘무척 좋다’라는 평가가 2001년 32%, 2002년 42%, 2003년에는 51%로 증가했다.

여기에서 한 학생의 고등학교 3년 동안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고자 한다. 이 학생의 이름은 ‘세○’이며 수용성 교육에서 심력과 인간관계력 두 부분만 적용했다. 이 두 가지 부분만으로도 많은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이 학생은 항상 소심했고 자신의 소중함을 잘 모르며, 학급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평가를 위해 학생 스스로의 평가와 담임선생님의 평가를 했다(〈표 24〉 참조). 이 학생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소심해지고 세상에 회의적이었으나, 수용성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목표를 확립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지속적으로 개발했다. 이후 적극적으로 가족과 동료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섬기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 학생은 현재 고등학교 졸업반으로 UBS [Ulaanbaatar Broadcasting Station](#) 기자로 활약하고 있다.

그리고 2001년 11월 몽골의 나차긴 바가반디 [Natsagiin Bagabandi](#)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2002년 9월 몽골국제대학교를 설립하여, 몽골 학생들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을 포함한 10여 개국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대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중국에서의 수용성 교육의 결과

김동만 박사는 1995년 8월 중국 길림성 연변자치주에 위치한, 외국인이 최초로 설립한 연변과학기술대학교 [YUST](#)의 교수로 가서 수용성 교육의 중요성과 중국에서의 확산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그해 10월 연길시 초중고

〈표 24〉 담임교사 평가표

		2001년		2002년		2003년	총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심력	삶의 목표의식 확립	0	1	2	3	3	9
	반응력 기르기 (책임감)	0	0.5	2	3	4	9.5
	풍부한 정서력 기르기	1	2	3	3	4	13
	남 중심의 삶	1	0.5	2	2	3	8.5
	지식의 내면화 능력 (바른 세계관 확립)	0	1	2	2	3	8
총계		2	5	11	13	17	48
인간 관계력	나와 나	1	2	2	3	3	11
	나와 가족	0.5	1	2	3	4	10.5
	나와 동료	0.5	1	2	3	3	9.5
	나와 사회	0.5	1	1	2	3	7.5
	세계를 품은 다이아 몬드칼라 인간상	0	0	0.5	1	2	3.5
총계		2.5	5	7.5	12	15	42

0: 전혀 생각하지 않음 / 0.5: 가끔 생각함 / 1: 일반적으로 생각함  
 2: 구체적으로 생각함 / 3: 삶에서 실행함 / 4: 객관적으로 변화됨 / 5: 완전하게 변화됨

교장, 교감 등 현지 학교 지도자들 100여 명을 초청하여 수용성 교육에 대해 강연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몽골국제대학교 제1회 졸업식



몽골 대통령과 대학 설립 합의



### 연길시에서의 수용성 교육

강연회 후 중국의 조선족에게 수용성 교육이 잘 전수되면 조선족의 자질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향후 북한의 젊은이들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연구학습방법론’ 과목을 개설하여 수용성 교육을 시작했다. 동시에 중국 연길시에 있는 연변대학교에서 이 교육을 실시했다. 지금까지 수용성 교육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당시에는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던 학생이 일본 유학 후 놀랍게 변화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본인이 학생들과 함께 수용성 교육을 하는 동안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3분 묵상, 글쓰기, 속해(문해)독서법을 훈련하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탁월한 독서 능력과 글 분석, 글쓰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또한 풍부한 이해력과 사고력, 상상력을 갖게 되었다. 특히 학생들과 함께하는 사고 및 인간관계 훈련, 일생고공표 훈련은 본인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바람직한 교육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모두가 성장하도록 돕는다.

수용성 교육은 그 후 초등학교(2개)와 실험중학교(1개)로 확대되었다. 연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교직원



연길시 2중 졸업기념



길시 2중학교 1학년 3반에서 5차원 교육의 결과는 놀라웠다. 담임선생님의 놀라운 사랑과 헌신, 수용성으로 인해 중하위권이던 그 반은 전체 1위 성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2년 후 대학입학을 위한 국가 통일고사와 대학입학에서도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나 수용성 교육은 작은 규모이지만 중국의 소수민족과 한족으로 나아가는 시점에 와 있다.

#### 윤남과 티베트에서의 수용성 교육

특별활동으로 1997년부터 시작하여 2005년까지 약 8년 동안 연 2차례(여름, 겨울방학 1달씩) 중국 소수민족지구인 티베트와 운남에서 연변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교육봉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 중 수용성 교육을 기반으로 한 티베트기술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티베트는 평균 4,000미터에 달하는 고원지대다. 그곳에 중국 서부 대개발 계획이 2000년부터 시작되자 농촌의 구걸하는 아이들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평생 희망 없이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에게 5차원 전면교육과 기술교육은 그들의 인생에 꿈과 소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티베트기술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이어서 운남 리장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학교를 설립하고자 한다.

### **카자흐스탄에서의 수용성 교육**

유정곤 이사장은 130여 종족이 살고 있는 카자흐스탄에서 16년간 살아 왔는데 2014년 카자흐스탄 교육공무원 부부가 그를 찾아왔다. 위구르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알○잔’이라는 사람이었다. 카자흐스탄 내에 63개 위구르 학교가 있으나 실력이 없어서 대학 진학률이 너무 낮아 폐교가 되게 생겼으니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그의 민족애를 보며 무너져가는 위구르 학교가 소생할 수 있다면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들을 돕는 방법은 수용성 교육인 5차원 전면교육이라 생각하고 2014년 알○잔 일행과 한국을 방문하고 함께 교육을 받았다.

### **진행 결과**

2015년 1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수용성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알마티 디아글로벌학교가 설립되었다. 몇 개월간 교사 자녀 6명을 놓고 가르쳤고, 5개월 후 커리큘럼을 짠 뒤 아이들을 모집했는데 63명이 되었다. 여름방학에는 ‘여름학교’를 열고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2개월간 공부를 했다. 초기에는 학생들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아서 도중 탈락하는 학생도 적지 않았지만, 2학기 들어서 학생들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자 부모들의 호응도가 높아졌다.

1년이 지난 후 173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다. 지력에 있어서는 읽기 속도와 문장 이해력이 높아져 다른 과목에도 성적의 상승이 있었다. 심력을 위해서 삶의 목표 세우기, 남 중심의 삶 살기, 반응력과 정서력 기르기를 했다. 인간관계와 자기관리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감 갖기, 자기 자신의 정체성 찾기, 다른 사람과의 관계 배우기를 훈련했다. 특별히 공산주의가 무너진 후 이들의 혼돈스런

카자흐스탄 한국 방문단



알마티 디아글로벌학교



세계관 때문에 철저한 불신과 이기심이 만연하게 되고, 질서를 지킨다는  
가 사회적 책임감을 갖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매일 3분 묵상을 실시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사들은 ‘그동안 교육의 본질을 잃은 것 같았으나 다  
시 그 본질 앞에 서는 시간’이라고 말하곤 했으며, 이대로 계속 실행하면  
혼돈의 한가운데 있는 교육 영역에 개혁이 일어나고 참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소감을 발표하곤 했다. 수용성 교육의 연수를 마  
친 한 남교사의 발표다. “지금 카자흐스탄의 많은 사람들이 국외로 나가서  
살고 싶어 한다. 모든 상황이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용성 교  
육을 알게 된 후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살면서 서로를  
위해 봉사하며 나라를 세워나가야 한다.”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는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공산주의 붕  
괴 후 30년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 모든 영역이 불안정하다. 기술과 환경은  
좋아지는 것 같으나 가치관의 문제에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동시에 극  
단적인 자본주의 체제에 빠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어떤 방법을 써서든 돈  
을 거머쥐지 않으면 죽는다는 신념과 연결되어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향후 10여 년 동안 어떤 교육체계를 확립하느냐가 중앙아시아의 흥

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약 65만 명의 유치원생과 280만 명의 초중고생이 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참된 교육을 실현하려는 교육자들이 있고 그들은 수용성 교육인 5차원 전면교육에 대해 들으면 크게 공감하며 받아들여려고 한다.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세 번의 교사연수를 시행했고 참여한 이들 모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 그들과 함께 카자흐스탄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것이다.

## 2. 국내에서의 교육 결과

### 학년 전(前) 교육

학교에 가기 전, 유아기에 받은 교육의 영향이 이후 각각의 연령 단계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생애에 걸친 인격 형성의 기초가 유아기에 이루어짐을 알게 된다. 그것은 성적이 좋든가, 무엇을 잘할 수 있든가 혹은 잘 못한다는 척도로 평가되는 것이 아닌, 인간으로서 더욱 소중하고 깊은 것이다. 유아기에 충실한 생활을 하여 정상화되면, 그 영향은 성장과 함께 학창 시절, 독립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등 저마다의 시기에 유아기에 축적된 교육이 핵이 되어 실력을 발휘해나가는 것이다.

유아를 교육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일방적으로 교사로부터 배워왔던 지식 위주의 전통적인 교육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으로부터 학습하는 방법을 익히게 해주는 방향으로, 즉 스스로 학습해나갈 수 있는 능력과 추진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교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경직되었던 교육체제를 자율적이고도 수용적인 어린이 중심의 교

육으로 바꾼다는 면에서는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연숙 원장은 학습자인 어린이를 존중하고 어린이들이 융통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어린이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어린이가 적극적인 자세로 스스로 학습을 선택하고 자신의 수준과 속도에 따라 학습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어린이에게 자율권을 주고 어린이의 판단과 선택을 중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내적 자발성 등을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가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어린이를 존중하여 교사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며, 군림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함으로 대하고 수평적이고도 따스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박신애 원장은 1년 단위로 수용성 교육을 경희유치원에 적용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먼저 지력을 위해 학문의 9단계를 기반으로 한 10분 책 읽기 운동을 실시하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읽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스스로 읽고자 하는 자기주도적 동기 제공, 책의 가치와 재미를 통해 책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체득했다. 심력의 틀 훈련을 위해서 묵상 훈련을 했다. 본 활동을 즐겁게 하면서 생활화되어 3주가 지나자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묵상한 개념들이 내면화되어 나타났다. 체력의 틀을 위한 몸관리 훈련으로 '하루 10분 체조'를 했다. 건강 체조를 매일 체험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된 아이들이 스스로 느낀 즐거움을 옆 반 친구들과 동생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자신의 유능함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자기관리 틀을 위해 자유선택활동 계획평가 훈련을 했다. 그 결과 반성적 사고뿐 아니라 자기 조절력을 기를 수 있었고, 자신감 증대와 자기주도적 학습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인간관계 틀을 위한 훈련을 통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친사회적 태도의 증대와 회복 능력이 뛰어난 유아들로 성장

하게 되었다.

김영란 원장은 유아기부터 자신의 언어, 태도, 삶의 목표, 성취감, 사람들과의 바람직한 관계, 지식이 아닌 지혜 위주의 올바른 학습을 수용성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교육과정에서 교육의 열매인 결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토양을 개간하는 과정, 즉 아이들의 수용성 발달에 집중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학년 전 학생들에게도 수용성 교육을 통한 통전적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학년 전 교육도 전인격적 인성교육이 바탕이 된 수용성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초등학교 교육**

거학초등학교 이옥련 수석교사는 교실에서 수용성 교육을 실시했다. 각 학과목에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력을 접목하여, <표 25>와 같은 밑그림을 그리고 학급경영을 실시하여 결과를 확인했다.

지력 훈련을 통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가려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은, 학생들에게 공부가 어렵지 않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심력 훈련을 통해 감동을 하게 되면 마음이 움직였다. 마음이 움직이면 강한 실천력을 가진다. 강한 실천력은 미래의 꿈을 생각하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었다. 체력은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웃고, 먹고, 스트레스를 제거해주는 것은 기본 욕구 중에서 생활 속의 윤택유의 역할을 한다. 성실하게 일과를 보낸 후의 운동은, 아이들을 생동감 넘치게 만들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잘 관리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실천 계획표는 변화를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봉사, 사랑, 나눔의 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고

〈표 25〉 학급경영 결과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력	
프로 그램	시간	프로 그램	시간	프로 그램	시간	프로 그램	시간	프로 그램	시간
안구훈련, 사선치기	국어	일생고 공표	재량	5차원 체조	1교시 휴식	실천표	가정 학습	봉사활동, 역할활동	연2회, 매일
아침 30분 독서	아침 월, 수, 금	3분 묵상	도덕	최대 출 력(마라톤, 등산)	체육	셀프 플래너	가정 학습	현장 학습	재량
고공표, 질문학습	국어, 사 회, 수학	상상 그리기	재량	멸치, 콩	점심	용돈 관리	수시	1분이면 마음이 열려요	월1회
수학일기	수학, 가 정학습	비전 선언서	가정 학습	자연 음식	특활	음식 찌꺼기 줄임	점심 시간	자리이동, 모듬활동	매주 월요일
꼬마동화 작가	아침 화, 목, 토	관찰 일기, 덧발 이야기	가정 학습	웃음 천국	수업 종료	태도 관리	수시	학급통신 자라는 모습	수시
글쓰기	재량, 특활	동시 외우기	점심	1분 스피치	특활	1인 1역할	청소 시간	칭찬 항아리	주1회 학급 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북포초등학교 채덕자 교감은 속해독서법을 교과와 학습목표에 적절히 접목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높이고 문제해결력 향상, 긍정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했다. 수용성 교육을 통해 자신과 소통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방법을 익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길러줄 수 있었다. 삶의 목표를 찾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능력을 조절하는 힘을 키웠으며,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며 서로 승리할 방법을 배워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표 26〉 DQ 검사 결과 (N=180명)

영역별	사전검사		사후검사		변화도 (%)
	긍정적 반응	비율 (%)	긍정적 반응	비율 (%)	
지력	101	56	130	72	+16
심력	122	68	142	79	+11
체력	95	53	130	72	+19
자기관리력	103	57	137	76	+19
인간관계력	115	64	144	80	+16

〈표 27〉 속해 능력의 변화도 (N=143명)

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평균		
	사전	사후	변화									
1분당 읽은 글자 수	555	724	+169	435	671	+236	558	822	+264	516	739	+223

신평초등학교 백남렬 교장은 경기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수용성 교육을 적용했다(2007.3.1~2009.2.28). 그 결과는 놀라웠다.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인지수DQ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속해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결과를 분석해보면, 수용성 교육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실천력이 강화되었다. 3분 묵상 및 훈화댓글 달고 24시간 이내에 실천하기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심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글 분석 및 고공 학습 등의 교수·학습법 적용으로 교실 수업이 개선되었다. 수용성 교육 실천록 활용

으로 기본 생활습관이 향상되었으며, 주간 및 평가 계획을 세워 실천하기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신장되었다.

인덕원초등학교 이명희 교사는 수용성 교육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독서활동에 대한 흥미와 독서량이 증가했으며 창의성이 길러졌다. 아이들의 글쓰기 실력과 표현력, 자료를 스스로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향상으로 생각하는 힘이 키워졌다. 또한 학생들의 얼굴 표정에 기쁨이 넘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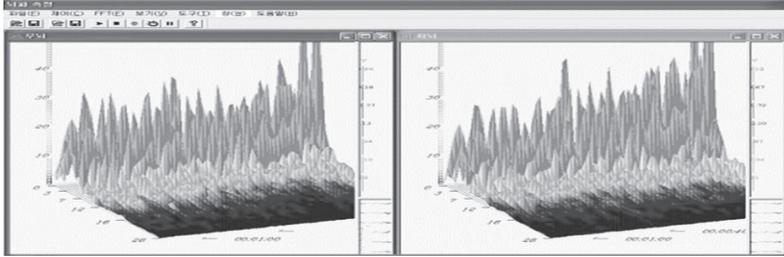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수용성 교육을 통한 통전적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초등교육도 전인격적 인성교육이 바탕이 된 수용성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중고등학교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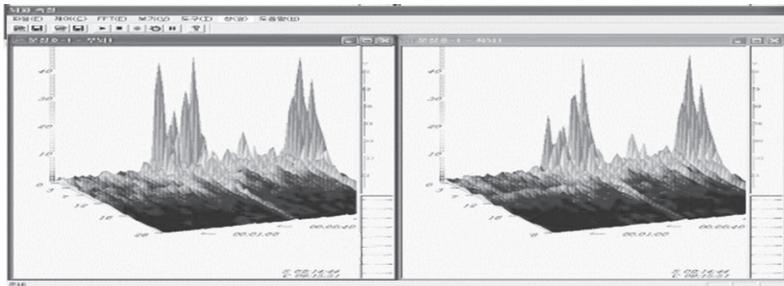
이호원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의 변화란 단순히 교과목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크게 일어날 수 없으며, 전인격적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수용성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때 매우 큰 변화를 유도할 수 있었다. <그림 12>는 수용성 교육을 통해 월등하게 성적이 오른 D고등학생들의 교육 전후의 좌우 뇌파를 비교한 것이다. 교육 전에 매우 요동치는 뇌파가 본 교육을 실시한 후 안정적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안정된 뇌파를 가진 상태에서 고도의 학습 능력을 나타내었다(이호원, 2005).

뉴욕대학교 스테판 플레밍(Stephen Fleming) 박사의 뇌의 자기성찰 능력, 즉 메타인지(meta-cognition)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전전두엽 피질의 회백질이 많은 사람이 메타인지가 높아 고차원적인 인지와 계획을 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자기평가와 자기조절을 조화시킬 수 있는 인성에 연관된 훈

〈그림 12〉 수용성 교육 전후의 뇌파 측정



교육 전 좌우 뇌파



교육 후 좌우 뇌파

련을 통해 메타인지가 향상되고 고도의 학습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스테판 플레밍, 2010). 이와 같은 연구 결과와 수용성 교육의 결과는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김만성 교감의 연구에 의하면 동두천에 소재한 4개 교에 수용성 교육을 적용하여 매우 열악한 교육 환경에 있는 동두천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동두천고등학교의 경우 2015학년도 2학년 학생들의 DQ를 2014학년도 1학년 때와 비교했을 때 심력, 체력, 지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력 5개 영역이 모두 상승했다. 2011년부터 4년간 변화를 보면 출석률은 99% 이상으로 향상되었으며, 중도 탈락률은 2%대로 줄었고, 학교폭력은 한 건도 없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학 진학률의 변화로, 최근 15년간 주요 대학 진학이 꾸준히 늘고 있다. 특성화고인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에서도 수용성 교육 이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신입생 대부분이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입학 성적이 6~8등급인 학생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인성지도 및 학업지도에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했다. 수용성 교육을 실시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다. 전면적인 성장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고, 취업률을 보면 전국 평균 40%대를 웃도는 50%대를 보인다. 아울러 동두천중학교, 동두천여자중학교의 학생들도 인성과 학력에 있어 매우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연평초중고등학교 김병문 교장은 2012년 교과부 지정 스마트교육 정책 연구학교로 선정되어 양방향 화상수업을 통한 수용성 교육을 실시했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사고구조 변환원리를 적용한 영어 학습법으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3분 묵상 등의 학습활동을 통해 따듯한 인성을 기를 수 있었다. 2012년 1, 2학년이었던 프로그램 참가학생 전원이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모두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했다. 특히 연평도에서 '서울대학교 합격 1호'가 된 이○렬 학생은 본 수용성 교육 수업에 참여한 이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확고하게 한 대표적인 학생이었다.

광문고등학교 이미애 교사는 학교 교육과정에 일주일에 한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한 달에 1회 학급별 봉사활동 등으로 인성교육 시간을 편성하여 수용성 교육을 실시했다. 특별히 매일의 삶에 적용 및 내면화를 할 수 있도록 5차원 일지 쓰기를 수행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작성한 일지와 자신의 꿈, 경험, 일상과 관련된 원고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도록 했다. 아이들은 자신의 책을 만들면서 학문의 9단계에 따른 정보의 입수, 정보의 고도

화, 표출하기 단계를 모두 경험하기 때문에 지력이 향상된다. 또한 책을 제작한 후 ‘내 생애 첫 책 출판기념회’라는 이름의 행사를 진행하여 스스로를 한 명의 작가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자존감을 높여 이후의 삶에서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했다.

장병용 교사는 중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행복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학생들 간의 경쟁의식, 학업 부담 과중, 사교육의 폐해 등으로 인해 학교는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가기 싫어도 가야만 하는 곳이 되었다. 하지만 만약 이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크고 작은 성공의 경험을 축적한다면, 때론 힘이 들어도 학교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1년 단위로 수용성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참다운 실력을 기르도록 해줌으로써,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수용성 교육을 통한 통전적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중고등 교육도 전인격적 인성교육이 바탕이 된 수용성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황희영 교수는 2005년 영산대학교에 수용성 교육으로서 5차원 전면교육을 적용했다. 사고와 표현 과목에서 가장 먼저 속해독서를 시도했다. 독서를 훈련하기 전의 속해 정도는 1분에 450~620자 정도였으나, 한 달 안에 대부분 1분에 650~1,000자 정도로 향상되었다. 아울러 전반적인 독서력과 글쓰기 능력의 향상이 일어났다. 2005년 박진형 교수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본, 교육학습법으로 접근한 사고와 표현 강좌의 학생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여타 강좌에 비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05년 2학기에 전공 수업인 경영학원론에 학문의 9단계를 기반으로 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용했다. 이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념의 고도화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독서를 통해 독서력이 꾸준히 신장되는 장점이 있었다. 이것은 주입식 강의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참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양과 질적인 면에서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재미교포인 정에밀리 교수는 2004년도 숙명여대의 초빙교수로 재직 중 리더십(5차원 전면교육을 통한 수용성 교육) 과목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선정하여 교육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본인 스스로 대학교육과 자신의 전공과목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1학년 1학기 때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과제들, 즉 장단점 변환, 시간관리, 비전일기 쓰기 등을 통해 자신과 직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하기, 비전선언문 적기,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 연결고리 찾기, 고전 읽기, 3분 묵상하기 등을 통해 대학교육의 중요성과 가치관에 대해 스스로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동안 이 교육을 통해 다음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전면적 인성교육은 한 인간이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문제만 일삼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방지해준다. 또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소통하는 참된 실력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이 교육은 지금 당장 한 학기에 나타나는 결과물이기도 하며 그렇지 않기도 하다. 받아들이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변화의 속도가 늦는다고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인 교육이 시행될 때, 올바른 가치관과 비전을 만들어줄 수 있다. 또한 실력뿐 아니라 한 인생을 승리로 끌어가게 할 가치 틀을 제공해준다. 본 교육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며, 한 인간의 삶을 총괄적이고, 통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교육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고려해볼 때, 한국의 미래대책을 위한 대학교육 과정으로서의 본 교육은 필수 교양과목이 되어야 한다.

노이경 교수는 2008년 교양 선택의 리더십이라는 과목을 통해 청강문화 대학에서 수용성 교육을 실시했다.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 관계 능력 5개 영역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함께, 본인이 주제를 선정하여 개인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체력을 위해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실시한 학생도 있고, 지력의 영어성적을 위해 TOFLE 공부를 시작한 학생도 있었다. 다음은 이○호 학생이 프로젝트를 마친 후의 발표인데, 이 생각은 많은 학생들이 함께 공감하는 바였다.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이 그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목표만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이루기 위한 주변의 상황들, 즉 지력, 심력, 체력, 인간관리력, 자기관리력 등의 전인격적 인성을 골고루 갖추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대학교 학생들에게도 수용성 교육을 통한 통전적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대학교육도 전인격적 인성교육이 바탕이 된 수용성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책을 마치며

미래를 예측하고 대안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기에 가능했다. 거의 100여 분의 위원들이 2년에 가까운 시간을 흔쾌히 함께 나누었다. 처음에는 지난 60년 넘게 고심해왔던 교육의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더 앞섰다. 하지만 완고하게 붙들고 있었던 편견들을 내려놓자 희미하지만 해법이 보이기 시작했다. ‘수용성’이란 작은 단어로부터 교육 본연의 실체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다.

특히 20여 년 전부터 이와 같은 개념을 이해하고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과 분투해왔던 많은 선생님들의 경험이 없었다면 본 연구는 그저 또 하나의 이론서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의 모든 내용들은 이분들의 고뇌와 땀이 배어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제안된 많은 내용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접목되고 열매를 만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기대한다.

이제부터라도 한국 국민이 전인격적 인성교육에 바탕한 ‘수용성 교육’을 실시하고, 이 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롯해 타민족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길러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심각한 난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국가적 사명을 감당하며, 평화를 근간으로 고도의 기술사회에서, 창의적으로 인류의 행복을 지향하는 역사의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편집위원 일동

## 참고문헌

1. 강구섭, <동서독 통합 개념을 통해 살펴본 평생교육의 과제>, 《통일연구논총》, 제19권 제1호, 통일연구원, 2010.
2. 국립외교원, <글로벌 리더 통일한국: 2040 통일한국 비전 보고서>, 국립외교원, 2014.
3. 기노시타 하루히로, 《강요하는 초보 감동시키는 프로》, 안소현 옮김, 나무한그루, 2004.
4. 김경동, <왜 미래세대의 행복인가>, 《미래세대행복위원회 창립총회》, 2015.
5. 김완호, <어순 중심 영작문 지도의 효과에 대한 실험 연구>, 《대학영어교육연구》, 제16권, 한국대학영어교육학회, 2010.
6. 김용근, <예술 수준의 기술을 통한 융합 혁신>, 《인문학자 과학기술을 탐하다》, 고즈원, 2012.
7. 김학수 외, 《과학 문화의 이해》, 일진사, 2000.
8. 노영상, 《경건과 윤리》, 성광문화사, 1994.
9. 노찬욱, <다원주의 시대의 세계시민 교육>, 《사회과교육》, 제43권 4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4.
10. 노희숙, 《인천교육정책포럼: 연구총서 I》,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교육정책포럼사무국, 2013.

11. 대니얼 윌링햄, 《왜 학생들은 학교를 좋아하지 않을까》, 문희경 옮김, 부키, 2011.
12. 대니얼 코일, 《텔런트 코드: 재능을 지배하는 세 가지 법칙》, 윤미나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009.
13. 도리스 매틴 · 카린 뷁, 《EQ: 감성 지능 개발 학습법》, 홍명희 옮김, 해냄, 1997.
14. 로버트 헤비거스트, 《발달과업과 교육》, 김재은 옮김, 배영사, 1996.
15. 문용린, 〈행복교육의 의미와 과제〉, KAIST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2015.
16. 민성길, 《통일이 되면 우리는 함께 어울려 잘 살 수 있을까》, 연세대학교출판부, 2004.
17. 민성아 · 원동연, 《5차원 중국어 학습법》, 김영사, 2002.
18. 박광득, 〈통일교육 목표와 내용의 딜레마와 해결 과제〉, 《통일전략》, 제13권 제3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3.
19. 박광득, 〈통일교육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 《통일전략》, 제14권 제1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4.
20. 박기련, 〈군의 전면적 국민교육 활용방안〉,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6.
21. 박남기, 〈미래교육의 새 패러다임〉, 《광복70주년기념 국가미래전략종합학술대회》, 2015.
22. 박상희 · 원유정 · 이민휘, 〈다중언어능력과 사고구조변환법〉,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6.
23. 박세정, 〈글로벌창의교육: 문화소비자로서의 학습자가 창의력 향상을 위해 다국적 문화컨텐츠를 수용 인식하는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KAIST 국가미래전략 토론회, 2015.
24. 박이문, 〈학문의 통합과 자연의 융합〉, 《인문학자 과학기술을 탐하다》, 고즈윈, 2012.
25. 박종철 외,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통일연구원, 2004.
26. 배대원,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통합 교육방향 연구〉,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2002.
27. 브루스 조이스 · 마샤 웨일, 《교수 · 학습의 이론과 실제》, 성원사, 1992.
28. 소강춘, 〈속해독서법을 통한 정보처리 능력 향상 방안〉, 《5차원전면교육협회》, 2005.
29. 송재신 · 원동연, 《5차원 전면 교육 길잡이》, 문예연구소, 2001.
30. 신대정, 〈핵심역량교육과 NLP를 활용한 학습 · 정서조절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목포대학교 대학원, 2015.
31. 알프레드 아들러, 《알프레드 아들러, 교육을 말한다》, 김세영 옮김, 부글북스, 2015.
  32. 신동희, 《창조경제와 융합》,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33. 오기성, 〈학교 통일교육의 주요 방향에 대한 성찰〉, 《통일문제연구》, 제24권 1호 통권57호, 평화문제연구소, 2012.
  34. 오윤경, 〈통일 세대를 위한 수용성 교육의 의의〉, KAIST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2015.
  35. 원동연, 《5차원 독서법과 학문의 9단계》, 김영사, 2003.
  36. 원동연, 《5차원 부모 교육 혁명》, 리수, 2015.
  37. 원동연, 《5차원 영어 학습법》, 김영사, 2002.
  38. 원동연, 《5차원 전면교육 학습법》, 김영사, 2000.
  39. 원동진 · 이일주, 〈수용성교육과 경영〉,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6.
  40. 유동준 · 원동연, 《세계를 품은 내 아이》, 힐스북, 2015.
  41. 유혜숙 · 유동준 · 원동연, 《5차원 독서치료》, 김영사, 2005.
  42. 윤덕민, 〈미래를 위한 통일교육 전략〉, KAIST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2015.
  43. 이광형, 〈인식의 틀과 가치좌표〉, KAIST 국가미래전략 토론회, 2015.
  44. 이규연, 〈창의 사회를 위한 융합교육전략〉, KAIST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2015.
  45. 이상오, 《지식의 탄생》, 한국문화사, 2016.
  46. 이은숙 외, 〈통일 과정 및 통일 후에 있어서 북한 주민의 적응과 통합에 효율적인 교육 방법의 모색: 북한 사상교양 교육방법의 특성 연구〉, 《통일학연구보고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8.
  47. 이진영, 〈통전적 평생교육전략〉,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6.
  48. 이한진, 〈대한민국 수학교육의 진단과 미래비전〉,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6.
  49. 이호원, 〈5차원 학습법과 기초학습 부진학생의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교육청 연구보고서》, 2005.
  50. 이호원, 〈DGA에서의 수용성교육 적용〉,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6.
  51. 이호원 · 백예지 · 이민휘 · 최은경 · 김신혜 · 윤영주 · 김광수, 〈수용성교육을 통한 가속화 학습〉,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6.
  52. 이흥기 외, 《인간관계론》, 한울출판사, 1998.

53. 임경호, <수용성교육을 통한 통일이후 통합교육 방안>,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6.
54. 임소영 · 원동연, 《대한민국 수학교과서》, 김영사, 2005.
55. 정경환, <학교통일교육의 기본인식과 방향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제14권 제1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4.
56. 정범모, 《교육과 교육학》, 배영사, 2000.
57. 정연희 · 김난희 · 원동연, 《이것이 한국어다!: 5차원 한국어 학습법》, 김영사, 2007.
58. 조요셉, 《탈북자: 북한선교의 마중물》, 두날개, 2013.
59. 조정아 외,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 통일연구원, 2014.
60. 존 엠 드레셔, 《내가 가정을 다시 시작한다면》, 강승주 옮김, 성광문화사, 1992.
61. 천주옥, <상상력과 창의력>, KAIST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2015.
62. 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센터, 《카이스트, 미래를 여는 명강의 2015》, 푸른지식, 2014.
63. 티모시 윌슨, 《나는 내가 낫설다》, 진성록 옮김, 부글북스, 2007.
64. 피터 드러커, 《피터 드러커 미래경영》, 이재규 옮김, 청림출판, 2002.
65. 하루야마 시게오, 《내내혁명》(3권), 반광식 · 박해순 · 심정인 옮김, 사람과책, 1996 · 1999.
66. 한만길 외,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통합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2.
67. 허영식, <세계시민의 개념에 관한 시론: 세계시민교육의 이론적 기초>,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8호,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2003.
68. 허은주 외, 《현대 교육사회학》, 양서원, 2011.
69. Ed Diener, <Subjective well-being and Happiness>,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2010.
70.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6》, 이콘, 2015.
71. Kasse M, <Innere Einheit. In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Frankfurt/Main, 1993.
72. Stephen M. Fleming et al., <Relating Introspective Accuracy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Brain Structure>, 《Science》, 2010.
73. W. Warren Wagar, 《World Views: A Study of Comparative History》, The Dryden Press: Hinsdale, 1977.

**학위논문**

1. 권효정, <표현들 간의 번역 활동을 강조한 수업이 수학적 신념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2. 김승근, <중등학교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사회사업의 개입에 관한 연구: 5차원 전면교육과 사례를 중심으로>,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2002.
3. 김신혜, <5차원 전면교육학습법을 활용한 기독교적 과학교육과정 개발 연구>,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4. 김완호, <영어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어순지도의 효과: 사고구조변환법을 이용하여>, 우석대학교 대학원, 2010.
5. 김요섭, <저출산 시대 인재 양성을 위한 전인교육: 전인교육을 위한 5차원 전면교육>,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2005.
6. 신대정, <핵심역량교육과 NLP를 활용한 학습·정서조절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목포대학교 대학원, 2015.
7. 육중선, <5차원 전면교육 학습법의 자기능력 강화 효과에 대한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8. 이준철, <대안학교 사회복지 서비스욕구에 관한 연구: 세인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2008.

9. 전미숙, <대안적 의미로서 초등교사들이 인식한 5차원 전면교육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10. 정희순, <5차원 전면교육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2011.
11. 조성은, <대안학교에 적합한 5차원 전면교육에 의한 과학과의 학습 패러다임 구안·활용>,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고등 교육기관 논문

1. 군산간호대학, <5차원전면교육비전설계>, 《교육역량강화사업》, 2010.
2. 권오문(몽골국제대학교 부총장), <몽골 현대화를 위한 5차원 전면교육의 비전>, 《5차원전면교육협회》, 2005.
3. 김경동(서울대학교 교수), <왜 미래세대의 행복인가>, 미래세대행복위원회 창립총회, 2015.
4. 김동만(연변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중국-티벳 지역의 5차원 전면교육 현황과 과제>, 《5차원전면교육협회》, 2005.
5. 김완호(원광보건대학교 교수), <어순중심 영작문 지도의 효과에 대한 실험 연구: 사고구조변환법을 중심으로>,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1.
6. 김완호(원광보건대학교 교수), <어순중심의 사고구조변환법을 통한 영어교수 학습방법의 전환>, KAIST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2015.
7. 남미라(군산간호대학 교수), <군산간호대학 5차원 전면교육 사례>,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1.
8. 문용린(서울대학교 교수), <행복교육의 의미와 과제>, KAIST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2015.
9. 문용린, <행복한 성장의 조건(이제는 행복교육이다)>,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1.
10. 박남기(평주교육대학교 교수), <미래교육의 새 패러다임>, 미래창조과학부 국가미래전략종합학술대회, 2015.
11. 소강춘(전주대학교 교수), <속해독서법을 통한 정보처리 능력 향상 방안>, 《5차원전면교육협회》, 2005.
12. 안정현(부산대학교 교수), <Sense Group Grammar>,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6.
13. 오윤경(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통일 세대를 위한 수용성 교육의 의의>, KAIST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2015.

14. 원동연(국제교육문화교류기구 이사장), 〈한국교육의 회복과 미래교육전략〉, 《새교육 9월호: 광복70주년 특집》, 2015.
15. 원동연(봉곡국제대학교 총장), 〈새로운 민족사 개척을 위한 5차원 전면교육의 비전〉, 《5차원전면교육협회》, 2005.
16. 윤덕민(국립외교원 원장), 〈미래를 위한 통일교육 전략〉, KAIST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2015.
17. 이광형(KAIST 교수), 〈인식의 틀과 가치좌표〉, KAIST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2015.
18. 이원설(승실대학교 이사장), 〈THE FIVE DIMENSIONAL EDUCATION〉(Proposed by Dr. Won Dong-yeon), 《5차원전면교육협회》, 2005.
19. 이한진(한동대학교 교수), 〈대한민국 수학교육의 진단과 미래비전〉,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6.
20. 임경호(자유시민대학 학장), 〈수용성교육을 통한 통일 이후 통합교육 방안〉,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6.
21. 한국교육개발원, 〈21세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미래전략연구〉, 연구보고 RR 2011-01, 2011.
22. 황희영(영산대학교 교수), 〈5차원 전면교육학습법에서 인간관계력의 의미에 대한 고찰〉,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1.

#### 교육청·지자체·기업지원 논문 및 보고서

1. 경기도광주교육청 5차원전면교육연구회,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5차원 전면교육 프로그램〉, 《5차원전면교육협회》, 2005.
2. 인천서구청, 〈글로벌창의융합사고를 통한 글로벌인재양성(공촌초·가림초·석남서초·가석초·서곶초·봉화초)〉, 《교육성과 정책보고서》, 2014.
3.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 〈5차원 전면교육을 통한 자기주도적학습 능력 신장〉(맞춤식 공모분원형 연수 교재), 《녹색디자인》, 2012.
4. 포스코나눔재단·삼척교육지원청, 〈벽지지역 및 소외계층 미래핵심역량 강화(삼척중학교)〉, 《교육성과 정책보고서》, 2016.
5. 한국마사회, 〈인성교육기반 글로벌인재교육〉, 《교육성과 정책보고서》, 2015.
6. 한국수력원자력, 〈글로벌창의융합사고를 통한 글로벌인재양성(상하중학교)〉, 《교육성과 정책보고서》, 2015.

7. 한국수력원자력·전라남도신안교육지원청, <도서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미래학습 역량 강화(신안교육청 관내 초중고 648명)>, 《교육성과 정책보고서》, 2014.

#### 중고등 교육기관 논문 및 보고서

1. 강미자(동두천중학교 교장), <동두천중학교 교육활동에서 5차원교육의 실제>, 《5차원 전면교육협회》, 2005.
2. 권혁식(동두천중학교 교장)·강미자(동두천중학교 교감), <창의 인성 프로그램으로서의 5차원 전면교육>,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1.
3. 김병문(연평초중고등학교 교장)·송경희(연평초중고등학교 교사)·한상준(연평초중고등학교 교사), <연평고에서의 5차원 전면교육의 적용>, 《교과부 지정 스마트교육 정책 연구학교 보고서》, 2013.
4. 김설란(동양중학교 교사), <5차원 전면교육 학습법 적용을 통한 자아 존중감 향상>, 《5차원전면교육협회》, 2005.
5. 김재희(궁내중학교 교사)·김인선(e비즈니스고등학교 교사), <몽골 밝은미래학교의 5차원 교육현황>,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1.
6. 김혜선(염광메디텍고 교장), <Seeking for Visionary, Specialist, and Global Leader>, 제2회 아태지역 교장리더십아카데미, 2011.
7. 박신웅(세인고등학교 교사), <자기관리 능력과 인간관계 능력 교수-학습의 실제>, 《5차원전면교육협회》, 2005.
8. 석교중학교, <5차원 전면교육 적용을 통한 자기주도적학습력 신장>,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 지정 특색교육 연구학교 보고서》, 2012.
9. 소연자(전주기전중학교 교사), <속해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5차원전면교육협회》, 2005.
10. 신형수(세인고등학교 교장)·강순옥(5차원전면교육협회 교원연수원장)·조재현(벨국제아카데미 교감), 최은경·김신혜·윤영주(DGA 교사), <5차원 전면교육의 학교 적용 사례>, KAIST 국가미래전략 토론회, 2015.
11. 오영란(서부산공업고등학교 교사), <서부산공업고등학교에서의 5차원 전면교육 적용 사례>, 《5차원전면교육협회》, 2005.
12. 유서영(서울사대부중 교장)·서상완(전농중 교장)·정덕자(경수중 교장)·변상권(충북 대사대부고 교장)·이호원(염광메디텍 교감)·김재덕(정의여고 교사), <5차원교육을 통한 학교운영방안>, 서울5차원교육연구회 1차 강연회, 2013.

13. 이선필(칠성중학교 교장), <수용성교육을 통한 시골 작은 학교의 기적>, KAIST 국가미래전략 토론회, 2015.
14. 이옥주(공주여자고등학교 교장),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 수용성교육의 적용>, KAIST 국가미래전략 토론회, 2015.
15. 이원섭(동두천고등학교 교장) · 이기무(동두천중학교 교장), <동두천고등학교 10년간 5차원 전면교육의 운영결과>,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1.
16. 이호원(단국공업고등학교 교사), <단국공업고등학교: 실업교육에서 5차원 학습법 적용>, 《5차원전면교육협회》, 2005.
17. 이호원(염광메디텍 교사), <기초학습 부진학생의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1.
18. 임병문(거성중학교 교사), <특기 적성 5차원 전면교육 실천사례>, 《5차원전면교육협회》, 2005.
19. 정금자(임곡초 교장) · 함봉식(속사초 교사) · 임명옥(남강초 교사), <5차원 전면교육과 신학력 신장 방안>, 강원도교육청 교과교육연구회, 2011.
20. 정기숙(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교장), 김만성(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교감), <5차원 전면교육의 인성함양과 학부모교육효과>,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1.
21. 정미숙(화명중학교 교사), <학문의 9단계를 적용한 창의성 신장>, 《부산시 5차원전면교육연구회 보고서》, 2006.
22. 조수진(동두천여자중학교 교감),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한 창의력 신장 방안>, 《5차원전면교육협회》, 2005.
23. 홍수찬(창녕고등학교 교사), <5차원 전면교육을 통한 수학 DEC 인재육성>,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1.

#### 초등 교육기관 논문 및 보고서

1. 김상준(대곡초등학교 교사), <5차원 전면교육 현장적용 실천사례>,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1.
2. 김연숙(우촌초등학교 교장), <5차원 전면교육을 통한 전인적인 글로벌 리더 양성>,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1.
3. 김완희(개원초 수석교사) · 이효숙(동원초 수석교사) · 이옥련(거학초 수석교사), <자기주도학습 전략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글로벌 인재 기르기>, 《2014년 교육연구회 운영 보고서》, 2014.

4. 김완희(개원초등학교 수석교사), <‘글 힘 돋음’ 9단계 활동을 통한 논리적인 사고와 표현>,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1.
5. 김완희(부산당평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에서 5차원 속해 독서법 활용 방안>, 《5차원전면교육협회》, 2005.
6. 김지현(망성초등학교 교감), <5차원 독서법과 학문의 9단계를 활용한 독서캠프>,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1.
7. 박은희(삼척중학교 교사), <5차원 전면교육과 신학력 신장방안>, 강원도교육청 교과교육연구회, 2011.
8. 반현정(삼성초등학교 교장), <5차원 전면교육 컨설팅을 통한 국어수업 능력개발 과정 운영>,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6.
9. 송태신(前 칠보초등학교 교장), <세계를 품은 인재육성으로 모두 행복한 학교>, KAIST 국가미래전략 토론회, 2015.
10. 송태신(정읍남초등학교 교감), <5차원 전면교육을 통한 조화로운 인간육성>, 《시범학교운영보고서》, 정읍남초등학교, 2006.
11. 송태신(정읍남초등학교 교감), <멘토링을 활용한 다이아몬드칼라 인재 양성>, 《5차원전면교육협회》, 2005.
12. 송태신(칠보초등학교 교장), <5차원 전면교육을 적용한 학교경영>,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1.
13. 윤혜숙(산곡남초 교사) · 이영인(굴현초 교사) · 정인숙(부원초 교사) · 황보희(부곡초 교사) · 신흥엽(경인교대부설초 강사), <수용성교육을 통한 전면적인성교육에 대한 연구>,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6.
14. 이명숙(천가초등학교 교사), <속해 독서법 · 글 분석법 구안 적용을 통한 독서 능력 신장>, 《5차원전면교육협회》, 2005.
15. 이명희(삼봉초등학교 교사), <NTTP 안양과천 5차원 전면교육 연구회 보고서>,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1.
16. 이옥련(거학초등학교 수석교사), <5차원 전면교육의 학교적용>, KAIST 국가미래전략 토론회, 2015.
17. 이옥련(서명초등학교 교사), <학문의 9단계 적용을 통한 명품수업 디자인>,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1.
18. 이옥련(토현초등학교 교사), <토현초등학교에서의 5차원 전면교육의 적용>, 《5차원전면교육협회》, 2005.

19. 이진영(삼산초등학교 교사), 〈5차원 창의경영학급 운영 및 성과 평가〉,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1.
20. 이효숙(동원초등학교 수석교사), 〈인간관계프로그램을 적용한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력과 관계회복력 기르기〉,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6.
21. 정금자(임곡초등학교 교장), 〈5차원 전면교육 현장착근을 위한 교원연수 실천 사례〉,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1.
22. 정순임(덕천초등학교 교사), 〈글 분석 프로그램을 적용한 창의적인 독해 능력 신장〉,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1.
23. 정순임(인덕원초등학교 교사), 〈학문의 9단계를 활용한 교수-학습 실천사례〉, 《5차원전면교육협회》, 2005.
24. 채덕자(북포초 교감) · 노승규(삼목초 교사), 〈수용성교육을 통한 지력교육에 대한 연구〉,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6.
25. 최용희(당하초등학교 교사), 〈5차원 전면교육 학급경영으로 자기주도학습인 육성하기〉,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1.
26. 함봉식(속사초등학교 교사), 〈5차원 전면교육을 통한 교사의 자질 함양〉, 《5차원전면교육협회》, 2011.

#### 저서

1. 원동연, 《5차원 독서법과 학문의 9단계》, 김영사, 2005.
2. 원동연, 《5차원 부모 교육 혁명》, 리수, 2015.
3. 원동연, 《5차원 영어학습법》, 김영사, 2002.
4. 원동연, 《5차원 전면교육 학습법》, 김영사, 2002.
5. 원동연, 《X 수학》, 5차원교육, 2016.
6. 원동연, 《세인고 사람들: 기적의 교육현장 세인고등학교에서 전해온 희망의 이야기》, 김영사, 2002.
7. 원동연 · 민성아, 《5차원 중국어 학습법》, 김영사, 2002.
8. 원동연 · 소강춘 · 주경미, 《언어능력 향상의 길잡이》, 박이정, 2001.
9. 원동연 · 송재신, 《5차원 전면 교육 길잡이》, 신이출판사, 2001.
10. 원동연 · 유동준, 《달란트 교육 혁명: 성경적 5차원 전면교육 학습법》, 두란노, 2005.
11. 원동연 · 유동준, 《부모가 함께하는 내 아이 영재수업: 5차원 유아영재 교육법》, 김

영사, 2007.

12. 원동연 · 유동준, 《세계를 품은 내 아이》, 힐스북, 2015.
13. 원동연 · 유동준, 《해피엔딩 노년의 인생학》, 김영사, 2005.
14. 원동연 · 유혜숙 · 유동준, 《5차원 독서치료》, 김영사, 2005.
15. 원동연 · 유혜숙 · 유동준, 《시조: 삶의 언어, 치유의 노래》, 김영사, 2006.
16. 원동연 · 임소영, 《대한민국 수학교과서》, 김영사, 2005.
17. 원동연 · 정연희 · 김난희, 《이것이 한국어다!: 5차원 한국어 학습법》, 김영사, 2007.

#### 교원 직무연수

1. 강원도교육연수원(2014), 배움과 공감이 있는 행복교실 만들기, 강원교육 2014-2-1-138.
2. 강원도교육청(2014), 작은학교 수업복지를 위한 학교장 워크숍, 책임교육과 2014-28.
3.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2013), 창의융합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력 향상, 부교연 2013-237.
4.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2013), 중등신규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 부교연 2013-271.
5.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2012), 중등자기주도학습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 서교 2012-중등-II-4.
6. 풍성중학교(2012), 5차원자기주도학습 트레이닝, 서울교육-유초등-직무-2012-25001-25030<전문>.
7. 상경중학교(2011), 자기주도학습 전문가과정 직무연수, 서울교육 2011-004.
8. 상계고등학교(2010), 자기주도학습 코칭 동기계발 상담기법실습, 서울교육 2010-207.
9. 서울시교육청(2010),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길라잡이, 서울교육 2010-14.
10. 금천고등학교(2010), 자기주도학습연수, 서울교육 2010-210.
11. 잠신중학교(2010), 5차원교육을 통한 효율적 교수학습 개선, 교원연수.
12. 서울특별시교육청(2010), 자기주도학습 코칭과정 직무연수, 초등.
13.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2009), 신규임용교사연수, 교원연수.
14. 충북교육과학연구원(2009), 5차원전면교육, 충북교과연 200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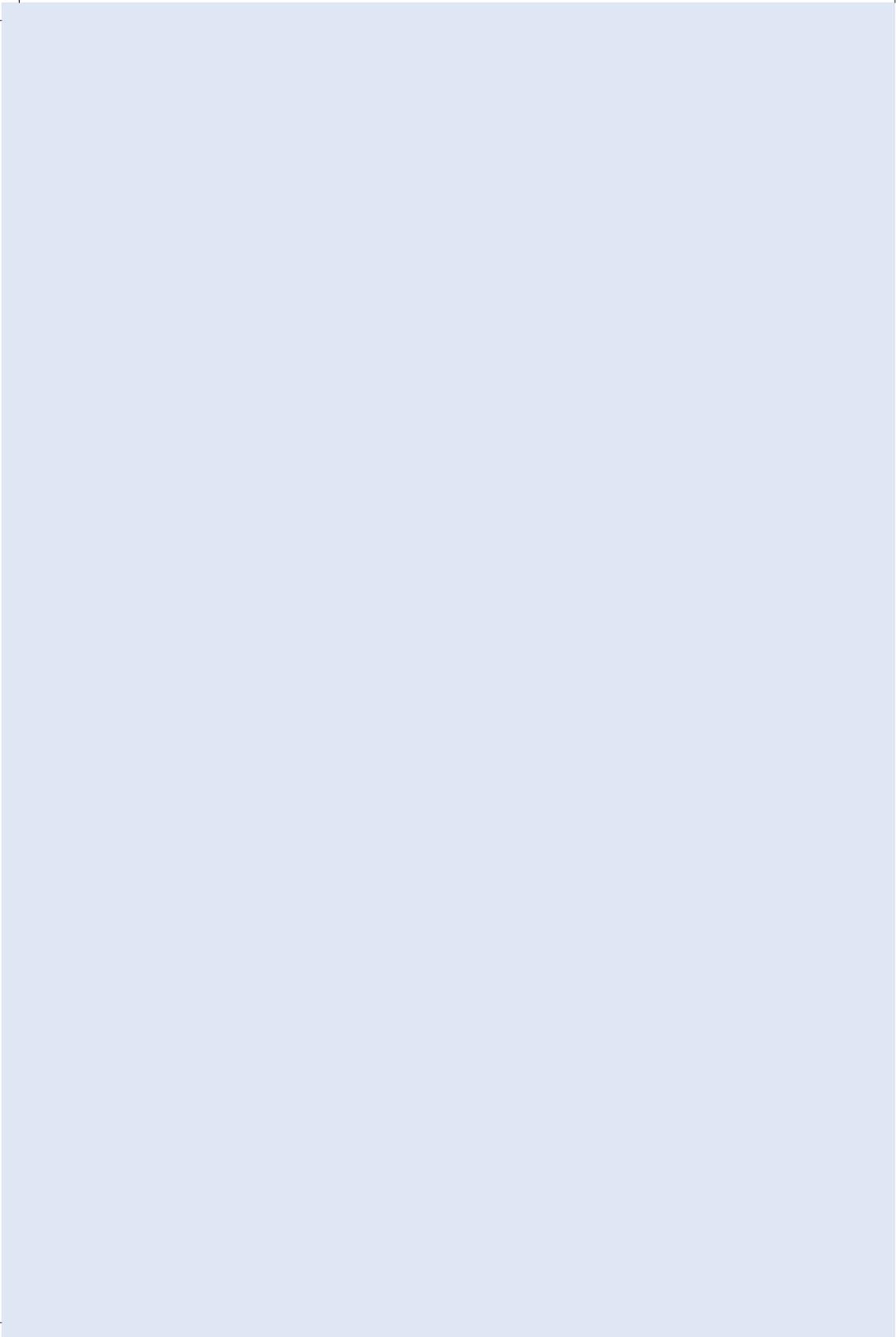
15. 경남밀양교육청(2009), 5차원전면교육과 창의적 교수학습방법, 교원연수.
16. 경기도중고등여교장학교경영연구회(2009), 학교경영리더십, 교장단연수.
17. 서울특별시교육청(2008),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이론과 실제, 고등.
18. 경상남도교육청(2008), 단위학교책임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중등학교장 연수.
19. 충남초등교육여성행정협의회(2007), 감성리더십과 창조적 학습경영.
20. 경기도시흥교육청(2007), 기초학력 멘토교사 연수.
21. 충청남도금산교육청(2007), 혁신적 교육계획수립을 위한 초,중 실무자 연찬회.
22. 서울특별시연수원(2006), 중등 복직예정교사 직무연수, 서울2006-중등-Ⅱ-34.
23. 가남초등학교(2005), 5차원교육프로그램운동을 통한, 자기주도적인 어린이육성, 연구학교발표회.
24. 강원도교육연수원(2005), 초등 1(2)급정교사 자격연수.
25. 경기도울곡교육연수원(2005), 초등 교감 및 교육전문직 직무연수.
26. 경기도교육청(2005), 혁신마인드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혁신 경진대회.
27. 경상북도교육연수원(2004), 중등교감자격연수(교양·교직).
28.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2003), 중등수학과1급정교사자격연수.
29. 경기도교육청(2003), 유·초 특수학교(원)장연수, 학교경영의 변화와 희망을 주는 교장선생님.
30. 경상북도교육연수원(2003), 중등교감자격연수(교양·교직).
31.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2003),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32.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2003), 5차원전면교육, 초중등교원교육연수.
33.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2003), 제6차 초중등 교장 자격연수.
34.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2003), 제5차 초중등 교장 자격연수.
35.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2002), 제4차 초등 교장 자격연수, 新교장학 I.
36. 대전광역시교육청(2002), 2002학년도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교원 특별연수.
37. 광주광역시교육청(2002), 광주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전문직 역할.
38. 전북교육청(2002), 초등 1·2급 정교사 자격연수.
39. 전주교육대학교(2001), 초등교육과5차원전면교육, 하계대학원세미나.

### 학부모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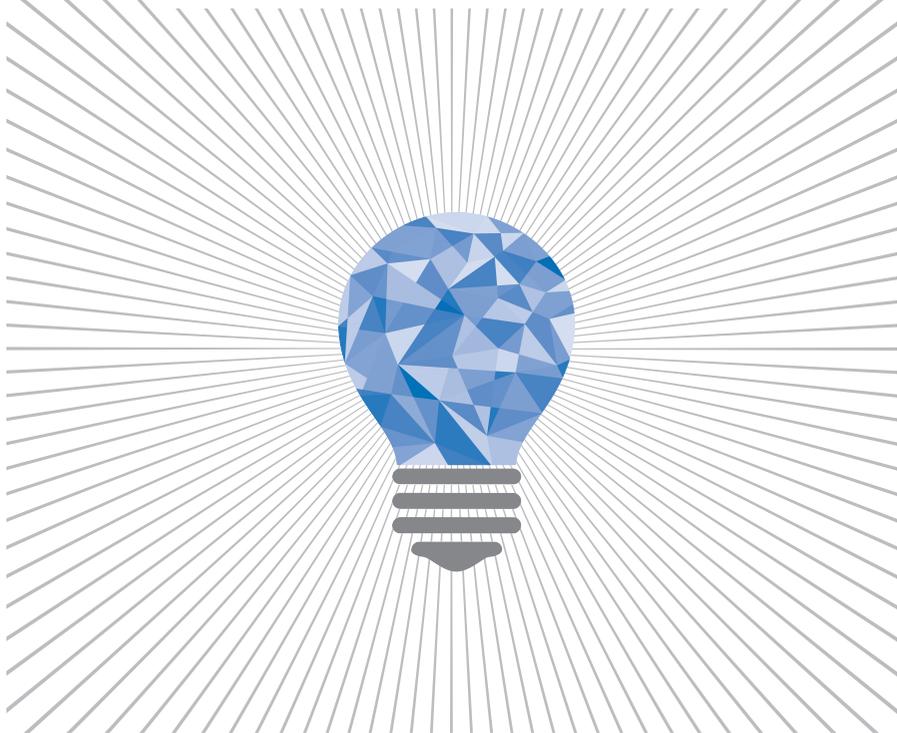
1. 인천광역시 서구(2013), 5차원전면교육.
2. 상경중학교(2011), 자기주도학습 코칭 능력 신장.
3. 면목중학교(2010), 5차원교육과 자기주도학습.
4. 신반포중학교(2010), 자기주도학습과 5차원전면교육.
5. 압구정고등학교(2010), 한국교육의 회복과 5차원전면교육.
6. 창녕고등학교(2010), 학부모교육을 위한 거점학교 육성 방안.
7.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2003), 초등학교 학부모 연수.
8. 이리부송초등학교(1999), 학부모를 위한 5차원전면교육.

### 기업 및 지자체 연수

1. 한국자치발전연구원(2008), 수원시민자치대학.
2. 광양시(2008), 광양사랑 시민강좌.
3. 시흥교육청(2008), 5차원전면교육적용방안.
4. 정읍평생학습축제추진위원회(2006), 제1회 정읍평생학습축제.
5. 정읍시(2004),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한 '5차원 전면교육 학습법' 특강.
6. 연주문화원(2004), 5차원전면교육.
7. 한국자치발전연구원(2003), 대전대덕구민자치대학.
8.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2003), 5차원전면교육.
9. 삼성전자(2002), 신입대리 능력계발과정 성과창출을 위한 자기계발법.
10. 삼성인력개발원(2002), "Shared Value&Core People" AHA Samsung.
11. 아시아나(2002), 직원 Jump UP 과정 연수.
12.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2001), 제5회 2001년 벤처기업 최고경영자 SUMMER SCHOOL.
13. 인간개발연구원(1997),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특강.



# **KOREA NATIONAL FUTURE EDUCATION STRATEGY**



**KAIST Moon Soul Graduate School of Future Strategy**

## **Foreword to publication**

In January 2014, the former chairman of the board at KAIST, Chung Moon-soul, donated 21.5 billion won of his private wealth to the KAIST Graduate School of Future Strategy, requesting that the school study future strategy for the nation. Accordingly, research began in April of the same year with participation from over a hundred researchers, draft authors and reviewers. The central vision for the report produced was set as “Asia’s peace-centric creative nation.” The concept timeline for national future strategy was set at thirty years, and it was decided that this report, preparing for thirty years into the future, would be revised, supplemented and published annually. To date, the 2015 Korea National Future Strategy Report and the 2016 Korea National Future Strategy Report have been published.

Whilst working on these past efforts, we have learned that not all strategies can succeed even if one has established the most superb future strategies capable of solving the problems that span the full breadth of our society including politics, economics and foreign relations. That is because a plan, no matter how brilliant, may succeed or fail depending on who is executing it. To achieve success for a certain strategy, first, a highly advanced education strategy must be established to develop the human resources capable of making that strategy successful. To reiterate, while all strategies are important, the strategy for education is the fundamental factor that determines the success or failure of other strategies.

Therefore, KAIST established the Future Education Research Committee and decided to publish the Korea National Future Education Strategy Report, containing plans for fostering elite talent that will turn the national future strategies into success. Following its establishment in May 2015, the Committee has brought in over thirty members consisting of experts in various fields and over fifty working members consisting of education field experts. Since then, the Committee has held five consolidated committee meetings, eight national strategy reporting sessions, one presentation at the National Future Strategy General Academic Seminar commemo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s independence and frequent small subcommittee meetings by specific fields; this report has now been published as the end

product of over a year of such efforts.

The research for this report started off on the basis of “education capability” boosting and “ideal future talent”, as was proposed in the 2015 Korea National Future Strategy Report, and “Receptivity Education” as was proposed in the 2016 Korea National Future Strategy Report. In addition, the report attempted to forecast the society of the future based on the seven variables of society, technology, environment, politics, economics, population and resources, as proposed by KAIST, and established education strategies on this foundation.

Strategy for education should not be limited to a one-time application capable of solving the issues of a single era, but must consist of continuous and fundamental education that can be utilized through the times of past, present and future. Furthermore, it must be realistically applicable in the actual field of education, and proposed in the form of detailed educational curriculum so that it can bear positive fruit as a result. This report proposes “the 25 curricula for Receptivity Education” as a means to foster the ideal human talent demanded by the society of the future. Through research, the report has confirmed that Receptivity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on the basis of “holistic personality education.” Additionally, the report has proposed essence, organicity, changeability, excellence, and a surmounting spirit as the criteria for personality education, to be used as

guides for future personality education. Also, since education fundamentally must be for the happiness of humankind, the report also concurrently discusses happiness education for the future generation.

To enable practical execution of Receptivity Education in the field, this report proposes an intellectual capability curriculum, emotional capability curriculum, physical capability curriculum, self-management capability curriculum and human relations capability curriculum. These curricula will allow cultivation of future human resources imbued with creative intellect, proper world view, holistic personality, convergence-oriented attitude and global awareness.

We must cultivate people armed with holistic abilities in order to respond to the advent of low birth rate and population aging, which are becoming especially prominent in our society of late. Through Receptivity Education, the report sought to cultivate holistic ability that can be utilized throughout the entire life cycle, from preschool education through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and even up through old age. The report also presents a means to improve home education, public education and social education, which are facing numerous difficulties nowadays. In particular, the report also proposes a means to conduct Receptivity Education as citizen education as part of training during military service, which most Korean youth must go through. Even for

those who faced hardship in their home education or in public schools, the report provides a scheme through which they can receive at least a single instance of Receptivity Education in their lives within the framework of lifelong education, thus allowing the recovery of education capability again for everyone.

To solve the numerous problems that the future generation will face, it is not sufficient to resolve only the circumstances within the country. A global age such as this calls for capabilities of world citizens that can understand, integrate and analyze global problems, and the report proposes a world citizen education strategy that would foster these abilities. Especially the report proposes a plan to build a Korean people's education community that will tie together over seven million Koreans abroad. And based on this, the report proposed a Global Education Community that will help human race coexist.

Korean society must establish a unification education system that will prepare for the future age of a unified Korea. The problems of South and North Korea are laden with elements that can only be resolved by overcoming a variety of social and cultural barriers. Therefore, the report proposes a strategy for unification education that will enable the identification of such elements and resolution of the problems. And the report proposes a plan for multi-cultural family education that lies in the same vein as the problem of unification education.

Before we can successfully carry out the aforementioned holistic lifelong education, world citizen education and unification education, we must overcome several barriers. Proposing a new education model and executing that plan nationwide is an extremely difficult endeavor as apparent from the past 60 years of education history.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diverse attempts to change education to date, the results have been less than satisfactory. One of the reasons for such disappointment is that different educational organizations have their own distinct beliefs and theories, and it is unavoidably difficult for them to accept other emerging groups with educational thinking that differs from their own. Therefore, we must concurrently put together the means to surmount such challenges.

This report contains strategies presented based on deep contemplation and passion by a broad group of experts who have given much attention and thought to the above-mentioned issues. In particular, the dean of KAIST Graduate School of Future Strategy Lee Gwang-hyeong's tireless dedication provided the drive that enabled this report to be published. We hope that the strategies in this report will serve to become the solutions to future education that will make our future society healthy.

KAIST Future Education Research Committee

Chairman, Won Dong-yeon



## CONTENTS

Foreword to publication...238

### Part 1 Overview

**Chapter 1** Future Society Research Review...249

**Chapter 2** Qualities of Human Resources Demanded by  
Future Society...253

### Part 2 Tasks and Challenges

**Chapter 3** Receptivity Education, a New Paradigm of Future  
Education...261

**Chapter 4** Holistic Personality Education for Receptivity  
Restoration...265

**Chapter 5** Curriculum for Receptivity Restoration...275

## **Part 3 The Contents of Future Education**

**Chapter 6 Future Generation and Happiness Education**...297

**Chapter 7 The Core Competence of Future Education**...301

## **Part 4 Future Education Strategy**

**Chapter 8 Holistic Lifelong Education Strategy**...321

**Chapter 9 World Citizen Education Strategy**...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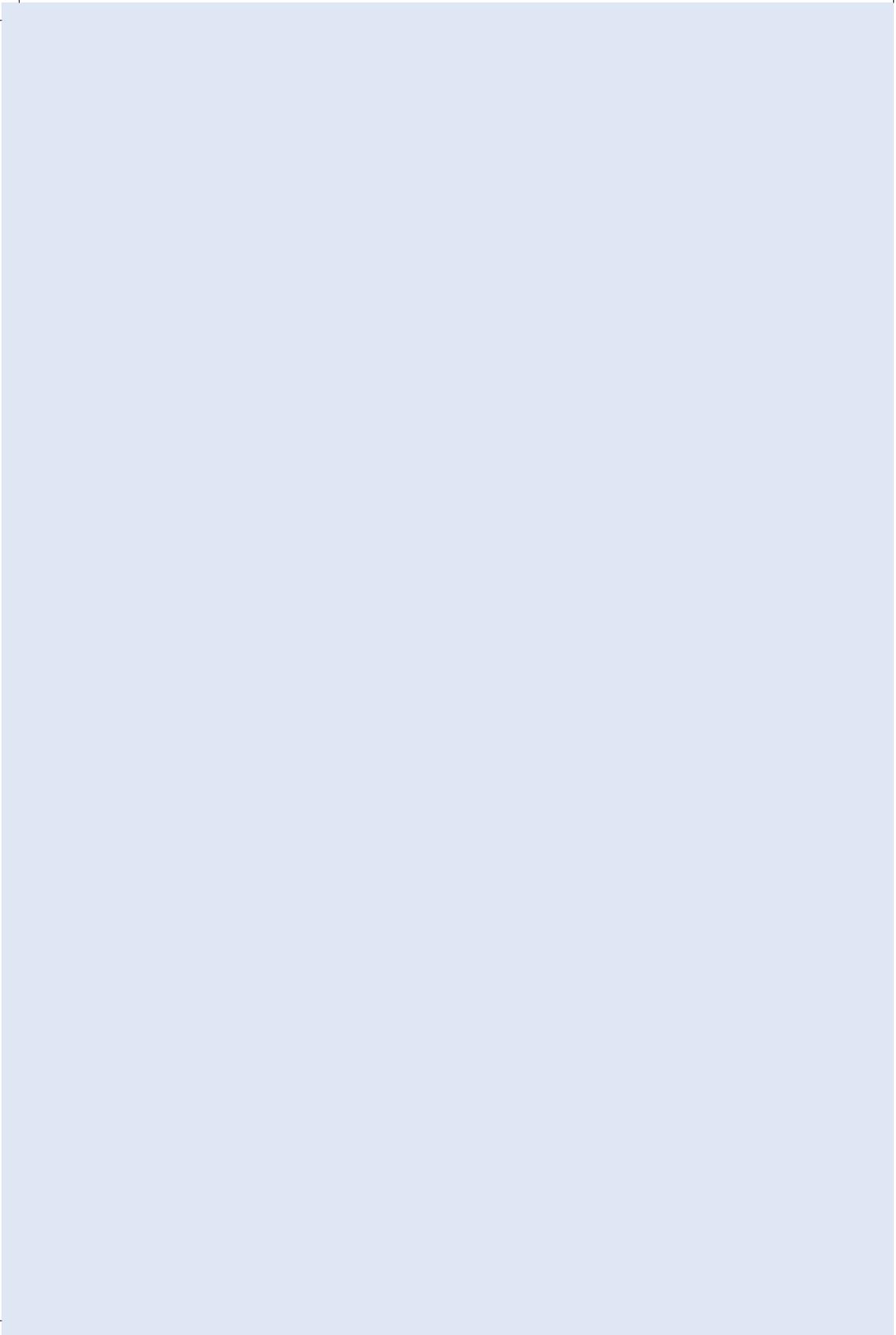
**Chapter 10 Unification Education Strategy**...355

**Epilogue**...362

Even if the best strategies have been put in place to prepare for the future, not all of those strategies can succeed. That is because a strategy could succeed or fail based on who executes that plan, regardless of how exceptional that strategy may have been. Achieving a successful outcome for a certain set of strategies must be preceded by a highly advanced education strategy to cultivate talented people who are capable of turning the strategies into success.



# Overview



## Future Society Research Review

In order to establish future education strategies, future forecasts by experts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were analyzed. Through this analysis, the demands on human resources — which form the foundation of the problem of education — were surveyed. Then, the study defined the education system that can satisfy such demands, and attempted to propose practical approaches that would allow the system to impact the future society in a positive way. Society, technology, environment, politics, economy, population and resources, which are the seven factors proposed by KAIST as the variables that will determine future society, were used as the basis for predicting future society, and this forecast was used as the foundation for establishing education strategies.

Looking first at the area of society and population, Korea is

laden with a complex problem of rapid population aging and population decrease. Korea must prepare for the consequences including reduced number of schools, change in labor force composition and reduced labor productivity. In order to rise above the limitations of labor productivity, one must be equipped with virtues such as human insight, spirituality, convergence, communication, justice and giving. In the future era, importance will be put on the role of the intuitive and artistic right brain, capable of seeing the forest rather than the trees, controlling one's emotions and creating imagination and fantasy. The future will usher in an era in which people who think with their whole brain, using both sides evenly, will guide the world as leaders.

In the field of economy and technology, the world is seeing the realization of the assertion that the so-called “new normal” state of low growth will become the status quo of the global economy, and many issues are arising accordingly. However, this slowdown in consumption is related to population structure. If population structure is one of the critical factors of economic problems, then the outlook that low growth in the world economy will continue would be as accurate as forecasting population. Still, Japan, having experienced the challenges of limitations to economic growth, has reset its goals for technology convergence in society, social leadership and world contribution and is rebuilding the platform for its next leap. China is looking to overtake the US and is shifting the axis of world power.

China's progress is founded on its massive size, extensive history and culture, superior manpower and enthusiasm for education. There are many positive elements for Korea's future as well. Korea is strongly dynamic, and has no hesitation about changing its methods when faced with a roadblock. Of course this can be a double-edged sword. The reason for the progress made by Korea, China and Japan could be attributed to their propensity for receptivity, wanting to eagerly learn the cultures of others.

Surveying the field of technology, the report agrees that the capacity for convergence [of different disciplines] will determine technological prowess moving forward. Even today, added value is being created through creativity and innovation, which enable convergence among creative contents, cutting edge technology, breakthrough business models and online distribution networks.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bringing about a new social environment mankind has not experienced thus far, filled with driverless vehicles, unmanned drones, etc. However, this makes it even more crucial to secure means to implement personality education that can restrain the problems of invasion of privacy, surveillance and control that exist on the flipside of such progress. Mankind must solve the current issues of climate change, energy shortage, food shortage, water shortage and disease and endeavor to sustain life. Solutions to these problems cannot be attained simply by the efforts of scientists and engineers, but require a convergence-

oriented collaborative framework with psychologists, ethics scholars, sociologists, etc. To achieve such convergence, human character, wisdom, creativity, ability of scientist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global awareness are indispensably required.

Looking into the fields of politics and diplomacy,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ust occur gradually in measured steps by peaceful means while keeping political factors at bay. Even then, when the South and the North are unified, if we lack the proper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that can address the issues of emotional conflict that will break out over the process of bridging the cultural and linguistic disparities that have taken hold during the separation, then it could generate new regional tens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the aforementioned forecasts could unavoidably end up hugely off the mark.

At the 2015 World Education Forum recently held in Korea, it was emphasized that education is not a privilege but an intrinsic human right, and that innovation of future society through life-altering education is critical. The forum also stressed the need to cultivate world citizens who pursue universal human values armed with a sense of community and responsibility, in addition to stating the importance of tolerant and comprehensive high quality education for the whole of mankind. To this end, education must be geared to nurturing future-oriented and talented people who seek cooperation rather than competition, imbued with diversity, character and creativity.

## **Qualities of Human Resources Demanded by Future Society**

In general, the qualities of human resources demanded by future society as revealed by the analysis in the previous chapter may be described as follows. They are understood as receptivity-oriented humans who actively seek to learn other cultures, creative humans, convergence-oriented humans, open and innovative humans, integrative humans, cultural humans and healthy humans. In addition, the previous chapter pointed out that we need people who use their entire brain through reinforcing the use of the right brain, which enables seeing the forest rather than the trees, being intuitive and artistic, controlling one's emotions and creating imagination and fantasy. The virtues of such people as discussed include passion, willingness to accept challenges, insight, spirituality, communication, justice and giving. Also, in

order to foster convergence-oriented people, the previous chapter points out that insight, creativity, global awareness and scientists' ability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re absolutely required. Furthermore, it is crucial that we secure proper personal character that can address the problems of invasion of privacy, surveillance and control in the age of global information of sharing. As such, in summary we find that the following five qualities are necessary in general.

First, creative intellect is required.

Second, proper world view is required.

Third, holistic personality is required.

Fourth, convergence-oriented attitude is required.

Fifth, global awareness is required.

## 1. Creative intellect

Creative intellect refers to an intellectual framework that can discern truth from falsehood and think creatively. However, our education system is falling short of nurturing such intellectual capacity. In order to surmount this shortcoming, reading comprehension capability (literacy rate) must be improved. In addition, the intellectual capacity to discern truth from falsehood

should be cultivated, and we must find the means to establish an education system that can foster creative intellect, which will enable creative thinking.

## 2. Proper world view

Patterns of human behavior that create culture are based on the value system, which form each individual's world views. Since the value system affects behavior, change in behavior pattern without a change in the value system can be only temporary and superficial. Ultimately, if men were to convert to proper behavior patterns, the issue of world view — the opinions and viewpoints of the world around oneself — must be dealt with.

However, world view is incomplete. Humans gain experience through the five senses, but since these senses are imperfect, humans receive information in warped form. Also, world view becomes rigid and stagnant, and this tendency manifests itself as closed mindedness. In other words, when conflicting opinions collide, such tendencies would cause a person to not yield or compromise, and only remain entrenched. Therefore, in order to maintain a proper world view with room for openness against an incomplete, rigid and stagnant one, it is necessary to build an education system that will modify and supplement our world

view. Through this, we as people living among diverse cultures will be able to overcome cultural shocks and conflicts.

### 3. Holistic personality

An education program is not necessarily an easy means of restoring a person's broken human relationships. That is because the reason for the damage could have come from an organic weave of diverse factors. Therefore, when dealing with human personality, one must maintain the vision to approach the issue in a multi-faceted and comprehensive manner. Considering the desperate need to secure the kind of character that can control the widespread and severe problems potentially arising from absence of ethics in the age of global information sharing, it is necessary to institute an education system that will impart a holistic personality.

### 4. Convergence-oriented attitude

Although there is now a widespread consensus on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convergence, the reality is that there is no perfectly clear answer to the practical question of how to

educate and foster convergence-oriented talent. There is a need to formulate a curriculum capable of organizing and combining related elements of disparate disciplines into new courses in the field, and an education system that can nurture human talent with a convergence-oriented attitude through such a curricul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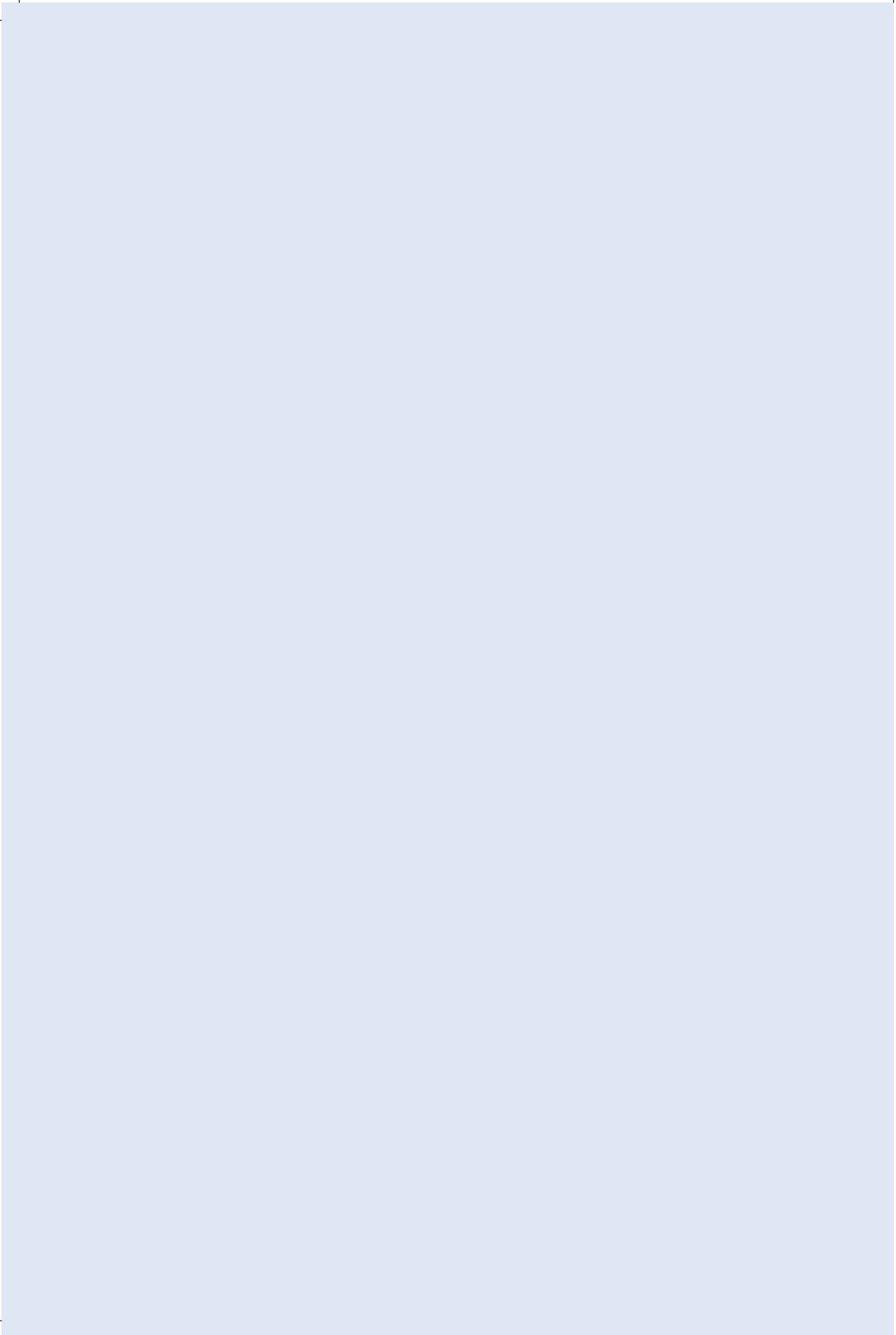
## 5. Global awareness

At a time when the world is being connected as one and the global society is inexorably becoming more engrained,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secure the global awareness that will enable a person to attain a cosmopolitan outlook and visio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bility and amicable relations with foreigners. With global awareness, one will be able to work in global settings together with foreigners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and to contribute voluntarily to the organizations and teams one belongs to.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ducation system that will cultivate such awareness.

Education strategy cannot stand as a one-time lesson to solve the problems of a single era, but must be formed as a kind of continuous and fundamental education employed throughout the societies of past, present and future. Furthermore, the strategies must be applicable to the field of education from a practical standpoint, and must be presented as a detailed teaching curriculum in order to bear proper fruit as their outcome. This report presents Receptivity Education as the means to cultivate the ideal person as demanded by future society.



# Tasks and Challenges



## **Receptivity Education, a New Paradigm of Future Education**

In order to prepare for thirty years into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ducation system that can cultivate superior talent equipped with the aforementioned creative intellect, proper world view, holistic personality, convergence-oriented attitude and global awareness — in other words, a system that can advance human talent.

Outcomes of education are directly related to receptivity. No matter how excellent education provided might be, results are only realized in those with high propensity for receptivity, capable of absorbing such teaching. This is similar to how one cannot expect a good harvest from a bad field, even when good seeds have been sown. Why people manifest varying levels of receptivity depending on the external environment may be

explained in the following five ways(Won Dong-yeon, 2000).

First, it is because of the frame of intellect. Knowledge delivered to a person is constrained by that person's own values and world view. When one's son is serving in the military, the person will notice many soldiers on the streets, but when the son is discharged, all those soldiers become invisible. When teaching classes at school, you find that some students pick up important items that will come up on exams while others will only hear unimportant tidbits or the teacher's jokes. Unless the distorted intellectual frame is repaired, a human cannot properly accept the knowledge delivered nor can he or she demonstrate creative intellect.

Second, it is the frame of emotion residing within human nature. If a person gives up emotionally and begins to see things negatively when faced with certain issues, it becomes difficult for that person to accept that issue. A student who has already given up emotionally will have an increasingly harder time academically. Students who sleep in class, when observed carefully, don't necessarily do so because they are tired. Among those dozing students, there are those who play well with eyes wide open when the recess bell rings, but go right back to sleep ten minutes after when the bell rings again for the next class. If a person gives up in her heart, the body is also injured and receptivity is torn down even further. Such people do not have the capacity to

internalize knowledge even after it is received, and therefore have difficulty in building proper values or world view.

Third, it is because of the frame of the body. Looking at people carefully, there are surprisingly many people with bad posture. When such people are weighed using two scales with one foot on each, their left and right weights differ. And then, when their brainwaves are examined, it will be found that the brainwaves from the left and right brains are imbalanced. Ultimately, a twisted body impacts the brainwaves, and negatively affects intellectual capacity(Lee Ho-won, 2016).

Fourth, it is the frame of self-management capability. There are those who cannot control themselves and fail to turn a plan into action no matter how many plans and goals they may set. This is not about one's inability to plan well but rather about the person's shortage in receptivity due to lack of capability for self-control, which would allow one to properly distribute one's time, resources and aptitude.

Fifth, the frame of human relations is also a factor that causes receptivity to decline. When someone you trust and love points out your shortcomings, you can accept such comments and make changes. However, when good comments are made by someone who is hated and mistrusted, dislike will cause you to reject that person's comments. How one resolves the conflicts, mistrust and hatred that accumulate unavoidably through life determines that

person's affinity for receptivity. Therefore, capacity for human relations, or the ability to accept others through a sense of community beyond oneself, is absolutely required.

The five elements reviewed above represent the holistic factors of human personality. In other words, human affinity for receptivity is related to the holistic character of humans, and recovery of holistic personality will amplify receptivity and form the core element that creates an inner eminence in humans. As such, restoration of intellectual capability, emotional capability, physical capability, self-management capability and human relations capability — a holistic personality in other words — will lead to the recovery of human affinity for receptivity and foster excellence. Therefore, this report defines “Receptivity Education” as education that restores human affinity for receptivity through recovery of holistic personality, or the five human characteristics of intellectual capability, emotional capability, physical capability, self-management capability and human relations capability.

## **Holistic Personality Education for Receptivity Restoration**

The current educational goals applied in the field are differentiated into the three categories of cognitive areas, affective areas and psycho-motor areas. However, with advances in education and culture, and higher and more complex living standards, the reality is that it has become challenging to cope by teaching only towards modern education's current objectives in the aforementioned three areas. Therefore, this report has added the two areas of self-management and human relations to expand the categorization into five areas of intellectual capability, emotional capability, physical capability, self-management capability and human relations capability, and designed 25 curricula that can make enhancements in those five areas.

<b>Intellectual capability</b> Ability to discern truth from falsehood	<b>Emotional capability</b> Ability to internalize knowledge	<b>Physical capability</b> Ability to turn truth into action	<b>Self-management capability</b> Ability to distribute energy correctly	<b>Human relations capability</b> Ability to share energy with others
Knowledge management capability	Establishing firm sense of purpose in life	5 dimensional health management method	Expansion of free energy	Discovering unique human traits
Multilingual capability	Fostering responsiveness	Maximum output methods	Time management	Me and family
Understanding of the natural world	Nurturing rich emotional capacity	Work and rest	Financial management	Me and colleagues
Capability to understand history	Positive thinking method	Career view	Language and behavior management	Me and society
Creative intellect	Establishment of proper world view	Establishment of holistic personality	Convergence-oriented capability	The ideal global human

These 25 curricula have been in practice for over 20 years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over ten countries including China, Russia, Mongolia, the US and countries in Central Asia. After this education was implemented in 1996 for the low-performing classes among ten classes at Yanji City Second Senior Middle School in China, all students not only became more confident in their work but also showed improvements in academic scores, with some even reaching the top of the class. In 1997, when Bright Future Global Academy in Mongolia adopted Receptivity Education for street children, the students' attitudes

and behaviors were transformed and the school saw outstanding improvements in academic achievement compared to other schools. In November 2001, following on from this development and meetings with the president of Mongolia, the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MIU) was established to be in charge of Receptivity Education. In 2007, Laos National University adopted Receptivity Education for teaching its students; the United African University of Tanzania was established in 2012 to carry out Receptivity Education in Tanzania as well.

In Korea, Se-in High School was founded to apply Receptivity Education at a public school. While this school had the lowest-performing students and reinforced personality education to the maximum for them, the school managed to achieve the result of 90% of its students advancing to university education in only three years. Since then, Receptivity Education has been newly instituted as a faculty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with over 14,000 teachers having completed the program to date, and it has shown outstanding results after being implemented at Dongducheon Middle and High School, Bell International School and Dia Global Acade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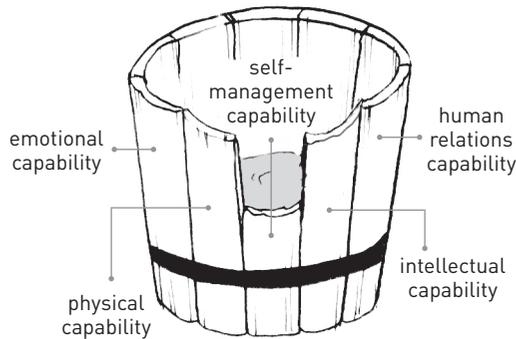
Professor Park Nam-gi compared the Receptivity Education system to Adler's "style of life" and put forward the following analysis. "In 2015, the wind of Adler has swept over the field of psychology in Korea. Searching for points of elucidation from

the teachings of Adler's psychology, I found that they have many similarities with the holistic personality education called 'five-dimensional all-round education', which has been solidified into 'Receptivity Education' over the past 20 years. Based on these two educational theories, I aim to contemplate the essence of teaching." (Park Nam-gi, 2015)

Adler defined the style of life using three concepts. The first is the concept of self that assigns significance to the shape of one's own existence. The second is the concept of world image, which assigns significance to the world as it exists for oneself. The third is the ideal self, which defines how one must necessarily be. Adler stated that life styles are determined at a young age. This implies that the period of youth is important, but does not imply that life styles cannot be altered at all during adolescence. Therefore, efforts must first be made to improve the style of life. Regarding student education as well, even when good curricula are selected and taught using a variety of teaching methods, those students with broken life styles are unable to properly accept such teachings.

The idea of "5-D holistic education" is in the same vein as Adler's psychology. Just as Adler emphasized the styles of life, this education system emphasizes the five elements (styles) of receptivity. The five receptivity elements that compose human capacity are identified as intellectual capability, emotional

### Relationship between the five styles of receptivity and academic achievement



capability, physical capability, self-management capability and human relations capability. To maximize human ability, these five fundamental elements must be nurtured evenly. Subsequently, these five elements have been developed into the concepts of “receptivity styles” (KAIST Korea National Future Strategy Report, 2016). And, in accordance with Liebig’s law of the minimum, this report argues that the most lacking of the five receptivity elements will determine a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A brief survey of the individual elements is as follows. First, if the style of intellect is warped, one cannot respond properly to knowledge being delivered or exhibit creative intellect. Second, style of emotion (emotional capability) refers to the power of the heart that responds to an event one is faced with. A teacher’s role is to lead a student to build positive emotional muscle and

to reinforce that muscle further. Adler stressed, “It is much more important to train a child to be brave, patient and confident than to be ambitious. It is also important to stimulate a child so that the child does not lose drive when faced with failure, but takes that failure as a new challenge and persevere to resolve it.” Third, the style of the body (physical capability) is the ability to manipulate and control one’s body. If the body is distorted, not only does it affect the brainwaves but it also negatively impacts the intellectual capability. A person who is unhealthy or who lacks physical strength has a hard time properly accepting the contents of education. Fourth, no matter how many plans and goals one may set, if the person lacks self-management capability, then that person’s affinity for receptivity cannot but decline. Fifth, if a student is not equipped with the ability to recover human relations, that student will be challenged to receive proper education during the instability of adolescence. This “human relations capability” follows the same path as Adler’s “social emotion (communal emotion).” Social emotion is an important factor in normal character development. Personal psychology has been developing techniques for children’s education based on this principle of social emotion.

Receptivity Education as proposed in this report is not a mere teaching methodology but is in the same framework as Adler’s propositions because it focuses on altering the styles of receptivity

innate to students.

Those who pursue a life of fundamental change through gradual and persistent execution of the aforementioned five-dimensional elements are called “diamond collar” people. In the past, follow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workers and farmers making a living through labor were the major force; they were called the blue collar workers.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a new power called the white collar worker emerged, armed with the strength of intellect to lead the society with the power of management and academics. Recently, another new approach for humans is emerging, which is the concept that emotionally capable people become successful. Those who argue for this approach state that those with emotional strength have a substantially higher chance for success. As such, sociologists are saying that the future leaders of the 21st century are not the white collar people with higher intelligence quotient but the “gold collar” people with higher emotional quotient.

However, this report believes that the leaders of tomorrow are those who harmoniously and holistically harness intellectual capability, emotional capability, physical capability, self-management capability and human relations capability, and we wish to call these people “diamond collar.” Diamond collar people are those who embody a creative intellect that can carry insight and pursue truth, a world view capable of seeing the world with

correct vision, and holistic personality within, in which intellect, emotion and body have grown in harmony. In addition, these people will understand the essence of self through a convergence-oriented attitude, and carry on contributing towards making the human society ever more beautiful with their global awareness, serving their neighbors instead of living only for themselves.

### Tools for measuring personality quotient

This report defined education that restores human receptivity through recovery of holistic personality — the five traits of intellectual capability, emotional capability, physical capability, self-management capability and human relations capability — as “Receptivity Education.” And, to facilitate quantitative analysis of this education, testing tools were devised to measure the human personality elements, which are the capabilities of intellect, emotion, body, self-management and human relations. The IQ test has been a recognized measuring tool for intelligence for some time, and recently there have been active attempts to test those factors that cannot be measured as intelligence by using EQ. However, the need has emerged for a tool that can measure the holistic personality factors, going beyond such earlier tools that provided only partial measurement of humans.

For this purpose, the Diamond-Collar Quotient(DQ: Diamond-Collar Quotient) test sheet was created. Using this test sheet, the states of intellectual capability, emotional capability, physical capability, self-management capability and human relations capability can be measured. The test is conducted in separate stages of pre-test, intermediate test and post-test. The pre-test measures the state of a person prior to going through the Receptivity Education program. The intermediate test verifies if and how much a person's holistic personality capacity has been progressing while the person has been part of the program. The post-test is set up to recognize if a person is being restored as a holistic diamond collar person after having completed a certain number of hours of Receptivity Education training.

The test sheet consists of questions categorized into five topics of DEQ(emotional capability quotient), DPQ(physical capability quotient), DWQ(intellectual capability quotient), DSQ(self-management quotient) and DRQ(human relations quotient). The questions have been designed to be answered in four choices, which are: "I am always so"(3 points), "I am often so"(2 points), "I am sometimes so"(1 point) and "I am rarely so"(0 points).

The questions on this test sheet are intended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oneself and never for comparison and analysis against others. As such, the scores shown above are also only scores for self-evaluation, and a higher total score does not

signify that the person has a comparative advantage against others. Therefore, only the most honest expression of one's own state will reveal this test's significance. Also, measures have been implemented to discern the responses' trustworthiness, in case someone has exaggerated the answers rather than answering in a straightforward fashion.

Since this personality quotient measuring tool (DQ, Diamond-collar quotient) was developed in 1995, it has undergone three revisions and has been used to test more than 30,000 people over the past 20 years, yielding meaningful results being used today.

## Curriculum for Receptivity Rest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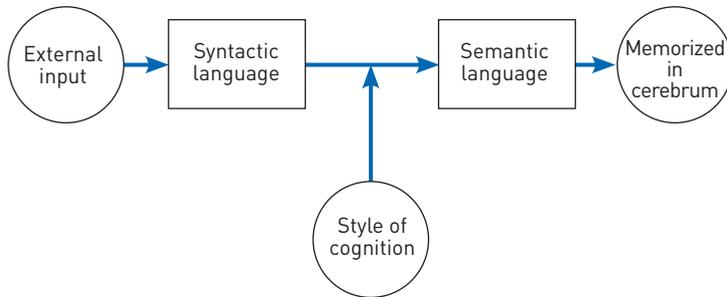
### 1. Intellectual capability curriculum

The goal of intellectual capability education is to endow “the power to discern truth from falsehood” by instilling a proper style of cognition through the curriculum, and to enable the student to possess a creative intellect, convergence-oriented attitude and global awareness based on such power.

#### **Style of cognition**

Generally, learning can be described as the processing of external information and connecting it to one’s own knowledge system, thus committing it to memory. In this case, the external input information is typically in the form of language. When one

### External input and reinterpretation by style of cognition



receives syntactic language consisting of symbols from the outside, the learner reinterprets this information in his or her own way. The reinterpreted content is reconstituted in semantic language. The semantic language as reconstituted in one's own method in this manner is ultimately memorized within the cerebrum.

The process of a learner reinterpreting externally input syntactic language is greatly affected by the means by which the learner recognizes the object. This can be labeled “style of cognition.” The reason why each individual’s understanding and memory vary after accepting identical content is that everyone’s style of cognition differs (Lee Gwang-hyeong, 2105).

### Visualization of style of cognition

For proper personality education to occur, it must be preceded by the task of changing the style of cognition. Change in style of cognition enables normal receptivity of the words of parents

or teachers. Style of cognition holds different characteristics for each individual. However, there are no means by which one can objectively view such specific characteristics and the extent of their differences. That is because the styles are psychological phenomena that occur inside the learner's brain. The only case in which a difference can be discerned is when people who received identical external input remember discrepant information, and then we may assume that it is due to differences in styles of cognition.

One method of peering into the process of reinterpreting knowledge placed into one's brain through style of cognition is to have the person read a sentence while inserting slashes between words. When we read a sentence, we do not take in a long sentence as a whole but by grouping several words together into phrases. This process is where the style of cognition is applied. As such, when one is asked to read while inserting slashes, some of that person's style of cognition may be revealed. This is the "slash reading" method for visualizing the style of cognition. The figure below shows a sentence, "ah-beo-ji-ga-bang-e-deul-eo-ga-shin-da." There are two ways in which this sentence may be reinterpre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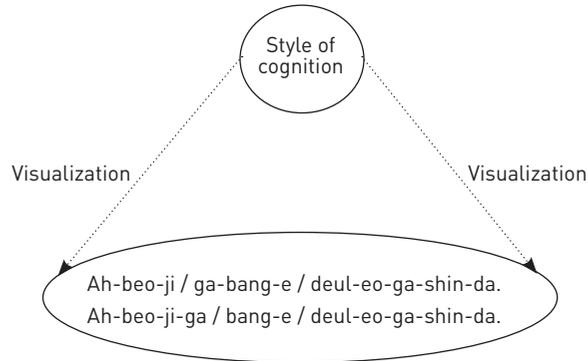
{Case 1} Ah-beo-ji / ga-bang-e / deul-eo-ga-shin-da.

(meaning, father is entering a bag)

{Case 2} Ah-beo-ji-ga / bang-e / deul-eo-ga-shin-da.

(meaning, "father is entering a room)

### Style of cognition visualization



This is how the style of cognition is visualized.

Since an individual's style of cognition is generally not visible, it is impossible to determine if a learner is properly accepting external input and setting proper value targets. However, through "slash reading", we may peer into the learner's innate style of cognition. By conducting analysis during the personality curriculum using visualization processes such as slash reading, we can find out if a person's style of cognition is properly reinterpreting external input. Then, if it is found that correction is required, it is possible to implement correction. In other words, enhancement of intellectual capability through restoration of a person's style of cognition can form the basis of Receptivity Education through holistic personality education.

### **Intellectual capability education study model**

In order to correct the style of cognition properly, the warped intellectual frame must be repaired. Distortion of the intellectual frame causes warping of the information received, and consequently causes errors in the information being expressed. In relation to human intellectual activity, information flow can largely be divided into three processes. The first is the process of an individual recognizing and taking in external information. There are two cases of such a process, depending on the form of intake, one being in the form of delivery of written words seen through the eyes, and the other being in the form of spoken words heard through the ears. The second process is when the information received goes through contemplation within the human brain and is enhanced. The human brain has a highly developed memory function, which stores various information by categorizing and combining them according to their interrelationships. Regardless of how much data the brain takes in, if the data does not properly undergo this enhancement process, then it fails to hold significant value. The third process is when the information received and heightened is re-expressed externally in spoken or written language. Expression of information signifies a transition from a passive stance of receiving information to an active one providing the same, and through this process, information is relentlessly expanded and reproduced.

### Intellectual capability education study model

Process	Stage	Study method	Study goal	
Information intake	Stage 1: Increasing information quantity (Increasing information quantity per person)	Comprehension (quick comprehension) reading method (inserting slash)	Increasing information quantity	
	Stage 2: Raising information quality (Raising quality of information in breadth)	Text analysis method (underlining)	Increasing information quality	Factual writing
	Stage 3: Separating fact and emotion (Increasing quality of information in depth)	Writing appreciation method (rectangle-marking)		Connotative writing
Information enhancement	Stage 4: Information structuring	High altitude study method / Interrelationship study method	Ordering	
	Stage 5: Information consciousness	Concept intensification study method	Detailing	
	Stage 6: Information internalization	Questioning study method	Internalizing into consciousness	
Information expression	Stage 7: Textual expression	Text composition method	Expressing using writing	
	Stage 8: Graphic expression	Drawing expression method	Expressing using drawings and diagrams	
	Stage 9: Expression using mathematical function	Function communication method	Expressing using mathematical functions	

The study model for the intellectual capability curriculum presented in this report is structured into three courses and nine stages. The three courses are labeled “three courses on

information processing” and consists of “information intake → information enhancement → information expression”. The nine stages are labeled “nine stages of information processing”, and they fall under the three courses as follows. First, the three stages of information intake are, increasing information quantity(Stage 1), raising information quality(Stage 2), and separating fact from emotion(Stage 3). Second, the three stages of information enhancement are information structuring(Stage 4), information consciousness(Stage 5) and information internalization(Stage 6). Third, the three stages of information expression are textual expression(Stage 7), graphic expression(Stage 8), and expression in mathematical function(Stage 9). Together, they are labeled the 9 stages of intellectual capability curriculum study model(Song Jae-sin, 2001).

## 2. Emotional capability curriculum

The purpose of emotional capability education is, simply put, to boost the strength of emotion, and its goal is to nurture “the power to internalize knowledge”. Furthermore, it is to endow a person with a proper world view. Therefore, to realize the purpose and attain the goal of emotional education, first we must systematically boost emotional strength, and secondly enable synergy effects by

joining forces with other basic elements. Finally, the synergy effect will cause a chain reaction, creating an overall escalating impact for Receptivity Education. Detailed elements of emotional capability education are divided into life goal setting, boosting responsive ability to breathe with the society, growing rich emotional capacity, positive thinking, building a proper world view and more. These detailed elements may be further expanded as necessary.

### **Emotional capability curriculum**

Emotional capability may be defined as the strength of heart to make knowledge one's own. Emotional capability training will assist in establishing a firm goal in life, growing the power to appropriately respond to stimulus, and through this, gain a sense of responsibility. Also, the training will allow the students to unlock their creativity and imagination by enriching their robust emotional capacity through artistic activities, and empower them to change their lives by internalizing the knowledge they already hold through a life of being considerate for others.

Emotional capability education first begins with establishing a life goal. A firm goal gives one the strength to persevere without giving up when faced with various hardships or difficult circumstances through the course of life. The best way to establish one's life goal is to see actual role models around. Alternately, we may consistently tell the students about stories of those who have

lived with solid goals in their lives, and let them respond to such stories. Also, training in preparing a high-altitude table about their lives will endow the students with the power to see anew things about their lives that they could not see during their day to day living, and provide the opportunity to resolve their weaknesses.

The second part of this process is meditation training to recover the ability to respond. Nowadays people hardly respond unless the situation is quite intense due to the extremely stimulating and inhumane aspects of modern culture. Those without the ability to respond have a hard time feeling a sense of responsibility. We should be educated into responsible citizens equipped with sensitive responsiveness towards family, to neighbors and to our country. Specifically, the power to respond should be recovered through three-minute meditation programs accompanied with reading of short essays that have emotional impact.

The third part of this process is to intensify emotional activities that maximize imagination and creativity. Most geniuses have their right brains dramatically more developed than ordinary people, and activating the right brain plays an important part in maximizing creativity. To cultivate robust emotional capacity, one must continually conduct activities that can stimulate the right brain for about 15 minutes daily.

The fourth part of this process is that positive thinking should be enabled. Types of thinking include positive thinking,

negative thinking and indifferent thinking. Positive thinking leads to positive emotional triggers within the body, and such consciousness will be manifested as bravery, sense of pride, centeredness, generosity, humility, faith, love, peace, joy and enlightenment, coming through as a successful life.

The fifth part of this process is to establish a proper world view by internalizing knowledge. Internalizing knowledge to make it one's own is the ultimate goal of emotional capability. When one finally understands the four aforementioned principles and trains accordingly, one will be ultimately equipped with a proper world view through emotional capability.

### **3. Physical capability curriculum**

The purpose of physical capability education within Receptivity Education is to cultivate “the strength of body to carry on an upright life” for each individual. For this purpose, the curriculum helps establish goals and plans for each of the five elements of 5-D health management, maximizing physical strength output, working and resting, career management and lifelong social giving, and growing one's ability and affinity for carrying and acting out those goals and plans through guidance and management, thus incorporating them into one's habits and daily lives.

A healthy physique is critical as a basic element of Receptivity Education. When a person actually becomes bedridden due to illness, that person's human activity is constrained to the level allowed by the bedridden state. When a person loses health, everything becomes distasteful, bothersome and pessimistic; in contrast, when one is confident about one's health, that person gains color, the body becomes lively, the person is filled with energy and will have happy and positive thoughts even if the person may be doing the same activities. Then, physical capability itself generates its own energy, gaining the power to create synergy in conjunction with the other basic elements of emotional capability and intellectual capability.

Normally people think that they must exercise hard to be healthy. However, what is more important is to identify the cause of why one is not healthy. Those who have especially weaker constitutions can weaken their bodies further with excessive exercise. Before diving into hard training thoughtlessly, one should take a look at why the body has been weakened and unhealthy, and find an alternative means to become healthy in response.

There are generally two factors that cause our body to lose health. The first is the warping of our bodily structure; the second is the residual toxins inside the cells of our bodies. If those two factors are addressed, we can boost our health to the maximum. The following five principles are effective means to solve the two

problems.

### **Knowing the principles of bodily structure correction**

First, correct posture is required. Due to bad posture in our daily lives, our spines end up bowing both knowingly and unknowingly. Bowing in the spine causes illnesses in our nervous system and puts pressure on our internal organs. An X-ray of a spine can help you to see for yourself how much a bowed spine presses on our organs and nerves. Beginning to correct bad posture is the most fundamental starting point towards recovering health.

Second, we need flexible joint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that help us maintain our body are the joints between our bones. All of our circulatory systems are connected through the joints. But throughout our body, there are many joints that have become stiff due to lack of movement. When the hardened joints are made flexible with exercise, circulation will improve and the body will become flexible so that health can be maintained.

Third, the five organs of the eyes, nose, ears, mouth and throat should be made strong. These five organs are the ones that come into contact with outside air with a little protection provided by our skin. Therefore, poor management of these organs can easily lead to trouble, and various diseases can enter our body through those five organs. Health in those five organs will keep you free of sinus congestion, tonsil inflammation, throat colds and sinus

inflammation, leading to a refreshing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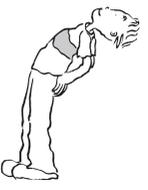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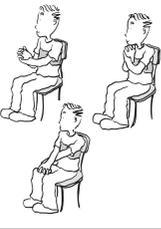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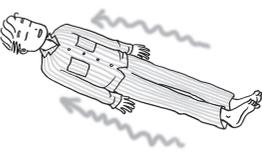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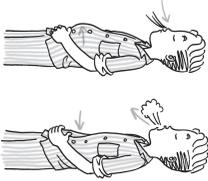
### **Knowing how to remove toxins from the body**

First, it is important to eliminate our bodily waste well. We believe that we should eat well to maintain our health, but what is more important than the issue of what we eat is how well we get rid of our bodily waste. Strengthening our intestines and making them flexible through organ exercise is critical to our health. Irregular bowel movements cause the body to retain toxins and makes it difficult to maintain health.

Second, one should be able to sleep deeply. People capable of sleeping deeply can fully purify themselves of the fatigue-inducing materials and toxins accumulated in their bodies through their daily activities, and can carry on with the next day's activities fluently. What we can do is fall deeply asleep to boost the power to unwind fatigue within a short time. The following table is a systematic body management technique for effective health management.

## **4. Self-management capability curriculum**

The purpose of self-management capability education within Receptivity Education is to nurture “the power to use one’s energy where it is valuable”. Therefore, everyone should boost the power

	1	2	3	4	5	
1 Good posture exercise	Back straightening 	Bending back 	Bending down and stretching 	Torso rotating 	It is recommended that all motions are repeated seven times each	
2 Joint exercise	Angle rotation by writing Chinese character for horse 	Knee rotation 	Waist rotation 	Wrist twisting 	Neck rotation by writing Chinese character for bird 	
3 Internal organs exercise	Belly massage 	Back massage 	Finger massage 	Foot massage 	Morning wake-up 	
4 Five organs exercise	Eye exercise 	Nose exercise 	Ear exercise 	Dental exercise 	Tongue and tonsils exercise 	
5 Sleeping techniques	How to sleep deeply  Relax the body		Remove petty thoughts  Remove petty thoughts		When sleep doesn't come  Tap the center of the sole of your foot (center of Y-shaped groove) 30 times	

to use their own abilities where it would be valuable. In order to grow this ability, we must help students establish goals and plans for each of the elements of time management, financial management, language management, behavior management and aptitude management, and foster their capacity to carry out and act out those goals and plans through thorough education, guidance and management.

Among the properties of physics, there is one called “free energy”. Let us say that there is a person called A who makes three million won a month, and another person who makes five million called B. But then, if the energy spent by A in maintaining himself is two million, then A’s free energy is one million. If B is spending relatively more energy to maintain a larger body and expending four and a half million won worth of energy, then B’s free energy would be half a million won. The interesting phenomenon is, on the question of which person has more efficient energy, although A may be smaller on the outside, because A has greater free energy of a million compared to B’s half a million, in the end A can do greater things than B can.

This principle is an important one that can be applied to humans. Although everyone is given the same 24 hours in a day, those who possess more free energy through good management and effective use of those hours become those who have the true ability to contribute towards themselves, their families and

society. People who can expand their free energy can lead lives of service for others with more energy to spare thanks to such ability. As such, in self-management capability education, one learns the principles of expanding free energy, and trains in the means of properly distributing that energy. For example, students will not be taught how to effectively use the same 24 hours given to everybody, which has been the conventional method. Instead, students will be taught to strictly manage their time and secure hours that can be used freely in order to put those hours to things that are valuable. One of the ways of time management for expanding free energy is to utilize time fragments that are passed by without thought. According to various test statistics, most people commit anywhere from 18 to 22 hours a day to actual activity. In other words, the busiest people simply let as little as two hours and as many as six flow by meaninglessly.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train oneself in ways to expand free energy by utilizing these time fragments.

The same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to financial management; the ability to manage one's language, behavior and aptitude, which are also different forms of one's energy, should be trained as follows.

Time management: Develop a habit of using time well in an effective manner.

Financial management: Develop the ability to maximize

efficiency from given financial input.

Language management: Learn the skills of language use and incorporate them into daily life.

Behavior management: Nurture the power to innovate with humility and openness.

Aptitude management: Pinpoint one's aptitude and maximize it.

By consolidating these abilities for the basic elements, one can use one's talent valuably and attain the goal of self-realization.

## 5. Human relationship capability curriculum

The purpose of human relationship capability education is to foster the ability to hold a sense of community and serve others. It should enable the students to establish the goals and plans for each of the basic elements of human relationship capability — me and myself, me and my family, me and my colleagues, me and the society, and diamond collar people — and through education and strict guidance and training, help students grow their ability and behavioral affinity to carry out and act out those goals and plans so that they become a part of the students' habits and daily lives. For a person living and participating in organizations and societies to achieve the goals of oneself and the group, and lead a happy life, one must build human relationships properly.

### **Understanding human traits**

The biggest cause of human relationships turning difficult is one's own wounds preventing one from loving oneself, and further preventing one from loving others truly as well. These human injuries come from a sense of inferiority or superiority, which is not easy to overcome. A sense of inferiority comes from thinking that one has many faults, and a sense of superiority comes from thinking that one has numerous strengths. However, when someone realizes that there are no such things as pros and cons with human qualities, the person can escape from feeling inferior or superior. Humans are endowed only with special characteristics that define them — characteristics that sometimes appear to be strengths, and that appear as weaknesses at other times. When a person verifies this fact and recognizes it, the person can escape from her own wounds.

However, although we are accustomed to seeing ourselves in an inferior and negative light, we do not easily realize the precious qualities within ourselves. Through the pro-con conversion technique in which one expresses one's own strengths and weaknesses in detailed sentences and then switches them, one can find one's own special traits. In most cases, our weaknesses can become great assets when viewed from a reverse angle, but because our point of view is trapped in a negative light, we tend to see these qualities only as weaknesses. The statement "I am

very indecisive” will be one’s weakness when seen negatively, but in reverse, it is in the same vein as an advantage that says, “I think carefully in all matters”. Conversely, advantages can become faults too. A person may feel superior thinking, “I am very decisive”, but from a different viewpoint, the statement is in the same vein as “I act only on my own accord without considering others”. Therefore, through training to understand human characteristics, one can boost the strength to recover human relationships.

The most fundamental concept of human relationship capability is “to see a human as human”. To see a human as human refers not to seeing only the single visible aspect when looking at a person, but to understanding the person as a whole based on the five-faceted personality elements that make up a human being. One must view one’s family, colleagues, society and mankind in the following ways based on such comprehensive and holistic view of humans.

Me and myself: Understand one’s own qualities and characteristics, and endeavor to develop them.

Me and my family: Understand my family’s qualities and characteristics, and endeavor to develop them.

Me and my colleagues: Understand my colleagues’ qualities and characteristics, and endeavor to develop them.

Me and the society: Understand society’s qualities and characteristics, and endeavor to develop them.

Diamondcollar: Endeavor to grow into a diamond collar person.

### **Life centered on ot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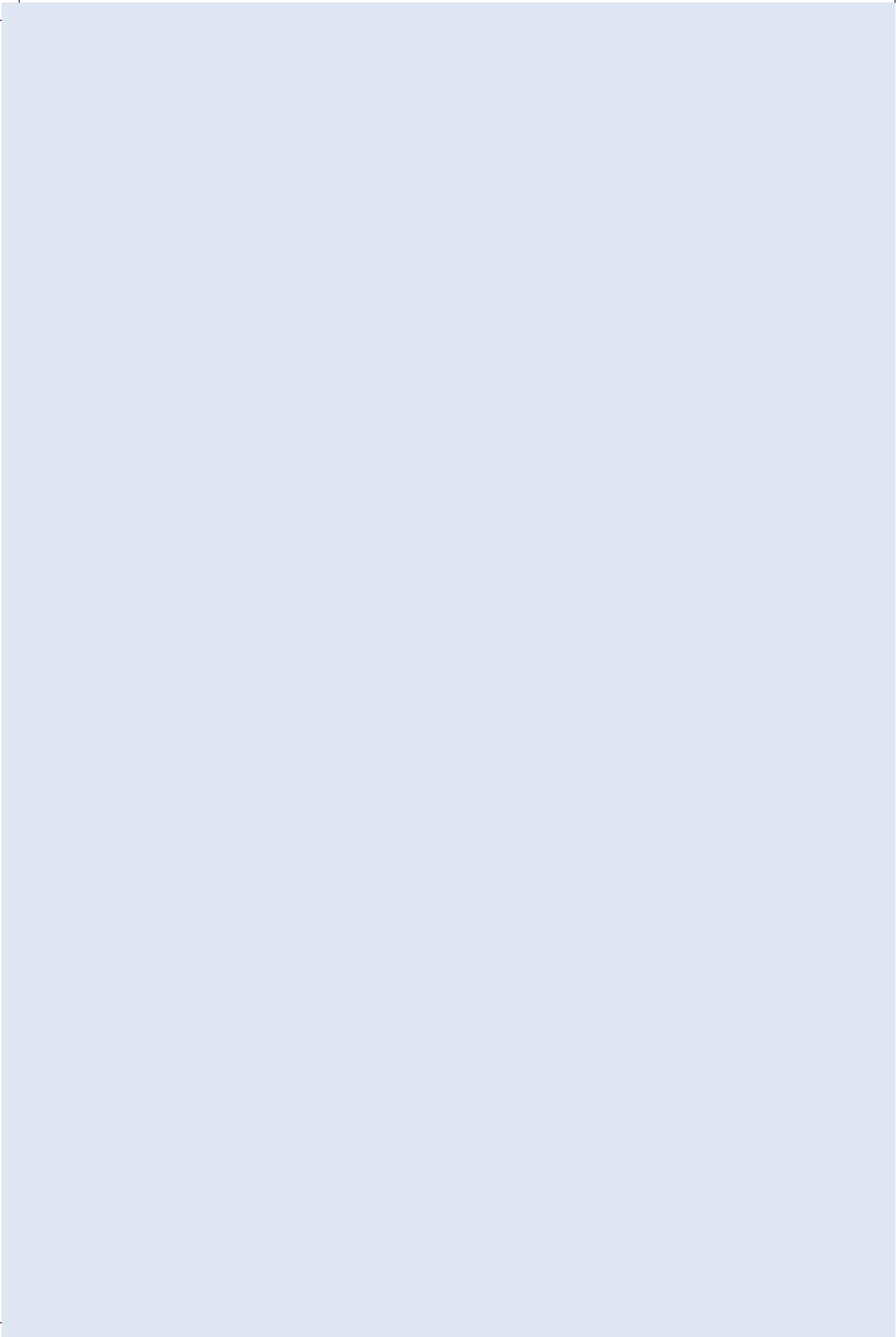
We must teach our students to know the importance of living for others and the power to act as such. The way to make life truly joyous is to dedicate oneself to a valuable cause. Abundant passion comes from a stance of life given to others. The reason for one to study and work should be for the benefit of one's family, society and people, with the self as a member of those communities, and for the whole mankind by taking a step further.

According to the theories of medical scientists, there is a part of our brain that produces "in-brain morphine" that is five times more powerful than actual morphine. What is interesting is that this "in-brain morphine" is produced only when we throw ourselves into a meaningful cause. This hormone, produced when one is dedicated to a valuable endeavor, is said to sustain joy for an extended period and excite us. A person who lives "a life centered on others" is a person who knows such true joy and the efficiency of life.

Having thoughts centered on others gives one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and willpower in one's life. By instilling the importance of a life centered on others in our children and the youth that will lead the next generation, we help them become imbued with a passion for their neighbors, their society and their country, and give their best in their present as well.



# The Contents of Future Education



## Future Generation and Happiness Education

The current generation should bear the responsibility for not only ourselves but for the next generation, creating a refined and positive world that will allow them to lead happy lives as well. Today's Korean society suffers from heightened tension between generations around such issues attributable to the current generation, such as environmental and ecosystem damage and pollution, abuse of limited resources, the aging of society and low birth rate, all leading to higher demand on welfare and a decline in financial health. In the end, education is a social activity aimed at the future, and future education strategies should focus on the problem of happiness for the future generation(Kim Gyeong-dong, 2015).

In fact, material conditions are only the minimum prerequisites

for a sense of happiness and cannot hold a major influence. The concept of happiness is not such a narrow one that it can be attained with improved material conditions or equal distribution of wealth. Edward Diener, one of the most prominent scholars in the field of positive psychology in the US stated, “If one is satisfied with one’s life, experiencing joy often and not experiencing unpleasant emotions such as sadness and anger as much, we can say that person’s level of happiness is high. In contrast, if one hardly feels joy or affection and is dissatisfied with life, experiencing unpleasant emotions frequently, we can say that person’s level of happiness is low”. As seen in this definition, Diener defined happiness not using external conditions but using subjective feelings, or “subjective well-being”. It is not whether one is wealthy or not, divorced or otherwise, healthy or sick, good-looking or unsightly and other such conditions themselves that determine a sense of happiness, but it is how one subjectively feels about such conditions that determines happiness. Even if one is poor and divorced, that person can be happy, and so can those with less than comely appearance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many who feel unhappy despite their wealth, health and outstanding looks. Therefore, we must break out of the conventional thinking that economic growth, robust welfare, equalization of wealth distribution and other systematic conditions form the sufficient conditions for happiness.

### **Importance of happiness education**

Professor Diener did not end his research at “what should one do to become happy?” He is the person who changed the format of the question itself into “what results can be obtained when one is happy?” While researching “what may be attained with happiness” rather than “how to become happy”, he emphasized “the reason why one must be happy”. He produced research results that indicated that those with higher levels of happiness at the age of 17 received substantially higher salaries when they reached 40. As to the reason for this phenomenon, Diener argued that happiness is deeply related to sense of achievement, and that a greater sense of happiness leads to a greater sense of achievement. Through such findings, Diener stated that happy people may lead better lives from the perspectives of health, success, human satisfaction, etc.

Psychology scholar Sonja Lyubomirsky argued that it is not successful people who are happy but it is happy people who lead successful lives. When one is doing work that that person likes doing, that person feels joy and is able to endure hardship. Also, the more desirable the work is to a person, the more effort that person will put into that work. It would be an obvious assumption that a person who enjoys work and affords more effort to it would be closer to success. It is a fallacy to think that a successful person would be happy. That is because happiness does not

follow success but it is the happy person who reaches success. In order to endow successful lives to the future generation, we should not forget that we must first endow happiness as the first rule of success(Mun Yong-rin, 2015).

Under the grand delusion that more money brings more happiness, people are teaching the wrong kind of “happy” to children. A child who lives with such an idea will make wealth into life’s goal rather than happiness, since money equates to happiness in that child’s mind. However, if the goal is to endow the child with true happiness, then the child must be taught to aim for happiness rather than money as life’s goal. That is because economic wealth is but a small means towards leading a happy life. We must educate in order to create the understanding that those investing in relationships with people and family can become happier than those wasting too much time on raising their salaries or making more money.

There are many positive elements that make up happiness as we lead our lives — health, money, family, achievement, goals and kindness to name a few. However, depending on a person’s point of view, these elements may be positive, but can also become negative. In order to convert such elements into positive ones, it is required to have the ability to see them in a positive light; this may be called the happiness ability. Raising our citizens’ happiness ability is the core task of happiness education.

## **The Core Competence of Future Education**

To foster capable individuals for the future, we must provide educational curriculums that will cultivate the following five core competences: creative intellect, proper world view, holistic personality, convergence-oriented attitude, and global awareness. The report proposes educational contents such as information enhance ability, bibliotherapy, 5 Dimensional Holistic personality education, Mathematical thinking training, and language receptivity programs, which are designed to foster these five core competences.

## 1. Creative intellect

As mentioned above, the goal of intellectual capability education is to empower the students to be able to discern truth from falsehood by equipping them with the right style of cognition through the intellectual capability curriculum, and endow them with creative intellect, convergence-oriented attitude and global awareness based on such empowerment. First, let us look at the education that must be provided to secure creative intellect.

Creativity education requires a shift in understanding. The first shift is that creative education does not refer to some special form of teaching but to the original form (essence) of education. Humans are creative from birth. In other words, creativity is intrinsic to humans. The second shift is that creativity education and personality education are one and the same. Creativity and personality grow in tandem(Lee Sang-o, 2016).

### **Ability to enhance information**

To gain a creative intellect, one must secure the ability to enhance information. To that end, a process of systematic information re-composition is necessary, and this requires the ability to sort, analyze and compile informa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In order to raise the efficiency of information received, it must be put into order. Information

ordering refers to organizing information for ease of use by categoriz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that has been received through diverse channels. Two stores with merchandise of equally high quality will surely differ in value if one has its merchandise haphazardly piled and the other has its goods neatly organized by category. The same is true in that it would be easier to find an item in a store organized according to category than in a store with items randomly stacked.

To put information in order, one requires the ability to see the whole first and then see the parts. Just as only a person who has seen the whole picture can fit together the individual pieces of a jigsaw puzzle, only a person who is able to see knowledge as a whole is able to utilize the pieces of such knowledge. Seeing the whole is made possible by making a high altitude table using the high-altitude study method, which looks down on knowledge from up high. A high-altitude table is one in which a whole book can be described on a single sheet of paper, which allows one to survey the entirety with a single view. The interrelationship study method is one in which you find links between the specific parts as revealed by the high-altitude table by investigating what interrelationships exist among them. With the high-altitude study method and the interrelationships study method, information can be put in order, thereby enabling the learners to see what was not visible before and solve what could not be solved before.

The task after ordering information is to turn the organized information into one's own. Usually, information is abstract and is nothing but a mere distant story. Therefore, one must understand the contents of such information and sort out one's own thoughts and feelings based on that information. In the end, it is a process of relating one's thoughts and feelings to a selection of beneficial and positive contents selected from the information. In order to turn abstract concepts into concrete form, one must undergo a process of comparing and contemplating the concepts in the person's thoughts with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those concepts, through the concept intensification study method. These processes can allow a person to enhance the information received and thus become able to carry creative thoughts.

## 2. Proper world view

The goal of emotional capability education is to grow “the strength to internalize knowledge”. This strength ultimately causes a change in one's world view. A proper world view will lead to a consistent and unified life. The purpose of life is built based on world view. A purpose in life is what enables a person to always give meaning and value to the person's activities. In other words, that person lives with self-satisfaction and therefore cannot help

but be lively. The person can also overcome cultural shocks and clashes. As we live in a diverse culture, we constantly clash with other behaviors and value systems, and a world view acts as a sieve that grants one the ability to discern, which elements to acquire and which to discar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roperly establish one's world view.

The concept of world view refers to that which underlies the base of human life and forms one's value system and behavioral patterns. Knowledge structure and logic are used to modify behavior patterns and value structures, but that falls short of changing the world view. In order to change one's world view, an unprecedented experience is required. Looking at the elements that compose a world view, they are [reason + experience → world view]. In other words, as world view is formed through reason and experience, guiding a change in world view requires a change in both reason and experience.

### **Correction of world view**

When information received is engraved firmly in the head and becomes a part of one's consciousness, one's world view is impacted. To make information a part of one's consciousness, three steps are necessary. The first step is to know exactly what the objective contents are as presented by books or lectures. This refers to the ability to objectively accept fact as fact and this

translates to the power to learn. When someone who is weak in such power is asked to write a book review, the person does not objectify [the book's contents] well and tends to mix up her own thoughts with those of the author.

However, those who are proficient at objectification only can easily be subjugated intellectually to others. As such, it is necessary to turn information received into subjective form, which is the second step of making information a part of one's consciousness. Subjectification refers to showing one's thoughts, feelings and critiques on the arguments of the author as found through objectification. Only then can one avoid becoming a slave to knowledge. Through training that enables one to objectify and subjectify information, we can make a society that is conscious, which is a society where common sense prevails and the members apply that common sense to their own lives in a subjective manner.

The third step is the process of personal experience based on the information that has been objectified and subjectified. One can gain experience vicariously through information and imagination. For this step, we use question study method where students ask themselves what impact they may receive from given information. This is a process in which information is brought into the realm of one's own world view and thoughts are awakened. Such questions stimulate a place where a person's thoughts

failed to reach thus far in life or thoughts that have been warped, providing the opportunity to alter one's world view. Also, it is a chance to reevaluate one's world view, enabling one to overcome any distortion therein. When going through this process, we must present questions that allow vicarious experience, or questions that are applicable to one's own life. In actuality, it is impossible for the facts and feelings we know to be perfect. The author's objectification and subjective interpretation cannot be perfect, and the same goes for the reader. Therefore, bringing information into one's life requires a process of filtration. Otherwise, the information is merely data that is distant from oneself. In order to bring knowledge into one's own life, one must try to predict what that knowledge will add to one's life. And using those questions predicted, we must pose seriously questions about our lives. This serves as the mechanism that helps us properly internalize within ourselves the contents, feelings and thoughts of a given text. It is asking ourselves the questions that can deal with the essence of our lives and obtaining the corresponding answers.

### 3. Holistic person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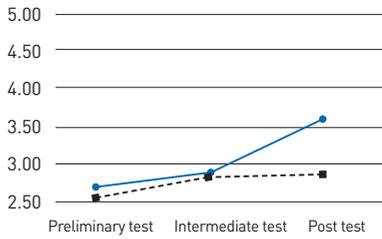
Holistic personality was mentioned in consideration of the multifaceted and organic nature of human personality. Although many

personality education efforts have been carried out to date, those efforts have pointed to difficulties and practical issues. That was because they have overlooked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 that the human personality elements of intellect, emotion, body, self-management and human relations act holistically and organically rather than in part. Therefore, a holistic personality curriculum must be established and carried out in order to educate all of the personality elements comprehensively and organical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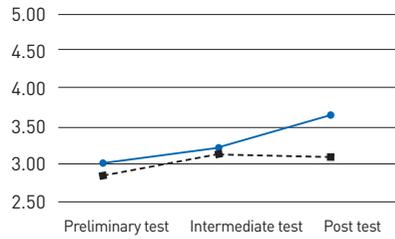
In the holistic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step 1, the initial state of the student is assessed by measuring a student's holistic personality quotient or Diamond-Collar Quotient(DQ). In step 2, a training program for the aforementioned elements of intellectual capability, emotional capability, physical capability, self-management capability and human relationship capability is conducted ove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the last step, DQ is measured again to assess change, and to verify the educational impact according to that change. Through actual examples of holistic personality education carried out in the past, the effectiveness of holistic personality education has been verified.

### **Holistic personality education implementation case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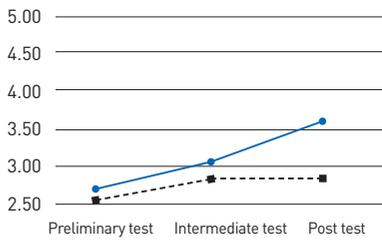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holistic personality education, headmaster Sin Dae-jeong of Haenamseo Elementary School placed 136 students from six classes ranging from grade 3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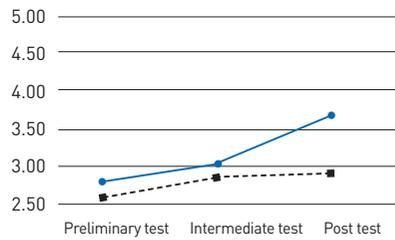
1. Interrelationship of intellectual capability and measuring period for test group and control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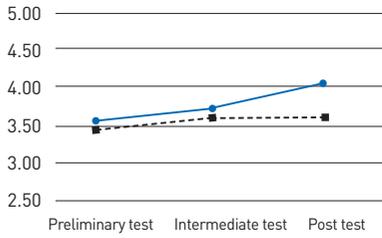
2. Interrelationship of emotional capability and measuring period for test group and control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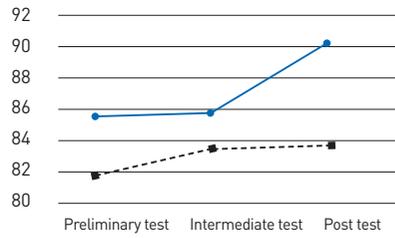
3. Interrelationship of physical capability and measuring period for test group and control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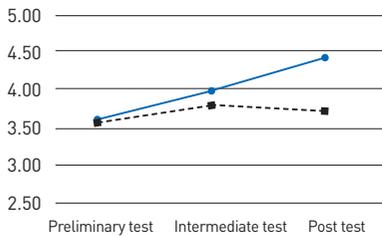
4. Interrelationship of self-management capability and measuring period for test group and control group



5. Interrelationship of human relations capability and measuring period for test group and control group



6. Interrelationship of academic achievement levels and measuring period for test group and control group



7. Interrelationship of career path awareness and measuring period for test group and control group

■ Control group ● Test group

grade 5 at J school into a test group (66 students) and a control group (70 students). The program was implemented over ten months from March 1 to December 31, 2013, and the results are as shown in the following figures(Sin Dae-jeong, 2015). To develop the study program, the curriculum study method was restructured according to the style of the nine stages of study, and for written materials, 45 sets of 3-minute meditation materials and 15 video materials were compiled into 60 sessions, and were thus developed and utilized. The DQ scores and the resultant academic achievement and career path awareness were measured through preliminary, intermediate and post-test and the results were verified.

Looking at the study results, in the case of intellectual capability, the control group did not show significant change in the post-test results compared to the preliminary test results, but the test group was found to exhibit a substantial increase in their intellectual capability score. In the case of emotional capability also, the control group did not show significant change but it is apparent that the test group's emotional capability score increased substantially in the post-test. For physical capability, the control group had no significant change, but the test group increased their physical capability score substantially in post-testing. In the case of self-management capability, the control group had no meaningful change at intermediate testing and post-testing, but

the test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post-testing. Also, in the case of human relationship capability, the control group showed only minimal change but the test group showed a trend of substantial increase in their human relationship capability score at post-testing.

This research yielded the following conclusion. To date, many public education institutions believed that it was important to make the students study more and harder in order to raise their scores, and practiced this belief. However, this study showed that recovering the students' holistic personality and raising their career path awareness accordingly was an effective means to make the students perform better academically. As such, it is urgent that we should hastily establish in the public schools a system of Receptivity Education through which the elements of holistic personality — intellectual capability, emotional capability, physical capability, self-management capability and human relationship capability — can be taught in a comprehensive and organic fashion.

#### **4. Convergence-oriented attitude**

The concept of convergence began from introspection on academic limitations, the idea that we are no longer able to

achieve anything or create anything new within single disciplines of science. As such, now, a third kind of new is being created, starting from convergence between disciplines and then between products. Especially today, the world is dominated by technology and convergence has become the prerequisite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 **Mathematical thinking training education for convergence-oriented attitude**

Ability for convergence has been realized through human imagination. If a single piece of knowledge is the product of human logic, the convergence knowledge that has facilitated the technology of today is a product of imagination. Of course not all imaginative prowess leads to creativity. However, creativity is impossible without imagination. It may be said that imagination is the source and essence of thought. This begins with the act of “thinking” itself, which precedes logic or emotion. In other words, all human thought begins with imagination, and technology too started with “thinking” coming before logic or emotion. The ability of the brain to think nurtures imagination and endows us with a convergence-oriented capability. Therefore, this curriculum is designed for thinking training, which enables the brain to think properly, so that people may be equipped with a convergence-oriented attitude.

Humans created language based on thought, and use language as a consequence of thinking to deliver opinions to others. While language and thinking are not wholly identical, both maintain an intimate relationship of impacting each other. Therefore, our ability to use language affects our thinking. In this regard, one of the significantly beneficial means for improving human thinking capacity towards fostering a convergence-oriented attitude is to use mathematics. That is because math is the most advanced language created by man, and using this language requires highly advanced capability for thinking(Lee Han-jin, 2016).

There are three types of language for delivering information: narrative language, the language of graphics and diagrams, and mathematical language. For example, we can try to express a circle in the three languages. Narratively, a circle can be described as a collection of points that are equidistant from a single point. Expressed in the graphic language, a circle can simply be drawn. Then, in mathematical language, a circle is expressed as  $x^2 + y^2 = r^2$ . Also when expressing information on natural or social phenomena, the language of mathematics can provide concise expressions and provide good solutions to certain problems. While mathematical language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express complex phenomena concisely, it feels difficult because it is abstract and connotative.

Training in thinking using advanced language in this manner,

one can enhance the ability to think and, furthermore, foster imagination to ultimately cultivate a convergence-oriented attitude. For this purpose, the task is not to make a student perform well in math by practicing many math problems, but it is to understand the human way of thinking and provide systematic training accordingly. Human thinking may be categorized into five types: concise, transformative, detailing, pattern-forming and other. Concise means the ability to convert narrative language into mathematical language. Transformative refers to the ability to transform one mathematical expression into a different mathematical form. Detailing refers to the ability to convert mathematical language into narrative or graphic language. Pattern-forming means the ability to find hidden patterns in a given situation and translating them into mathematical language. Other includes the ability to exchange between narrative and graphic language.

Math is a language, and it can be seen that the thought process in mathematics is the process of converting a given language into another form. Therefore, through mathematical thinking training we may enhance language capabilities, thus fostering the power of imagination and cultivating convergence-oriented attitude through it(Im So-yeong, 2005).

## 5. Global awareness

In the future, the interdependence between nations will expand, and globalization — the whole earth transforming into a single societal system in many aspects — will intensify. Professor Brian Newberry of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 pointed out the following qualities as the conditions of global human talent. First, the person must have a high introspection quotient. Second, the person must have exceptional work ethic, and third, the person must have the capacity for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In particular, the person must develop the ability to absorb other languages and be able to communicate with foreigners, and through this, greatly widen the extent of one's thoughts and action. In other words, in order to coexist with those from other countries, one needs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accept others' culture and spirit. Furthermore, it is critical to have multilingual capability that will allow one to understand others' speech and communicate with them.

Our purpose for studying foreign languages is to communicate with those from other countries through spoken or written language, and this becomes a means to acquire culture and information from abroad, which cannot be obtained with the native tongue alone. Acquiring foreign language skills after knowing only one's native tongue will broaden one's breadth of

knowledge. A fundamental gap will appear between the abilities of those who have accessed more knowledge through profound understanding of foreign languages and of those who have not had such access. Furthermore, a second language becomes an effective tool for exploring unfamiliar territory and we can substantially expand our extent of thinking and action through it. Such multilingual capability will continue to play a crucial role in mankind's coexistence by surmounting the barriers of alien cultures that cannot be approached using only the native tongue.

Although many people are putting in significant effort to learn foreign languages, which are critical in developing global awareness, there are also many who do not succeed. However, learning a second language is not something granted to only those few with special talent. Those Americans with low IQ speak English just as well, and even those who are illiterate and cannot even write their own names can freely express their thoughts in English. Therefore, language is not a skill that requires special language sensitivity or tremendous amounts of knowledge, but something that can be obtained by ordinary people through regular language learning processes.

The difficulty in attaining proficiency in foreign languages nonetheless is due to lack of basic understanding about language itself, and inappropriat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hat prevent one from overcoming the language barrier. As such,

if one can learn effective means to understand the traits and structures of a language and to practice it, anyone can beat the obstacle and learn whatever language there is.

While the diverse languages of the world seem to differ substantially from each other, in reality it can be seen that it is only the order of the words that are shuffled. While a Korean says “na-neun (I) / bab-eul (rice) / meok-neun-da (eat)”, those speaking Latin-based languages say “I / eat / rice”, and the Hebrew people will say “eat / I / rice”. In other words, the same contents are being spoken in different sequences. Therefore, if one carefully learns the order of words among various languages as well as the rules of such sequencing, which is to understand the thought structure of the people who use that language, then any language can be learned easily.

However, language is not only expressed in writing but also in speech, and one must be able to properly hear others' spoken words in order to understand them. For example, while we say the cuckoo birds sing “cuckoo”, those birds in fact do not actually make that sound. But because the vocal structures of humans and cuckoo birds differ, humans cannot exactly pronounce the sounds made by the cuckoo birds and thus only pronounce it “cuckoo” in onomatopoeia. Funnily enough, when we hear the cuckoo's sounds after having decided on our own pronunciation, we tend to actually hear the sound as “cuckoo”. However, this

is not accurate hearing, and if we are unable to exactly mimic the cuckoo's pronunciation, then we are unable to truly hear the cuckoo's sounds.

As different pronunciations exist between languages, if one does not understand precisely the pronunciation mechanism of each language, repeating that exact pronunciation becomes impossible. Inaccurate pronunciation will prevent proper hearing or speaking. Therefore, learning the pronunciation mechanism of a foreign tongue and precisely repeating the pronunciation will dramatically improve language capabilities.

In other words, the thought structure change study method that can convert the structure of thinking, and the pronunciation structure change study method that will enable pronunciations identical to foreigners form the most critical factors in learning foreign languages. Through the conversion training of thought and vocal structures, we can build language receptivity and dramatically increase learning ability for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Park Sang-hui, 2016).

The reason why we study foreign languages is to learn and develop an excellent tool for cultivating our intellectual capability. Using this tool, one will be able to overcome the cultural barriers and to find a way for humankind to coexist together in the global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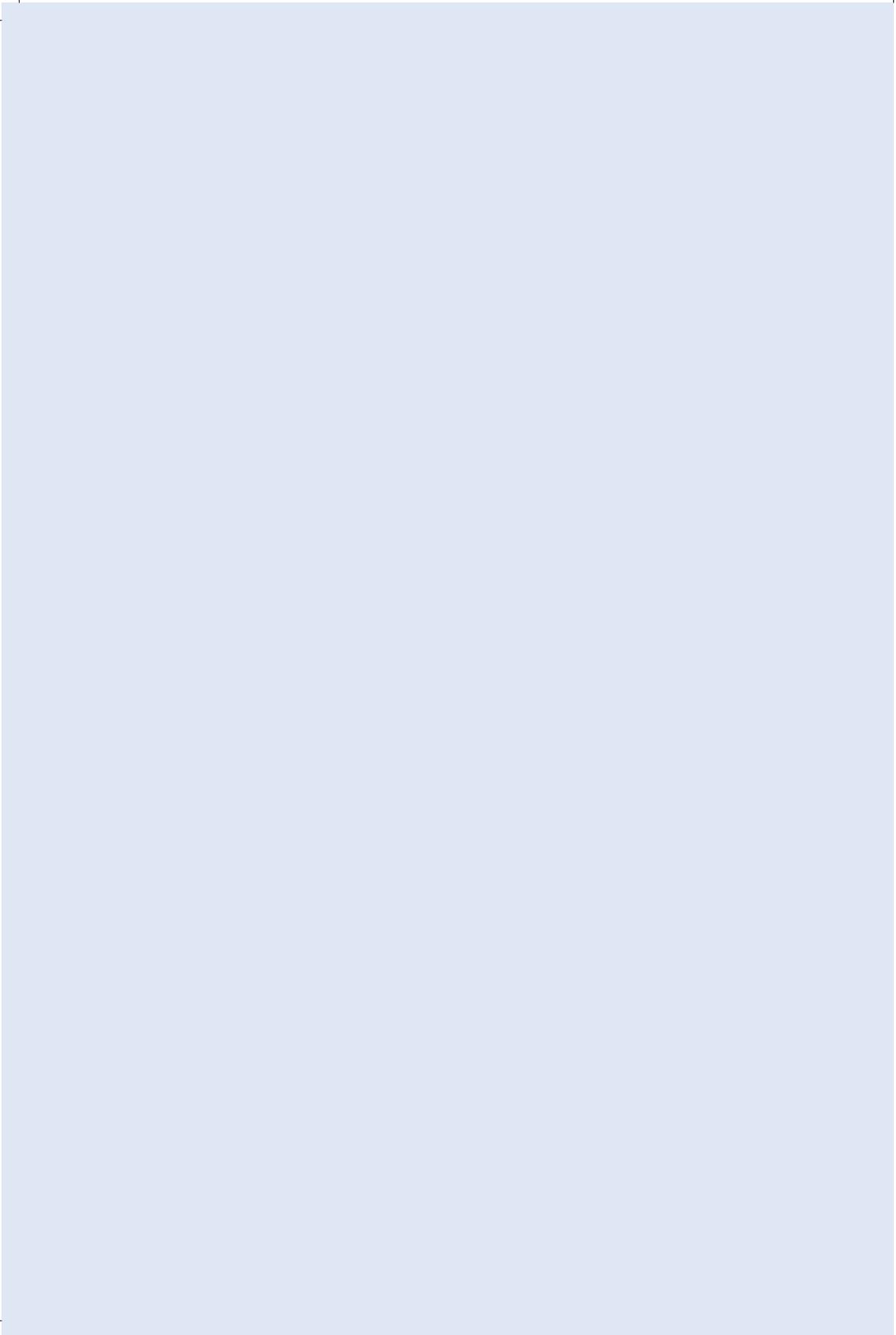


# Future Education Strategy

We must cultivate those equipped with holistic capabilities in response to the trends of low birth rate and population aging, which have become prominent recently in our society. Through Receptivity Education, this report presents a holistic lifelong education strategy that will enable one to live a life of meaning, from preschool through higher education and throughout post-retirement as well. In addition, the report presents proposals for improving home education, public education and social education that are known to be struggling with numerous challenges nowadays — in particular, a plan that will allow implementation of Receptivity Education as national citizen education through military training, which is mandatory for most Korean youths, and a plan for surmounting the issues of declining labor productivity due to low birth rate and societal aging by reinforcing education for the elderly.

A global age such as today calls for the ability of world citizens who can comprehend, consolidate and analyze worldwide problems, and this report presents a world citizen education strategy that can cultivate such ability. Especially, the report also proposes a means to establish a Korean people's education community that will tie together the more than seven million Koreans abroad. And based on this, the report proposes a Global Education Community that will help human race coexist.

In particular, the report proposes a strategy for unification education in preparation for the age of a unified Korea, which is the biggest variable for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n society. And the report proposes a plan for multi-cultural family education, which lies in the same vein as the problem of unification education.



## **Holistic Lifelong Education Strategy**

We have now reached an era in which, in the absence of an unusual occurrence, humans live to be a hundred years old. A society such as this assumes a different pattern of life from the one people have lived in until now. In a 70-year life, one can educate oneself for about thirty years, work for another thirty, and spend the remaining ten years wrapping up. However, in a 100-year life, one must be prepared for thirty years of education, thirty years of work, and another forty years of life. In other words, the education system that has been in place thus far does not prepare a person for a 100-year life. As such, the education being given today should not be a one-time event only needed for a time but be a holistic one needed for living throughout one's entire life. By the term holistic, we propose that our education should not

end up as a mere requirement for college admission or school work assessment, but should be connected and applicable to all the aspects of the entire life cycle including school, home, work, social activities and retirement life.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tate that the reason for our education failing to be holistic to date has been the warped national understanding of education. Many among the generation of current parents and youths consider education only as a means to get ahead, and the business community also focuses solely on the value of education as a tool. However, it is equally important to recognize the value of education as a purpose in itself, where people become humane humans through education. Education is intrinsically valuable as its own purpose. The trait that makes people human is creating, sharing and leaving a legacy of our culture. Therefore, education must always simultaneously realize its value as a means as well as its value as a purpose. In a wide sense, education is ultimately about teaching us to be human, and education is exactly the process of cultivating creativity and the ability to make value judgments in order to equip ourselves with what it means to be human. As such, holistic education should educate people based on a holistic personality, with Receptivity Education as the basis that will nurture creative intellect, proper world view, holistic personality, convergence-oriented attitude and global awareness — the qualities that people will need

throughout their lives.

Therefore, the work must begin quickly to replace the current public education curriculum with Receptivity Education that can foster the holistic human. And, highly advanced human talent produced through such education should be created to energize our workplaces and sustain our economic growth. Also, we should establish a content development and education system for rolling out holistic education both at home and at the workplace. Furthermore, lifelong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in parallel for the teachers that can run such a curriculum, as well as for the parents, the workforce, the retired and the elderly, so that everybody will benefit from this education in practical terms.

Lifelong education may be defined as an education system and policy that aims to consistently and relentlessly provide opportunities for learning throughout an individual's life, for enhancement of the person's standard of life and for technological advancement of the group. Many studies have revealed that participation rate in lifelong learning has a great socioeconomic impact, and in particular, that growth into a lifelong learning society acts as a crucial factor in the sustained growth of a nation's society. As such, the report has put together a design that will enable every person to recover their educational strength by providing at least a single opportunity to receive Receptivity Education within a person's lifespan in the framework of holistic

lifelong education, even for those individuals who have faced difficulty in their home education or in public education.

## 1. Public education strategy

One of the weaknesses of our education system today is that academic scores in school do not deeply connect to abilities for our work, home and practical social lives. There are many who scored high in English in school who cannot make use of English in their social lives, people with high ethics scores who will be the first to con others, people with high scores in history but lacking in historical awareness, and people with high math and science scores who behave illogically. This has been because the evaluation of education has focused on the school tests and college entrance exams that were needed only in those moments, and school education has not developed into a holistic system that can be utilized even in our homes and our workplaces.

### **Carrying out holistic education**

From the viewpoint of holistic education, study of the Korean language should be founded on improving the ability to comprehend text, which is the ability to receive, enhance and express information based on a proper style of cognition.

However, under the realities of unilateral and memorization-centric teaching solely geared towards answering exam questions, there is no nurturing of creative intellect. Also in history, one should be taught to obtain an awareness of history through the process of internalizing historical knowledge, but there is no such systematic intellectual training occurring. In ethics, students do not reach the level of recognizing truth but remain at levels where they can only make literal interpretations. In English, students appear to be capable of mere daily English, many having gone through language programs overseas, but our schools are failing to raise those who are equipped with the profound communication abilities that enable expression of their sentiments or ideology. Even in math, the realities are that education level is merely letting students solve problems by memorizing them instead of providing fundamental training that can foster logical and rational thought structure. Therefore, we must implement holistic education that can cultivate creative intellect, proper world view, holistic personality, convergence-oriented attitude and global awareness.

### **Change in assessment criteria**

It is also important to specifically define the criteria for assessment in schools. Finland does not assess its students with test scores, but rather through their daily behavior,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their learning abilities. In other words, it is an exemplary case of holistic personality education that places importance on basic life behavior rather than exams. As test scores are not an important assessment criterion, there is no such thing as a sense of inferiority. Of course, Finland also has exams like the ones in Korea, but the purpose of Finland's exams differs. While tests in Korea are a means to rank students, the tests in Finland are intended to identify those students with falling scores and place them under intensive education. The goal of Finland's education system is to enlighten those students who are in the dark. Such assessment criteria mark a massive difference between education in Finland and Korea, which can be found in the attitude of students towards study. Finnish students enjoy their studies. When a student does not know something and the teacher instructs the student tirelessly to make that student understand, from the student's standpoint, there is a realization of expanding knowledge and continued progress, making study enjoyable. Therefore, for Finnish students, studying is a proactive endeavor rather than a passive one.

To Korean students, however, study is something that must be done to raise one's score, to enter a good university and to succeed in society. Therefore, they become uninterested and passive about studying. In a survey of academic enthusiasm, over 70% of Korean students responded that "studying is arduous".

In contrast, over 70% of Finnish students answered, “studying is interesting”. When a reporter recently asked a Finnish educator a question on “the education systems of Korea and Finland”, the person responded as follows. “Korea is not a country we envy. Due to a system of excessive competition, the academic scores achieved may be outstanding but the children are not happy. We are not interested in such a system.” We must now begin our effort to convert our education system into one in which the students study and learn with enthusiasm and joy through public education.

### **Education that prepares for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recent advancemen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been dramatic. Especially after the application of deep learning methods, the speed of advancement has exceeded our imagination. At the current stage, artificial intelligence has surpassed humans in the ability to logically handle numbers and language. At a time such as this, we must reconsider what is taught in public education. Professor Jeong Jae-seung pointed out, “Despite being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Korea’s education is still obsessed with introducing English and Chinese lessons at as early a grade as possible into the education program. In core mathematics, the focus is only on solving exam questions without errors using mathematical intuition. Public education

ranks the students in a single file by evaluating them in these areas. But then these areas are the only areas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completely overpowers us. In this regard, Korea's education is cultivating people who are most likely to be obsolete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Our direction for education should be pointed towards nurturing man's unique instincts as differentiated from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is purpose, the focus must be on fostering robust emotion, multilingual capability, ability to communicate, leadership, creativity, imagination, insight for responding to change and positive thinking. In other words, education to develop creative human that can surpass artificial intelligence is absolutely necessary. In this regard, President of KAIST Kang Sung-mo's argument, “men must become creative human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tremendous significance. It is critical to apply Receptivity Education to public schools in order to boost human excellence by raising receptivity through holistic personality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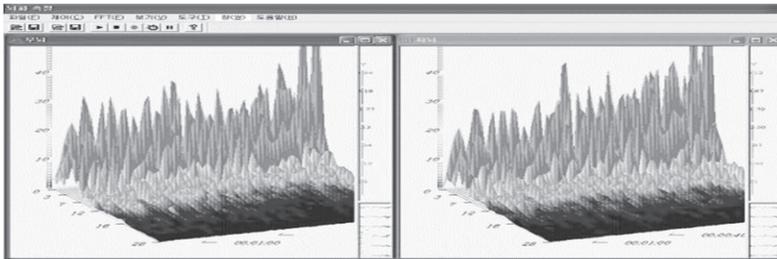
### **Change in faculty education**

In order to foster receptiv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future talent in students in particular, the role of the teachers is crucial. Systematic training and development of faculty on Receptivity Education, and future talent education are needed. And 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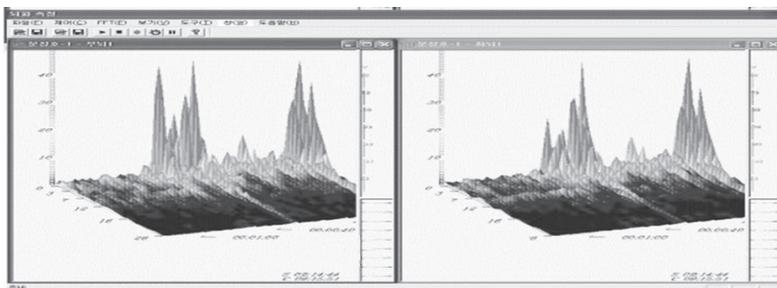
undergoing training themselves, the teachers should be able to experience the outcome of the education they are about to provide to the students, and the teachers should then be able to apply this experience in the field. To make this possible, a faculty basic education program consisting of 25 sessions has been designed. Over the past fifteen years, the program was conducted for over 14,000 teachers, and over a hundred research schools were operated. In the following section, by reviewing the results of Receptivity Education as rolled out by the faculty who have completed the training, this report aims to find the answers to public education innovation.

### **Results of implementing Receptivity Education in public schools**

According to research by Lee Ho-won, changes in students cannot occur by applying simple subject education programs, but great change can be prompted when Receptivity Education based on holistic personality education can be carried out systematically. The following graphic shows the left and right brainwaves of students who showed outstanding improvement in academic scores at D High School through Receptivity Education, before and after undergoing the education program. It is apparent that the brainwaves that were extremely erratic became stable after undergoing Receptivity Education, and the students showed highly advanced learning abilities with their brainwaves in the



Left and right brainwaves before education



Left and right brainwaves after education

latter stabilized state.

Subsequently, headmaster Lee Ho-won of DGA verified that accelerated learning was achieved through Receptivity Education. Through the nine stages of study, the ability to receive, enhance and express information was raised. When the subjects of social studies, history and science were taught to those students who had absorbed accelerated learning, they were able to understand and brief in three months all of the study contents that would have required a year's worth of classes. In the end, the ultimate purpose of accelerated learning is not learning ahead of one's

grade but attaining the ability to understand truth and the power to make this ability take root in one's mind.

According to a study by Assistant Principal Kim Man-seong of the Korea Culture & Media High School(KCMHS), implementing Receptivity Education in four schools in the Dongducheon area was able to surmount the challenges of the region, which has a severely poor educational environment; significant results were obtained. In the case of Dongducheon High School, a comparison of the DQ scores of second year students with their first year's showed an increase in all of the five categories of emotional capability, physical capability, intellectual capability, self-management capability and human relationship capability. Reviewing the changes over four years since 2011, attendance improved to over 99%, dropout rate fell to the 2% level, and there was not a single instance of school violence. University advancement rate changed most of all, with the number of students advancing to major colleges increasing consistently every year over the past 15 years. Even at the specialized KCMHS, positive results were achieved following Receptivity Education. Most new students at KCMHS suffered from underprivileged home environment and fell between academic score grades of 6 and 8, and this required an education that was differentiated in both personality and academic instructions. The most prominent change from conducting Receptivity Education was that the

students exhibited positive and pioneering attitudes. Through fully rounded growth, the students came to dream about their futures, and their post-graduation employment rate rose to 50% range, which is above the national average in the 40% range. In addition, extremely positive results were shown in the personalities and academic achievements of students at Dongducheon Middle School and Dongducheon Girls' Middle School.

## 2. Home education strategy

To solve the educational issues mentioned thus far and to develop talented individuals with advanced social consciousness, the home must become the starting point of education's recovery. The home is the first place where one learns the essence of what it means to be social as humans destined to live communal lives. As such, although education in school should be supplementary to education at home, many parents misunderstand home education as a preparatory step leading to school education and focus fervently on knowledge-centric socialization for their children, which results in neglect of social skills development and encouragement of extremely self-centric tendencies. From now on, we must move to normalize the socializing function of homes, while simultaneously normalizing school education as well.

At the center of normalizing home education are the parents. Parents' faulty thinking or behavior are causing difficulties for their children, but there are numerous cases where the parents think the problems lie with the children and unilaterally force their will. Therefore,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prepared for contents development and teaching aimed at analyzing and solving the parents' issues.

If the parents truly wish their children to change, they first must be humble towards their children. If they want their children to change, they must seek a direction suited to their children. Most parents have only their standards, but no consideration of their children's state. Not only do they not know their children's state well, they do not even make an effort to properly understand. They are convinced that they are in the right and feel proud of enforcing their thoughts, but are ignorant of the tremendous pain it inflicts on their children. Humility is the state of mind in which one escapes the self-centered way of thinking and truly serves others. For the children to change, it is important to trust them. When the parents show their trust as loving supporters of their children, the children will endeavor to return that trust someday, even if out of mere guilt. Following parents' thoughts voluntarily is a true choice and change. Enduring as a parent is a difficult task, but perseverance can make truly trusting and loving parents, and the genuineness of trust will not be lost on the children at all.

As such, before the children can be well-educated, a system must be prepared for operating parents' education programs that can first address the problems of the parents. Through such programs, we must teach the children not how to get ahead by beating others, but how to live a proper life. We must overcome materialism, avaricious egoism and worship of artificial success that will eat away at our children. For this purpose, we must steadily reinforce the children's intellectual capability, emotional capability, physical capability, self-management capability and human relationship capability, and help them maximize their respective talents.

### **3. Citizen education strategy through military education**

All Korean men serve in the military, carrying out a sacred duty of defending their own country as its citizens. The twenty-plus months of military service of a person is the time when the government utilizes citizens as soldiers under its full control. From the individual's viewpoint, however, this period is a period of severance. A person is severed from his family, school and work. It becomes time wasted. However, in reverse consideration, this period is the most apt opportunity during which the country can

educate its people. That is because all young men only become proud Korean citizens after completing this service. Then, if national service can evolve into a time of education that enables a person to live not only as a soldier but as a democratic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military service will be a time of citizen education and the armed forces will be its school. Education in the military must first focus on a soldier's ability to properly carry out his duties. In addition, a soldier must be trained into a person who will bear his obligations as a democratic citizen and fulfill his role as head of a family, worker and world citizen in the future.

To date, the armed forces have made numerous efforts to carry out their responsibility as the arena of citizen education. To minimize severance [experienced by the soldiers], an educational credit system was also introduced at one point. The problem was that the efforts did not amount to equivalent results. The reason was in the attitude of the learners, which was passive and poor. In other words, the field to receive the seeds of education was barren. As such, the direction of military education effectiveness should focus on how to improve the soldiers' receptivity rather than exerting more effort in a particular endeavor (Park Gi-ryeon, 2016).

For Receptivity Education, first the strength of the heart must be boosted. A person with a strong heart is positive and thinks proactively, exhibiting boldness of action in carrying out one's

duties. Second, intellectual capability must be enhanced in accordance with the age of information technology. Modern warfare is not a battle of hands and feet, but a war of brains. To enhance intellectual capabilities, the means thereof must be secured, and reading and English abilities are exactly those means. Assigning the period of military service under government control to securing these means will ultimately result in expanding the national wealth. Third, even with everything else endowed, all would be wasted if one wasn't healthy. Humans are destined to be confined to their bodies. Arming oneself with strength of the body is paramount. Emotional strength is only derived from a healthy body. The power of intellect is founded also on physical capability. Furthermore, a soldier's physical capability equates to that soldier's combat ability. Fourth, human relations should be improved. Life is a series of human relations. What's more is that today is the age of empathy and connectivity. It is also an age of the global community. It is a time when cooperation, collaboration and alliance should be made the essence of military organizations. Fifth, one must live with a vision. The time of military service should not be a time of severing one's dreams. To surmount this problem, one requires the ability to manage oneself so that one can properly utilize the resources available.

To soldiers who should grow into modern soldiers and democratic citizens, Receptivity Education should be given to

imbue them with proactive personality and capability. For this purpose, we should educate them into soldiers and democratic citizens armed evenly with the five elements of emotional capability, intellectual capability, physical capability, human relationships and self-management. The five elements are the fundamentals of holistic human development, and should be balanced with not one of them being neglected.

#### 4. Social education strategy

Social education can cover all education other than as provided by the unique educational functions of homes and schools. With the functional division of the modern society becoming increasingly complex, the func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is no longer confined to schools only. While we believe that the advent of meritocracy, or a society centered on people's abilities, will bring about the normalization of school education, easing of competition for university entrance and a more just and ideal society that we aspire to achieve, things are not so. The alternative is to build a new abilities-centric society, where the linkage of university entrance and job distribution to one's abilities are maintained, but the linkage between profession and compensation is reduced. In other words, we must build a society

in which systematic, social and cultural compensatory measures are in place to mitigate the distribution gap of social wealth between professions.

### **Learning the life of living together**

Although there are things that one must carry out on one's own, by nature of modern society, almost everything requires working together with others to achieve goals. Furthermore, in a knowledge-based society like today's, a wide range of people with diverse expert knowledge form organizations and work together to carry out their tasks, and preparing for this is crucial. A person cannot live alone but must live forming groups within society, and it is imperative to understand how to lead a life within communities or organizations, beyond the confines of personal boundaries.

One must first be equipped with the means to fulfill the duties of an organization, and also with the means to raise the productivity of the organization. In addition, one must be able to carry out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organization as well. As such, to operate an organization where people live together, the organization should be able to show its directionality.

Large numbers do not necessarily lead to great strength. The ability to combine forces and cause synergy among them is required. Without this ability, internal conflicts will prevent

the organization's potential from coming together as one and, at worst, can lead to greater losses for having formed the organization. As such, we must enable people to enhance their abilities and focus those abilities towards a common goal.

### **Enhancing human abilities**

Typical business textbooks that deal with human organizations explain to us that  $P(\text{productivity}) = a(\text{ability}) \times M(\text{motivation})$ . That is, if a large organization is to attain great productivity, the ability of the individuals must be high, and then they must be strongly motivated. In this scenario, the ability of the individual typically is expressed as a constant. In other words, as human capability does not change, in order to raise productivity, either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to heighten motivation or the people must be replaced. However, although the methods are not well known, human capability can be modified. Through restoration of one's holistic personality, one's receptivity can be improved and this can lead to enhanced abilities.

### **Focusing on the goal**

In nature, there are magnetic and non-magnetic materials, and magnetic materials are further divided into those with N polarity and those with S polarity. That said, it is extremely interesting that these disparate materials all consist of identical basic units.

When the magnetic units are all aligned towards the north, that is N polarity, when aligned towards the south then it is S polarity, and when scattered in all directions it is non-magnetic, as all the forces cancel each other. A mere collection of able people does not bring out great strength. Grand achievements are possible when people are aligned in the right direction, but alignment in the wrong direction can lead to ruin for all, and scattering will amount to no result at all. Therefore, people who belong to an organization must keep the proper direction of the organization in mind and, if the direction is the right one, must endeavor to head towards the same even if it differs from one's personal thoughts (Won Dong-Jin·Lee Il-Joo, 2016).

## 5. Senior education strategy

Aging is something that no one can avoid, and is the most natural process in life. But how one lives through old age, given as such, determines the final result of our lives. Nobody can circumvent becoming old, and all must successfully lead their lives through the second half. Ultimately, knowing how to live well in old age is the way to succeed without turning the entire life into a failure. However, a more serious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the issue of old age has gone beyond a personal one and into a national

and global one. Reviewing numer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ies on the subjec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they predict that each country's rise and fall in the future will hinge on how it tackles the imminent problem of aging society.

However, the biggest obstacle we face when trying to resolve the problem of the elderly is the rather entrenched prejudices against them in our society. It is about how we break through the view that the elderly, with all of their abilities diminished, are not a crucial component of society. M. P. Harrigan and R. L. Farmer are among the most prominent of the scholars who have pointed out that the societal prejudices against the elderly are mostly unfounded. It is encouraging that these scholars have begun to point out the fallacy of most of the prejudices against people of old age. Even if one is old, if one understands one's own value and live appropriately, it is more than possible for one to bear important responsibilities in the future.

### **Constrained problem**

To simplify and summarize the problems one faces in old age, they can be summed up into two categories. First are the constrained problems one has to face because of old age; second are the unconstrained problems that one may face anytime in life including youth, not necessarily because one has turned old.

First, the constrained problems occur due to being excluded

from activities one has continuously participated in thus far because one has aged enough to retire or to be considered elderly. Being excluded from work involuntarily leads to a substantial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shock to the elderly. Therefore, measures should be in place to prepare and give work back to them. To achieve this goal, there could be two ways — one of finding work again in the field one has worked in throughout one's life (paid work) and another of finding volunteer work that allows one to release the potential of one's old age. In the case of the US, where systems for the elderly are established with relative clarity, over 87% of all people age 65 and above are participating in either paid or volunteer work, and most declare that they enjoy happiness and a sense of achievement that equal what they experienced during their youth.

However, providing work to the elderly is not easy, but there is an alternative. It refers to a subtle mix that raises work productivity. In this regard, it is telling that quite a number of manufacturing companies have adopted a system in which laborers over the age of 65 are teamed up with younger workers in the same crew. This subtle mix, also called “the best mix”, is a system in which older workers with robust and seasoned skills and experience are placed on the same team with energetic junior workers to work together. Tasks that require skills and extensive experience are taken on by the older staff, and parts that require

boldness, experimental spirit, stamina and agility are carried by the younger. We should remind ourselves that this subtle mix of the seasoned elderly and the bold youth was the secret to how the western world survived after having entered an era of societal aging previously.

### **Unconstrained problem**

The second type of problems one faces entering old age are the unconstrained problems, or the kind of problems that one may encounter at all ages including youth, and not necessarily only at old age. Solving the aforementioned constrained problems is very difficult to tackle at the level of the individual. It requires external countermeasures provided by the country, the society or the family. But in realistic terms, although welfare for the elderly may be important, the policies are not prioritized above others and the likelihood of all of them being realized is low. In the end, to come up with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 elderly, it would be realistic to first adopt autonomous measures — solving the unconstrained problems at the level of the individual — and tackling the constrained problems over time. Everyone encounters issues with the five elements of emotional capability, physical capability, intellectual capability, self-management capability and human relations capability as they enter the twilight years. Therefore,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solve such unconstrained problems. It is a clear fact that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s in the future will be re-drafted in accordance with how effectively each country has addressed the challenge of population aging. In this regard, we hope that self-directed preparations for happy and meaningful old age are made based on Receptivity Education, and we hope that this will act as an important catalyst towards remaking Korea's mark in the history of the world.

## **World Citizen Education Strategy**

### **1. World citizen education**

In the future, interdependence among nations forming the global society will increase further, and globalization — the world transforming into a single society system in many crucial aspects — will intensify. The generation destined to live in this global age must be nurtured into world citizens armed with a sense of community and responsibility, pursuing humankind's universal values. Therefore, in the field of education we should teach students to become future-oriented talented individuals equipped with diversity, personality and creativity that seek cooperation rather than competition. It is also imperative to secure international sensitivity and vision, ability to communicate

internationally and global awareness that will enable one to form amicable relations with foreigners.

At the 2015 World Education Forum, Korea also proclaimed and selected “world citizen education” — a concept developed from the ideal of “Hong-ik-in-gan” [a concept that is said to have been the founding ideology of ancient Korea, which translates to “broadly benefitting mankind”] — as the goal for leading the world for the next fifteen years. Korea’s education system has been charg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proposing a direction for world citizen education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this ideal. What’s more is that Korea’s development from the ruins of the Korean War to today was only possible with the support of numerous countries, and assistance in the education sector played a particularly important part. Therefore, Korea must stand at the forefront and return the extensive wisdom obtained through education to the global world society.

To that end, we must raise our affinity for self-reflection, be armed with an exceptional work ethic, educate ourselves to develop the ability to communicate and cooperate and, in particular, enable communication through language by cultivating the capability to learn foreign languages that can greatly widen our range of thoughts and actions. Global awareness will allow us to work in global settings with foreigners from different cultures, and exercise the ability to proactively contribute to organizations and teams in

which we collaborate and cohabit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ducation system that will foster such consciousness.

## 2. The Global Education Community

The 21st century will be a time when great expectations will be on the importance of the Korean race's role in the global human society. It was not long ago when the Jewish people were said to be the most widely spread over the world, but now in the 21st century that distinction goes to the Korean people. In the US, Japan, China and Russia — countries that are leading today's world history — the numbers of Korean people are so large as to exert great influence in those countries. According to recent statistics, there are over 2.2 million Koreans in China, over 2 million in the US, over 0.7 million in Japan and over half a million in Russia. If the potential of each and every member of the Korean race is realized to the maximum, and the scattered Koreans can be interconnected to act in love and sacrifice for not only ourselves but for all mankind with our combined strength, then it will surely be possible for the Korean race to push world history in a positive direction.

Unfortunately, the history of the Korean race has flowed quite tragically. We lost our sovereignty for 36 years from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under Japanese imperial rule, and hardly a moment had passed after we reclaimed our nation that the bigger tragedy of the Korean War broke out. The Korean War was the beginning of our most wretched despair, splitting families and people in two, resulting in the current standoff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Due to these historical events that have dotted our past with hardships and suffering, the Korean race started to scatter. Some moved to China during the time of Japanese rule and formed a group of Korean people called Joseonjok. Those who were forced to relocate to Russia either moved further north to Sakhalin or to Central Asia to become the Goryeo folks. A large number of expats came to live in Japa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lso, following the Korean War, emigration led to a dramatic increase in Koreans in the US. There is another group that should not be overlooked, and they are the children who were adopted overseas. The flow of overseas adoptees that began with the Korean War orphans grew substantially even thereafter due to economic hardships or other social issues. Statistics tell us that there are over 140,000 Korean children adopted overseas in fifteen countries including the US, Canada, Australia, Switzerland, Sweden, France and Denmark.

While the Jewish people spread out gradually over thousands of years of history, the spread of Koreans occurred over a short period of only about a hundred years, and this resulted in greater

suffering and scars for those who lived through the history. For Koreans to rise above this pain and to bear the historic duty bestowed on our race in these times, bringing our race together into a single community would be a fine approach. And the means to achieve that goal is to use education as the bond that will bring together the Korean people scattered all over the world. Since education by nature is recognized as a common challenge to all mankind that transcends ideological and national boundaries, and since it is a field where people's interest is greater than any other, education can be easily shared. As such, we believe that building a "Korean people's education community" based on education would be a most practical solution.

However, when building a community, we must endeavor to keep the community's purpose from being transmuted into the collecting of power for our own self-interest. That is because if, by forming our community, we instill in ourselves a sense of special superiority or exclude and lead others to be wary of our people, it would be detracting to us instead. The goal of the Korean people's education community that we pursue should be that even if some power is formed during the process or as a result of building the community, the community should not consider only its own benefit, but use its power to support, serve and love the society in which the community exists. The means to build such a community is to weave together the Koreans spread throughout the world

through Receptivity Education, which maximizes human talent and educates people to share that talent with others.

And through this effort, the community should be expanded to a “Global Education Community” that shares strength with other races and loves mankind universally. By cultivating through Receptivity Education “holistic Diamond-collar human embracing the world” who has maximized one’s talent and helps others using that talent, we must rebuild education from its destitute, broken-down state, restore lost humanity, and enable the entire human race to live meaningful lives. Already in the past 20 years, many efforts have been made to build a Global Education Community through Receptivity Education yielding positive results.

**Toward the third world beyond Korea** (Lee Chang-ki, 2015)

Most of countries in the third world had become independent from the European powers such as Netherland, the UK and France after the World War II or in 1960’s. Most countries in Africa became independent in 1960’s. Korea became independent from Japan in 1945 while the land devastated through the Korea War in 1950’s. However, Korea has been developed its economy in the name of the Miracle of Han River and she has grown as the seventh largest country in world trade volume in 2016. We, the citizen of the world, are needed to seek how Korea has been developed from a colony that was same condition to the African

countries and to share it among us.

Countries in Africa has been received a tremendous funds of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rom the European countries and the USA since 1960's. Still their governmental budgets are executed considerably based on aids, however, they have not escaped from the poor conditions at the times of independence. Though several countries in Africa shows high rate of economic growth, they are still facing fundamental barriers to overcome to be mid-level countries through real economic development. To do so, they should be economically developed through finding and removing of common obstacles of their economic development. A systematic approach with analyses in multi-aspects such as environment, culture, sprit and education is needed for more specific execution of development. To propose an alternative, issues have been analyzed for Tanzania that locates in the east of African peninsular consisted of 54 countries.

Though Tanzania has a similar factor in politics and in environment with Korea, it has achieved no growth after the independence from the UK in 1964. The population of Tanzania is about 50 million, similar to that of Korea, and the passion for education is high comparing with that of other countries. Recently, industries have been developed and a high economic growth rate has been shown in Tanzania because of aggressive investments from Chinese economy, monetary inflows owing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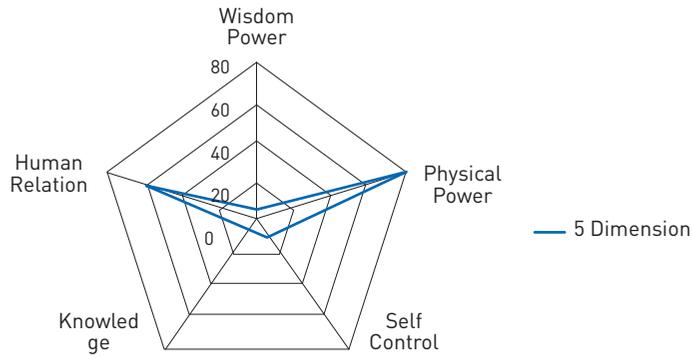
political instability in Somalia, Kenya and Burundi and money shift owing to the conflict between black and white in South Africa. Especially, the average economic growth rate between 2011 and 2015 was 7.2%. This is an encouraging index and also shows a possibility for the several African countries to pull the world economy. However, internal indices shows may problems in spite of the high economic growth rate. Unless Tanzania will overcome those problems, warnings of stagnation or recession have been given in various fields.

Problems of Tanzania can be categorized in four aspects as shown in the 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25. These obstacles to the national development are 1) a donor dependency syndrome and defeatist developmental mindset, 2) a weak and low capacity for economic management, 3) failures in good governance and in the organization of production, and 4) an ineffective implementation syndrome. The government of Tanzania has made a ceaseless effort to overcome these, however, it has not taken root for policies and has experienced difficulties owing the obstacles to economic development. Korea had similar syndromes before. For example, they said “Coins will be coins” as a self-mocking saying when something had not accomplished. Here, ‘coins’ is a depreciating word that had been used by Japanese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Though this wording had been unconsciously used by Korean as they assumed they

could accomplish nothing and such a tendency has disappeared as the Korean economy had been developing. Korea has a creative view of history for the year of thousands. Nevertheless, Korean had depreciated them and had been obsequious because of Japanese colonial policy to obliterate human spirit. However, Korean has converted this negative spiritual culture into the positive attitudes and passion and they has accomplished a new spiritual culture, “Can Do”,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Tanzanian people are needed to have a “belief that we can do” and to be “motivated by the self-confidence” based on the belief. They are also needed to follow the specific and practical education that can change the spiritual culture with the power of knowledge, mind, self-control and an upright view of the world. This can be shown in the Figure 1, Obstacles of Tanzanian development analyzed with 5 dimension factors. When they are educated with the self-confidence that they can do by themselves (the power of wisdom), are educated not superficially but specifically (the power of knowledge), are equipped with the capacity of self-control, and are complemented with the view of the world reflected the historical circumstance, Tanzania, that is endowed with rich resources (about 40 kinds of mineral including oil and natural gas), a great land (10 times of Korea), living natural environments (10 of world-level national parks) and a proper distribution of population (the population of under 17 years are half), will be a center in the

**Obstacles of Tanzanian development analyzed  
with 5 Dimensional Education factors**



world. Moreover, Tanzania has a good potential to be a political leading country in the east Africa and a center of Africa as well because it had experienced the strong patriotism of the first President and the Founder Mr. Julius Nyerere and the Uzama Movement that was similar to the New Community Movement in Korea, Thus, Tanzania will be a model country of economic development in Africa when it integrates these five factors, implements the second Uzama Spiritual Movement and also introduces the experiences in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Issues reviewed above are not the problem of Tanzania only but a universal problem of countries in the third world. And eventually the global education community networks by 5 Dimensional Education will positive effect to the 3rd world countries.

## **Unification Education Strategy**

The division of Korea caused a single race of people in the same location to split in two and led to the following pains that have been among the greatest in human history. These are the friction between a country of utmost poverty and a country of high economic development, the ideological battle between communism and capitalism, and the extreme conflict between theism and atheism, to name a few. If Korea, having experienced extreme destitution and tragedy of fratricide amongst its own people, can surmount these problems and safely solidify itself as a stable, unified country, it can present a new future vision and hope to those countri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are undergoing the same pains. Therefore, the ability to solve the problem of the divided Korea will enable us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pursuit of universal human values and rules. And we must be able to share the insight gained in the process with the numerous countries of the world.

However, the process of unification cannot move forward only by our own standards, and unless it is a reunion that both sides can agree and accept, it will become the beginning of yet another conflict. While the timing of reunification cannot be accurately forecast, what is clear is that as the number of people from the generation that experienced the divide firsthand is decreases, the disparity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will only broaden. From this viewpoint, it may be stated that unification education strategy for reinforcing the capacity of the future generation to lead unified Korea will cover a critical part of future education strategy.

## 1. Unification education strategy

Sorting through discussions on unification education, it can be said that its current form consists mainly of education that delivers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unification and North Korea. Then, there is a need that unification education as a part of the national future education strategy should be accompanied by discussions on what environment the future generation living

in the post-unification Korea will be facing and what capabilities they should develop. Emphasis is on an education strategy that will prepare for unification over a more comprehensive scope, and cultivate in a more detailed manner the capabilities that will allow us to live through the unified society. Therefore, instead of simply conducting education on the level of deliver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unification and homeland security, the educational direction should be set towards developing capabilities that will contribute to social unity by cultivating the citizens' capacity(Yun Deok-min, 2015).

### **Receptivity education for reinforcing unification capabilities**

Summarizing the discussion so far, while the current unification education leans heavily towards provid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for preparing for unification, realization of true internal unity in the future unified society will require base support from the capability of citizens to correctly absorb and act on such knowledge and information. Towards this end, unification education must be able to nurture the capacity to understand and empathize with “differences” among us, and to resolve conflicts through appropriate communication. Furthermore, since internal unity is a challenge that cannot be conquered in the short term, it should be included in the consideration of future education strategy from a long term point of view.

The direction and strategy for this type of unification education may be understood in the same vein as the goals pursued by Receptivity Education. Receptivity Education categorizes human capability into the five internal and external elements (intellect, emotion, body, self-management, human relations) and explains that distortion of these elements causes differences in learning capacity. What Receptivity Education proposes is that, similar to the base assumptions of social constructivism, everyone's abilities manifest in a varying manner through process of socialization, and in order to boost educational effectiveness,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inward and outward facing abilities(O Yun-gyeong, 2015).

Unification education is one of the crucial future education strategies that must be continued until Korea's reunification is achieved, and furthermore until the deeper fundamental issue of social unity between South and North is attained. At a point when we have passed the 70-year mark since the country's division, it is necessary to build a long-term comprehensive paradigm for unification education, and also necessary to have a discussion on the educational methodology that will enhance people's receptivity in order to boost civic capacity in a more fundamental manner.

## 2. South-North education exchange organization

Unification education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South Korean youth who will become actual members of the future society. However, the reality is that a tall barrier exists between the South Koreans and the North Koreans who have already settled in the South, and we do not even have any realistic plans to overcome that barrier. If we cannot resolve this problem as it exists today, it will be even more challenging for the two Koreas to coexist after reunification.

The unified Korea must break out of its closed national sentiment and progress towards an open society in order to recover our national homogeneity. For this purpose, a “South-North education exchange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take charge of unification education, and joint education should be carried out for both newly relocated students [from the North] and South Korean students using summer vacation, etc. Through this endeavor, a system should be built up to identify in advance and resolve those problems that could arise during the curriculum that would be given after unification. We must provide education that will enable youths that have lived in disparate societies of the North and the South to surmount the cultural barrier between them, and allow them to move forward as partners of the future(Im Gyeong-ho, 2016).

### 3. Multicultural family education strategy

Unification education in its core should be an education that achieves social unity for everyon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is social unity should be seen from a global perspective beyond the confines of the Korean race. If unification is seen only from a nationalistic viewpoint, multicultural families could be excluded and this will not result in true social unity. Although it is important for unification education to recover homogeneity and necessity, we must embrace diversity as well.

The structure of Korea's population is in an extremely dire state. The earth's population, numbering 7.2 billion in 2015, is anticipated to approach 10 billion by 2050. In contrast,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whose population is expected to decline. Furthermore, the productive section of the population from ages 15 to 65 will reach its maximum in 2016 and will continually decrease thereafter, while the older population will increase dramatically. The students currently in middle school and in the upper grades in elementary school will sequentially shock the high school private education market, the universities and the job market as they grow older. To address this population issue, many foreigners have come to Korea, and the time has come when it is imperative to know how to live well together with them. As of 2013, there are 1.57 million registered aliens living in

Korea, and combining them with illegal immigrants and foreigners on temporary visits will push that number to a substantial two million. In addition, intercultural marriages between Koreans and those from other countries now account for 10% of all marriages, and 4% of all babies born in Korea are multicultural. It is imperative that this situation be properly understood and that we secure a system that can properly accept such times.

## Epilogue

It was not an easy task to forecast the future and prepare responses for it, but it was made possible because we did not work alone. Almost a hundred committee members gladly gave over a year of their time to this endeavor. At first, overshadowing everything was the concern that we would be unable to find the answers to education, which have been elusive for over the past 60 years. However, by letting go of the obstinately entrenched prejudices, a glimmer of a solution started to reveal itself. Little by little, we came to discover the essential true form of human education from the small word “receptivity”.

In particular, if it hadn't been for the experiences of the numerous teachers who understood this concept and fought for the students in the field for over 20 years, we feel this report

would have ended up simply as just another exercise in theory. However, the contents of this report are realities infused with deep thought and hard work. As such, we trust and anticipate that the vast contents proposed in this report will be quickly planted and made to bear fruit.

Even if only from this moment, Korea must carry out Receptivity Education based on holistic personality education, and nurture human talent that will use its strength gained from education not only oneself but to serve and love the other people of the world. Only then will we be able to solve the many daunting challenges before us, bear the national duty bestowed upon us, and progress with peace as our basis in the right path of a history that pursues mankind's happiness creatively in the advanced technological society.

The editors



대한민국  
국가미래교육전략